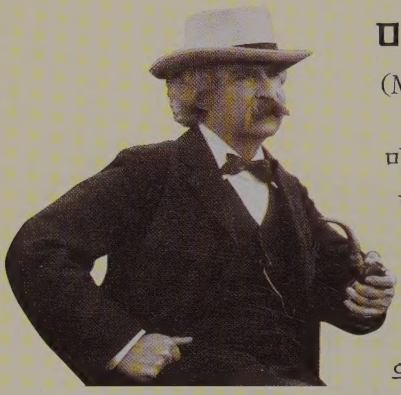
네버랜드 클래식 10
The Prince and the Pauper
왕자와 거지
마크 트웨인 글 · 이희재 옮김
시공주니어

마크 트웨인의 아내 올리비아와 세 딸(왼쪽부터 수지, 진, 올리비아, 클라라)
마크 트웨인이 《왕자와 거지》를 쓸 당시 아내 올리비아는
왕자와 거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늘 궁금해했다고 한다.
수지와 클라라도 《왕자와 거지》의 열성적인 독자로, 마크 트웨인은
책이 완성되자 두 딸에게 바치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실었다.



마크 트웨인

(Mark Twain, 1835~1910)

마크 트웨인은 미국 근대 소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작가 중 한 사람으로, 본명은 사무엘 랭혼 클레멘스(Samuel Langhorne Clemens)이다. 그는 미국 미주리 주의 플로리다에서 태어나 미시시피 강변의 한니발에서 자랐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가족의 생계를 도와야 했던 그는 인쇄공으로, 식자공으로 각지를 전전하다 미시시피 강의 수로 안내인이 되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은 '깊이가 두 길' 밖에 안 되는 강을 뜻하는 뱃사람들의 용어이다. 수로 안내인으로 일을 하던 이 시절의 추억을 마크 트웨인은 후에 자전적 소설인 《미시시피 강의 생활》에 아낌없이 풀어 놓았다. 남북 전쟁으로 수로 안내인을 그만두게 된 마크 트웨인은 남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지만 전쟁에 환멸을 느끼고 곧 제대하여 서부로 이주했다. 그 후 광산기사 생활을 거쳐 신문 기자로 일했는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은 이 때부터 사용했다. 그는 신문에 우스꽝스러운 여행기를 발표하면서 서서히 재능을 인정 받기 시작했고, 유머러스한 단편을 쓰면서 유명 작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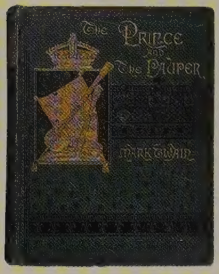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거쳤지만 낙천적이고 자유분방한 기질을 잃지 않았던 마크 트웨인은 유럽과 성지로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철부지의 해외 여행기》를 발표하기도 했다.

마크 트웨인은 당시 사회를 풍자한 소설로 명성을 얻었다. 대표적인 작품 《도금 시대》는 남북 전쟁이 끝난 뒤 겉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내용은 너무나 형편 없는 미국 사회를 풍자한 책으로, 훗날 이 책의 이름인 《도금 시대》는 남북 전쟁이 끝난 뒤의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어서 《왕자와 거지》, 《코네티컷의 양키》, 《아더 왕 궁정에 가다》 등 당시 사회를 비판하여 풍자 문학에 큰 기여를 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쓴 《톰 소여의 모험》과 탁월한 미국 소설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사랑받는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1876년에 쓰여진 《톰 소여의 모험》은 제목 그대로 미시시피 강변의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년 톰 소여의 모험담이 담긴 이야기이다. 마크 트웨인은 자신의 특유의 장점인 풍자와 해학을 작품 속에 드러내며 문명 사회와 전통과 인습에 젖은 사회를 비판했다. 동시에 미시시피 강의 생생한 묘사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했다. 이후 《톰 소여의 모험》의 속편으로 알려진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1884년에 출판되었다. 헤밍웨이는 이 작품을 두고 미국 근대 소설의 기원이라며, 마크 트웨인의 글솜씨를 높이 칭찬했다. 작품 속 주인공 허클베리 핀은 문명 생활에 싫증을 느끼며 뗏목을 타고 미시시피 강으로 내려간다. 그 뗏목에 도망친 흑인 노예 짐이 올라타며 함께 모험을 즐긴다. 당시 거론되기 힘들었던 흑인 문제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미국 사회의 관습과 제도를 날카롭게 비판하여 미국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크 트웨인은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자연 본성에서 미국 정신을 찾으려고 했다. 그래서 그가 미시시피 강변에 있는 작은 마을, 한니발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수로 안내인으로 일했던 경험은 소중한 문학적 재산이 되었다. 마크 트웨인은 이 소중한 체험을 생생한 인물 묘사, 형식과 격식을 벗어난 말투, 그리고 뛰어난 유머와 풍자로 막힘 없이 풀어 내어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가 좋아하는 뛰어난 이야기꾼으로 인정 받게 되었다.

왕자와 거지



《왕자와 거지》는 마크 트웨인의 대표적인 풍자 문학 작품으로 옛날, 아주 먼 옛날 영국 왕 헨리 8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왕세자 에드워드 6세와 거지 톰 캔티가 서로 옷을 바꿔 입으며 일어나는 이야기이다.

영국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는 헨리 8세와 에드워드 6세, 허트포드 등 실존 인물이 많이 나오며, 그 시대 왕실의 모습과 사회 현실이 아주 상세히 그려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크 트웨인이 머리말에 쓴 것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착각할 정도이다.

실제로 영국의 헨리 8세는 6명과 결혼을 했는데, 메리는 첫 번째 아내인 캐서린과 그 사이에서, 엘리자베스는 두 번째 아내인 앤 블린과 그 사이에서, 《왕자와 거지》 속의 주인공 에드워드 6세는 세 번째 아내인 제인 시모어와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을 하기 위해 영국 교회를 로마 교회로부터 독립시켜 영국 국교회를 새로 만들었다. 또 화려한 행사와 전쟁으로 국고는 바닥날 정도로 재정이 어려웠다. 젊어서는 패기와 용기가 있어서 중요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늙어서는 과대망상에 걸려 남을 쉽게 의심하고, 신경질적이고 광포해서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변했다. 헨리 8세가 다스리던 그 당시의 모든 법은 왕 중심이었다. 백성들은 부당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많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생활이 힘들었다. 그래서 거리에는 구걸하는 거지와 부랑자들이 득실득실하던 때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탄생한 《왕자와 거지》에는 권력자의 횡포를 비판한 마크 트웨인 특유의 날카로움이 살아 있다.

《왕자와 거지》 작품 속의 주인공 톰 캔티도 거지와 부랑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태어나 구걸하는 일과 매맞는 일이 생활의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톰은 진짜 왕자 에드워드를 만나게 되고, 왕자는 톰의 소원을 들어 주기 위해 옷을 서로 바꿔 입는다. 그런데 진짜 왕자 에드워드를 톰으로 착각한 호위병들은 왕자를 궁 밖으로 쫓아 내고 만다.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왕자가 되어 버린 톰은 왕자의 생활을 즐기지만, 수십 명의 손을 거쳐야 옷을 입을 수 있고, 필요 없는 격식과 예의를 차려야 하고, 형식적인 업무처리 따위가 거추장스럽기만 하다. 한편 부랑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에드워드 왕자는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직접 체험하며 법률이 백성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 그리하여 다시 왕위를 되찾았을 때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혹독한 법률들을 완화시키고, 극빈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세운다.

마크 트웨인은 《왕자와 거지》에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몸으로 체험한 에드워드 왕자를 통해 권력자가 실천해야 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고 있다. 또한 톰을 통해서는 당시 사회의 보수성과 허례허식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왕자와 거지》는 1881년에 출간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지금까지도 독자들을 사로잡는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 어려움을 극복하며 헤쳐 나가는 두 주인공의 용기와 인내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마크 트웨인의 딸 수지는 《왕자와 거지》를 읽고 "아버지의 어떤 책보다 흥미 있고 감동적이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다시 읽는 사람이건, 혹은 처음 읽는 사람이건 수지와 같은 감동을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길 바란다.

《왕자와 거지》에서 만나는 사람들

톰 캔티와 에드워드 6세

톰 캔티는 아침마다 넝마를 걸치고 나가 구걸을 하는 거지 소년이다. 왕자가 되고 싶은 꿈을 잃지 않던 톰은 우연히 진짜 왕자 에드워드를 만난다. 왕자는 거지 톰의 소원을 들어 주기 위해 옷을 바꿔 입고 가짜 거지가 된다. 거지가 된 에드워드 왕자는 부랑자 패거리에게 희롱과 놀림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하며 방방곡곡을 떠돈다. 한편 톰 캔티는 실제로 왕자 행세를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푼다. 후에 옥새의 행방이 밝혀지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에드워드는 왕으로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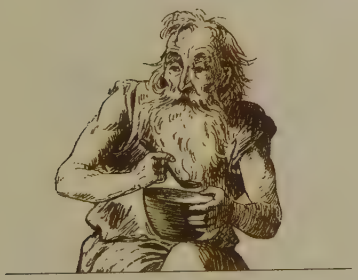
마일스 헨든

거지가 된 에드워드 왕자가 길거리에서 조롱당하고 있을 때 도와 주는 구세주다. 거지 소년이 '진짜 왕자'라고 하는 말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 에드워드 왕자와 함께 동행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준다. 동생 휴의 속임수에 넘어가 감옥에 갇히고 조롱을 당하지만 후에 에드워드 왕자가 진짜 왕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사 작위를 받는다.

허트포드
톰 캔티가 자신이 거지라는 사실을 말하나 믿지 않고, 그를 왕자로 대우하며 옆에서 보필하는 귀족. 에드워드 왕자의 외삼촌이다. 톰에게 왕자가 지켜야 할 예의와 일들을 귀띔해 주고 충고해 준다. 후에 진짜 왕자 에드워드가 나타나 옥새의 행방을 알려 주자, 그제야 진실을 깨닫는다.

휴 헨든
마일스 헨든의 동생. 가짜 편지를 써서 마일스의 죽음을 알리고 집안의 재산을 가로챈다. 또 형이 사랑하는 에디스를 협박하여 아내로 삼는다. 형 마일스가 집으로 찾아오나 모르는척 위장하며 감옥에 가둔다. 이 모든 일을 훤히 알고 있는 마일스의 동행자 에드워드는 왕이 된 후 휴의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가둔다.

존 캔티
톰 캔티의 아버지로, 항상 술에 취해 비틀대고 험한 소리를 지껄이는 거지이다. 도둑 패거리와 함께 돌아다니며, 톰이 한 푼도 벌지 못한 날은 욕을 하며 매를 때린다.



숲 속의 노인
거지 패거리를 피해 달아난 에드워드가 숲 속에서 만난 은자. 자신이 천사장이라고 말하며 에드워드를 따뜻하게 보살핀다. 하지만 헨리 8세에 대한 미움으로 왕자라고 밝힌 에드워드를 잠든 틈을 타 죽이려고 한다.

"왕자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한테 무릎을 꿇으시다뇨!"
《왕자와 거지》는 마크 트웨인의 하트포드 집에서 연극으로 올려졌다. 마크 트웨인의 딸 클라라가 에드워드 왕자의 사촌 누나 제인 그레이를, 이웃집의 소년이 거지 톰 캔티 역할을 맡아 연극을 하고 있다. 마크 트웨인은 연극을 본 후 "다른 어떤 연극보다 감동스럽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왕자와 거지

SEOUL, 2002

이희재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독문학을 수료했다. 지금은 전문 번역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남자만의 고독》,《말하기의 다른 방법》,《꿈과 상상의 여행》들이 있고, 동화《핑크트헨과 안톤》이 있다.

왕자와 거지

지은이 마크 트웨인
옮긴이 | 이희재
초판 제1쇄 발행일 | 2002년 4월 15일
초판 재10쇄 발행일 | 2005년 1월 10일
발행인 | 전재국 발행처 | (주)시공사
주소 |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1
전화 | 영업 598-5601 편집 588-3121
인터넷 홈페이지 www.sigongjunior.com

THE PRINCE AND THE PAUPER by Mark Twain
Copyright © 1882 by Mark Twain

ISBN 89-527-2349-X 73840

왕자와 거지

마크 트웨인 글 · 이희재 옮김

시공주니어

자비라는 덕성은…… 이중으로 축복받는 거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두루 축복하는 것이니,
미덕 중에서도 최고의 미덕이며,
국왕의 왕관보다 더 국왕답게 해 주는 덕성이오.
《베니스의 상인》에서

예의바르고 상냥한 두 어린이 수지와 클라라에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책을 바친다.

차례

머리말 …… 11

1. 왕자와 거지의 탄생…… 13

2. 톰의 어린 시절…… 15

3. 왕자와 톰의 만남…… 23

4. 고생길로 접어든 왕자…… 37

5. 벼락출세한 톰…… 44

6. 어명…… 57

7. 궁전에서 한 첫 식사…… 71

8. 옥새의 행방…… 78

9. 강변의 행사…… 82

10. 올가미에 걸린 왕자…… 87

11. 시청에서…… 102

12. 왕자와 구세주…… 110

13. 사라진 왕자…… 131

14. 새 왕 만세!…… 140

15. 톰의 왕 노릇…… 159

16. 중요한 만찬…… 178

17. 바보 나라 왕 푸푸 1세…… 183

18. 거지 패에 섞인 왕자…… 201

19. 농민과 어울린 왕…… 215

20. 왕자와 은자…… 226

21. 헨든의 출현…… 238

22. 배신의 대가…… 246

23. 죄인이 된 왕자…… 256

24. 도망…… 262

25. 헨든의 집…… 268

26. 버림받은 사람…… 282

27. 감옥에서…… 290

28. 희생…… 308

29. 다시 런던으로…… 315

30. 달라진 톰…… 320

31. 축하 행진…… 325

32. 대관식 날…… 335

33. 에드워드 왕…… 355

34. 정의와 응징…… 369

덧붙이는 글…… 374

두루 덧붙이는 글…… 383

옮긴이의 말…… 384

왕자와 거지

머리말

나는 어떤 사람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적는다.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한테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아버지는 또 아버지한테서,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또 아버지한테서…….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는 자꾸자꾸 올라가 3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버지들의 이야기는 대대로 그 아들을 통해 전해 내려온 것이다. 그것은 역사일 수도 있고, 기껏해야 전설이나 구전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지도 모르고 지어 낸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오래 전 지혜롭고 많이 배운 이들도 이 이야기를 믿었겠지만, 정작 이 이야기를 사랑하고 철석같이 받아들인 사람은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뿐이었는지도 모른다.

1. 왕자와 거지의 탄생

옛날 런던에서, 1500년대를 넷으로 나누었을 때 둘째 토막에 해당하는 시대의 어느 가을날, 한 사내 아이가 가난한 캔티 집안에 태어났다. 그 집은 아이를 반기지 않았다. 바로 같은 날 또 한 명의 아이가 영국의 부유한 튜더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 집안은 아이를 반겼고, 온 나라가 함께 그 아이를 반겼다. 영국 국민은 모두 그 아이가 태어나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려 왔다. 모두들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자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저 얼굴만 아는 사이라도 서로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세상이 떠나

갈 듯 환호했다. 너나없이 바쁜 일을 접어 두고는 지위가 높건 낮건 돈이 많건 적건, 모두들 한데 어우러져 춤추고 노래 부르며 얼근히 술에 취했다. 며칠 동안 줄곧 그렇게 잔치판을 벌였다. 이때 런던의 낮 풍경은 참으로 볼 만했다. 발코니마다 지붕마다 화사한 깃발이 나부끼고, 화려한 가장행렬이 이어졌다. 런던은 밤에도 볼 만했다. 사람들은 네거리마다 모닥불을 크게 피워 놓고는 흥에 겨워 왁자지껄 떠들면서 모닥불 주위에서 무리지어 놀았다. 나라 어디를 가도 귀에 들리는 것은 갓 태어난 에드워드 튜더 왕세자의 이야기뿐이었다. 이런 야단법석을 까맣게 모르는 채 비단과 공단에 싸여 누워 있던 그 아이는 내로라 하는 귀족과 귀부인이 자기를 보살피며 지키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 리가 없었다. 그런 일엔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

그러나 넝마 조각에 싸여 있는 톰 캔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지 가족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방금 태어난 이 아이가 가족에게는 오히려 골칫거리였다.

2. 톰의 어린 시절

런던은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커다란 도시였고, 인구는 10만 명이 넘었다. 하지만 거리는 비좁고 꼬불꼬불한데다 지저분했다. 런던교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톰 캔티네 동네는 특히 지저분했다.

그곳의 집들은 대부분 나무로 지어져 있었다. 그런데 2층은 1층 위로 불거져 나오고, 3층은 2층 너머로 팔꿈치를 내민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단단한 기둥과 들보를 얼기설기 엮은 골조 사이로 단단한 재료를 채워 넣고, 겉은 회반죽으로 바른 집들이었다. 단지 집주인의 취향에 따라 빨강, 파랑, 검정으로 칠해진 기둥의 빛깔이 눈길을 끌 뿐이었다. 다이아몬드 모양의 창유리가 반짝거리는 창문은, 작지만 경첩이 달려 있어 방문처럼 밖으로 열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톰 캔티네는 오펄 코트에서 살았다. 푸딩로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있는 오펄 코트는 허물어져 가는 작고 너절한 건물이었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곳이었다. 캔티네는 3층의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부모가 쓰는 침대틀 비슷한 것이 있었다. 그렇지만 톰과 할머니, 두 누이 벳과 낸한테는 정해진 잠자리가 따로 없었고 방 어디에서든 마음 내키는 대로 잤다. 다 떨어진 담요 한두 장과 낡고 지저분한 짚단이 몇 뭉치 있었지만, 그건 사실 침대라고 할 수 없었다. 아침이면 발로 뻥뻥 차서 되는대로 쌓아 놓았다가 밤이면 대충 모아 요로 삼는 것이었다.

벳과 낸은 둘 다 열다섯 살로, 쌍둥이였다. 마음씨는 고왔고 누더기 옷을 걸쳐 몰골은 꾀죄죄했으며, 글은 한 줄도 못 읽었다. 엄마도 쌍둥이와 비슷한 처지였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할머니는 망나니였다. 술만 마셨다 하면 자기들끼리 악다구니를 써 대거나 애꿎은 사람을 놓고 시비 걸기 일쑤였다. 술에 취해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쌍소리와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는 도둑이었고, 할머니는 거지였다. 두 모자는 아이들도 결국 거지로 만들었지만, 도둑으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사이에 멀쩡한 사람이 한 명 살고 있었다. 왕에게 밉보여 몇 푼 안 되는 연금을 받고 교회에서 쫓겨난 마음씨 고운 늙은 신부였다. 그 신부의 이름은 앤드루였다. 앤드루 신부는 조무래기들을 곁으로

불러모아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을 남몰래 가르쳐 주었다. 앤드루 신부는 톰에게 라틴어를 조금씩 가르쳤고, 읽고 쓰는 법도 지도했다. 앤드루 신부는 여자 아이도 마다하지 않고 얼마든지 가르칠 사람이었지만, 여자 아이들은 친구들이 비웃을까봐 두려워 아무도 배우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글을 읽고 쓰는 그런 요상한 재주를 가진 여자 아이를 꼴사납게 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이다.

오펄 코트는 캔티네 같은 사람들로 바글바글했다. 밤이면 밤마다 술에 취해 악을 쓰고 싸움질을 해 대는 것도 이곳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머리가 깨진 사람은 밥을 굶는 사람만큼이나 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어린 톰이 불행에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생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고생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오펄 코트에 사는 남자 아이는 예외 없이 누구나 그렇게 컸으므로, 톰은 그것이 자연스럽고 편한 것으로 여겼다. 한밤중에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욕설을 퍼부으며 다짜고짜 후려치고, 겨우 아버지 손에서 풀려나면 이번에는 한술 더 뜨는 할머니한테 또다시 시달려야 한다는 것을 톰은 알고 있었다. 밤이 이슥해지면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엄마가 형편 없는 음식 찌꺼기나 빵 부스러기를 톰에게 몰래 찔러 넣어 주었다. 자신은 굶으면서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남겨 놓은 것이다.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아버지는 자기를 배신했다는 이유로 엄마를 흠씬 두들겨 팼다.

그렇게 톰의 생활은 물 흐르듯 흘러갔다. 특히 여름이 괜찮았다. 구걸을 금지하는 법이 엄격한데다 벌금도 많았기 때문에 자기 한 입 풀칠할 정도만 구걸하면 되었다. 그래서 톰은 마음씨 좋은 앤드루 신부님이 들려 주는 거인과 요정, 난쟁이와 도깨비, 마법에 걸린 성과 멋진 임금님과 왕자가 나오는 옛날 이야기와 전설을 마음껏 들을 수 있었다. 커 갈수록 톰의 머릿속은 이런 놀라운 주인공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톰은 어둠 속에서 피로와 허기에 지치고, 매를 맞아 욱신거리는 몸을 얼마 안 되는 까칠까칠한 지푸라기 위에 누이고 상상의 나래를 폈다. 자신이 왕실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는 왕자였으면

하는 달콤한 상상에 젖다 보면 아픔과 고통은 금세 사라져 버렸다. 밤낮없이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소망은 자기의 두 눈으로 진짜 왕자를 보는 거였다. 한번은 동네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꺼냈다가 비웃음과 조롱을 한 몸에 받았다. 그 다음부터 톰은 그 꿈을 가슴 속에만 묻어 두기로 마음먹었다.

톰은 틈나는 대로 신부님의 낡은 책을 읽었다.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는 신부님께 설명해 달라고 졸랐다. 이렇게 책을 읽고 꿈을 꾸는 가운데 톰은 조금씩 달라져 갔다. 꿈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들 깨끗했기 때문에 톰은 자기가 걸친 누추한 옷과 몸에 덕지덕지 붙은 때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도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어 보고 싶어했다. 그러나 진흙탕에서 뒹굴며 노는 것은 여전했다. 톰도 그게 싫지는 않았다. 예전 같으면 그냥 재미로 템스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았지만, 이제는 그러는 동안 옷과 몸을 깨끗하게 씻을 줄 알게 되었다.

톰은 늘 칩사이드에 있는 오월 축제 기둥 언저리나 장터에서 재미난·볼거리를 찾아 내곤 했다. 가끔씩은 런던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불운하게도 죄수의 몸으로 걷거나 배를 타고 런던탑으로 포졸에게 붙들려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앤 애스큐라는 불쌍한 여자와 세 명의 남자가 스미스필드에 있는 화형대에서 화형당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주교를 지냈다는 사람이 그이들에게 설

교를 했지만 톰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다. 어쨌든 톰은 지루하지 않게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왕자의 생활을 꿈꾸며 자신의 상상에 걸맞는 책만 읽다 보니 어느 새 톰은 자기도 모르게 진짜 왕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톰의 말투와 몸짓은 눈에 띄게 예의바르고 점잖아졌다. 친구들은 그런 톰의 모습을 재미있어하면서도 속으로는 감탄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톰의 영향력은 커져만 갔다. 아이들이 점점 톰을 우러러보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톰을 자기들과는 바탕이 다른,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다. 톰은 아는 것이 많았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근사했다. 게다가 생각도 깊고 넓었다. 톰이 한 말과 톰이 한 행동은 곧 아이들의 입을 통해 어른들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얼마 안 가서 어른들도 톰을 재주 많고 신통방통한 녀석이라고 추켜세우기 시작했다. 제법 나이를 먹은 어른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톰한테 하소연을 할 정도였다. 그러면 톰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럴 때마다 어른들은 입이 딱 벌어졌다. 식구들은 톰을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만, 톰을 아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톰을 영웅으로 생각했다.

얼마 후에 톰은 비밀스럽게 왕실을 꾸몄다. 톰은 왕자였고, 톰과 가까운 친구들이 호위병, 시종, 무관, 옆에서 보필하는 귀족과 귀부인, 그리고 왕의 가족을 맡았다. 가짜 왕자 톰은

자신이 읽은 영웅 이야기에서 따 온 복잡한 의식을 거의 매일 치렀다. 가짜 왕자는 날마다 가짜 왕국의 중요한 일들을 어전 회의에서 토의했고,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육군, 해군, 총독에게 포고령을 내렸다.

그런 다음에는 누더기 차림으로 나가서 푼돈을 구걸하거나, 빵 부스러기를 먹고, 습관처럼 얻어맞고, 그러고 나서 한 줌의 더러운 지푸라기 위에 몸을 쭉 뻗고 헛된 위엄을 꿈 속에서 다시 부려 보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와 살을 가진 진짜 왕자를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톰의 소망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절박해졌다. 이 소망은 결국 다른 모든 소망을 삼켜 버렸고, 톰이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되어 버렸다.

1월 어느 날이었다. 톰은 평소와 다름없이 구걸을 하러 나섰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추위에 떨면서, 민싱로와 리틀이스트칩 동네 일대를 맨발로 몇 시간째 터벅터벅 쏘다녔다. 톰은 식당 창문을 통해 군침이 절로 도는 돼지고기 파이와 갖가지 요리를 들여다보면서 입 안에 가득 고인 침을 삼켰다. 오직 냄새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었지만, 톰에겐 그것이 천사나 맛볼 수 있는 음식이었고 그림의 떡이었다.

왜냐하면 톰은 그런 음식을 자기 몫으로 먹을 수 있는 행운을 누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차가운 가랑비가 흩뿌리고 있었다. 우중충한 날씨였다. 그런 날은 마음마저 울

적했다. 톰은 밤늦게 비와 허기에 젖은 채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할머니와 아버지는 그런 톰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한 번도 없었다. 냅다 따귀를 후려갈기며, 잠이나 자라고 호통을 쳤다. 아픔과 배고픔 탓에, 주위의 욕설과 싸움질 탓에, 톰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러다가 이윽고 톰의 생각은 멀고 먼 환상의 세계로 흘러갔다. 넓은 궁전에서 명령만 떨어지면 쏜살같이 달려가 실행에 옮길 자세가 되어 있는 충직한 시종들을 거느리고, 금은보화에 싸여 살아가는 왕자들 속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 꿈 속에서 톰은 어느덧 왕자가 되어 있었다.

왕국은 톰의 머릿속에서 밤새도록 찬란하게 빛났다. 톰은 지체 높은 귀족과 귀부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휘황찬란한 불빛과 달콤한 향내, 부드러운 음악에 흠뻑 젖은 채, 톰은 자신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옆으로 물러서며 존경의 뜻을 표하는 화려한 복장의 군중을 향해 한쪽 편으로는 웃음을 보내고, 다른 한쪽 편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톰의 눈에 누추한 집안 꼴이 들어왔다. 톰의 꿈은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다른 날보다 집이 백 배, 천 배 더 지저분해 보였다. 톰은 비통함과 애통함에 젖어 눈물을 떨구었다.

3. 왕자와 톰의 만남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던 톰은 잠에서 깨어나 주린 배를 움켜진 채 이리저리 쏘다녔다. 하지만 머릿속은 간밤에 꾸었던 화려한 꿈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어 뒤숭숭했다. 도시의 이곳저곳을 발길 닿는 대로 거닐었다. 톰은 도대체 자기가 어디로 가는 건지, 또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다. 사람들한테 난폭하게 떠밀리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듣기도 했다. 하지만 몽상에 잠긴 아이한테는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았다. 어느결에 톰은 템플 바까지 오게 되었다. 집에서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멀리까지 나온 건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걸음을 멈추고 약간 머뭇거리던 톰은 다시 몽상에 빠져들었다. 그러고는 런던 성곽을 그대로 빠져나갔다. 그 당시의 스트랜드는 시골길이 아니었

다. 어엿한 도로 구실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로라고 하기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길 한편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 비해 그 맞은편에는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띄엄띄엄 늘어서 있었다. 돈 많은 귀족들의 저택이었다. 지금은 우중충한 벽돌과 돌이 정원을 빈틈없이 에워싸고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저택의 널찍하고 아름다운 정원은 강변까지 뻗어 있었다.

톰은 어느 새 체어링 마을로 들어섰다. 아주 오래 전에 세상을 뜬 어떤 왕이 그곳에다 세워 둔 멋진 십자가상 옆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서, 톰은 조용하고 상쾌한 길을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추기경의 으리으리한 집을 지나 그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거대한 웨스트민스터 궁전으로 향했다. 톰은 별천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우뚝우뚝 솟아오른 거대한 건물들, 쭉쭉 뻗은 날개벽, 위압감을 주는 요새, 어마어마하게 큰 돌문, 그 돌문에 달린 황금빛 빗장과 좌우에 떡 버티고 선 거대한 화강암 사자상, 왕족임을 나타내는 이런저런 기호와 부호가 자꾸 보이기 시작했다. 톰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소원을 이룬 것만 같았다. 왕이 사는 궁전에 온 것이다. 톰은 자기처럼 피와 살을 가진 왕자를 한번 보게 해 달라고 다시 하늘에다 대고 간절히 빌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문 양쪽에는 살아 있는 조각품이 서 있었다. 머리끝에서 발꿈치까지 번쩍거리는 갑옷으로 뒤덮은 병

사가 허리를 곧추세운 채 눈썹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었다.

시골에서 왔든 도시에서 왔든, 사람들은 감히 그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혹시 왕족의 행차라도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멀찌감치 서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근사한 마차와 그 안에 탄 근사한 사람들, 그 뒤를 따르는 근사한 시종들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또다른 으리으리한 문들을 통해서 드나들고 있었다.

넝마를 걸친 불쌍한 톰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면서도 톰은 보초병을 지나 슬금슬금 다가섰다. 그때였다. 황금빛 창살 사이로 꿈 같은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다. 톰은 너무나 기뻐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엄격한 야외 운동과 수련으로 피부가 갈색으로 그을린 잘생긴 소년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소년은 반질반질한 비단과 공단으로 된 옷을 입었고, 그 옷에는 보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허리에는 보석이 박힌 칼과 단검이 빛나고 있었으며, 신발은 뒤꿈치가 빨간 우아한 반장화를 신고 있었다. 머리에는 말쑥한 진홍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반짝거리는 커다란 보석으로 고정된 깃털 장식이 모자 위에 사뿐히 매달려 있었다. 소년 옆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신사가 여러 명 있었다. 그들은 시종이 분명했다.

"아! 나는 살아 있는 진짜 왕자를 보고 있어!"

톰은 눈곱만큼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거지 소년의 애절한 소원을 마침내 하늘이 들어 준 거였다.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톰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예상도 못 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톰은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톰의 간절한 소망은 금방 하나로 모아졌다. 그것은 가까이 가서 왕자를 실컷 들여다보는 일이었다. 톰은 얼떨결에 철문 창살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말았다. 병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병사 하나가 톰을 거칠게 낚아채고는 입을 딱 벌리고 모여 선 시골 촌뜨기들과 런던의 백수 건달들 사이에다 집어던졌다. 병사들이 호통을 쳤다.

"주제를 알아라, 이 거지놈아!"

군중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거지 소년을 비웃었다. 하지만 왕자는 얼굴이 벌개지더니 문으로 달려와서는 도저히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불쌍한 아이를 그렇게 막 다뤄도 되는 거냐! 아버님의 불쌍한 백성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냐고! 문을 열고 어서 그 아이를 들여보내라!"

변덕스러운 군중들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모자를 벗어 왕자에게 존경심을 나타냈다.

"왕자님 만세!"

그들은 환호성을 질러 댔다.

병사들은 들고 있던 창을 받들어 왕자에게 경의를 표한 다

음, 문을 열고 거지 소년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톰이 누더기를 펄럭이며 안으로 들어서자 병사들은 다시 창을 받들어 왕자에게 경의를 표했다.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톰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의 손을 마주 잡았다.

왕자가 말했다.

"피로와 허기에 지친 것 같구나. 내 병사들의 무례함을 용서하기 바란다. 가까이 오렴."

왕자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대여섯 명의 시종이 냉큼 달려나왔다. 거지 소년이 왕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왕자가 손짓을 한번 하자 시종들은 돌부처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왕자는 궁전 안의 으리으리한 방으로 톰을 데려갔다. 왕자는 그 방을 자기 회의실이라고 했다.

왕자가 명령을 내리자 금세 음식이 준비되었다. 톰은 책에서만 읽고 상상했던 그런 음식을 난생 처음 먹어 보았다. 왕자는 우아한 몸짓으로 시종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초라한 손님이 행여 시종들의 따가운 눈총을 못 이겨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 어쩌나 염려해서였다. 그러고는 옆에 앉아서 톰이 식사를 하는 동안 질문을 던졌다.

"이름이 뭐니?"

"톰 캔티라고 합니다."

"캔디가 아니고 캔티라…… 재미난 이름이로군. 어디 사느냐?"

"런던에 살아요. 푸딩로 부근의 오펄 코트라는 데에 집이 있어요."

"오펄 코트('쓰레기장'이라는 뜻:옮긴이)? 그것도 재미난 이름이구나. 부모님은 계시니?"

"네.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할머니도 한 분 계세요. 쌍둥이 누이 낸과 벳도 있고요."

"할머니 사랑을 별로 못 받는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할머니의 사랑은 저만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마음씨가 나빠서 자나깨나 못된 일만 해요."

"너를 구박하나 보지?"

"할머니는 주무시거나 곤드레만드레 취해 있는 동안만큼은 손찌검을 안 해요. 하지만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저를 밥 먹듯이 두들겨 패요."

"뭐라고? 두들겨 패?"

왕자는 발끈 화를 냈다.

"네."

"너처럼 약하고 어린 아이를 두들겨 패다니! 듣거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그 할멈을 탑에다 가두도록 하라! 아버님께서……."

"그러나, 저희 할머니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탑에는 높으신 분만 갇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하긴 그래. 미처 그 생각을 못 했군. 처벌할 방법을 다시

찾아보겠어. 아버지는 자상하니?"

"할머니랑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아버지는 왜 모두 비슷한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도 성질이 불같으신 분이지. 우락부락한 손으로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시는데, 나에게만은 예외야. 물론 말로 꾸중을 들을 때는 많지만 말야. 어머니는 어떤 분이지?"

"좋은 분이세요. 저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시는 법이 절대로 없지요. 낸과 벳도 그 점에서는 엄마와 비슷해요."

"낸과 벳은 몇 살이야?"

"열다섯 살이에요."

"내 누이 엘리자베스는 열네 살이고, 사촌 누이 제인 그레이는 나와 동갑이지. 모두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 하지만 또다른 누이 메리는 항상 우거지상을 쓰고…… 참, 네 누이들도 몸종들을 웃지 못하게 하니? 웃음이 정신을 좀먹는다고 하면서 말야."

"낸과 벳에게도 몸종이 있는 줄 아셨어요?"

왕자는 거지 톰을 잠시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그러면 안 될 이유라도 있니? 그럼, 잠자리에 들 때 옷은 누가 벗겨 주지? 또 일어나면 누가 옷을 챙겨 줘?"

"그런 사람이 필요 없지요. 옷을 훌라당 벗고 짐승처럼 알몸으로 자거든요."

"옷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냐?"

"하나면 족해요. 몸뚱이는 두 개가 아니거든요."

"거 참 희한한 생각이로군! 미안, 미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 너의 착한 누이 낸과 벳에게 당장 옷과 하인을 듬뿍 보내 주겠어. 내 금고지기가 알아서 할 거야. 아니,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넌 말을 참 잘 하는구나. 쉬우면서도 말하는 품이 세련됐어. 공부는 했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앤드루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분은 친절하고 훌륭하신 분이죠."

"라틴어를 아느냐?"

"쥐꼬리만큼 알아요."

"그럼, 배워 봐. 처음에만 어려우니까. 어렵기는 그리스어가 더 어렵지. 하지만 내 누이와 사촌누이는 아무리 어려운 외국어도 줄줄 말해. 너도 한번 들어 보면 놀랄 거야! 그건 그렇고, 오펄 코트 이야기나 해 보렴. 거기서 사는 게 재미있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고플 때만 빼놓고는 재미있어요. 배꼽을 쥐게 하는 공연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원숭이가 얼마나 익살을 떠는지 몰라요. 입은 옷은 또 얼마나 희한한데요! 또 연극도 있지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며 싸우다가 나중에는 모두 죽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동전 한 닢만 내면 구경할 수 있어요. 물론 동전 한 푼 얻기가 쉽지는 않지만요."

"계속 얘기해."

"우리 오펄 코트 아이들은 어떤 때는 막대기를 갖고 싸워요."

톰이 말하자 왕자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다.

"와, 그것 참 재미있겠다. 그래서?"

"달리기도 하지요. 누가 제일 빠른가 알아보려고요."

"그것도 재미있겠다! 그래서?"

"여름에는 말이에요, 운하와 강에서 헤엄도 쳐요. 옆사람 머리를 물 속으로 밀어 넣고, 물장구를 치고, 자맥질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고꾸라지고……."

"그런 놀이를 한 번만이라도 해 볼 수 있다면 이 나라를 주어도 아깝지 않겠어! 그래서?"

"칩사이드에 있는 오월 축제 기둥 부근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지요. 모래밭에서도 놀고요. 옆사람 몸을 모래로 덮지요. 또 진흙 반죽을 할 때도 있어요. 아, 진흙, 이 세상에서 진흙 놀이처럼 재미난 놀이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진창에서 허우적거리지요. 아 참, 더러운 이야기를 입에 담아서 죄송해요."

"아, 그만해. 참을 수가 없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네 옷을 입고 신발을 벗어 던지고 잔소리할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마음껏 진흙탕 속을 뒹굴 수만 있다면 왕이 못 되어도 좋겠어!"

"저는 단 한 번만이라도 왕자님의 옷을 입어 보았으면 소원이……."

"그래? 그럼 됐다. 네 누더기를 벗고 이 번쩍거리는 옷을 입어라. 잠깐 동안 맛보는 행복이지만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야.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냐? 누가 와서 방해를 하기 전에 얼른 도로 바꿔 입으면 되잖아."

잠시 후 왕자는 톰의 너덜거리는 옷을 휘감았고, 거지 톰은 번쩍거리는 왕자의 옷으로 모양을 냈다. 둘은 거울 앞으로 걸어가서 나란히 섰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도저히 옷을 바꿔 입었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 사람은 각자의 차림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두 왕자는 서로를 쳐다보다가 거울을 바라본 후, 다시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안이벙벙해진 진짜 왕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생각하니?"

"제발, 저에게 대답을 강요하지는 말아 주세요. 저같이 비천한 놈이 어떻게 감히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말하도록 하지. 너는 나와 똑같은 머리카락, 똑같은 눈, 똑같은 목소리와 몸짓, 똑같은 체구와 키, 똑같은 얼굴 선과 이목구비를 갖고 있어. 내가 장담할게. 우리 둘 다 발가벗으면 누가 너이고 누가 나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내가 지금 네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못된 병졸한테 당했을 때의 네 심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느낌이 드는구나. 이런! 손을 다쳤구나?"

"대수롭지 않은 상처입니다. 아까 그 병사가……."

"네 손을 이렇게 만들다니, 막돼먹은 잔인한 놈이로구나!"

왕자는 맨발을 쿵쿵 내리찧으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만일 폐하께서 아시는 날에는…… 잠시 다녀올 데가 있으니 꼼짝말고 여기 있거라! 명령이야!"

왕자는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건을 확 집어서 치워 두고는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누더기를 펄럭거리며 식식거리면서 왕궁 안뜰을 쏜살같이 가로질러 나갔다. 거대한 정문 앞에 이르자 왕자는 창살을 움켜쥐고 흔들면서 소리질렀다.

"열어라! 어서 대문을 열어!"

톰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병사가 재빨리 명령에 따랐다. 왕자가 분에 못 이겨 문 밖으로 튀어나오자 병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철썩 뺨을 때렸다. 왕자는 길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너 같은 거지 새끼는 맞아도 싸!"

병사가 호통을 치자 군중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왕자는 진창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병사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나는 왕자다.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다니, 너를 교수형에 처하겠다!"

병사는 받들어 창 자세로 들어가면서 조롱하듯이 내뱉었다.

"어련하시겠습니까."

그러더니 호통을 쳤다.

"꺼져, 이 미친 거지놈아!"

군중들은 불쌍한 왕자를 길 한복판으로 떼밀면서 야유를 퍼붓고 고함을 질렀다.

"길을 비켜라, 폐하께서 납신다! 길을 비켜라, 폐하께서 납신다!"

4. 고생길로 접어든 왕자

군중들은 왕자를 끈덕지게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더니 몇 시간 만에야 겨우 물러갔다. 왕자가 화를 내며 정말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호통을 치고 이것저것 명령을 내리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재미있어했지만, 피로에 지친 왕자가 마침내 입을 다물자 골탕먹이는 일에 더 이상 흥미를 못 느끼고 다른 놀잇감을 찾으러 간 것이다. 왕자는 주위를 살폈지만 그곳이 어디쯤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런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말고는 도대체 아는 것이 없었다. 왕자는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걸음을 옮겼다. 얼마를 그렇게 가니까 집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지나가는 사람도 만나기 어려워졌다. 지금은 큰길이 되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그곳은 개울이었다. 왕자는 피가 줄줄 흐르는 발을 개울에 담그고

잠시 쉬었다. 그런 다음 다시 일어나 터벅터벅 걸었다. 집이 몇 채 듬성듬성 있고, 거대한 교회가 우뚝 서 있는 확 트인 공간이 나타났다. 왕자는 한눈에 그 교회를 알아보았다. 사방에 공사판이 벌어져 있고 일꾼들이 바글거렸다. 그들은 건물을 수리하고 있었다. 왕자는 용기가 솟았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곳은 원래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교회였는데, 아버님께서 수도사들로부터 인수하여 부모를 잃은 불쌍한 아이들의 영원한 보금자리로 내 주셨지. 그리고 그리스도 자선학교[1]라고 이름도 새로 지으셨지. 그렇게 관대한 배려를 한 분의 아들이 왔으니 틀림없이 반갑게 맞아 줄 거야. 더구나, 내 차림새는 여기서 지금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게 될 어느 아이 못지않게 초라해 보일 테니, 절대로 모른 체하지는 않을 거야.'

이윽고 왕자는 달음박질과 뜀뛰기, 공놀이를 하거나 개구리처럼 팔딱팔딱 뛰면서 자기들끼리 떠들며 노는 아이들 한가운데로 다가갔다. 아이들의 차림새는 하나같이 비슷했다. 그 당시에는 하인이나 도제(어려서부터 스승에게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사람:옮긴이)가 입던 옷이 유행이었다.[2] 아이들은 머리 꼭대기에다 찻잔만한 크기의 납작한 검은 모자를 하나씩 얹었는데, 사실 모자치고는 너무나 작아서 무얼 가리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냥 멋으로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다. 모자 밑으로 머리카락이 내려왔고, 머리카락

은 가리마를 타지 않고 이마 중간 정도까지 오게 가지런히 일직선으로 잘랐다. 목에는 성직자가 입는 옷처럼 하얀 천을 늘어뜨렸다. 또 몸에 딱 달라붙는 파란 외투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다. 소매는 낙낙했고, 폭이 넓은 빨간 가죽띠를 매고 있었다. 게다가 샛노란 양말을 무릎 위까지 올려 신었고, 굽 낮은 신발에는 큼직한 금속 고리들이 달려 있었다.

아이들은 놀이를 멈추고 왕자 주위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왕자가 몸에 밴 위엄 있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

"얘들아, 원장한테 가서 에드워드 왕자가 왔다고 일러라."

이 말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버릇없는 아이 하나가 대꾸를 했다.

"얼씨구, 그럼 넌 왕자님의 말을 전하러 온 거지냐?"

왕자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을 리가 없었다. 아이들은 다시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러고는 한 아이가 나섰다.

"너희들, 봤지? 칼이라도 찬 줄 알았나 봐. 자기가 무슨 왕자님이라고."

이 말에 아이들은 더욱 배꼽을 잡고 웃어 댔다. 불쌍한 에드워드 왕자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기염을 토했다.

"나는 왕자다. 아버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너희들이 나한테 버릇없이 구는 모습은 과히 보기가 좋지 않구나."

아이들은 너무 우스워서 아예 나자빠지려고 했다. 맨 처음

말을 했던 아이가 친구들한테 소리를 질렀다.

"어이구, 그러셨어? 쟤가 자기 아버지 덕분에 먹고 사는 줄 알라는데, 지금 뭣들 하는 거냐. 이 노예, 게으름뱅이 녀석들아! 어서 넙죽 엎드려서 이 거지 발싸개 같은 의젓한 분한테 절을 올리지 못할까!"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일제히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노리개가 된 왕자한테 장난으로 절을 했다. 왕자는 제일 가까이 있던 아이한테 발길질을 하며 매섭게 쏘아붙였다.

"고얀지고! 너희를 내일 당장 교수형에 처하겠다!"

그런데 이 말은 농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너무 심한 소리였다. 당장에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이번에는 아이들의 분노가 솟구쳤다. 십여 명이 고함을 질렀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 본때를 보여 주자! 개는 어디 있어? 아, 저기, 사자! 송곳니!"

이어서 벌어진 끔찍한 일은, 장차 한 나라의 왕이 될 왕자가 천한 아이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개들에게 신나게 물어뜯기는 것이었다.

그날 밤이 이슥해져서야 왕자는 집들이 빽빽이 들어선 런던 시내로 깊이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몸은 상처투성이였고, 손에서는 피가 줄줄 흘렀다. 누더기는 진흙이 묻어 걸레가 되어 있었다. 정처 없이 걷고 있었지만 왕자는 점점 앞일이 걱정스럽기만 했다.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한 걸음

내딛는 발이 쇳덩이처럼 무겁기만 했다. 더 이상 사람을 붙잡고 물어 볼 생각도 들지 않았다. 물어 봐도 사람들은 비웃기만 할 뿐, 상대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자는 혼잣말처럼 계속 중얼거렸다.

"오펄 코트라고 했지? 기운이 다해 쓰러지기 전에 거기만 찾아가면, 그땐 살아나는 거다. 사람들이 나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진짜 왕자임을 증명해 줄 테니까. 그러면 나는 다시 왕자

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불쑥불쑥 그리스도 자선학교의 난폭한 아이들한테 당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면 왕자는 이렇게 다짐을 했다.

"내가 왕이 되면 그 아이들한테 빵과 보금자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얻는 가르침도 주어야겠어. 배가 아무리 불러도 마음과 가슴이 굶주려 있으면 무슨 소용이람? 오늘의 교훈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잊어버리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배움은 가슴을 부드럽게 하고 따스함과 자비로움을 낳지."

불빛이 가물거리기 시작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바람이 불고 스산한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 장차 왕위를 이어받을 몸인데도 집 없이 떠돌게 된 왕자는 여전히 길을 헤매면서 가난과 궁상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누추한 길로 꼬불꼬불 찾아 들어갔다.

그때였다. 술 취한 건달이 갑자기 왕자의 목덜미를 낚아챘다. 건달은 체구가 당당했다.

"밤늦게 쏘다니면서 오늘도 동전 한 푼 못 벌어 왔겠지! 두고 보자, 네놈 말라깽이 몸뚱어리의 뼈마디를 죄다 분질러 놓지 않으면 나는 존 캔티가 아니라 개자식이다."

왕자는 몸을 비틀어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 나오면서 더럽혀진 어깨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갖다 댔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아이 아비가 정말 맞느냐? 하늘이 도우셨어. 그럼 어서

그 아이를 데려오고 나를 모셔 가라!"

"그 아이 아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네놈 아비 되는 사람이다.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 놓아야……."

"농담하지 말라! 어디서 사람을 갖고 놀려고 그래! 난 피곤한 데다 부상까지 당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우리 아버님한테 나를 데려다 주면, 그분은 왕이니까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보답을 해 주실 거야. 믿어 달라니까! 나는 거짓말 못 해! 진실만 말한다니까! 어서 나를 구해 주게나! 나는 진짜 왕자야!"

건달은 어이가 없는지 소년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흔들었다.

"완전히 돌아 버렸구먼."

그러더니 다시 왕자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야비한 웃음을 지으며 으름장을 놓았다.

"네놈이 돌았건 돌지 않았건 간에, 할머니와 이 아비는 네놈 뼈에서 성한 데만 골라서 박살을 내 놓겠다. 안 그러면 난 사내 대장부가 아니야!"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건달은 미친 듯이 발버둥치는 왕자를 질질 끌고서 앞마당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신이 난 동네 꼬마들은 악을 써 대며 그 뒤를 졸졸 쫓아갔다.

5. 벼락출세한 톰

왕자의 방에 홀로 남은 톰 캔티는 모처럼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 커다란 거울 앞에서 이렇게 돌아섰다 저렇게 돌아섰다 하면서 자기의 멋진 옷을 꿈꾸듯 바라보았다. 왕자의 고상한 몸가짐을 흉내내면서 뒷걸음질을 쳐 보기도 했다. 물론 그러면서도 절대로 거울에서 시선을 떼는 법이 없었다. 다음으로 멋진 칼을 뽑아 들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여 칼날에 입을 맞춘 다음 가슴에 비스듬히 갖다 대었다. 대여섯 주 전에 지체 높은 노포크 공과 서리 공을 압송해 온 어떤 늠름한 기사가 죄수를 인도하면서 런던탑의 간수장한테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톰은 넓적다리까지 내려온 세 공 단검을 만지작거려 보았다. 또 방 안의 호화찬란하고 값비싼 장식물도 찬찬히 구경했다. 사치스러운 의자에도 모두 앉

아 보았다. 오펄 코트의 가난뱅이들이 자기의 이런 모습을 문틈으로 들여다본다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할까 아쉬워하기도 했다. 집에 가서 자기가 겪은 놀라운 일을 들려 주면 사람들이 과연 곧이들을까, 설레설레 고개를 젓지나 않을까, 톰은 안타깝기만 했다.

불현듯, 삼십 분이 지났는데도 왕자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톰은 적적해지기 시작했다. 사방으로 귀를 바싹 기울이면서 어서 왕자가 돌아오기를 목을 빼고 기다렸다. 주위에 널려 있는 멋진 물건을 가지고 노는 것도 이젠 시들해졌다. 점점 걱정스러워지고 불안해져서 나중에는 안절부절못하게 되었다. 누가 불쑥 들어와서 왕자의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 왕자가 있으면 해명이라도 해 주겠지만, 어디로 갔는지 왕자는 도통 소식이 없었다. 톰은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우선 목부터 매달아 죽이고 자초지종은 나중에 알아보게 될까 봐 겁이 났다. 높으신 분들은 그런 자잘한 문제를 후딱 처리해 버린다는 소리를 톰은 들은 적이 있었다. 두려움이 물밀 듯이 밀어닥쳤다. 톰은 덜덜 떨면서 대기실로 통하는 문을 살짝 열었다. 어서 이 방을 빠져나가 왕자를 찾아볼 작정이었다. 자기를 지켜주고 내보내 줄 사람은 왕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나비같이 차려 입은 근사한 시종 여섯 명과 어린 사동 둘이 바람처럼 달려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톰은 얼른 뒤

로 물러나 문을 닫았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저 사람들이 나를 놀리는구나. 틀림없이 가서 일러바칠 거야. 아! 이런 개죽음을 당할 줄 알았으면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닌데."

톰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러면서 바깥에서 무슨 소리만 났다 하면 깜짝 놀라 귀를 쫑긋 세웠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비단옷을 입은 사동이 보고를 했다.

"제인 그레이 아가씨가 오셨습니다."

문이 닫혔다. 곧 눈부신 옷차림의 아리따운 소녀가 뛰어들어왔다. 소녀는 돌연 걸음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얼 그리 상심하시나요?"

톰은 숨이 멎을 것 같았지만 더듬거리며 간신히 말을 이어나갔다.

"제발, 굽어살펴 주세요! 저는 사실 왕자가 아니라 런던의 오펄 코트에 사는 미천한 톰 캔티라고 합니다. 제발 왕자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분은 제 누더기를 돌려주시고 무사히 풀어 주실 겁니다. 아, 도와 주세요, 살려 주세요!"

톰은 아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눈과 손으로도 애원을 했다. 소녀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다.

"왕자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한테 무릎을 꿇으시다뇨!"

그 말을 던지고 소녀는 도망가듯이 방을 나갔다. 절망에 빠

진 톰은 털썩 주저앉아 넋두리를 했다.

"아무도 도와 주지 않는구나. 희망이 없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나를 잡아갈 거야."

공포에 휩싸여 톰이 그렇게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동안, 무서운 소식이 궁 안에 파다하게 퍼졌다. 궁궐은 워낙 말이 많은 곳이어서 그 소문은 머슴에서 머슴으로, 귀족에서 귀부인으로, 긴 복도를 따라 이쪽 층에서 저쪽 층으로, 담소실에서 담소실로 전해졌다.

"왕자님이 미쳤다! 왕자님이 미쳤다!"

사람들은 방마다 모여 서서 하나같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그 문제를 두고 쑥덕거렸다. 얼마 뒤 높은 관리 한 사람이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준엄한 명령을 전달했다.

"어명이다! 이 근거 없는 거짓 소문을 입에 올리는 자는 죽음의 고통을 면치 못하리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궁 밖으로 소문을 흘려서도 안 된다. 어명이다!"

사람들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갑자기 입을 꾹 닫았다.

곧이어 복도마다 시끌시끌해졌다.

"왕자님이다! 저 봐, 왕자님이 오신다!"

톰은 허리를 조아린 신하들을 지나칠 때마다 자기도 허리를 숙이려고 애쓰면서 느릿느릿 걸었다. 그러면서 어리벙벙하고 애처로운 눈길로, 주위에 펼쳐진 낯선 장면을 힘없이 바라보았다. 높은 관리 몇이 다가와 톰의 양쪽 팔을 끼었다.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톰을 부축하는 것이었다. 궁중 시의와 시종 몇이서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얼마 뒤 톰은 궁전 안의 으리으리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등 뒤에서 문이 닫혔다. 톰과 함께 온 사람들은 톰 주위에 서 있었다.

톰의 앞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아주 몸집이 크고 뚱뚱한 남자가 자리에 기대어 있었다. 살집이 많은 넓적한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으며, 커다란 머리는 온통 은발이었고, 그림틀처럼 얼굴 주변으로만 난 수염 또한 은빛이었다. 옷은 아

주 비싼 감으로 지은 것 같았지만 오래 입어서 그런지 군데군데 낡아 있었다. 퉁퉁 부어오른 한쪽 다리에 붕대를 친친 감았고, 그 밑에는 베개를 깔고 있었다. 침묵이 감돌았다. 이 남자말고는 고개를 빳빳이 쳐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병자는 바로 그 무서운 헨리 8세였다.

왕이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막상 말을 시작하자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참 신기한 노릇이었다.

"이젠 좀 어떠냐, 에드워드? 너를 사랑하는 이 아비, 이 왕한테 장난을 친 거였지?"

톰은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왕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죽을 힘을 다해서 듣고 있었다. 하지만 '왕'이라는 말이 귓전을 때리는 순간, 톰은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러고는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소리를 질렀다.

"왕이시라고요? 그럼 전 망했군요!"

이 말을 들은 왕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왕의 눈길은 이리저리 신하들의 얼굴로 떠돌다가 이윽고 눈앞의 톰을 향해 멎긴 멎었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왕은 아주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슬프도다! 사실에서 크게 벗어난 뜬소문인 줄 알았건만,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로세."

왕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비에게 오너라. 얘야, 네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톰은 부축을 받고 일어나 떨리는 가슴을 누르면서 주춤주춤 왕에게로 다가섰다. 왕은 잔뜩 겁에 질린 톰의 얼굴을 두 손으로 보듬고 애처로운 눈길로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하늘의 도움으로 왕자의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은 희망을 조금이라도 찾아 내 보려는 표정이었다. 그러더니 톰의 곱슬곱슬한 머리를 자기 가슴에 지그시 누르고서 톡톡 두드려 주었다. 왕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늙은 아비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구나. 나를 안다고 말해 주렴. 너는 나를 알지? 알아보겠지?"

"압니다. 제 앞에 계신 분은 제가 우러러 받들고 신께서 굽어살피시는 폐하이십니다!"

"그렇지, 그렇지. 옳은 말이야. 떨 것 없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도록 해라. 너를 해칠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 모두 너를 아끼는 사람뿐이야. 이제는 좋아졌구나. 악몽을 꾸었던 게야, 그렇지? 이제는 네가 누구인지 아는 거야, 그렇지? 잠시 헷갈리는 바람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는 거지?"

"크나큰 은혜로 제 말을 믿어 주십시오. 저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폐하의 가장 초라한 백성입니다. 원래는 거지인데,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착오이고 우연입니다. 나쁜 짓은 하나도 안 했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만, 폐하께서 한 말씀만

해 주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죽어?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구나. 사랑하는 왕자야, 자, 자, 마음을 가라앉히거라.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톰은 너무나 기뻐서 다시 무릎을 꿇었다.

"하느님, 이 자비로운 분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오래오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옆에 서 있던 두 신하에게 고개를 돌리며 신이 나서 외쳤다.

"들으셨죠? 저는 죽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약속하셨어요!"

모두들 허리를 조아리고 있을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톰의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톰은 약간 이상스럽기도 하고 머쓱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슬그머니 왕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제 가 봐도 될까요?"

"간다고? 네 뜻이 그렇다면 할 수 없다만, 조금 더 있다 가렴. 어디로 갈 생각이냐?"

톰은 눈을 내리깔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혹시나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자유의 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궁색하게 자란, 엄마와 누이들이 기다리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빈민굴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이곳의 호화롭고 화려한 생활은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제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근심과 고통의 빛이 얼굴에 점차 번졌다. 잠시 후 입을 연 왕의 목소리에는 실낱같은 기대가 담겨 있었다.

"왕자의 마음이 좀 혼란스러워졌는지는 몰라도 다른 문제에 대한 지혜는 변함 없을지 모른다. 제발 그래야 할 텐데!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러더니 왕은 톰에게 라틴어로 질문을 던졌다. 톰은 라틴어로 어설프게 대답을 했다. 왕은 뛸 듯이 기뻐하며 그 기쁜 감정을 유감없이 나타냈다. 신하들과 궁중 시의의 얼굴에도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왕이 말했다.

"이로써 왕자는 배움과 지혜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왕자는 마음의 병이 든 것인데 불치의 병은 아니야. 시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사는 꾸벅 절을 하며 대답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폐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시의가 맞장구를 치자 왕은 기분이 좋았다.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권위 있는 말이었으므로, 왕은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다들 주목하거라! 시험을 계속하겠다."

왕이 이번에는 톰에게 불어로 질문을 던졌다. 톰은 그 자리에 멀뚱멀뚱 서 있다가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자신에게로 쏠리자 민망해져서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 나라 말은 모릅니다."

왕은 뒤로 나자빠졌다. 신하들이 달려가서 부축하려고 했지만 왕은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

"귀찮게 하지 말아라.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니까. 내 몸을 일으켜라! 됐다. 이리 오너라, 얘야, 고통에 젖은 너의 불쌍한 머리를 이 아비 가슴에 갖다 대고 편히 쉬어라. 곧 좋아질 게야. 우린 지금 잠시 악몽을 꾸고 있는 게야. 두려워할 것 없다. 금세 좋아질 게야."

그러더니 왕은 신하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부드럽던 태도가 돌변하면서 눈에서 사나운 불꽃이 튀었다.

"모두들 듣거라! 나의 아들은 미쳤으나 오래 가지는 않는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갇혀서 지내다 보니 그렇게 된 게야. 앞으로 왕자는 책과 선생을 멀리해야 한다. 모두들 유념하도록! 왕자에게 운동을 시키고 건전한 방법으로 즐거움을 안겨주도록 하라. 그래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왕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더욱 힘주어 말했다.

"왕자는 지금 미쳤다. 하지만 나의 아들이고, 이 나라를 이어받을 후계자다. 미쳤든 미치지 않았든,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듣고 온 세상에 알려라. 앞으로 왕자의 병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나라의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로서 교수형에 처할 것이다! 마실 것을 가져오라. 목이 탄다. 슬픔이 나의 기운

을 앗아 가는구나…… 됐어, 잔을 치워라. 부축해 다오. 이제 됐다. 그래, 미쳤어. 하지만 지금보다 천 배나 더 미쳤다고 하더라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 있는 한 왕자는 어디까지나 왕자다. 내일 왕자를 나의 후계자로 삼는 의식을 엄숙하게 거행하겠도다. 내 말을 즉시 실행에 옮기도록 하라, 허트포드 경!"

그러자 귀족 한 사람이 왕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다.

"폐하께서도 문장원 총재 노포크 공이 런던탑에 갇혀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갇혀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닥치거라! 그 더러운 이름을 입에 올려 내 귀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놈을 영원히 살려 두란 법이 있다더냐? 내가 한번 마음먹은 일을 포기할 줄 알았더냐? 왕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베풀어 주고 반역의 흉계를 꾸미지 않는 문장원 총재가 이 나라에 없다고 해서 왕자의 책봉을 한없이 미루어 둘 줄 알았더냐? 하느님 이름을 걸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노포크를 심판하라고 의회에 단단히 일러라.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의원들은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야!"[3]

허트포드 경이 입을 열었다.

"폐하의 뜻은 곧 법이옵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늙은 왕의 얼굴에서 노여움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아비에게 입을 맞추려무나. 자, 무얼 두려워하는 게냐? 너를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냐?"

"저같이 보잘것 없는 놈한테 너무 잘 해 주시니 황공무지로소이다. 폐하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하지만, 죽을 사람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오, 역시 나의 아들이로군, 나의 아들이야! 그토록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비단결처럼 곱구나. 하지만 그 자는 네가 왕좌에 오르는 데 걸림돌이 된다. 영광된 자리를 더럽히지 않을 인물로 그 자의 후임을 정할 터이니 염려 말거라. 이 문제로 더 이상 골치를 썩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저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앞당겨지는 게 아닌가요? 제가 아니었더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 문제는 잊어버리거라. 생각할 가치도 없는 녀석이야. 한 번 더 입맞춤을 해 주고, 가서 기분전환이나 하렴. 병이 되살아났는지 나도 몸이 편치 않다. 피곤해서 쉬어야겠구나. 허트포드 삼촌과 너의 시종과 함께 그만 물러가고, 내 몸이 좋아지거든 다시 오너라."

톰은 무거운 마음으로 물러섰다. 왕의 마지막 말과 함께,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될 거라는 톰의 기대는 보기 좋게 무너지고 말았다. 다시 한 번 나지막이 숙덕거리는 소리가 톰의 귓가에 들려왔다.

"왕자님이다, 왕자님이 오신다!"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허리를 숙인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려 하자 톰의 마음은 더욱더 암담해지기만 했다. 이제는 정말 꼼짝없이 붙들린 신세로 이 황금으로 된 새장 안에서 언제까지나 친구도 없이 외롭게 갇혀 지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고개를 어느 쪽으로 돌려도 톰의 눈에는 노포크 공의 잘린 머리가 허공에 둥둥 떠서 자기를 무섭게 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옛날에 톰이 꾸었던 왕자가 되는 꿈은 그토록 달콤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6. 어명

톰은 궁전 안에서도 특별한 방으로 안내되어 갔다. 나이 든 사람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주위에 우글거렸기 때문에 톰은 정말 불편하고 계면쩍기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톰에게 자꾸만 앉으라고 했으므로 앉지 않을 수가 없었다. 톰은 그 사람들에게도 앉기를 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허리를 굽혀 감사의 뜻을 나타낼 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톰은 그래도 앉아야 한다고 우길 생각이었다. 그때 허트포드 백작이 톰의 귀에다 대고 소곤거렸다.

"자꾸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왕자님 앞에서 저 사람들이 앉아 있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시종이 세인트 존 경의 도착을 알렸다. 세인트 존 경은 톰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저는 어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허트포드 경만 남겨 두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물러가게 함이 어떠하신지요."

톰이 그 요청을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는 것을 보고, 허트포드 경은 손짓으로 뜻을 알리면 되므로 구태여 말로 할 필요는 없다고 귀띔했다. 기다리던 신하들이 물러가자 세인트 존 경이 입을 열었다.

"폐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왕자님께서 심신이 허약해졌으므로 다시 예전처럼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사실을 숨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이 나라를 다스릴 후계자는 바로 왕자님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셨지요. 폐하께서는 또한 왕자님께서 체통을 잃지 말아야 하며, 그 누구도 반항의 말이나 몸짓으로 왕자가 마땅히 누려야 옳은 숭배와 존경을 표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자님께서도 앞으로는 '비천한 태생'이라는 말씀을 두 번 다시 입 밖에 내시면 안 됩니다. 폐하께서는 질병으로 인하여 왕자님이 과도한 공상에 빠지셨고, 거기서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 싹텄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왕자님께서는 과거에 알고 있었던 얼굴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힘쓰셔야 하지만, 만약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도 동요하실 필요

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놀란 표정을 짓는다든지 해서,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무심결에 드러내셔도 안 됩니다. 공식 석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셔야 할 경우에 잘 몰라서 입장이 난처할 때에는, 조금도 동요의 빛을 나타내지 말고 그 문제에 관하여 허트포드 경이나 저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별도의 지시가 떨어지지 않는 한, 왕자님 가까이에서 왕자님을 끝까지 보필하라는 폐하의

분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하께서는 편히 쉬라는 말씀과 함께, 왕자님을 하루빨리 병에서 낫게 해 주시고 크나큰 사랑으로 왕자님을 보살펴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세인트 존 경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옆으로 물러섰다. 톰도 힘없이 고개를 마주 숙였다. 허트포드 경의 말이 이어졌다.

"어명이십니다. 그 누구도 어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교묘하게 발을 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명을 따르겠습니다. 폐하께선 책 같은 것을 왕자님 곁에 두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가벼운 오락거리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떨는지요. 그래야 만찬에 참석할 때 기운을 얻으실 수 있지요. 기운이 없으면 그 자리에 계시기가 아주 힘듭니다."

톰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세인트 존 경이 서글픈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세인트 존 경이 말했다.

"아직도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으셨군요.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병이 나으면 왕자님의 기억도 자연히 되살아날 테니까요. 허트포드 경이 말하는 만찬은 폐하께서 두 달 전에 계획해 놓으신 행사입니다. 왕자님께서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괴롭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톰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얼굴이 벌개졌다.

바로 그 순간 엘리자베스와 제인 그레이가 왔다는 연락이 왔다.

허트포드 경과 세인트 존 경은 의미심장한 눈길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허트포드 경이 재빨리 문 쪽으로 다가가서 옆으로 지나가는 두 소녀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다.

"왕자님께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혹시 왕자님께서 무슨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놀란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의식하기 시작하면 두 분도 마음이 괴로우실 테니까요."

그러는 동안 세인트 존 경은 톰에게 귀엣말을 하고 있었다.

"제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더라도 꾹 참아 주십시오. 최대한으로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모두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는 인상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왕자님을 아끼는 소꿉동무들이 마음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걸 왕자님도 잘 아시겠지요? 허트포드 경과 제가 남아 있기를 원하시나요?"

톰은 손짓으로 그러라는 뜻을 알렸다. 톰은 이미 배움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우직한 톰이 마음 속으로 결심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어명에 따라 훌륭하게 처신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서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주고받았지만 어린 사람들의 대화는 이따금 어색해지곤 했다. 몇 번씩이나 톰은 지금의 터

무니없는 역할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기의 본모습을 알리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엘리자베스와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는 두 귀족이 순간적으로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한번은 어린 제인이 불쑥 이런 질문을 던져 톰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어머님께 오늘 하셔야 할 일은 하셨나요?"

톰은 머뭇거렸다. 괴롭기 짝이 없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한두 마디 대꾸를 하려는데 세인트 존 경이 그 말을 받아 대신 답변에 나섰다. 궁정에서 미묘하고 까다로운 그런 문제를 수없이 다루어 본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솜씨였다.

"물론입니다. 왕비님께서는 어서 빨리 건강을 되찾으라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지요, 왕자님?"

톰은 동의를 나타내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이 점점 더 위험한 지경에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더 오가는 동안, 톰이 당분간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두 소녀가 무척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떡해! 어떡하죠! 왕자님은 실력이 쑥쑥 늘고 있었는데. 하지만 꾹 참고 기다리세요. 곧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요. 왕자님도 머지않아 아버님처럼 여러 나라 말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톰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은 골목에서 뒹구는 돼지 새끼밖에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배운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껏해야……."

톰이 고개를 들자 세인트 존 경의 굳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톰은 하려던 말을 멈추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서글픈 목소리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 병이 다시 도지는구나. 머리가 왜 이리 돈담? 폐하를 욕되게 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는데."

"저희도 알아요."

엘리자베스 공주가 톰의 손을 따뜻하게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오빠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병 탓이니까."

"참으로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구나.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한번은 경솔한 제인이 톰에게 간단한 그리스 말을 던졌다. 톰의 무덤덤한 반응을 재빨리 알아차린 엘리자베스 공주는, 톰 대신 그리스 말로 나지막이 말한 다음 빠르게 화제를 돌렸다.

시간은 유쾌하게 흘러갔다. 대화가 풀리지 않거나 꼬이는 일은 차츰 줄어들었고, 톰은 톰대로 점점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보니 다른 사람들이 모두 톰을 도와 주지 못해 안달이었고,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같이 못 본 척했다. 저녁때 런던 시

장이 여는 만찬에 두 소녀도 함께 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톰은 정말 마음이 놓이고 기뻤다. 사람들로 바글거리는 만찬장에서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끔찍하기만 했다. 불과 한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소녀와 함께 거기에 가는 일은 죽기보다 싫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했다.

톰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귀족은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마치 커다란 배를 몰고 곳곳에 암초가 숨어 있는 해협을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했으므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했다. 어느덧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길포드 더들리 경의 방문을 알리는 기별이 왔다. 허트포드 경과 세인트 존 경은 다시 배를 몰고 돌아가서 험난한 항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임무는 충분히 완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톰에게 이제 혼자서 쉬라고 귀띔을 했다. 톰은 아주 좋아했다. 단 한 사람, 제인만은 멋지고 준수한 청년 길포드 더들리 경의 얼굴을 못 보게 되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톰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허트포드 경을 쳐다보자 신호를 보내 오긴 했지만, 톰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눈치 빠른 엘리자베스가 남다른 재치로 톰을 도와 주었다. 엘리자베스는 까딱 인사를 하고는 말했다.

"저희는 그만 가 봐도 돼요, 오빠?"

그러자 톰이 대답했다.

"어떤 부탁이든 내 능력에 닿는 것이라면 들어 주어야지. 하지만 함께 있는 즐거움과 축복을 못 누리게 된다니,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드는군. 어서 가 봐. 하느님의 가호가 있기를!"

톰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웃었다.

'책을 읽으며 수많은 왕자들 속에서 살았던 것이 아주 헛되지는 않았구나. 세련되고 멋있는 말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야.'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물러가자 톰은 지친 얼굴로 두 보호자에게로 돌아서서 말했다.

"저 혼자 좀 쉴 수 있게 해 주실래요?"

그러자 허트포드 경이 대답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왕자님이 분부를 내리시면 저희는 언제나 따르겠습니다. 어차피 조금 쉬셔야 할 겁니다. 조금 지나면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으로 들어가야 하니까요."

허트포드 경이 초인종을 누르자 급사가 나타났다. 급사에게는 윌리엄 허버트 경을 불러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허버트 경은 부리나케 달려와서 톰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다. 방에 들어선 톰은 대뜸 물컵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러자 비단옷을 입

은 하인이 어느 새 물컵을 잡고는 한쪽 무릎을 꿇고 금으로 된 쟁반에 담아 내놓았다.

포로 신세가 된 톰은 털썩 주저앉았다. 혼자 할 수 있으니 내버려 두라는 뜻을 눈짓으로 알리면서 장화를 벗기 시작했지만, 비단옷을 입은 또 다른 훼방꾼이 나타나서 그 일을 가로채고 말았다. 두세 번 더 혼자 힘으로 해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저지를 당하자, 톰은 마침내 포기하고 체념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기가 막혀서! 나 대신 숨까지 쉬어 주겠다고 나서시지 그래!"

톰은 덧신을 신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채로 누웠다. 잠을 자려는 것이 아니었다. 머릿속으로 온갖 잡념이 떠올랐을 뿐 아니라, 방 안이 사람들로 그득했기 때문이다. 톰은 잡념을 도저히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톰은 사람들을 내보내는 방법도 몰랐다. 그래서 사람들도 계속 남아 있었다. 톰한테도 그 사람들한테도, 그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톰이 다른 방으로 갔기 때문에 톰의 두 수호신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는 이리저리 방 안을 거닐었다. 이윽고 세인트 존 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솔직히 말하라면, 내 생각은 이렇다네. 폐하께서는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고, 내 조카는 미쳤어. 미치광이가 왕좌에 올

라 미치광이인 채로 나라를 다스릴 걸세. 가엾은 이 나라를, 하늘이여 굽어살피소서!"

"참으로 지당한 말이로군. 하지만 자네는…… 미심쩍은 구석이 없던가? 이를테면……."

세인트 존 경은 더듬거리다가 결국은 말문을 닫았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였다. 허트포드 경은 상대방의 얼굴을 맑고 깨끗한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계속 들어 봄세. 이 방에는 나말고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야. 뭐가 미심쩍다는 말인가?"

"이런 말을 자네 앞에서 하기는 죽기보다 싫네. 왕자님은 자네의 가까운 핏줄이니 말이야. 만일 내가 하는 말이 심하다 하더라도 제발 나쁜 감정은 갖지 말아 주게. 사람이 미쳐 버리면 당연히 행동도 달라지겠지. 아니, 행동이나 말투는 여전히 왕자님이라고 볼 수 있네. 별로 대수롭지는 않아도, 한두 가지 사소한 면에서는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지만 말일세. 사람이 미쳤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의 생김새마저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 왕자로서의 당당함과 체통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깡그리 잊어버릴 수 있을까? 라틴어는 고스란히 남고 그리스어와 불어만 기억에서 사라질 수가 있는 걸까? 여보게,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말게. 이렇게 자네에게 털어놓으니 좀 후련해지는구먼. 자기는 왕자가 아니라고 한 그 말이 나는

계속 마음에 걸렸네. 그래서……."

"그만두게. 자네는 지금 엄청난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어! 어명을 잊었나? 나는 자네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공범이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 두게."

순간 세인트 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허겁지겁 변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실수를 저질렀네. 정말일세. 제발 이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해 주게. 부탁이야.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것을 생각하지도,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겠네. 자네가 나를 봐 주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야."

"됐네. 나한테든 다른 사람한테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안 하는 게 좋을 걸세. 나는 못 들은 것으로 해 둘 테니까 자네도 그런 엉뚱한 생각은 떨쳐 버려야 하네. 왕자님은 내 누이의 아들일세. 젖먹이 때부터 보아 온 내가 조카의 목소리, 조카의 생김새, 조카의 골격을 모르겠나? 사람이 미치면 자네가 오늘 본 그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네. 별별 희한한 행동을 다 한다고. 늙은 말리 남작이 미쳤을 때 일 생각 안 나나? 육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보아 온 자기 얼굴을 몰라보지 않았는가 말일세.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자꾸 다른 사람이라고 우겼지. 어디 그뿐이던가? 자기는 막달라 마리아의 아들이고, 자기 머리는 스페인제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지. 유리가 박살나면 큰일이라면서 아무도 자기 머리를 못 만지게 한 것, 자네도 기억하지? 그러니 의혹은 떨쳐 버리는 게 자네 건강에도 좋네. 틀림없는 왕자야. 내가 장담하지. 왕자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네. 쓸데없는 생각들은 집어던지고 그 점을 명심하는 것이 자네 신상에도 여러 모로 좋을 걸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좀더 계속되었다. 세인트 존 경은 이제 추호의 의심도 없으며, 다시는 그런 쓸모없는 의혹에 휩싸이는 일이 없을 거라고 거듭 주장했다.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었다. 허트포드 경은 그에게 가서 쉬라고 말한 다음, 혼자 남아 왕자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혼자 있다 보니 허트포드 경은 자연히 생각에 빠져들게 되었다. 허트포드 경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어느 새 자기도 모르게 방 안을 거닐면서 중얼거렸다.

"아니야, 왕자일 수밖에 없어!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은 두 사람이 어떻게 쌍둥이처럼 똑같이 닮을 수 있단 말인가.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해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바뀌서 살게 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아무렴, 있을 수 없고말고! 만일에 사기꾼이 왕자를 자처한다면 그건 자연스럽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야. 하지만 사기꾼으로 살아 왔던 사람이 왕으로부터, 신하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왕자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기는 왕자가 아니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지! 왕자님은 진짜 미쳐 버린 거야!"

7. 궁전에서 한 첫 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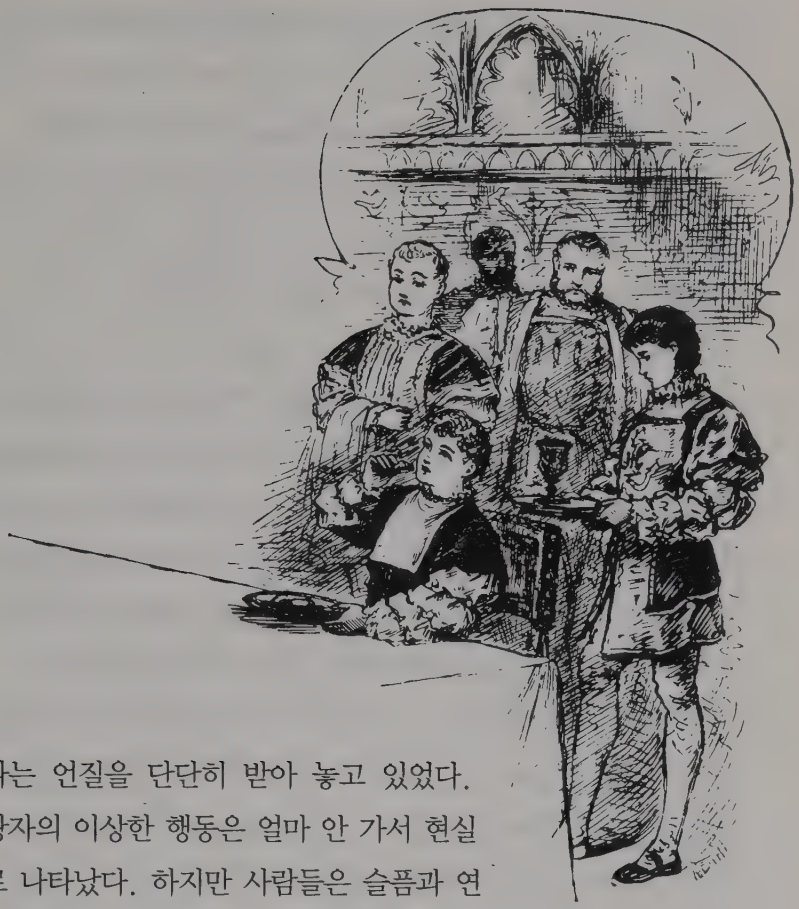
오후 한 시 남짓 되었을까, 톰은 식사를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지긋지긋한 일을 치러야만 했다. 주름진 옷깃에서 양말까지 모두 다 새것이었다. 톰은 시종의 안내를 받아 화려하게 장식된 널찍한 방으로 점잖게 들어갔다. 방 안에는 벌써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다. 가구들은 모두 큼직했고, 금을 입혀 번쩍거렸다. 제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그 화려한 무늬 앞에서는 주눅이 들고 말 정도였다. 그것은 벤베누토라는 유명한 가구 제작자의 작품이었다. 방 안에 있는 사람의 절반은 귀족 신분의 하인이었다. 목사가 감사의 기도를 끝내기가 무섭게 톰은 음식을 향해 덤벼들었다. 언제나 굶주리며 살아온 사람은 음식만 보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마련이었다. 바로 그 순간, 버클리 백작이 톰을 제지하면서 냅킨을

목에 둘러 주었다. 버클리 백작 집안은 대대로 왕자의 기저귀 종류를 갈아 주는 막중한 일을 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톰은 혼자서 술을 따라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술 따르는 귀족이 옆에서 기를 쓰고 그걸 막으면서 기어이 자기가 따라 주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왕자가 먹을 음식을 도맡아 먼저 맛보는 귀족도 있었다. 그들은 일단 명령만 떨어지면 의심이 가는 요리를 언제라도 먹어야만 했다. 물론 음식에 독이 들어 있기라도 하면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나야 했다. 지금은 의례적인 역할만 맡고 있을 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좀처럼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위험스러운 직책을 피하려고 저마다 안간힘을 썼었다. 왕실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이렇게 알다가도 모를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왕자의 잠자리를 보살피는 일을 맡은 다르시 경도 그 자리에 있었다.

톰의 의자 뒤에는 엄숙한 의식을 감독하는 귀족 집사가 서 있었다. 그는 귀족 급사장과 귀족 주방장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었다. 톰은 이 사람들말고도 모두 384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다. 물론 384명의 하인이 그 방에 모두 들어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중에서 사분의 일 정도가 들어와 있었지만, 톰으로서는 누가 누구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 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왕자가 살짝 미쳤으니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절대로 놀란 표정을 짓지 않도록 조심하



라는 언질을 단단히 받아 놓고 있었다. 왕자의 이상한 행동은 얼마 안 가서 현실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람들은 슬픔과 연민만을 느꼈을 뿐, 배꼽을 잡고 웃지는 않았다. 사랑스러운 왕자가 몹쓸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톰은 음식을 먹을 때 주로 손가락을 사용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심지어는 못 본 척한 사람도 있었다. 톰은 냅킨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 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톰의 입에서는 무심코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이걸 치워 두면 좋겠어. 혹시 더러워지면 곤란하니까."

대대로 왕자를 위해 기저귀 종류의 뒤치다꺼리를 해 온 귀족이 군소리 없이 톰의 냅킨을 공손히 치웠다.

톰은 무와 상추를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물었다.

"이게 뭐냐? 먹는 거냐?"

무와 상추를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지 않고 영국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이었으므로,[4] 톰의 질문에 누군가 공손하게 대답을 했다. 놀라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디저트를 끝낸 톰은 주머니에 호두를 가득 우겨넣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런 일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톰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표정으로 드러났다. 식사를 끝낼 때까지 톰이 자기 손으로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고는, 바로 방금 한 호두 집어넣기뿐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이 왕자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톰도 이제는 알 수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톰의 코가 벌름거리기 시작했다. 코끝이 들썩거리면서 주름이 생기기까지 했다. 이것이 계속되자 톰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래서 애원이라도 하듯이 주위에 있는 시종을 이리저리 쳐다보았다. 톰의 눈에는 어느 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시종들은 기겁을 하고 달려와 어디

가 불편하시냐고 물었다. 톰은 찢어지는 고통을 가눌 길이 없었다.

"사람 살려! 코가 근질거려서 미칠 것만 같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예의와 법도에 어긋나지 않지? 급하다, 급해! 당장이라도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아무도 웃지 않았다. 웃기는커녕 다들 어쩔 줄 몰라 했다. 모두들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다. 눈앞에 깎아지를 듯한 장벽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나마 그 자리에는 그런대로 도움말이라도 줄 수 있는 의전 담당관조차 없었다.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바다를 처음으로 항해하는 사람들처럼, 모두들 겁을 집어먹었다. 아무도 그 겁나는 문제를 무모하게 해결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톰의 눈물은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근질거리는 코는 더욱 다급하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마침내 생리적 본능이 예의 범절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렸다. 톰은 마음 속으로 방금 자기가 코를 긁은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면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왕자가 손수 코를 긁는 바람에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된 시종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톰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귀족 한 사람이 달콤한 장미향이 나는 물이 담긴, 바닥이 넓고 얕은 순금 접시를 가져왔다. 입과 손가락을 씻으라는 물이었다. 대대로 기저귀 종류를 갈아

온 귀족은 옆에서 냅킨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톰은 난감한 표정으로 잠시 그릇을 바라보더니 그것을 입에 갖다 대고 쭉 들이켰다. 그러고는 접시를 옆에 서 있던 귀족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어이구, 역겨워. 냄새는 좋지만 맛이 밍밍하네."

왕자의 이 행동은 또 한 번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아무도 이 서글픈 광경을 보고 웃는 사람은 없었다.

톰은 그 다음에 또 한 번, 얼떨결에 실수를 저질렀다. 목사가 왕자의 의자 뒤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눈을 꼭 감고, 막 기도를 드리려는 순간이었다. 톰은 후닥닥 일어나 식탁을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왕자의 엉뚱한 행동을 의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톰은 자기 방으로 가겠다고 우겼다. 그러고는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그 방 벽에는 반짝거리는 갑옷이 여러 벌 걸려 있었다. 갑옷에는 모두 화려한 무늬가 금으로 박혀 있었다. 이 전투용 갑옷과 투구는 진짜 왕자의 것이었다. 얼마 전에 여왕 마담 파르한테서 받은 선물이었다. 톰은 정강이받이, 긴 장갑, 깃털 달린 투구 따위를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걸칠 수 있는 데까지 걸쳐 보았다. 한번은 도움을 청하여 갑옷을 다 입어 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

바로 그때 톰은 아까 식사를 끝낸 다음 주머니에 집어넣었던 호두가 생각났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호두

를 까먹고 싶어졌다. 톰은 바라지도 않는데 괜히 도와 준다고 사사건건 참견하는 귀족들이 너무나 지긋지긋했다. 그래서 갑옷을 도로 제자리에 걸어 두고는 호두를 까기 시작했다. 지은 죄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느님 덕분에 왕자가 되고 난 뒤, 톰은 처음으로 부담 없이 행복감을 느꼈다.

호두를 다 까먹은 톰은 책장 속에서 읽을 만한 책을 뒤져 보았다. 그 중에는 왕실의 예법을 소개한 책도 있었다. 톰에게는 구세주나 다를 바 없는 책이었다. 톰은 호화스러운 긴 의자에 몸을 기대고 한 글자 한 글자 책을 읽어 나갔다.

8. 옥새의 행방

다섯 시쯤 개운치 않은 낮잠에서 깨어난 헨리 8세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어지러운 꿈이야, 정말 어지러운 꿈이야!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소리로군. 맥박도 시원찮고 말이야."

곧이어 왕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하지만 그놈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는 없지."

왕이 잠에서 깨어난 것을 보고, 시종 하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법관을 만나 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들여보내라. 어서 들여보내!"

왕이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질렀다. 대법관은 들어와서 왕의 긴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다.

"소인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명을 받들어 지금 의

원들이 의사당에서 노포크 공작의 운명을 결정지은 뒤, 폐하의 다음 분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게 밝아졌다.

"나를 일으켜 다오! 의사당에 직접 가서 내 손으로 사형 집행 승인서에 마지막으로 옥새를 찍어 녀석을 없애야……."

그 순간, 왕의 목소리에서 기운이 빠졌다. 왕의 뺨은 어느새 잿빛으로 변했다. 시종들은 베개를 받쳐 왕의 몸을 편하게 누인 다음 서둘러 회복제를 먹였다. 이윽고 왕은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후유,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고! 하지만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모처럼의 기회를 놓쳐 버리는구나. 서둘러라, 서둘러! 나하고는 인연이 닿지 않는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겠어. 큰 옥새를 맡길 터이니 그대가 그 일을 할 만한 적임자를 뽑게나. 어서 가서 일을 봐. 서두르라니까!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는 내 눈앞에 그 녀석의 잘린 머리를 가져와야 한다."

"어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럼 옥새를 저에게 넘기라는 분부를 내려 주시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임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옥새라니! 그대말고 누가 옥새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인가?"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폐하께서 노포크 공작의 사형 집행서에 손수 도장을 찍으셔야겠다고 이틀 전에 도로 가져가셨습니다."

"아, 그랬었지. 이제 기억이 나는군. 그런데 그걸 내가 어디에 두었지? 왜 이리 기운이 없는지…… 요사이 내 기억은 주인을 곧잘 배반한다니까…… 요상한 일이로고……."

왕은 알아듣기 어렵게 중얼거리면서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이따금 좌우로 흔들었다. 그러면서 옥새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보다 못한 허트포드 경이 무릎을 꿇고서 왕에게 귀띔을 했다.

"폐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의 기억으로는…… 폐하께서 큰 옥새를 왕자님의 손에 맡기시면서 훗날에 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옳지, 옳지! 그걸 가져오라! 시간이 급하다, 어서!"

톰에게 쏜살같이 달려갔던 허트포드 경은 기운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왕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다.

"아주 무겁고 안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려야 하는 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하느님께서는 아직도 왕자님의 병을 낫게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봅니다. 왕자님께서는 옥새를 받은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왕자님이 쓰시는 그 수많은 방을 모조리 뒤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또 그래 봤자 옥새가 발견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왕의 입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 나왔다. 얼마 뒤 왕은 슬픔에 가득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불쌍한 아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하느님의 무거운 손이 왕자를 누르고 있다. 나의 가슴은 왕자에 대한 연민과 슬픔으로 터질 듯하구나. 이 늙은이의 근심 많은 어깨에 왕자의 고뇌를 더 얹었다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다. 왕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왕은 눈을 감고 몇 마디 더 중얼거리다가 얼마 뒤 침묵에 잠겼다. 잠시 후 다시 눈을 뜨고 주위를 멍하니 둘러보던 왕은 무릎을 꿇고 있는 대법관을 보더니 노여움에 휩싸였다.

"여기서 뭣 하는 게야! 그 역적놈을 내일까지 처단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목도 성치 못하리라!"

대법관이 벌벌 떨면서 변명에 나섰다.

"고정하시옵소서, 폐하! 저는 다만 옥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령이 그렇게도 없느냐? 지난 번에 외국을 방문하면서 가지고 갔던 작은 옥새는 아직 남아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야 하는 법! 그렇게도 머리가 안 돌아간단 말이냐? 물러가라! 그리고 잘 들어라. 그놈의 머리를 가지고 오기 전에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라!"

대법관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이 위험한 자리에서 빠져나간 다음,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다. 의회는 곧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 의회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던 불행한 노포크 공작은 다음 날 처형대에 오르게 되었다.[5]

9. 강변의 행사

그날 밤 아홉 시가 되자 강과 맞닿은 궁정의 강기슭 전체가 불빛으로 환하게 물들었다. 강물 위는 런던 저 멀리까지 나룻배와 유람선으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여러 가지 색깔의 등불을 달고 배들이 잔잔한 물결에 흔들리는 그 모습은 끝없이 펼쳐진 화려한 정원에서 부드럽게 불어오는 여름 바람에 넘실거리는 꽃들을 방불케 했다. 궁전에서 강으로 내려가는 널찍널찍한 돌계단은 웬만한 나라의 군대가 몽땅 들어서도 비좁지 않을 만큼 넉넉한 공간이었다. 우아한 갑옷에 창을 든 왕실 근위대와 화려하게 차려 입은 귀족들이 행사 준비를 하느라고 계단 위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도 참으로 볼 만했다.

누군가의 명령이 떨어졌는지, 사람들이 일제히 어디론가 사라져서 계단 위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남지 않게 되었다. 불

안과 기대의 분위기가 누리에 짙게 퍼져 갔다. 강물 쪽으로 시선을 뻗으면, 배 위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과 횃불의 눈부신 빛을 가리면서 궁전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흔다섯 척 가량 되어 보이는 왕실의 짐배가 계단 쪽으로 모여들었다. 금빛 찬란한 그 배들의 뱃머리와 배꼬리는 화려한 조각품을 연상시켰다. 깃발과 펄럭이는 휘장으로 치장한 배, 금실로 수놓은 천과 기사들의 문장으로 장식한 배, 비단으로 만든 깃발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종이 달려 있어서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영롱한 음악을 흩뿌리는 배도 있었다. 또 왕자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좀더 지체 높은 귀족들이 소유한 배는 싸움을 나타내는 무늬가 화려하게 아로새겨진 방패를 여보란 듯이 뱃전에 달고 있었다. 거룻배 한 척이 짐배 한 척씩을 끌고 있었는데, 거룻배에는 노 젓는 사람을 제외하고도 윤기가 흐르는 투구와 가슴받이를 걸친 무장병과 악사가 가득 타고 있었다.

드디어 오늘 벌어질 행사의 선발대가 거대한 궁전 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창을 치켜든 한 무리의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검은색과 황갈색의 줄무늬 바지를 입었고, 양 옆에 은색 장미가 달린 벨벳 모자를 쓰고 있었다. 웃옷은 오디처럼 붉거나 아니면 파란 빛깔이었는데, 배와 등에는 왕자를 모시고 있음을 알리는 깃털 세 개가 금실로 박혀 있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창대는 진홍색 벨벳으로 덮여 있었고 금박을 입힌 못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금술로 장식되어 있었다. 선발대는 좌우 이열 종대로 나뉘어 궁전 문에서 물가까지 줄지어 있었다. 이어서 금색과 진홍색의 제복을 입은 왕자의 시종들이 번쩍거리는 두꺼운 양탄자 같은 것을 두 줄의 병사들 사이에 깔아 놓았다.

그 작업이 끝나자 안에서 트럼펫 소리가 화려하게 울려 퍼졌다. 배에 타고 있던 악사들도 활기찬 서곡을 연주했다. 그러자 왕실을 상징하는 하얀 막대를 든 두 명의 의전관이 느릿느릿 점잖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 뒤를 백성을 상징하는 막대를 든 관리 한 사람이 뒤따르고, 다시 그 뒤로 런던을 상징하는 칼을 들고 또 다른 관리가 걸어 나왔다. 뒤이어 런던시 수비대에 소속된 병사 몇 명이 완전 무장 차림으로 소매에 계급장을 달고 나타났다. 이어 최고 문정관이 특유의 복장을 입고 걸어 나왔고, 그 다음 서열의 훈작 기사 여럿이 소매에 하얀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 다음은 기사 밑의 향사였다. 그리고 진홍색 법복과 하얀 법모를 쓴 판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담비 모피를 가장자리에 댄 진홍색 관복을 입고 영국 대법관이 그 다음 차례로 나타났다. 이어서 진홍색 망토를 입은 시의회 대표단, 그리고 각종 단체의 우두머리들이 각각 예복을 입고 나타났다. 이번에는 열두 명의 프랑스 신사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그들은 프

랑스 대사관에 근무하는 관리들이었다. 그 뒤로 스페인 기사 복장을 한 스페인 대사관 사람들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내로라 하는 귀족들이 저마다 시종을 거느리고 모습을 드러냈다.

안에서 화려한 트럼펫 연주가 들리는가 싶더니, 나중에 서머셋 공작이 되는 왕자의 삼촌 허트포드 경이 문에서 걸어 나왔다. 역시 날아갈 듯한 차림으로 온갖 멋을 다 부렸다. 허트포드 경은 돌아서서 깃털 모자를 벗은 다음, 가볍게 한 번 허리를 숙이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인사를 한 번씩 했다. 요란한 트럼펫 소리가 길게 꼬리를 늘이자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우리의 왕세자 에드워드 님이 납신다!"

궁궐 담벽 저 높이로 요란한 폭죽 소리와 함께 한 줄기 불꽃이 붉은 혀를 내밀고 길게 뻗어 나갔다. 강 위의 군중들은 일제히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톰 캔티가 뚜벅뚜벅 걸어 나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새하얀 공단으로 지은, 허리가 잘록 들어간 웃옷의 앞부분은 자주색 명주실로 수를 놓았는데,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났고, 담비 털로 소매를 댔다. 왕자는 그 위에다 금실로 수놓은 새하얀 망토를 걸쳤다. 망토에는 깃털 세 개가 꽂혀 있었고 파란 줄무늬가 아로새겨져 있었다. 또한 진주와 값진 귀금속이 사방에 박혀 있었고, 목 주위에는 최고 훈장을 비롯하

여 외국에서 받은 각종 훈장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빛이 왕자의 몸에 가 닿으면 보석들은 눈부신 광채로 답례를 보냈다. 헛간에서 태어나 런던의 빈민굴에서 자란 톰 캔티, 누더기와 흙먼지와 가난만을 알고 자란 톰 캔티로서는 이런 장면이 아직도 꿈만 같았다.

10. 올가미에 걸린 왕자

존 캔티가 진짜 왕자를 오펄 코트로 질질 끌고 갈 때, 동네 사람들은 시끌벅적 떠들면서 그 뒤를 따라갔다. 그 중에는 존 캔티에게 아이를 풀어 주라고 간절히 요청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쇠귀에 경 읽기였다. 존 캔티에게는 사실 그 말이 들리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더욱 그랬다. 왕자는 계속 빠져 나오려고 안간힘을 썼고, 자신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며 악을 썼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존 캔티의 쥐꼬리만한 인내심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참나무 방망이를 번쩍 들더니 왕자의 머리를 냅다 후려갈겼다. 그러자 아까부터 아이를 풀어 주라고 외롭게 호소하던 사람이 튀어나와 존 캔티의 팔을 가로막았다. 그 바람에 방망이가 존 캔티의 손목을 내리치고 말았다. 존 캔티는

길길이 날뛰었다.

"네놈이 끼어들겠다는 거냐? 그렇다면 어디 맛 좀 봐라!"

방망이가 존 캔티를 막았던 사람의 머리로 날아들었다. 신음 소리가 새어 나오면서 희미한 형체가 사람들 발치로 쿵 무너지더니, 다음 순간 어둠 속에 홀로 그렇게 나동그라졌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즐거워하면서 더욱더 소년을 몰아붙였다.

이윽고 왕자는 존 캔티의 집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문이 쿵 닫히는 바람에 구경꾼들은 바깥에서 술렁거리다가 흩어지고 말았다. 병에 꽂아 넣은, 동물 기름을 굳혀서 만든 양초의 어른거리는 불빛을 통해 왕자는 이 돼지우리 같은 집의 모양새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김새를 그런대로 알아볼 수 있었다. 꾀죄죄한 두 여자 아이와 중년 여자가 벽을 등진 채 잔뜩 주눅든 얼굴로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지겹도록 매만 맞고 자란 동물들이 곧 매를 맞게 될 상황 앞에서 보이는 그런 불안스러운 몸짓이었다. 방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이쪽을 훔쳐보고 있었다. 존 캔티는 할머니한테 말했다.

"늦었수다! 이 녀석이 주둥아리를 어떻게 나불대는지, 일단 구경이나 한번 해 보슈. 그런 다음에 실컷 두들겨 패도 늦지 않으니까. 어서 떠들어 봐라, 이 자식아! 어서 그 미친 짓거리를 다시 해 보라니까! 설마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테지? 네 이

름을 대. 네가 누구라고?"

참을 수 없는 굴욕감 때문에 왕자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고, 그로 인하여 뺨이 다시 한 번 벌개졌다. 왕자는 노여움에 찬 눈으로 존 캔티의 얼굴을 빤히 노려보았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무엄하게 명령하는 것은 오직 네가 잘못 배운 탓이로다. 아까 말했지만, 다시 한 번 말해 주마. 나는 틀림없는 에드워드 왕자다!"

어이가 없는지 톰 캔티의 할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서 있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겠다는 듯, 얼빠진 표정으로 왕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존 캔티는 자기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또 우스꽝스러워서 배꼽을 잡고 웃었다. 하지만 톰 캔티의 엄마와 누이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앞으로 달려나와 탄식했다.

"불쌍한 톰, 내 새끼!"

톰의 엄마는 왕자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왕자의 어깨에 두 손을 얹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애원하듯이 말했다.

"가엾은 내 새끼! 바보처럼 책만 읽더니 기어이 일을 치르는구나. 정신을 빼앗겼어. 아, 이 어미가 책을 읽지 말라고 그렇게 뜯어말렸건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니! 이 어미는 애간장이 끊어진다."

왕자는 여인의 얼굴을 빤히 보면서 조용히 말했다.

"그대의 아들은 괜찮다. 미치지 않았으니 안심하라. 그대의

아들이 있는 왕궁으로 나를 데려다 주면, 왕인 우리 아버지가 그대의 아들을 돌려보내실 것이야."

"네 아버지가 왕이라고? 아, 가엾어라! 한 번만 더 그런 끔찍한 소리를 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줄 알아라. 우리 식구도 몸이 성치 못할 거고. 어서 그 몹쓸 꿈에서 깨어나거라. 종잡을 수 없는 소리는 제발 그만 하렴. 톰, 나를 보아라. 너를 낳은 어미야. 너를 사랑하는 이 어미를 몰라보겠니?"

왕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이런 말을 하여 그대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기는 죽기보다 싫지만, 솔직히 말해서 난 그대의 얼굴을 지금 처음 보노라."

여인은 그대로 털썩 주저앉더니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좋아, 좋아."

존 캔티가 소리를 질렀다.

"어이, 낸! 어이, 벳! 어디서 배워 먹은 버르장머리냐! 왕자님 앞에서 그렇게 뻔대고 서 있을 참이냐? 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지 못할까, 이년들아!"

그러더니 또 한 번 배꼽을 잡고 웃었다. 누이들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왕자에게 애원했다. 낸이 말했다.

"이만 재우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 잠을 푹 자고 쉬어야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제발!"

벳도 맞장구를 쳤다.

"그래요, 아버지. 지금은 너무 피로해 보여요. 내일 아침 제정신이 돌아오면 부지런히 동냥을 다닐 거고, 다시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 말에는 아버지의 장난기도 꺾일 수밖에 없었다. 존 캔티는 돈에 약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난 표정으로 왕자에게 말했다.

"내일까지 이 집 주인에게 2펜스를 주어야 한다. 반 년치 집세란 말이다. 그걸 내지 않으면 우린 쫓겨나. 게으름을 부리더니 얼마나 벌어 왔는지 어디 한번 꺼내 봐."

그러자 왕자가 쏘아붙였다.

"네 지저분한 입과 손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왕의 아들이다."

존 캔티의 두툼한 손바닥이 왕자의 어깨를 철썩 후려갈겼다. 왕자는 비틀거리다가 캔티 부인의 팔에 안겼다. 여인은 왕자를 꼭 껴안은 채 세차게 쏟아지는 주먹질과 발길질을 자기 몸으로 막아 냈다.

겁에 질린 두 딸은 방으로 도망갔다. 할머니는 기를 쓰고 달려나와서 아들 편을 들었다. 왕자는 여인의 품에서 빠져 나오면서 이렇게 소리질렀다.

"나를 위해 그대가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되지. 이 무식한 것들이 얼마든지 나를 가지고 놀도록 내버려 두시오."

이 말을 듣고 격분한 존 캔티와 할머니는 그야말로 본때를 보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은 왕자를 가운데 두고 신나게

두들겨 팬 다음, 캔티 부인과 두 여자 아이에게도 왕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이유로 매질을 했다.

"이제……."

존 캔티가 말했다.

"다들 가서 자거라! 신나게 놀았더니 나도 피곤해."

불이 꺼지고 다들 잠자리로 돌아갔다. 코고는 소리가 들리고, 존 캔티와 할머니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낸과 벳은 왕자가 누워 있는 곳으로 살금살금 기어가 지푸라기와 누더기를 덮어 추위를 막아 주었다. 캔티 부인도 살그머니 기어가 왕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울음을 삼키면서 왕자의 귀에다 대고 위로와 애정의 말을 속삭였다. 캔티 부인은 아들에게 주려고 음식을 조금 남겨 놓았지만, 왕자는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음식이 맛없는 검정빵 부스러기만 아니었어도 입에 조금 댔을지도 모른다.

왕자는 그 여인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 자기를 지켜 준 행동에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아주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고마움을 표시한 뒤, 슬픔은 잊어버리는 게 좋다는 말을 하면서 어서 가서 잠을 청하라고 권했다.

"왕께서도 그대의 친절과 헌신에 반드시 큰 보답을 내리실 게야."

마지막으로 왕자가 이 말을 하자,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았던 아들이 다시 미쳐 버린 것 같아 캔티 부인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여인은 왕자를 힘껏 품에 안았다가 울먹이면서 잠자리로 돌아갔다.

슬픔에 잠긴 채 캔티 부인은 잠자리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뒤척거렸다. 그러고 보니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인 톰 캔티와는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어머니만이 느낄 수 있는 날카로운 본능이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말도 안 돼!"

슬픔과 괴로움에 젖어 있긴 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캔티 부인은 피식 웃고 말았다. 하지만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잠을 청하려고 애썼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올라 마음이 괴로웠다. 몸을 뒤척이던 캔티 부인은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그 아이가 아들인지 아닌지를 한 점의 의문도 남기지 않고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실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모든 의구심을 떨쳐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백 번 옳은 생각이었다. 캔티 부인은 어떤 실험을 하면 좋을지 당장 머리를 짜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막상 그럴 듯한 방법을 생각해 내려고 하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궁리를 거듭했지만 마음에 쏙 드는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 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그때 캔티 부인은 아이가 잠이 들었음을 알았

다. 가만히 들어 보니 숨소리 사이로 간간이 마치 악몽이라도 꾸는 것처럼 가냘픈 비명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캔티 부인은 그때까지 떠올렸던 방법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한 결 멋진 방법을 떠올렸다. 캔티 부인은 신들린 사람처럼,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양초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왜 진작에 그런 좋은 생각을 못 했는지 몰라. 저 아이가 어렸을 때 코앞에서 폭약이 터져 놀란 일이 있었지. 그때 이후로는, 꿈을 꾸거나 생각에 잠겨 있다가 화들짝 놀라 깨어나는 법이 한 번도 없었어. 놀랐을 때 하는 몸짓이 기껏 두 손으로 눈을 가리는 건데, 그것도 참 희한하지. 남들처럼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가린단 말이야. 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걸 보면 진짜 내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촛불을 손으로 가리면서 캔티 부인은 잠든 아이의 옆으로 살며시 기어갔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날까 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흥분을 가라앉히며 조심스럽게 아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러고는 촛불로 아이의 얼굴을 환히 비추고, 아이의 귀 바로 밑쪽의 바닥을 손가락 마디로 콩콩 두드렸다. 잠자던 소년이 눈을 번쩍 뜨더니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별다른 손짓은 하지 않았다.

캔티 부인은 놀라움과 슬픔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아이를 다독거려 다시 재웠다. 그러고는 잠자리로 돌아와 어떻게 그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부인은 아들의 오래된 버릇이 없어진 것은 지금 머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이럴 수는 없어. 톰이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손까지 미쳤을 수는 없어. 그렇게 오래된 버릇을 어떻게 한 순간에 잊어버릴 수 있겠어? 아, 오늘은 이상하게 일이 꼬이기만 하네."

하지만 캔티 부인의 희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부인은 이 실험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었다. 아주 우연히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시간의 여유를 충분히 두었다가 아이를 한 번, 또 한 번 깨워 보았다. 하지만 첫 번째와 다름없는 결과가 나왔다. 부인은 힘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잠을 청하면서 이렇게 읊조렸다.

"저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 절대로! 저 아이는 내 아들이야!"

불쌍한 캔티 부인의 넋두리도 점점 잦아들고, 왕자의 욱신거리던 통증도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왕자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꿈나라로 깊이 빠져 들어갔다. 한 시간이 지나고, 또 한 시간이 지나고, 왕자는 죽은 사람처럼 계속 잠만 잤다. 그렇게 너댓 시간이 흘러갔다. 왕자는 조금씩 혼수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이윽고 절반은 깨어 있고 절반은 잠에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윌리엄 경!"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왕자는 또 잠꼬대를 했다.

"어이, 윌리엄 허버트 경! 빨리 와서 이 괴상 망측한 꿈 이야기를 좀 들어 보라니까…… 윌리엄 경, 듣고 있는 거야? 저기 말이지, 내가 거지로 변했는데…… 어이, 호위병! 윌리엄 경, 웬일이야? 시종들은 다 어디로 갔어? 이런 법이……."

"왜 그래? 누굴 부르는 거야?"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윌리엄 허버트 경! 넌 누구지?"

"나? 오빠 동생 낸도 몰라? 내 정신 좀 봐. 오빠는 정상이 아니지. 너무 불쌍해. 이게 꿈이면 좋으련만. 오빠가 혀를 잘못 놀리면 우린 맞아 죽어."

놀란 왕자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제야 왕자는 딱딱하게 굳은 자기 몸의 상처를 보고 재빨리 현실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신음 소리를 내며 더러운 짚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맙소사, 꿈이 아니었구나!"

잠과 함께 달아났던 깊은 슬픔과 괴로움이 금세 다시 찾아들었다. 자신은 지금 온 백성의 우러름을 받으며 궁전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던 왕자가 아니라 누더기를 걸친 거지이며 부랑자라는 것을, 짐승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곳에서 거렁뱅이와 도둑 틈바구니에 갇혀 있는 신세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그렇게 비통함에 젖어 있는데 어디선가 왁자지껄한 소음과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잠시 후 바깥에서 '탕탕탕'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존 캔티가 코골기를 멈추고 한 마디 했다.

"누구야? 뭐야?"

그러자 어떤 목소리가 대답했다.

"자네가 방망이로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몰라. 관심도 없어."

"그렇게 느긋할 때가 아니야, 이 사람아. 어서 줄행랑을 놓

지 않으면 당장 모가지가 달아날걸! 자네한테 맞은 사람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니까. 앤드루 신부가 말이야!"

"하느님 아버지!"

존 캔티는 놀라서 기겁을 하며 가족들을 흔들어 깨워서는 한바탕 호령을 했다.

"어서 일어나서 도망가야지, 여기 남아 있다가는 개죽음 당할 거다!"

오 분도 채 못 되어 캔티네 식구는 거리로 나와 줄행랑을 놓았다. 존 캔티는 왕자의 손목을 움켜쥐고 어두운 골목을 허겁지겁 빠져 나가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입조심해라, 이 미친 자식아, 우리 이름을 부르면 안 돼. 추적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 내가 곧 새 이름을 짓겠다. 입조심하라는 말, 단단히 명심해!"

존 캔티는 다른 식구들에게도 단단히 못을 박았다.

"만일 우리 식구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런던교에서 모인다. 다리 위의 맨 끝에 있는 옷가게 앞에서 만나는 거야. 먼저 도착한 사람은 나머지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모두 모이면 사우스워크로 튀자."

그러는 사이에 일행은 돌연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왔다. 그저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강변에서 떼지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캔티네는 그 속에 끼어든 것이다. 템스강을 따라 횃불이 꼬리

를 물고 한없이 뻗어 있었다. 런던교는 대낮처럼 밝았고, 사우스워크교 또한 눈부시게 밝았다. 강 전체가 여러 가지 색깔의 휘황찬란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끊임없이 터지는 폭죽은 눈부신 불꽃을 사방으로 퍼뜨려서 밤하늘이 대낮처럼 환해질 지경이었다. 어딜 가나 먹고 마시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런던 전체가 들썩거리는 것 같았다.

존 캔티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뒤로 물러나자고 소리쳤지만 이미 한 발 늦었다. 캔티네는 벌 떼처럼 몰려오는 인파에 휩쓸려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왕자의 손목만은 존 캔티의 큰 손에 움켜쥐어져 있었다. 그래도 왕자는 이제 도망갈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때 술에 잔뜩 취한 우락부락한 뱃사공이 군중들 틈새로 빠져 나가려는 존 캔티에게 거칠게 떠밀렸다. 뱃사공은 솥뚜껑만한 손을 존 캔티의 어깨에 얹었다.

"여보슈, 어딜 그리 바삐 가시나? 다들 좋아서 야단인데 당신 혼자 무슨 음흉한 흉계라도 꾸미나?"

"남의 일에 참견말고 어서 손이나 치우쇼. 바쁜 사람 가로막지 말고."

존 캔티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건 그쪽 사정이지. 왕자님을 위해 한 잔 마시기 전에는 여길 지나갈 수 없을 거야. 암, 못 지나가고말고."

뱃사공은 떡 버티고 서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럼 잔을 주쇼. 어서, 어서."

주변에 있던 다른 술꾼들도 호기심을 나타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정겨운 잔으로, 정겨운 잔으로! 코가 비뚤어지도록 마시지 않으면 저 친구를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 버릴 테다!"

손잡이가 양쪽으로 달린 '정겨운 잔'이 날라져 왔다. 뱃사공은 한 손으로 잔의 손잡이를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있지도 않은 냅킨 끄트머리를 쳐들고는 아주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잔을 존 캔티에게 넘겼다. 존 캔티는 한 손으로 잔의 맞은편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뚜껑을 열어야 했다. 그것이 잔을 주고받는 예의였다.[6] 왕자는 순간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왕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위에 선 사람들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어 가서는 그대로 내뺐다. 이렇게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곳에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내기란 불가능했다.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동전을 찾는 격이었다.

왕자는 이제 더 이상 존 캔티한테 붙잡힐 염려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쓰기로 했다. 왕자는 지금 막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 지금 온 도시가 자기 아닌 가짜 왕자에게 축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거지 소년 톰 캔티가 천금 같은 기회를 이용해서 왕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진짜 왕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왕자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시청으로 가서 자기의 신분을 알리고 사기꾼을 몰아내는 것이었다. 왕자는 톰 캔티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다음, 그의 목을 매달고 시체를 끌어내어 갈가리 찢어 놓기로 마음먹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중대한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런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1. 시청에서

가짜 왕자가 탄 배는 근사한 함대의 호위를 받으며 어지럽게 불을 밝힌 다른 배들 사이를 뚫고 템스강을 위풍당당하게 타고 내려갔다. 음악이 온 대지에 그득했다. 강둑에서는 환희에 넘친 불꽃의 물결이 일었고, 멀리 런던은 깨알처럼 수없이 박힌 횃불로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 번쩍거리는 등불로 몸을 덮은 뾰족탑이 하늘을 향해 쭉쭉 솟아올라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창에 보석을 달아서 위로 찌르는 것처럼 보였다. 강둑에서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갈채와, 끝없이 이어지는 불꽃과 축포의 세례로 함대를 환영했다.

비단 방석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톰 캔티에게는 이런 소리와 이런 모습이 말할 수 없이 숭고하고 경이롭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엘리자베스 공주와 제인 그레이에게는

그런 것들이 조금도 새로울 것이 없었다.

갑문에 닿은 함대는 맑은 월브룩 운하로 인도되었다. 월브룩 운하는 두 세기 전에 지어졌지만, 이제는 수많은 건물에 파묻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 함대는 흥겹게 떠드는 사람들로 바글거리는, 환하게 불을 밝힌 집과 다리를 계속 지나쳐서 드디어 유서 깊은 런던의 복판을 움푹하게 후비고 들어간 작은 항구에 닿았다. 톰은 배에서 내렸다. 화려한 행렬은 칩사이드를 건너 유대인 동네와 베이싱홀 거리를 잠시 거쳐서 시청에 도착했다.

톰과 엘리자베스 그리고 제인은 금으로 된 장신구를 걸치고 진홍색 예복을 차려 입은 런던 시장과 런던 사제단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런 다음 왕자의 행차를 알리는 전령관을 앞세우고, 화려하게 치장된 시청의 꼭대기 단으로 올라갔다. 지체 높은 귀족들이 톰 일행을 맞아 주었다.

한 단 낮은 식탁에는 궁중의 벼슬아치와 그밖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런던의 부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하원 의원들도 홀 중앙에 가득 놓인 식탁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아득히 먼 옛날부터 런던의 수호자로 추앙받아 온 두 거인, 곡과 마곡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익히 보아 온 장면을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우렁찬 고함과 함께 왼쪽 벽으로부터 한 뚱보 시종이 나타났고, 그 뒤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침 도는 고기 요리를 엄숙하게 받들

고서 하인들이 나타났다.

기도가 끝난 뒤 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모두들 따라 일어났다. 톰은 엘리자베스 공주와 함께 크고 훌륭한 정겨운 잔으로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잔은 제인에게로 넘어가고, 다시 다른 자리로 계속 돌았다. 그렇게 해서 만찬이 시작되었다.

자정 무렵 사람들의 흥은 절정에 이르렀다. 정말 그 당시로서는 볼 만한 구경거리였다. 그때 그 광경은 한 신문 기자의 글에 실려 지금도 남아 있다.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제 남작과 백작이 금가루를 뿌려 놓은 듯한 화려한 수를 놓은 터키풍의 긴 예복을 입고 나타났다. 머리에는 황금 장식이 달린 원통 모양의 진홍빛 벨벳 모자를 쓰고, 초승달처럼 굽은 칼을 두 자루 금으로 된 큼직한 어깨띠에 매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다른 남작과 백작이 나타났다. 그들은 노란 비단 가운을 입고 있었다. 노란 비단을 하얀 비단이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하얀 비단이 굽이도는 자리마다 진홍 비단이 어김없이 맞닿아 있었다. 그것은 러시아풍의 옷이었다. 머리에는 회색 털모자를 쓰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손도끼를 하나씩 들고 있었고, 발 하나 길이만한 뾰족침들이 달린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들 뒤로 기사가 나타나고, 이어 해군대신과 함께 진홍빛 벨벳으로 된 허리가 잘록한 옷을 입은 다섯 명의 귀족이 나타났다. 그들의 옷은 등 밑부

분에서 목뼈 있는 데까지 파여 있었고 가슴은 은사슬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 위에 짧은 진홍빛 망토를 걸쳤고, 머리에는 무희들처럼 꿩의 깃털이 달린 모자를 썼다. 프러시아풍의 복장이었다. 횃불을 든 100여 명의 사람들은 진홍빛 비단에 푸른빛이 감도는 옷을 입었는데, 무어인처럼 얼굴이 검었다. 이어 변장한 가수가 춤을 추며 들어섰다. 그러자 귀족과 귀부인들도 열광적으로 춤을 추었다. 참으로 볼 만한 광경이었다."

높은 의자에 앉은 톰은 이 야단스러운 춤을 보면서 화려한 차림새의 인물들이 어지럽게 뒤엉키면서 엮어 내는 휘황찬란한 빛깔에 넋을 잃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누더기를 걸친 진짜 왕자는 시비를 가리겠노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가짜 왕자를 비난하면서 시청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우겼다. 군중은 거지의 이 엉뚱한 행동을 무척이나 재미있어하면서, 이 당돌한 폭도의 모습을 보려고 앞으로 밀고 나와 목을 쑥 내밀었다. 그러고는 거지 소년을 놀리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일부러 약을 올리며, 소년이 화내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왕자는 하도 분해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난폭한 사람들에게 의연히 맞섰다. 그러나 짓궂은 사람들의 약올리기와 빈정거리기는 그치지를 않았다. 왕자는 참다 못해 고함을 질렀다.

"너희, 사람 같지도 않은 개자식들에게 다시 한 번 말해 두겠는데, 나는 진짜 왕자다! 지금은 비록 버림받고 친구 하나

없는 몸이라서 아무도 나에게 따뜻한 말을 던지지 않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지만, 나는 결코 내 자리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버틸 것이다!"

"그대가 왕자이건 왕자가 아니건, 한 가지는 분명하지! 용감한 소년이라는 사실 말야. 하지만 친구가 없다는 건 틀린 말이야! 그 증거가 자네 옆에 서 있는 바로 나니까 말일세. 어딜 가든 이 마일스 헨든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리란 보장은 없다네. 게다가 나는 제 발로 찾아온 친구가 아닌가. 그러니 이제 좀 쉬시게나, 꼬마 친구. 이 더러운 시궁쥐 놈들은 내가 더 요리를 잘 하니까."

사내의 말은 거칠었지만 옷차림이나 생김새, 몸짓에는 어딘가 기품이 서려 있었다. 키도 크고, 근육질의 몸은 균형이 잡혀 있었다. 허리가 잘록한 웃옷과 바지는 비싼 옷감으로 지었지만 낡아서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금 레이스 장식은 비참하리만치 빛이 바래 있었다. 또 주름깃은 잔뜩 구겨져 있고 군데군데 찢겨 나가 있었다. 축 늘어진 모자에 꽂힌 깃털은 부러진데다 때가 덕지덕지 묻어서 차마 눈뜨고 봐 줄 수가 없었다. 녹슨 칼집에는 긴 쌍날 칼을 꽂고 있었다.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 입은 사람이 입을 열자 사람들은 웃음보를 터뜨리며 야유를 퍼부었다.

"변장한 왕자가 또 한 명 나타났구나!"

"말조심해. 위험한 친구 같은데."

"저 아이를 떼어 내서 도랑에다 처박자!"

이 마지막 말에 자극을 받았는지 손 하나가 당장 왕자의 몸에 닿았다. 마일스 헨든이라는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긴 칼을 빼 들었고, 왕자를 집적거렸던 사람은 쿵 하고 땅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고함을 질렀다.

"저놈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군중들은 용감한 전사를 점점 조여들어 왔다. 그는 벽을 등진 채 미친 듯이 칼을 휘둘러 댔다. 칼에 맞은 사람들이 피식피식 쓰러졌지만 군중들은 쓰러진 사람들을 딛고 성난 파도처

럼 밀려들었다. 사내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그때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다.

"폐하의 사자다, 길을 비켜라!"

한 무리의 말 탄 병사들이 군중들 한가운데로 달려오자 사람들은 다치지 않으려고 기를 쓰며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 덕분에 용감한 사내는 왕자와 함께 위험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시청 안에서는 환호성과 고함이 어우러진 가운데 사람들이 한창 재미나게 놀고 있었다.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러자 왕궁에서 달려온 사자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숨죽여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비장한 말투로 그 사람이 내던진 마지막 말은 이런 것이었다.

"폐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머리를 숙였다. 얼마 동안 다들 그렇게 침묵을 지켰다. 그러고는 일제히 무릎을 꿇은 채 톰에게 두 손을 뻗고는, 건물이 떠나갈 듯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폐하!"

톰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허공을 맴돌던 눈길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있는 귀족들한테 가서 멎었다가 잠시 후에는 허트포드 백작에게 가서 멎었다. 불현듯 떠오

르는 생각이 있기나 한 것처럼, 톰은 허트포드 백작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말에 솔직히 대답해 주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오직 왕만이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면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모두 그 명령에 따를까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온 백성이 그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이 나라의 주인이시니까요. 폐하의 말씀은 곧 법입니다."

톰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럼, 오늘부터 왕의 법은 자비의 법이 될 것이다. 피의 법은 사라진다. 그대들 무릎에서부터 런던탑 꼭대기까지! 왕의 이름으로 노포크 공작을 죽이지 않겠다!"[7]

그 말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순식간에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쫙 퍼졌다. 허트포드 백작이 사라진 뒤 또다시 엄청난 함성이 들렸다.

"피의 통치는 끝났다! 에드워드 왕 만세!"

12. 왕자와 구세주

마일스 헨든과 왕자는 군중으로부터 빠져 나와 뒷길과 작은 길을 통해 강으로 나갔다. 가는 도중에 마주친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런던교가 가까워지자 다시 길은 인파로 들끓었다. 헨든은 왕자의, 아니 왕의 손목을 꼭 움켜쥐었다.

놀라운 소식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서 왕자도 왕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백 번도 넘게 들었다. 그 소식은 불쌍한 떠돌이 왕자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온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였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를 새삼 깨달으면서 왕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에 젖었다. 왕은 성질이 불같아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무섭게 굴었지만, 자신에게만은 늘 다정하게 대해 주었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왕자는 그 순간,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부랑아처

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 또다른 고함 소리가 밤 하늘을 뒤흔들었다.

"에드워드 대왕 만세!"

그 말을 들은 왕자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다. 손가락 끝까지 퍼지는 자부심에 온몸이 바르르 떨렸다.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나는 왕이야.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두 사람은 사람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런던교 위로 올라섰다. 지어진 지 600년이나 되는 이 다리는 일 년 내내, 인파로 북적대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참으로 희한하게 생긴 다리였다.

다리 위에는 위층이 가정집으로 이용되는 상점과 가게 들이 강 이쪽에서 저쪽까지 죽 이어져 있었다. 런던과 사우스워크를 잇는 다리 자체가 하나의 도시인 셈이었다. 다리 위에 여관과 술집이 있고, 잡화점과 야채시장이 있고, 자그마한 공장이 있었다. 또 교회도 있었다. 마치 런던교가 중심지고 런던과 사우스워크가 변두리 지역 같았다. 그래서 런던교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는 통 관심이 없었다. 말하자면 일가 친척끼리 꾸려 나가는 가족 기업이었다고나 할까. 달랑 하나 나 있는 길은 400미터도 채 안 되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마을 하나 정도의 인구밖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좁은 동네였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았다. 같은 동네 사람끼리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알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 안에 밥그릇이 몇 개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물론 그 안에도 위계 질서는 있었다. 대대로 정육점이나 빵가게를 해 온 집은 한 자리에서 오륙백 년을 넘게 버텨 온 터주대감이라 런던교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두루 꿰고 있었다. 그곳에 전해 내려오는 이상한 전설까지도 빠짐없이 알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다리식으로 말했고, 다리식으로 생각했으며, 다리처럼 장황하고 밋밋하고 솔직하고 실속 있게 거짓말을 했다. 시야가 좁은 우물 안 개구리인 주제에 자부심 하나는 틱없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아이들은 다리 위에서 태어나 다리 위에서 자라고, 평생 다리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내디뎌 보지 못하고 노인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 그런 사람들이 고함과 함성, 말과 소와 염소들이 우는 소리, 우렁찬 발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인 채 다리 위를 끝없이 오가는 장대한 행렬을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다. 어쨌든 자기들이 런던교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창문으로 내려다보기만 해도, 그곳의 주인으로서 얻는 게 있었다. 왕이나 영웅의 행진이 잠깐씩 이곳을 지나갈 때면, 장애물 없이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그 행렬을 구경하기에 그곳보다 좋은 자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리 위에서 태어나 거기서 죽 자란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

서 제대로 살지를 못했다. 다른 곳의 생활은 너무나 단조롭고 지겨운 일들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 어떤 노인이 일흔한 살의 나이로 은퇴하여 다리를 떠나 초야에 파묻혔다. 하지만 자리에 누워도 엎치락뒤치락할 뿐,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 주위가 너무 쥐죽은 듯이 고요하니까 그게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견디다 못한 그 노인은 결국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몰골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철썩이는 물 소리와 런던교의 와르르 쿵 쾅, 시끌벅적한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 속으로 곯아떨어졌다.

런던교는 그야말로 영국 역사의 산 교육장이었다. 다리 입구의 높은 곳에 지체 높은 사람들의 머리가 쇠못으로 박혀 있었고, 그것이 푸르뎅뎅하게 썩어 가고 있기도 했다.

헨든이 묵고 있는 여관은 다리 위에 있었다. 어린 왕을 데리고 그가 여관 문 앞에 이르자 웬 걸걸한 목소리가 맞아 주었다.

"드디어 나타나셨구먼! 다시는 도망 못 갈 줄 알아라. 암, 어림없지. 네놈의 뼈를 갈아서 반죽을 해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다는 거냐? 이번에도 까불면 용서하지 않겠다."

존 캔티는 어린 왕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마일스 헨든이 가로막고 나섰다.

"왜 이리 성질이 급하실까? 괜스레 서둘지 마시오. 도대체 이 아이하고는 어떻게 되는 사이요?"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고 어서 비켜! 저 앤 내 아들이야."

"거짓말!"

어린 왕이 쏘아붙였다.

"너, 배짱 한번 좋구나. 네 머리가 정상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다만, 어쨌든 이 아저씬 네 말을 믿는다. 설사 이 야비한 불한당이 네 아비라고 해도, 힘으로 윽박지르면서 함부로 자기 자식을 두드려 팰 수는 없는 법이야. 그러니까 너는 아저씨와 같이 있고 싶다 이 소리렷다?"

마일스 헨든이 묻자 어린 왕이 말했다.

"난 저 사람을 몰라.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과 같이 가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어."

"그럼 문제는 해결됐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소."

"어디 그렇게 되나 두고 보자. 우격다짐으로라도 내가 저 녀석을!"

존 캔티는 어린 왕에게로 성큼 다가섰다.

"이 쓰레기 같은 자식! 저 아이를 건드리기만 해 봐라! 네놈을 통닭처럼 쇠꼬챙이에 구워 먹을 테니!"

헨든이 그렇게 소리치고는 길을 막고 손을 칼집으로 가져갔다. 존 캔티는 주춤주춤 물러났다.

"잘 들어 둬."

헨든의 말이 이어졌다.

"저 아이를 해치려고, 아니 죽이려고 너 같은 놈들이 떼거지로 덤벼들었는데도 난 막아 낸 몸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너 같이 지독한 놈한테 저 아이를 내줄 줄 알았더냐?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 설령 네놈이 저 아이의 아비라고 해도 네놈 밑에서 평생 고생을 시키느니 차라리 단칼에 죽이고 말겠다. 그러니 어서 꺼지라고. 난 입씨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

고, 참을성도 없으니까."

존 캔티는 욕지거리를 하면서 물러났다. 그의 모습은 곧 인파에 섞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헨든은 식사 주문을 한 다음 왕자를 데리고 3층의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꾀죄죄한 침대에 잡동사니 가구가 어지럽게 놓인 누추한 방에는 희미한 양초 두 자루만 맥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린 왕은 침대까지 간신히 걸어가서 누웠다. 허기와 피로 때문에 녹초가 되었던 것이다. 그때가 새벽 두 시였으니까 하루 낮 하루 밤을 아무것도 못 먹었고, 내내 서 있다시피 했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어린 왕은 졸음에 겨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상이 차려지거든 나를 깨우게나."

그러고는 그대로 깊은 잠에 곯아떨어졌다.

헨든의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어렵쇼, 저 거지 아이는 남의 방에 들어온 주제에 마치 자기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남의 침대를 자연스럽게 차지하고 누웠네?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은 일언반구도 없이 말씀이야. 아까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를 때 저 아이는 자기가 왕자라고 했어. 아닌게아니라 왕자처럼 의젓하게 굴었지. 누구 한 사람 돌보아 주지도 않는 불쌍한 녀석, 아비한테 하도 맞아서 머리가 돈 모양이야. 좋아, 내가 돌보아 주마. 내가 목숨을 구해 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저 아이한테 마음이 끌리는군. 저 당돌한 거지 아이가 벌써 좋아지는 것 같아.

더러운 패거리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얼마나 당당하게 싸웠느냐 말이야! 잠이 들어 괴로움과 근심이 사라지니 생긴 것도 참으로 깨끗하고 귀엽구나. 내가 저 아이의 병을 고치겠어. 맞아, 형이 되어서 자나깨나 보살피고 지켜 줘야지. 저 아이를 괴롭히거나 해치는 놈은 그 자리에서 나한테 죽는 줄 알아라!'

헨든은 몸을 어린 왕 위로 기울이고,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따스한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구릿빛으로 그을린 커다란 손으로 어린 왕의 뺨을 어루만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만히 펴 주었다. 그때 어린 왕의 몸이 가볍게 떨렸다. 헨든은 중얼거렸다.

"거 참, 이렇게 아무것도 덮지 않고 자면 감기에 걸릴 텐데. 어쩌지? 일으켜서 침대 속으로 들여보내면 좋겠는데, 잘못하다가는 잠을 깨울 것 같고. 지금은 잠을 푹 자야 하는데 말이야."

헨든은 덮어 줄 것이 없는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마땅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웃옷을 벗어 어린 왕의 몸을 둘둘 말아 주었다.

"나야 살을 에는 바람도 얇은 옷 한 벌로 이겨 내는 데 워낙 이력이 난 사람이지만, 아이들은 까딱 잘못하면 감기에 걸리거든."

그러고는 언 몸을 녹이느라 방 안을 서성거리면서 혼잣말을 계속했다.

"자기를 왕자로 착각하는 건 머리가 돌았기 때문이야. 사실 왕자가 있다는 것도 이제는 말이 안 되지. 왕자였던 분은 지금은 왕자가 아니라 왕이 되셨거든. 불쌍한 저 아이만 헛것이 씌어서 이제는 흉내를 내도 왕자가 아니라 왕 흉내를 내야 한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군.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의 감옥에 갇힌 지 어느덧 칠 년,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틀림없이 저 아이를 반갑게 맞아 주시고 나 대신 잘 보살펴 주실 텐데. 아더 형도 마찬가지일 테고. 동생 휴 녀석, 그 녀석 머리를 빠개 놓고 싶다. 여우 같은 놈! 악질 중의 악질! 그래, 그쪽으로 가자. 가서 결판을 내는 거야."

그때 여관 종업원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들고 와서

작은 식탁 위에 놓고, 의자만 제자리에 갖다 놓은 뒤 훌쩍 가버렸다. 이런 별볼일없는 손님들한테 음식 시중을 들면 뭣 하겠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문이 쾅 닫히는 바람에 어린 왕은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러고는 반가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다시 시무룩해지면서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 꿈이었구나. 슬프도다."

이번에는 마일스 헨든의 옷에 왕자의 눈길이 닿았다. 그 눈길은 다시 헨든에게로 옮겨졌다. 왕자는 헨든이 자기를 위해 어떤 일을 해 주었는지 그제야 알아차렸다. 왕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군. 고맙기 그지없네. 어서 입도록 하게.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그러고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한 구석에 있는 세면대로 가서 가만히 있었다. 헨든이 기운차게 말했다.

"자, 이제부터 배를 채우는 거야. 뜨끈뜨끈한 게 아주 맛있어 보이는구나. 눈도 좀 붙였으니 이제 한 술 뜨면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될 거다."

어린 왕은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장난이 아니었다. 꺽다리 기사에 대해서 무언가 못마땅하기도 했다. 헨든은 어린 왕의 이런 표정을 보며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뭐가 잘못됐니?"

"세수를 좀 해야겠네."

"아, 얼마든지 하라고. 하고 싶은 게 있거든 내 허락을 받지 말고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 여긴 내 방이니까 마음 편히 지내."

그런데도 어린 왕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러더니 더 이상 못 참겠는지 작은 발로 마루를 톡톡 차 댔다. 헨든은 정말 난감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왜 그러고 서 있어?"

"수다만 떨지 말고 물을 붓게."

헨든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하느님 맙소사. 이건 너무 심하다!'

그렇지만 헨든은 씩씩하게 앞으로 걸어 나가서 이 건방진 귀염둥이가 시키는 대로 물을 부었다. 그러고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수건 가져와!"

헨든은 어린 왕의 명령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헨든은 군소리 없이 수건을 대령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얼굴을 씻었다. 헨든이 얼굴을 씻는 동안 그가 맞아들인 손님은 식탁 앞에 앉아 막 먹을 채비를 갖추었다. 헨든은 잽싸게 손 씻는 물을 소년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도 다른 의자를 빼서 막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소년이 버럭 화를 냈다.

"무엄하도다! 왕 앞에 앉겠다는 게냐?"

깜짝 놀란 헨든은 하마터면 뒤로 나동그라질 뻔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는구나. 나라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자기도 덩달아 변하려고 드니 말이야. 이제는 아주 왕 노릇을 하려고 드네! 좋아, 그 기분을 살려 주지. 도리 있냐고! 괜히 까불다간 어명에 따라 런던탑에 갇히는 신세가 될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혼자서 장난스럽게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재미가 있었다. 헨든은 의자에서 일어나 어린 왕의 뒤로 가서 섰다. 그리고 최대한 공손한 자세로 왕의 명령을 깍듯이 받들 준비를 했다.

뱃속이 든든해지자 위엄을 부리던 왕도 긴장이 좀 풀리는 모양이었다. 왕은 나직이 말했다.

"혹시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대 이름이 마일스 헨든이라고 했나?"

"그렇습니다."

마일스 헨든은 깍듯이 대답을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기왕에 미친 아이의 기분을 맞춰 주려면 제대로 맞춰 주자. 어설프게 굴지 말고 깍듯이 존대를 하자고. 내가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좋은 일 하려다가 일을 더

그르칠지도 모르잖아.'

포도주를 두 잔째 마시자 어린 왕은 가슴이 훈훈해졌다.

"그대에 관해서 알고 싶군. 살아 온 이야기를 해 보게. 아주 용감하고 기품이 있어 보이던데, 귀족 집안인가?"

"귀족은 귀족이지만 아주 보잘것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기사나 다름없는 준남작이지요. 켄트 지방 몽크스 홀름 부근의 헨든 장원을 갖고 있는 리처드 헨든 경입니다."

"그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계속해 봐."

"별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다른 재미난 이야깃거리를 모르니 한 삼십 분 심심풀이 삼아 들어 보시든가요. 저의 아버지 리처드 경은 부자인데다 워낙에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저한테는 형제가 둘 있습니다. 형 이름은 아더인데, 성격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지요. 동생 휴 녀석은 성격이 아주 못됐습니다. 욕심이 많고 약속을 안 지키는데다, 포악하고 음흉했지요. 버러지 같은 녀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놈을 마지막으로 본 게 십 년 전이니까 제가 스무 살, 그 못된 놈은 열아홉 살 때였습니다.

우리 식구말고 사촌누이인 에디스가 있었습니다. 열여섯 꽃 같은 나이였지요. 에디스는 마음씨가 곱고 얼굴도 예쁘고, 아주 상냥했습니다. 백작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남은 형제도 없어서 그 많은 재산을 혼자 물려받

았지요. 백작이라는 작위는 물론이고요. 저의 아버지가 에디스의 보호자 노릇을 했습니다. 저는 에디스를 사랑했고, 에디스도 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에디스는 아주 어렸을 때에 아더 형과 이미 약혼을 한 상태였지요. 아버지는 일단 정해 놓은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있어도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형은 다른 아가씨를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잘 되기를 빌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흐르고 게다가 운만 따라주면 형은 형대로, 저는 저대로 뜻을 이룰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지요. 그런데 제 동생 휴는 에디스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에디스를 사랑한다고 떠들었지만요. 그 녀석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속마음은 항상 검었습니다. 에디스는 그 녀석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지요. 아버지는 우리 중에서 그 녀석을 가장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나이가 제일 어린데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으니까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비결은 예나 지금이나 바로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생은 말주변도 좋았습니다. 거짓말하는 데는 선수였지요. 그러다 보니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맹목적인 사랑은 깊어만 갔지요. 저는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냥 다혈질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다혈질이었지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순수했습니다. 저 자신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손해를 입히지

않았지요. 범죄라든지 비열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제 자신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는 저의 그런 점을 악용했어요. 아더 형의 건강이 좋지 않아 늘 병을 앓는 것을 보고, 저만 사라져 주면 형이 죽었을 때에 집안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한 거지요. 그것까지 말씀드리려다 보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집니다, 폐하. 이야기할 가치도 없고요. 그러니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동생 녀석은 저의 급한 성격을 악용하여 그것을 중대한 범죄로 부풀렸습니다. 제 방에서 줄사다리가 발견되자 …… 그건 사실 동생이 갖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제가 무엄하게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에디스와 함께 달아나 결혼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으로 매수한 하인들의 거짓 증언까지 자신 있게 들려 주자 아버지는 동생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지요.

'삼 년 안에는 우리 집과 이 나라 이 땅을 다시 밟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배우고 사람이 좀 되어 돌아와야 한다.' 아버지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쫓아다니는 기나긴 모험의 세월이 시작되었지요. 그러면서 시련과 궁핍을 지겹도록 맛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전투에서 그만 포로가 되어 낯선 타향의 지하 감옥에서 생활했지요. 그러다가 용케 자유의 몸이 되어 이곳까지 도망쳐 온 것입니다. 입을 옷과 가진 돈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칠 년 동안 저는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족들과 재산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까맣게 모르게 되었습니다. 저의 보잘것 없는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참으로 말못할 고생을 많이 했군! 내 그대에게 정의를 가져다 줌세, 반드시! 왕의 이름으로 약속하겠네!"

어린 왕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며 말했다. 왕은 헨든이 털어놓은 고생담에 자극을 받아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기구한 사연을 덩달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마일스 헨든은 어안이벙벙했다. 왕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놀라운 상상력이라니! 예사롭지 않은 머리야. 미쳤든 미치지 않았든. 도대체 어떻게 저런 기발한 줄거리를 생각해 낼 수 있지? 내가 살아 있는 한, 저 불쌍한 아이를 옆에서 끝까지 보살펴 줘야 해. 넌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이제부터는 영원한 나의 벗이 되는 거야. 네 병도 꼭 고쳐 주마.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자기 이름도 말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는 자랑스럽게 말할 거야. '그 친구는 내가 잘 알지.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것을 내가 돌보아 주었으니까. 무언가 싹수가 보이더라고. 언젠가 큰일을 할 재목이니 두고 보라고 내가 말했지? 어때, 내 말이 맞았지?' 이렇게 말이야.'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다.

"그대 덕분에 나는 다치지도 모욕을 당하지도 않았네. 어쩌면 그대는 나의 목숨까지 구해 주었는지도 몰라. 그와 같은 헌신에는 아낌없는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법, 소망을 말해 보게나. 그것이 왕으로서의 내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줄 테니."

이 느닷없는 제안에 헨든은 혼자만의 몽상에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그저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참이었다. '감사합니다만, 이 몸은 당연히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보상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런데 좀더 그럴듯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왕은 흔쾌히 승낙했다. 그런 중요한 문제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면서.

헨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무릎을 탁 쳤다.

'그래, 바로 그거야. 다른 방법을 써서는 도저히 먹혀들지 않을 테니 말이야. 겨우 몇 시간 지내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러다가는 내가 쓰러지고 말지. 그래, 그걸 제안해 보는 거야. 좋은 기회를 날려보내지 않기를 너무 잘 했어.'

헨든은 어린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한 보잘것 없는 일은, 신하라면 누구나 해야 마땅한 일이었기에 조금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상을 내리셔야 만족하겠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니, 이 몸

은 감사한 마음으로 한 가지 간청을 올리고자 합니다. 폐하께서도 아실 테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영국의 존 왕과 프랑스 왕은 사이가 무척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 왕은 각자 자기 나라에서 싸움을 가장 잘 하는 기사를 내세워 시합장에서 이른바 하느님의 중재로 결판을 내기로 했지요. 두 왕과, 심판을 맡은 스페인 왕과, 프랑스 제일의 기사가 먼저 시합장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기사가 얼마나 사납게 보였던지 영국의 기사들은 저마다 꽁무니를 뺐어요.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왕이 부전승을 거두기 일보 직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런던탑에는 영국에서 싸움을 가장 잘 하는 드 쿠시 경이 갇혀 있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명예와 재산을 모두 잃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드 쿠시 경에게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드 쿠시 경은 자신이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싸울 준비를 갖추고 시합장으로 갔습니다. 프랑스 기사는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그 무시무시한 드 쿠시 경이 거대한 체구를 앞세우고 시합장에 들어서자 그대로 줄행랑을 놓았습니다. 결국 프랑스 왕이 지고 말았지요. 존 왕은 드 쿠시 경에게 명예와 재산을 돌려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소원을 말해 보아라.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면 그것도 줄 수가 있다.'

그러자 드 쿠시 경은 무릎을 꿇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저의 자손들이 이 나라의 왕 앞에서 앞으로 영원히 모자를 벗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폐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부탁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400년 동안 드 쿠시 집안은 대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 유서 깊은 가문의 장손은 왕 앞에서 모자나 투구를 쓰고 있어도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지요. 이런 전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몸은 폐하께 비슷한 청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그 소원을 들어 주신다면 저로서는 분에 넘치는 영광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와 저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영국의 왕 앞에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마일스 헨든 경."

어린 왕은 헨든의 칼로 헨든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일어나서 앉거라. 그대의 소원을 들어 주지. 이 나라가 남아 있고 왕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대 집안의 특권 또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린 왕은 뚜벅뚜벅 걸음을 옮겼고, 헨든은 속으로 흐뭇하게 여기면서 재빨리 식탁 앞에 가서 앉았다.

'정말 기막힌 생각이었어. 죽었다 살아난 느낌이야. 이 욱신거리는 다리 좀 봐. 만일 그 생각을 못 해 냈더라면 이 불쌍한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몇 주일이고 내내 서 있어야 했을지도 몰라.'

헨든의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림자와 꿈 왕국의 기사가 된 셈인가? 나처럼 무미건조한 사람에게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자리로군. 하지만 절대로 웃지는 않겠어. 나한테는 허황된 장난일지 몰라도 저 아이한테는 진짜거든. 하기야 어떤 면에서는 나한테도 장난은 아니지. 저 아이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씨를

엿볼 수 있었으니 말이야……. 아이쿠, 저 아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나에게 귀족 칭호를 붙이면 어쩌지? 이런 누더기 옷을 걸치고 그렇게 불리면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을 거야. 하지만 상관하지 말자. 얼마든지 마음 편한 대로 부르라고 그래. 나야 아무래도 괜찮으니까.'

13. 사라진 왕자

어느덧 두 사람 다 졸음이 쏟아졌다. 왕이 입을 열었다.

"이 누더기를 벗겨라."

헨든은 불평 한 마디 없이 소년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이불을 잘 덮어 준 후, 방 안을 쓱 둘러보고는 처량한 생각에 잠겼다.

'아까도 그러더니, 또다시 내 침대를 차지하는구나. 후유, 나는 어디서 자지?'

어린 왕은 신하의 딱한 사정을 눈치채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한 마디 던졌다. 왕은 졸음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문 앞에 비스듬히 누워서 눈을 붙이게. 보초도 설 겸 말이야."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어린 왕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어이구, 머리야! 정말 왕으로 태어났어야 할 아이로군! 어쩌면 저렇게 감쪽같이 연기를 잘 할까!"

헨든은 어이가 없어 넋두리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별 수 없었다. 헨든은 문가에 드러누워, 그것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지난 칠 년 동안 내가 겪은 고생에 비하면, 이것은 새발의 피야. 이걸 못 참고 불평을 한다면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지."

동이 터 올 무렵에야 헨든은 잠이 들었다. 그리고 정오 가까이 되어서야 눈이 떠졌다. 헨든은 아직도 곤히 잠들어 있는 소년의 이불을 걷어 내고, 끈으로 차근차근 몸 치수를 쟀다. 헨든이 그 작업을 끝내자마자 눈을 뜬 왕은 왜 이리 춥냐고 불평을 하면서,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물었다.

"다 끝났습니다, 폐하. 저는 밖에서 볼일이 좀 있는데, 금세 돌아오겠습니다. 좀더 주무세요. 그래야 기운을 차릴 수 있지요. 자, 제가 머리까지 덮어 드리지요. 금방 따뜻해질 겁니다."

왕은 헨든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다시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헨든은 조심스럽게 빠져 나갔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돌아왔는데, 삼사십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헨든은 남자 아이 옷을 사러 나갔었다. 좋은 옷은 아니었다. 새 옷 같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편한 옷이었다. 헨든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사 온 옷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지갑이 좀 두둑했더라면 더 좋은 옷을 샀으련만. 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하는 법 아니겠어? 우리 마을에 한 여자가 살았네, 바로 우리 마을이었지……."

헨든은 노래를 흥얼대다가 소년을 바라보았다.

"꿈틀거리는구나. 노랫소리가 너무 컸나 봐. 단잠을 깨워서는 안 되지. 아직 갈 길이 먼데 잠이라도 푹 자야 기운을 내지. 불쌍한 녀석……. 어디 보자, 이 옷은 그런대로 괜찮겠군. 한두 군데 좀더 꿰매면 감쪽같겠어. 이 옷은 더 멀쩡한데 그래. 역시 손은 좀 봐야겠지만 말이야. 신발도 아주 근사해. 이걸 신기면 작은 발이 따뜻하고 뽀송뽀송해지겠어. 보나마나 깜짝 놀라겠지? 여름이고 겨울이고 맨발로 지내면서, 생전 신발 같은 건 못 신고 다녔을 테니 말이야……. 빵이 실처럼 널려 있다면 동전 한 닢만 가지고도 일 년을 배불리 먹고 지낼 수 있을 텐데. 슬슬 바느질이나 시작해 볼까."

헨든은 바느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남자의 바느질 솜씨라는 게 여자처럼 능숙하지 못하므로, 한없이 꾸물대기만 했다. 헨든은 바늘을 옷에 먼저 찔러 넣고 나서 실을 바늘귀에다 꿰려고 했다. 실을 바늘귀에 꿴 후에 옷을 꿰매는 게 순서인데 말이다. 헨든의 실은 번번이 목표를 찌르지 못했다. 바늘귀의 오른쪽으로 실이 비껴 나가는가 하면, 이번엔 왼쪽으로 비껴 나갔다. 그래도 헨든은 포기하지 않았다.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은 다반사로 겪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헨든은 실을 바늘

귀에 꿰는 데 성공했다. 헨든은 얌전히 놓여 있던 옷을 무릎 위에 얹고 본격적으로 바느질을 시작했다.

'조금 있다 먹을 아침 식사까지 포함해서 여관비는 지불했으니, 남는 돈으로 나귀 두 마리를 사고, 우리 집까지 가는 동안 이삼 일만 버티면 된다.'

헨든은 이렇게 생각한 후 바느질을 하면서 다시 노래를 불렀다.

"그 여자는 남편을 몹시…… 앗, 따가워! 손톱 끝이 바늘에 찔렸구나. 좋아, 좋아. 내가 언제는 안 그런 적이 있었던가? 그래도 남자가 할 짓은 못 되는군. 내가 집에 가면 결혼할 테니까 염려 놓으시게, 꼬마 친구. 우리 집에만 닿으면 네 고생은 끝나는 거야.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말이지."

헨든은 다시 노래를 부르면서 바느질을 계속했다.

"그 여자는 남편을 몹시 사랑했네, 하지만 또다른……."

잠시 후 헨든은 바느질한 옷을 높이 쳐들고 흐뭇한 눈길로 여기저기 뜯어보았다.

"나도 바느질 솜씨가 제법인걸! 시시한 양복장이의 천박하고 상스러운 옷이 어느 새 우아하고 화려하게 바뀌었다, 이 말씀이야."

헨든은 다른 옷을 꿰매기 시작하면서 다시 흥얼거렸다.

"그 여자는 남편을 몹시 사랑했네. 하지만 또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했네……. 자, 이것도 끝냈다. 그럴듯해. 누군지 손재주 한번 기막히다. 이제 저 아이를 깨워서 옷을 입히고, 밥을 든든히 먹여서 사우스워크에 있는 타바드 여관 부근의 시장으로 가는 거다. 일어나십시오, 폐하! 못 들었나 봐. 기상 시간입니다, 폐하! 잠에 취해 내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로군. 폐하, 외람되오나 소신이 폐하의 몸에 손을 대야겠나이

다. 아니, 이럴 수가!"

헨든이 이불을 들추어 보니 소년은 온데간데없었다.

헨든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잠시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러고 보니 어린 왕의 누더기 옷도 보이지 않았다. 헨든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여관 주인을 불렀다. 바로 그때 종업원이 아침 식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이 후레자식놈아,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을 해라! 안 그러면 오늘 내 손에 죽는 줄 알아라!"

싸움터에서 닳고 닳은 이 용맹한 기사는 호통을 치면서 종업원한테 달려들었다. 겁에 질린 종업원은 너무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이라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 했다.

"그 아이는 어디 있느냐?"

종업원은 덜덜 떨면서 헨든이 요구한 정보를 두서 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으리가 나가신 직후에 어떤 젊은이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나으리께서 소년을 사우스워크 쪽의 다리 끝으로 당장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젊은이가 소년을 깨워서 그 말을 전하자 소년은 꼭두새벽부터 웬 수선이냐고 잠시 투덜거리더니, 바로 옷을 입고 젊은이와 함께 나갔습니다. 낯선 심부름꾼을 보내지 말고 나으리께서 직접 오셨어야 경우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이라고 중얼거리면서요. 그리고……."

"이런 바보 멍텅구리 자식! 너 같은 놈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하지만 다치지는 않았겠지? 그 아이 몸이 상하지는 않았겠지? 가서 데려와야겠다. 식사 준비를 해 놔. 가만, 아까 보니 이불이 마치 사람이 누워 있는 것처럼 덮여 있던데,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요. 그 청년이 만지작거리는 것밖에는 보지 못했어요. 소년을 데리러 온 그 사람 말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로군! 내 눈을 속이려고 그렇게 한 거야. 틀림없이 시간을 벌려는 수작이라고. 이봐! 그 젊은 놈, 혼자였나?"

"혼자였습니다."

"확실해?"

"확실합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봐. 찬찬히 생각해 보라고."

잠시 후 종업원이 대답했다.

"처음 왔을 때에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두 사람이 다리 위의 사람들 속에 섞여 들었을 때 어디선가 불한당 같은 사내가 튀어나와서 막 끼어들려는 찰나……."

"그래서? 어서 말해 봐!"

조바심이 난 헨든이 다그쳤다.

"군중들이 그 사람들을 그대로 쓸어가 버렸지요. 그 뒤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가 주문한 고기를 왜 안 사

오는 거냐고 주인 어른께서 야단치시는 통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저를 나무라시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죄를 묻는 것과 다를 게 뭐……."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 네놈의 수다는 참을 수가 없구나! 잠깐! 어디로 튀었느냐? 조금도 기억에 남는 게 없느냐? 사우스워크로 갔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망할 놈의 고깃덩어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책임을 묻는 것과……."

"닥치지 못할까! 네놈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기 전에 썩 꺼져라!"

종업원은 사라졌다. 헨든은 그 뒤를 쫓아 한 번에 두 계단씩 성큼성큼 밟으면서 쏜살같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우기던 그 교활한 망나니의 짓임이 분명하다. 망상에 빠진 나의 불쌍한 꼬마 주인이여, 나는 당신을 잃고 말았소. 아, 괴롭도다. 너를 너무도 사랑하게 되었는데. 아니지! 잃어버렸다니, 천만의 말씀이야! 너를 다시 찾을 때까지 온 세상을 뒤지고 다닐 테다. 불쌍한 녀석, 우리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야. 하지만 배도 고프지 않구나. 쥐새끼들이나 먹으렴. 어서 서두르자. 어서.'

시끌벅적한 인파를 뚫고 다리 쪽으로 재빨리 헤집고 나아가면서 헨든은 마치 커다란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자꾸만 이런 생각을 곱씹었다.

'그 아이는 투덜대면서도 어쨌든 갔어. 마일스 헨든이 불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 기특한 녀석, 다른 사람이 불렀으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았을 거야. 암, 안 따라가고말고.'

14. 새 왕 만세!

같은 날 아침 동이 틀 무렵, 톰 캔티는 단잠에서 깨어나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톰 캔티는 어지러운 생각과 감정을 추스리느라 애쓰면서 한동안 가만히 그렇게 누워 있었다.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불현듯 기쁨의 환성을 내질렀다. 그러면서도 누가 들을까 봐 조심했다.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난 잠에서 깨어난 거야! 슬픔이여 물러가라. 기쁨이여 어서 오라! 낸, 벳! 그 지푸라기 이불을 팽개치고 어서 내 옆으로 와 봐! 제 아무리 재주 좋은 밤의 요정도 여태까지 사람의 영혼에 한 번도 불어넣지 못했던 기막힌 꿈을 이 오빠가 들려 줄 테니까 말이야! 빨리, 낸! 어서, 벳!"

그러자 희미한 형체가 옆으로 다가왔다.

"분부하실 게 있으시면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분부라고? …… 맙소사,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말해 보시오, 내가 누구요?"

"누구냐굽쇼? 어젯밤까지는 왕자님이셨지만 오늘부터는 만인이 우러러보는 영국의 에드워드 왕이십니다."

톰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슬픔에 젖어 혼자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꿈이 아니었구나. 댁은 가서 쉬시오. 나는 일어나고 싶지 않으니까."

톰은 다시 잠이 들었고, 얼마 뒤에는 달콤한 꿈에 빠져들었다. 여름날이었다. 톰은 푸르른 들판에서 혼자 뛰놀고 있었다. 그때 키는 톰의 무릎에도 오지 않는, 붉은 수염을 길게 기르고 등에 혹이 솟은 난쟁이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톰에게 말했다.

"저 나무 등걸 옆을 파 보아라."

톰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반짝거리는 금화 열두 닢이 나왔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난쟁이의 말이 이어졌다.

"나는 너를 잘 알아. 착한 아이는 이런 선물을 받아도 괜찮단다. 오늘로 너의 고생은 끝나고,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의 날이 왔다. 앞으로 일 주일마다 이곳을 파 보렴. 그러면 반짝거리는 금화가 언제나 열두 개 놓여 있을 거야. 이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해 두어야 해."

그 말을 남기고 난쟁이는 사라졌다. 톰은 그 선물을 가지고 당장 집으로 달려가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매일 밤 아버지한테 금화를 하나씩 드려야겠다. 내가 어디서 구걸해 온 줄 알고 뿌듯해하실 거야. 나를 두들겨 패지도 않을 테고. 또 나를 가르쳐 주시는 신부님께는 일 주일에 금화 한 닢씩을 드려야지. 엄마와 낸, 벳한테는 남은 네 닢을 주고. 이제 우리 식구는 헐벗고 굶주리지 않아도 돼. 두려움과 애태움과 매질은 오늘로서 이별이다.'

꿈 속에서 톰은 잔뜩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누추한 집 안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었다. 그러고는 금화 네 닢을 엄마 무릎 위에 탁 던지면서 으스댔다.

"받으세요! 엄마와 낸, 벳한테 다 주는 거예요. 제가 정직하게 번 돈이에요. 구걸하거나 훔친 게 아니니 안심하세요."

깜짝 놀란 엄마는 행복에 겨워하면서 아들을 힘껏 껴안고 탄성을 질렀다.

"너무 늦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시간이 되었사옵니다."

아, 그건 톰이 기대하던 말이 아니었다. 또다시 꿈이었던 것이다. 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떠 보니 왕의 잠자리를 보살피는 화려한 옷차림의 제일 시종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달콤한 꿈의 기억이 순식간에 흐트러졌다. 톰은 자기가 아직도 꼼짝없이 왕으로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톰이 있는 방은 톰에게 애도의 뜻을 나타내는, 자주색 망토를 입은 신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왕을 보살피는 귀족 시종들도 엄청나게 많았다. 자리에서 일어

나 앉은 톰은 무거운 은빛 커튼 사이로 이 말쑥한 무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왕의 옷을 입히는 번거로운 의식이 시작되었다. 옷 입히기가 진행되는 동안 신하들은 한 사람씩 무릎을 꿇어 절을 올리고 나서 어린 왕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처음에 셔츠를 집은 사람은 시종무관장이었다. 시종무관장은 그 옷을 사냥 담당 제일 시종에게 넘겼고, 사냥 담당 제일 시종은 침실 제이 비서관에게, 제이 비서관은 영국의 왕실림 윈저 숲의 관리단장에게 셔츠를 넘겼다. 그러자 관리단장은 다시 어깨걸이 담당 제삼 궁내관에게, 제삼 궁내관은 랭카스터 공령 상서에게, 상서는 의상 보좌관에게, 의상 보좌관은 노로이 문장원 장관에게, 문장원 장관은 런던탑 무관장에게, 무관장은 왕실 집사장에게, 집사장은 세습 손수건 담당관에게, 손수건 담당관은 영국 함대 사령장관에게, 사령장관은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대주교는 침실 제일 시종에게 셔츠를 넘겼다. 침실 제일 시종은 마지막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톰에게 입혔다. 톰은 그야말로 어안이벙벙했다. 마치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물통을 보는 느낌이었다.

옷 하나하나가 모두 이런 순서를 밟아서 한없이 느릿느릿 엄숙하게 전달되자 톰은 점점 넌덜머리가 났다. 어찌나 지겨

웠던지, 드디어 길다란 은색의 양말이 저 멀리서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내뱉고 싶은 심정이었다. 마침내 옷 입기가 끝나 간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아하기에는 아직 일렀다. 양말을 받아서 톰의 다리에 신기려던 침실 제일 시종의 얼굴이 갑자기 노랗게 변하더니, 양말을 후닥닥 켄터베리 대주교의 손에 다시 넘기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러면서 양말에 연결된 무엇인가를 가리켰다. 대주교도 얼굴이 하얘지더니 곧 시뻘개지면서 양말을 사령장관에게 넘겼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사령장관은 그것을 세습 손수건 담당에게 건네 주며 갑자기 숨이 거칠어지더니 "황공무지로소이다"라는 말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 양말은 다시 돌고 돌아 왕실 집사장, 런던탑 무관장, 문장원 장관, 의상 보좌관, 랭카스터 공령상서, 어깨걸이 담당 제삼 궁내관, 윈저 숲 관리단장, 침실 제이 비서관, 사냥 담당 제일 시종을 거치면서 그때마다 겁에 질린 "황공무지로소이다" 소리를 동반하더니, 마침내 시종무관장의 손에 들어왔다. 시종무관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 소동을 낳은 양말을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다.

"이런 망측한 일이! 양말 동여매는 곳에 장식끈 하나가 떨어

졌군요! 폐하의 양말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당장 런던탑에 가두겠습니다!"

말을 끝낸 시종무관장은 새 양말이 오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리는 듯, 사냥 담당 제일 시종의 어깨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무슨 일이든지 끝은 있는 법이었다. 톰 캔티는 잠시 뒤에 침대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 예의바른 관리들이 물을 부어 주고, 얼굴을 씻겨 주고, 옆에서 지키고 서 있다가 수건으로 닦아 주었다. 이렇게 몸 닦는 행사를 무사히 마친 톰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선 사람은 왕실 미용사였다. 미용사의 손에서 해방된 톰은 그야말로 물찬 제비 같았다. 자주색 망토와 바지를 입고 자주색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쓴 톰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다.

톰은 아침을 먹는 방을 향해, 구름처럼 모여 선 신하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다. 톰이 지나갈 때마다 신하들은 뒷걸음질쳐 길을 터 주고는 무릎을 꿇었다.

아침 식사를 끝낸 후 톰은 지위 높은 관리들과 금으로 도금된 전투용 도끼를 든 오십 명의 왕실 경비병과 함께 엄숙한 의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 옥좌가 놓여 있는 방으로 안내되어 갔다. 여기서 나랏일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삼촌 허트포드 백작이 현명한 조언으로 어린 왕을 돕기 위해 옥좌 옆에 서 있었다.

죽은 왕의 유언 집행인들이, 톰에게 자기들이 하려는 일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나타났다. 그것은 형식적인 일이었지만, 완전히 형식적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어린 왕을 대신해서 섭정(국왕이 직접 통치할 수 없는 경우, 국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는 그 사람:옮긴이)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린 왕 자신이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돌아가신 선왕의 장례식과 관련하여 유언 집행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보고한 뒤, 마지막으로 유언 집행인 명단을 읽었다. 캔터베리 대주교, 세인트 존 윌리엄 경, 존 러셀 경, 에드워드 허트포드 백작, 더햄의 쿠스버트 주교…….

톰은 듣고 있지 않았다. 조금 전에 들었던 보고의 첫 대목에 아까부터 신경이 쓰였다. 톰은 참지 못하고 허트포드 백작에게 속삭였다.

"장례식을 언제 거행하기로 했다고요?"

"다음 달 16일입니다, 폐하."

"말도 안 돼. 시체가 썩지 않나?"

톰은 아직도 왕실의 풍습을 잘 모르고 있었다. 자기 동네 오펄 코트에서처럼 사람이 죽으면 후닥닥 땅 속에 파묻어 버리는 게 상책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거다. 하지만 허트포드 백작은 한두 마디 가벼운 대꾸로 톰의 엉뚱한 질문이 계속되는 것을 막았다.

그때 각료 한 사람이, 새 왕을 만나고 싶어하는 외국 대사들

이 면담을 청하여 추밀원에서 다음 날 오전 열한 시로 잡아 놓았다고 보고하며, 왕의 승인을 요청했다.

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허트포드를 바라보았다. 허트포드는 이렇게 속삭였다.

"허락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 나라를 뒤흔든 엄청난 불행을 폐하께서 꿋꿋이 견디고 계신지 확인하러 오는 것일 테니까요."

톰은 시키는 대로 했다. 또 다른 각료가 나서서 돌아가신 선왕이 그동안 쓴 돈의 액수와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선왕은 지난 여섯 달 동안 2만8천 파운드나 되는 엄청난 돈을 썼다. 톰 캔티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만 파운드는 앞으로 지불해야 할 돈이라는 보고에는 더욱더 기가 막혔다. 게다가 왕실 금고는 거의 바닥나 있었고, 1200명에 이르는 시종들은 제대로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톰은 두려움에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대로 가면 우린 망합니다. 사는 집을 줄이고 시종들도 대폭 정리해야 합니다. 그 많은 시종들 때문에 번거롭기만 할 뿐,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자꾸 그런 사람들 시중을 받다 보면 몸과 마음을 망치게 됩니다. 인형이나 다를 바 없다고요.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시종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빌링스게이트 문 부근의 생선 시장 뒤편에 작은 집 한채가 있었

는데……."

팔을 쿡 찔리는 바람에 톰은 말을 멈추었다. 실수를 할 뻔했던 것이다. 톰의 얼굴이 벌개졌다. 하지만 톰이 엉뚱한 말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거나 그것을 수상쩍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다시 한 각료의 보고가 이어졌다. 선왕께서는 유언장에 허트포드 백작에게 공작 작위를 수여하고, 그의 동생 토머스 세이모어를 귀족으로 끌어올리고, 허트포드의 아들에게는 백작 작위를 수여하라는 내용을 남기셨다는 것이다. 다른 몇몇 신하들과 함께 허트포드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던 것이다.

"추밀원에서는 그 영예로운 작위 수여식을 오는 2월 16일에 거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선왕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높은 신분에는 그에 걸맞는 재산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선왕께서도 그 점을 배려해 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라셨을 거라는 판단에 따라, 추밀원은 세이모어에게 500파운드에 해당하는 땅을, 허트포드의 아들에게는 800파운드어치의 땅과 곧 비게 될 다음 주교의 땅 중에서 300파운드만큼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폐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옵니다."

각료의 말이 끝나자마자, 톰은 돈을 그렇게 함부로 탕진해 버리기 전에 먼저 돌아가신 왕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무심결에 말할 뻔했다. 하지만 사려 깊은 허트포드가 때맞춰 팔을

쿡 찔러 준 덕분에 다행히 실수는 하지 않았다. 톰은 별다른 말 없이 동의해 주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많았다. 희한하고 어지러운 일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처리하고 있는 셈이라고 스스로도 대견스럽게 여기고 있을 때, 불현듯 톰의 머리에 떠오르는 멋진 생각이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를 귀족으로 만들고 땅을 하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글픈 생각이 이내 그 꿈을 날려 버렸다. 톰은 이름만 왕이었을 뿐,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노숙한 관리와 귀족들이 톰의 상전인 셈이었다. 그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가는 또다시 정신병자 취급을 당할 게 뻔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듣고 있는 척하다가 이야기가 끝나면 톰을 의사에게 보낼 사람들이었다.

재미 없는 업무가 지루하게 이어졌다. 탄원서가 낭독되고, 나랏일에 관련된 보고, 특허, 그밖의 장황하고 지루하고 짜증스러운 온갖 문서가 읽혀졌다. 마침내 톰은 처량하게 한숨을 내쉬면서 혼잣말을 했다.

"내가 얼마나 몹쓸 죄를 지었으면, 그 어진 하느님께서 들판에서 자유로운 대기와 햇빛을 누리며 살던 나를 왕으로 만들어 여기에 가두고 이토록 괴로움을 안겨 주시는 걸까."

톰은 흐리멍덩해진 머리를 몇 번 까딱까딱하더니 이윽고 한쪽 어깨로 고개를 떨구었다. 왕이 졸고 있자 승인을 내릴 사람이 없었고, 따라서 나랏일은 그쯤에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선잠이 든 톰의 주위로 침묵이 감돌았다. 신하들은 토의

를 멈추었다.

그날 아침나절에 톰은 허트포드와 세인트 존의 허락을 받아 엘리자베스, 제인 그레이와 함께 지냈다. 왕실에 커다란 변고가 닥친 후여서 공주들의 마음은 약간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런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막판에는 '손위 누이' – 훗날의 역사에서 '피의 메리'(메리 1세는 적법한 왕위계승자의 자격으로 왕위에 오른 잉글랜드 최초의 여왕으로, 잉글랜드를 영국국교회에서 다시 로마 가톨릭 국가로 만들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국교회 교도들인 프로테스탄트들을 박해해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다:옮긴이)로 등장한다–가 찾아와서 무게를 잡는 바람에 톰은 약간 진땀을 뺐다. 이야기가 짧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쥐구멍이라도 찾아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후 톰은 잠시 혼자서 지냈다. 얼마 뒤였다. 열두 살쯤 먹었을까, 빼빼 마른 남자 아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눈처럼 하얀 목주름과 손목 주위의 레이스를 빼놓고는 바지와 웃옷을 온통 까맣게 차려 입고 있었다. 애도의 뜻을 나타내는 천 조각은 달지 않았지만, 어깨에는 자주색 리본으로 매듭을 묶었다. 남자 아이는 모자를 벗은 머리를 숙이고 쭈뼛거리며 다가와 톰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톰은 가만히 앉아 그 아이를 차분히 바라보다가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일어나거라. 너는 누구지? 무슨 일로 왔느냐?"

소년은 일어서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자세

로 섰다. 그렇지만 얼굴에는 불안의 빛이 역력했다.

"저를 모르실 리 없을 텐데요. 폐하의 매맞는 아이입니다."

"매맞는 아이?"

"그렇습니다. 험프리, 험프리 말로입니다."

톰은 자신의 보호자들로부터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음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그 아이를 아는 척할 수도 있겠지만, 톰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들통이 날 게 뻔했다. 그건 현명한 방법이 못 될 것 같았다. 그때 톰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겪게 될 거야. 허트포드와 세인트 존처럼 바쁜 양반들이 스물네 시간 내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두 사람 다 유언 집행인이니 오죽 바쁘겠어? 그러니까 이젠 혼자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한다. 그렇지, 좋은 방법이 있어.'

톰은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 매맞는 아이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난감한 표정으로 이마를 한두 번 짚고는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이제 보니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머리가 꽉 막혀 있고 몽롱한 것이……."

"아, 불쌍도 하셔라."

매맞는 아이는 탄식을 토하고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람들이 말하던 대로구나. 머리가 이상해지셨어! 불쌍도 하셔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절대로 이상한 눈으로 폐하를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받아 놓았으면서…….'

"요즘은 왜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지 몰라.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기억이 금세 돌아오니까. 쥐꼬리만한 단서라도 주어지면 잊어버렸던 물건과 이름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나거든. 잊어버렸던 것뿐 아니라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얼굴도 금세 기억하지. 어서 용건을 말해 봐."

"별로 대수로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폐하께서, 아침 공부 때 그리스어를 세 번 틀렸던 것 기억나시죠?"

"그, 그래. 기억나. 계속해 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게으르고 멍청할 수가 있느냐면서 저를 흠씬 두들겨 패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너를 두들겨 패?"

톰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내가 틀렸는데 왜 네가 맞는단 말이냐?"

"아, 또 잊어버리신 모양이군요. 폐하께서 틀리시면 매는 언제나 제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 잠깐 잊어버렸군. 네가 나를 따로 가르치는데, 내가 공부를 잘 못하면 선생님은 네가 잘못 가르친 탓이라고 너를 혼내는 거로구나. 그래서……."

"아, 폐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처럼 하잘것 없는 놈이 감히 폐하를 가르친다고요?"

"그럼 왜 때리는 거야? 무슨 흑막이 있길래? 내가 미친 건지 네가 미친 건지 모르겠다. 이유가 뭐냐?"

"이유야 너무나 뻔하지요. 폐하 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폐하께서 잘못을 저지르면 제가 대신 매를 맞는 거지요. 그게 제 일이고, 저는 그걸로 밥을 먹고 삽니다."[8)]

톰은 이 얌전한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옳거니! 좀 엉뚱하긴 하지만 신하들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하자. 번거롭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필요 없이 옷 입을 때는 시중 드는 아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해야지. 이건 거절당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야. 내 소원을 들어 주면, 그 대신 매는 앞으로 내가 직접 맞겠다고 하는 거야.'

톰은 매맞는 아이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너는 매를 맞았느냐?"

"아직 맞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오늘 맞기로 되어 있었지만, 나라에 불행한 일이 생긴 지금 매를 들 수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또 폐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를 위해 가운데 나서셔서……."

"선생님한테 매를 들지 말아 달라고?"

"아, 기억하시네요!"

"너도 보다시피 기억이 되살아나는구나. 아무 걱정 말거라. 너한테 매질을 가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하마."

"아, 고맙습니다!"

매맞는 아이는 감격에 겨워 한쪽 무릎을 다시 꿇었다.

"기왕 거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말인데요……."

매맞는 아이가 머뭇거리자, 톰은 조금도 구애받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고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서요. 이제는 왕자님이 아니라 왕이시니,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 지루한 공부를 계속하실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책을 불태우고, 좀더 재미난 일을 찾으시는 것이 마땅하온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부모 없는 저와 누이들은 망합니다!"

"망하다니? 왜?"

"매맞는 일이 저의 밥줄이니까요. 매를 못 맞으면 저는 굶어야 합니다. 폐하께서 공부를 안 하시면 제 일자리는 날아가 버립니다. 매맞는 아이가 필요 없어지니까요. 저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톰은 이 애달픈 하소연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서 한없이 너그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근심 걱정은 이제 접어 두어라. 너의 일자리는 앞으로 영원

토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 톰은 매맞는 아이의 어깨를 칼의 넓적한 면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일어나라, 험프리 말로. 그대를 영국 왕실의 세습 매맞기 시종에 임명하노라. 슬퍼할 이유가 없다. 나는 다시 책을 가까이할 터이고, 너의 수입은 세 배로 늘어날 테니까. 너도 아마 정신없이 바빠질 거다."

험프리는 감격스러워하며 몸둘 바를 몰라 했다.

"고맙습니다. 저 같은 놈에게 이런 행운을 안겨 주신 폐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평생 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자손들도 마찬가지고요."

톰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래서 험프리에게 계속 말을 시켰다. 험프리는 기쁜 얼굴로 쫑알거렸다. 자기의 말이 왕의 병을 치료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자 더욱 신이 났던 것이다. 더구나 왕자의 공부방이나 왕궁의 어딘가에서 일어났던 이런저런 사건과 일화를 시시콜콜히 들추어 내어 이야기를 들려 주면 왕은 번번이 그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곤 했으므로, 험프리는 자신이 아주 값진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겨졌다. 그렇게 한 시간 가량이 지나자 톰은 왕실의 중요한 인물과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듬뿍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톰은 앞으로 이런 강의를 매일 듣기로 마음먹었다. 그래

서 이제부터 왕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는 한, 험프리를 언제나 자기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명령을 내릴 생각이었다.

험프리가 물러간 지 얼마 안 되어 허트포드 백작이 또 다른 골칫거리를 안고 나타났다. 왕의 건강이 몹시 안 좋다는 소문이 밖으로 새어 나가서 외국까지 퍼지면 곤란하므로, 며칠 뒤부터는 왕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추밀원 귀족들의 의견을 전달하러 온 것이었다. 왕의 건강한 혈색과 활기찬 걸음걸이, 품위 있는 동작과 위엄 있는 풍채를 온 세상에 과시하면 설사 안 좋은 소문이 벌써 퍼졌다고 하더라도 금세 잠재울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아무리 머리를 짜보아도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뜻이었다.

허트포드 백작은 '이미 폐하께서 알고 있는 일이지만 다시 한 번 일깨우는 뜻'이라는 점을 은근히 강조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왕이 해야 하는 행동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쳤다. 하지만 톰에게 이제 허트포드 백작의 충고나 귀띔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험프리한테 미리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삼 일 뒤부터는 왕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은 험프리가 벌써 알려 주었다. 험프리도 왕실에서 떠도는 소문을 재빨리 얻어들은 거였다. 그렇지만 톰은 허트포드에게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듯한 눈치를 보이지 않았다.

왕의 기억력이 많이 좋아진 것을 보고 허트포드 백작은 아주 자연스럽게 몇 가지 시험을 더 해 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좋아졌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결과는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특히 험프리의 수다가 스쳐 지나간 곳에서는 왕의 기억이 정확했다. 백작은 흡족한 얼굴로 말했다.

"이제 폐하께서 기억을 조금만 더 되살리시면, 큰 옥새의 수수께끼도 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그걸 잊어버린 게 큰일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사정이 달

라졌지요. 그 옥새는 선왕이 돌아가심으로써 효력을 잃게 되었으니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렵니까?"

톰은 아득하기만 했다. 큰 옥새라니,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잠시 망설이던 톰은 고개를 들고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그게 어떻게 생긴 거요?"

소스라치게 놀란 백작은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다.

"아이쿠, 다시 정신이 나가셨구나. 섣불리 그런 질문을 한 게 잘못이야."

그러고는 재빨리 말꼬리를 다른 데로 돌렸다. 옥새를 왕의 머리에서 지워 버리기 위해서였다. 아니나다를까, 톰은 금세 그 일을 잊어버렸다.

15. 톰의 왕 노릇

다음 날 외국 대사들이 화려한 옷차림의 수행원을 잔뜩 거느리고 나타났다. 톰은 옥좌에 엄숙히 앉아 그들을 맞이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눈부신 광경 앞에서 흥분이 되어 한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하지만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동안 톰은 너무나 지겨워졌다. 인사는 또 왜 그리 번거로운지, 처음에는 즐거웠던 일이 점점 짜증나고 귀찮아졌다. 톰은 허트포드 백작이 간간이 던져 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매끄럽게 연기를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으므로 동작 하나하나가 어색하기만 했다. 꼬투리나 잡히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남들은 그럭저럭 자신을 왕처럼 보아 주었을지 모르지만, 톰은 도무지 자기가 왕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만찬이 끝나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톰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왕의 집무실에서 '쓸데없는 일' -톰이 생각하기에 그 일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 그렇게 불렀다-을 하며 보냈다.

톰은 오락 시간이라고 주어지는 두 시간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부담스러웠다. 해서는 안 될 일은 왜 그리 많고 지켜야 할 예절은 왜 그리 많은지, 톰은 몸이 근질거리는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구세주나 다를 바 없는 매맞는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아이와 같이 있으면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유익한 정보를 듬뿍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톰 캔티가 왕위에 오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은 보통 날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지나갔다. 하지만 마음 속의 구름은 이제 한 꺼풀 걷혔다. 처음보다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가셨기 때문이었다. 주변 상황과 분위기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있었다. 족쇄는 아직도 거추장스러웠지만, 항상 그런 느낌만 가지고 지내지는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높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공손하게 구는 것이 별로 부담스럽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게 되었다.

단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면, 나흘째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은 사람들 앞에서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고, 중요한 행사도 많았다. 추밀원 회의를 주재하는 일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 회의에서 톰은 이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먼 나라, 가까운 나라 들에게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필요하면 지시도 내려야만 했다. 그날은 또 허트포드가 왕을 도와 나랏일을 다스리는 섭정으로 인정받는 날이기도 했다.[9] 그밖에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었다. 사실 톰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혹시 실수라도 저지르면 큰일이었다. 자신의 실수를 보고는 소곤소곤 입방아를 찧어 댈 수많은 입들을 앞에 두고 혼자서 식사를 해야 하는 그 끔찍한 장면을 상상하기만 하면, 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렇지만 나흘째 되는 날을 못 오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결국 그날은 오고야 말았다.

톰은 그날 아침부터 잔뜩 풀이 죽어 있었다. 어딘가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그런 상태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오전중에 처리해야 할 판에 박힌 일과는 한없이 계속 이어졌고, 그러는 동안 톰은 지칠 대로 지쳐 버렸다. 다시 한 번 자신이 우리에 갇혔다는 서글픈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점심때가 조금 못 되어 톰은 커다란 강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톰은 허트포드 백작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많은 고관과 신하가 참석하는 성대한 만찬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톰은 어느 새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궁전 문 너머의 널찍한 길에서 펼쳐지는 생기 발랄한 움직임을 흥미 있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도 그들 무리에 끼여 마음껏 뛰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은근히 부러워하기도 했다. 바로 그때, 고

함과 야유를 퍼부으며 저쪽 길 위에서 꾀죄죄한 몰골의 남자들과 부인네들이 정신없이 달려 내려오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한데!"

톰은 고개를 쑥 내밀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 장면을 보면 어떤 아이 입에서나 튀어나올 법한 소리였다.

"황공하옵니다! 제가 어명을 받들어 알아볼까요?"

백작이 더없이 공손하고 엄숙한 태도로 물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부탁해요."

톰은 신이 나서 얼른 대답했다. 만족해하며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했다.

'왕 노릇이 지루한 것만은 아니구나.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

백작은 시동을 불러 왕궁 수비대장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명령했다.

"군중을 막고 서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 소란스러운지 이유를 묻도록 하라! 어명이다!"

얼마 뒤 번쩍거리는 칼을 찬 왕궁 수비병들은 문 밖으로 줄지어 나가 군중 앞을 가로막고 섰다. 곧 시동이 돌아와서 말했다.

"나라의 평화와 권위를 무너뜨린 범죄에 벌을 내리기 위해, 지금 저 사람들이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 그리고 여자 아이 하나를 뒤쫓고 있다고 하옵니다."

그 순간 톰의 마음 속에서는 운이 나쁜 그 불쌍한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동정심이 뭉클 솟아오르자 그것은 다른 생각들을 압도해 버렸다. 그 세 사람의 범죄자가 나라의 법을 어겼다거나, 그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톰은 오직 사람의 목을 자르는 단두대와 그들의 목이 맞이해야 할 불길한 운명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얼마나 애가 탔는지 톰은 자기가 가짜 왕이라는 사실마저도 순간적으로 깜빡 잊어버렸다. 엉겁결에 톰은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들을 이리로 데려와라!"

그러고는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 하지만 백작도, 옆에서 기다리던 시동도, 조금도 놀라지 않고 자기 명령에 따르고 있었다. 시동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머리를 깊숙이 조아린 후 물러가서 왕의 명령을 실행에 옮겼다. 톰은 가슴이 뿌듯해졌다. 왕 노릇의 좋은 점이 이런 것임을 새삼 깨달았다. 톰은 속

으로 생각했다.

'늙은 신부님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 왕자라고 상상했을 때 내가 꿈꾸었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어.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규칙을 정해 주는 일……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그래도 그 말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말이야.'

그때 문이 활짝 열렸다. 높은 벼슬아치가 줄지어 들어섰고, 그들이 거느린 시종들도 뒤따라 들어왔다. 그 방은 삽시간에 귀족과 벼슬아치들로 가득 메워졌다. 하지만 톰에게는 그들이 눈에 띌 리가 없었다. 그보다 더 흥미진진한 일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톰은 으리으리한 옥좌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는 톰의 눈빛은 문 쪽으로만 향해 있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감히 톰을 훼방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궁정 내에 떠도는 소문을 놓고 수군거렸다.

잠시 후 병사들의 절도 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수비병의 감시 아래 모습을 나타냈다. 장교 한 사람이 톰 앞에 무릎을 꿇었다가 옆으로 비켜 섰다. 세 명의 범죄자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었지만, 그들은 일어서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수비병은 톰의 의자 뒤에 섰다. 톰은 범죄자를 유심히 뜯어보았다. 입은 옷이나 생김새로 보아 남자를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억이 가물가물 떠올랐다.

'아무래도 이 남자를 어디서 본 것 같아. 언제 어디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톰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바로 그때 남자는 고개를 재빨리 쳐들었다가 다시 떨구었다. 왕 앞에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워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비록 짧은 순간이기는 했지만 톰으로서는 그렇게 한 번 제대로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톰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제야 알겠어. 이 사람은 가일스 위트를 템스강에서 건져낸 그 사람이야. 매서운 바람이 부는 새해 벽두에 남의 목숨을 구해 주었지.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될 만한 용감한 행동이었어. 그런데 어쩌다가 나쁜 짓을 저질러 이런 몹쓸 일을 당하고 있단 말인가……. 그날 일은 잊을 수가 없어. 시간까지도 똑똑히 기억나니까. 그로부터 한 시간 뒤, 그러니까 시계가 밤 열한 시를 쳤을 때에 나는 할머니한테 실컷 두들겨 맞았어. 그때 얻어맞은 것에 비하면 그 전이나 그 후에 맞은 것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였어.'

톰은 여인과 아이한테는 잠시 물러가 있으라고 명령했다. 그런 다음 장교에게 물었다.

"이 남자의 죄상이 무언가?"

장교는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한 백성을 독살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 주었던 사람에 대해 연민

의 정과 존경심을 품고 있던 톰은 그 말에 몹시 충격을 받았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톰이 물었다.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톰은 한숨을 내쉬었다.

"데리고 가라. 죽을 죄를 지었으니 불쌍하다. 그렇게 용맹스럽던 사람이 이런 꼴을 당하다니……. 아니, 아니. 내 말은 이 사람이 용맹스러워 보인다는 거야."

그러자 갑자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남자가 두 손을 쥐어짜듯이 맞잡더니, 애간장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왕'에게 애걸복걸하기 시작했다.

"왕이시여, 이 가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굽어살펴 주소서! 저는 죄가 없으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불리하게 내려진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그럽니다. 제발 저에게 아량을 베풀어 주소서! 저의 간절한 소원을 모른 척하지 마시고, 저에게 목을 매달라는 어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톰은 기가 막혔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소원치고는 참으로 해괴한 소원이로다! 어련히 목매달아 죽이지 않을까 봐 그러느냐?"

"그렇지 않사옵니다! 저는 산 채로 튀겨져 죽게 되어 있사옵니다!"

그 끔찍한 말에 톰은 그만 자리에서 튕겨져 나올 뻔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톰은 이렇게 대꾸했다.

"너의 소원을 들어 주마! 만일의 경우 백 사람을 독살했다고 해도, 산 사람에게 그런 가혹한 벌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야."

죄인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감사의 뜻을 나타내더니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일 폐하께서 불행을 당하신다면 제가 죽어서도 오늘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톰은 허트포드 백작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이 사내가 그런 끔찍한 처벌을 받아야 할 만한 근거가 있소?"

"그런 죄인은 그렇게 다스리기로 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독일에서도 가짜 돈을 만든 죄인을 기름에 튀겨서 죽입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에 밧줄을 묶어 천천히 기름에 넣지요. 처음에는 발, 다음에는 다리, 다음에는……."[10]

"아, 그만! 더 이상 못 듣겠구려!"

톰은 소리치면서 손으로 두 눈을 가렸다.

"당장 그 법을 고치도록 하시오. 불쌍한 생명에게 더 이상 그런 잔혹한 고문을 해서는 아니 되오."

그 말을 들은 백작의 얼굴에는 더없는 기쁨의 빛이 떠올랐

다. 허트포드 백작도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모든 일을 법대로만 처리하던 시대에, 더구나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왕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 기쁠 수밖에 없었다. 백작이 입을 열었다.

"폐하의 거룩한 말씀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폐하를 성군으로 길이 기억할 것이옵니다."

장교는 죄인을 데리고 가려 했지만 톰은 손짓을 하여 잠시 기다리게 했다.

"이 문제를 좀더 알아보고 싶다. 이 사내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대가 아는 대로 털어 놓게."

"황공하옵니다. 재판정에서 듣기로는, 이 자는 이즐링턴이라는 작은 부락에서 앓아 누운 사람이 있는 한 집을 침입했습니다. 목격자 세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때가 열 시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보다 몇 분 지나서였다고 말합니다만……. 병자는 그때 혼자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뒤 집으로 들어갔던 사내가 다시 나와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도 못 되어 그 집에 있던 병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경련과 헛구역질을 하면서 말입니다."

"독을 먹이는 것을 본 사람이 있나? 독은 발견되었느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내가 독을 먹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았단 말인가?"

"황공하옵니다. 경련과 헛구역질은 독을 먹은 사람한테서만 나타난다는 의사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의사의 그 말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증거였다. 웬만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증거였다.

"의사는 사람 몸을 잘 아니까 틀림없는 말을 했을 테지. 불쌍하긴 하지만 이 사내가 아무래도 불리하겠군."

"그뿐이 아니옵니다, 폐하. 더 지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언한 바로는, 언제부터인가 마을에서 사라져 종적을 감추었던 마녀가 자기들 귀에다 남몰래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앓아 누워 있던 사람이 독을 먹고 죽을 것이며, 그 독은 낯선 사람이 먹이게 된다고요. 그 낯선 사람은 갈색 머리에 너덜너덜한 평민복을 입고 있다고, 인상착의까지 예언을 했다는군요. 이 남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폐하, 그것이 예언과 꼭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을 보면 이 사건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신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는 이런 논리가 엄청난 설득력을 발휘했다. 톰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느꼈다. 증거에 대해 따지고 들 필요도 없이 이 불쌍한 사내의 죄는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래도 톰은 범인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주었다.

"할 말이 있으면 해 보라."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죄가 없지만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만일 저한테 친구가 있었다면 그날 제가 이즐링턴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혼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보았다고 하는 그 시간에 저는 거기서 이십 리 떨어진 웨핑 올드 스테어즈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사람 목숨을 앗아 갔다고 말하는데, 사실 저는 사람 목숨을 구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가만! 장교,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했지?"

"1월 1일 오전 열 시 아니면 몇 분 뒤에 그 끔찍한 사건이……."

"죄수를 놓아 주거라. 어명이다!"

말을 해 놓고 보니 너무나 왕답지 않은 명령이라서 톰은 다시 얼굴이 벌개졌다. 톰은 무안함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서둘러 뒷말을 이었다.

"그렇게 한심스럽고 엉뚱한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목매달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격한 사람들이 나지막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감격한 것은 톰이 내린 명령 때문은 아니었다. 죄지은 사람을 기분 내키는 대로 용서하는 일은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행동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톰이 보여 준 영민함과 자신감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

렸다.

"왕은 미치지 않으셨어. 정신이 멀쩡하셔."

"질문은 또 얼마나 또박또박 잘 하시는지! 문제를 시원스럽게 단칼에 해결하시는 그 모습은 예전 그대로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폐하께서 돌아오셨어. 이제 우리는 정신병자가 아니라 진짜 왕을 모시게 된 거야. 어떻게 돌아가신 선왕을 저렇게 꼭 빼닮으셨을까."

사람들 사이에는 활기가 넘쳐 흘렀다.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톰도 둔감하지는 않았다. 톰은 무척 기분이 좋았다. 감격이 물밀 듯이 밀려왔다.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 즐거움에 젖는 것도 잠시일 뿐이었다. 금세 새로운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톰은 여인과 아이가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지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흐느끼는 두 사람을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나?"

톰은 장교에게 물었다.

"마술입니다, 폐하. 틀림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법관들은 법에 따라 교수형에 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악마에게 자기의 혼을 팔았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톰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런 고약한 짓을 하는 사람은 될

수록 멀리해야 한다고 배워 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그런 거부감을 잊게 했다. 톰이 물었다.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을 했느냐?"

"12월 어느 날, 한밤중입니다. 버려진 교회에서였지요."

톰은 다시 몸을 떨었다.

"거기엔 누구누구가 있었지?"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의 악마하고요."

"자백은 했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

"두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본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품게 되었는데, 그 뒤로 무시무시한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괘씸한 것은, 이들이 악마한테서 얻은 힘으로 폭풍우를 일으켜 이 고장 일대를 쑥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우를 본 사람이 마흔 명쯤 됩니다. 어쩌면 천 명이 넘을지도 모르고요. 폭풍우로 피해를 본 사람은 다들 생생히 기억할 테니까 말입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로구나.'

톰은 이 야비한 행동을 잠시 속으로 되씹다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이 여인도 폭풍우로 피해를 보았는가?"

나이 든 신하 여럿이 이 슬기로운 물음에 탄복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장교는 그 말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거침없이 대답했다.

"물론 피해를 보았지요. 집이 홀랑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거지 신세가 되어 버렸지만, 이들은 그 정도 당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악마의 힘 때문에 자기도 그런 봉변을 당했다면, 이 여자는 너무 비싼 값을 주고 그 힘을 산 셈이야. 한 푼이라도 돈을 주고 그 힘을 샀다면, 이 여자는 악마에게 사기를 당한 거지. 사람들은 이 여자가 자신과 딸의 혼을 팔았으므로 미친 여자라고 했다지? 그런데 만일 이 여자가 미쳤다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고, 그럴 경우 우리는 이 여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지."

나이 든 신하들이 다시 톰의 지혜에 탄복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 한 사람이 중얼거렸다.

"만일 폐하께서 소문대로 정신이 이상해지셨다고 해도, 그렇게 한 바퀴 빙글 돌아 더 높은 지혜로움에 이르신 건지도 몰라. 어리석은 이들이 그 지혜로움을 알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말이야."

"이 아이는 몇 살인가?"

톰이 장교에게 물었다.

"아홉 살입니다."

"영국의 법은 아이가 계약을 맺어 자기 스스로를 남에게 파는 것을 허용하는가?"

톰이 나이 지긋한 법관을 바라보며 물었다.

"법은 아이가 심각한 문제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머리로는 어른들의 사악한 음모를 당해 낼 수 없기 때문이지요. 마음만 먹으면 악마는 아이를 살 수가 있고 아이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국 아이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영국 법이 영국 사람에게 특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잘못된 생각이야."

톰은 흥분했다. 이 색다른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미소를 머금었다. 그들은 이런 말을 머릿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다가 톰이 남다른 머리를 갖고 있으며, 건강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나중에 궁중에서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여인은 흐느낌을 멈추고 톰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혹시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는 듯했다. 톰도 여인의 그런 생각을 눈치채고, 아무도 돕는 사람 없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에 대한 동정심이 새삼 가슴을 치는 것을 느꼈다. 이윽고 톰이 또다시 질문을 던졌다.

"이 사람들이 폭풍우를 어떻게 일으켰느냐?"

"양말을 벗어서 일으켰습니다."

이 말에 톰은 깜짝 놀랐다. 호기심을 누를 길 없어 거듭 물었다.

"그것 참! 양말을 벗을 때마다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쳤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폐하. 이 여자가 폭풍우를 일으키려고 주문을 마음 속으로든 입으로든 중얼거리기만 하면요."

톰은 여인을 바라보며 다급히 명령했다.

"힘을 써 보아라. 폭풍우를 보고 싶다!"

갑자기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밖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톰의 얼굴에는 불안한 빛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톰은 과연 여인이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었다. 여인이 놀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톰은 서둘러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그대에게는 책임을 묻지는 않을 테니까. 자, 힘을 써 보아라."

"폐하, 소인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침착하게 하고, 그대의 두려움을 묻어 두라. 그대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자, 어서 폭풍우를 만들어라. 아무리 작아도 좋아. 아주 크고 위력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야. 그렇게 하면 그대는 살아날 수 있다. 아이와 함께 풀어 주겠어. 어명으로 풀어 줄 터이니, 그대는 이제

이 나라 어디를 가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여인은 엎드려서 자기에게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힘이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왕이 말한 그 엄청난 능력이 자기에게 있었더라면, 자신이 죽더라도 아이의 목숨만은 어떻게 해서든 살리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톰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여인도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톰이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이 여인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 만일 나의 어머니가 이 여인처럼 악마의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나의 잃어버린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서슴없이 폭풍우를 일으켜 온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어떤 어머니라도 그와 비슷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정숙한 여인이여, 그대를 풀어 주겠다! 그대와 딸을 모두 풀어 주겠노라. 그대들은 죄가 없다. 용서를 받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그대의 양말을 벗어 보라! 내 앞에서 폭풍우를 일으켜 보이면 금은보화를 듬뿍 안겨 주겠노라!"

목숨을 건진 여인은 감사의 말을 쏟아내면서 톰의 명령에 따르려고 했다. 톰은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으로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신하들은 불만과 거부감을 얼굴에 드러내면서 숨을 죽였다. 여인은 직접 양말을 벗었고, 딸도 양말을 벗었다. 그러고는 왕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폭풍우를 만들어 내려고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결

과는 실망스러웠다. 톰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보아라! 그대는 더 이상 애를 쓰지 않아도 좋다. 그대의 힘은 이제 그대를 떠났다. 이제 평화롭게 살도록 하라. 언제라도 그 힘이 돌아오게 되면 내 앞으로 폭풍우를 몰고 오는 것을 잊지 말도록." [11]

16. 중요한 만찬

저녁 만찬 시간이 다가왔지만 신기하게도 톰은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았다. 무섭다는 생각도 거의 안 들었다. 그날 아침 만찬을 한 번 겪은 뒤라서 그런지 톰은 전혀 겁나지 않았다. 겨우 나흘밖에 안 되었지만 톰은 낯선 환경에 훌륭히 적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웬만한 어른 같으면 한 달이 지나도 톰처럼 잘 해 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왕실의 거대한 만찬실은 금을 입힌 원기둥과 벽기둥, 그림이 그려진 벽면과 천장 등으로 웅장함을 과시하고 있었다. 문 앞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키 큰 수비병이 창을 들고 돌부처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사방으로 높이 들어앉은 관람석에는 정장을 한 악사와 남녀 시민이 촘촘히 앉아 있었다. 만찬

실 한가운데의 마루에서 약간 올라간 단 위에 톰의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이것은 당시의 기록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시종 하나가 권력을 나타내는 막대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고, 그 뒤를 이어 식탁보를 든 또다른 시종이 들어온다. 두 시종이 최상의 예의를 갖추어 세 번 무릎을 꿇으면 나중에 들어온 시종이 식탁보를 식탁 위에 깐다. 그러면 두 시종은 다시 무릎을 꿇고 나서 물러간다. 이어 다시 막대기를 든 시종과 소금그릇, 접시, 빵을 든 시종이 들어온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고, 가져온 것을 식탁 위에 얹고 나서 앞서와 같은 의식을 치르고 두 사람은 역시 물러난다. 마지막으로 화려한 옷을 입은 두 귀족이 들어온다. 그 중 한 사람은 시식용 나이프를 들고 있다. 그들은 한없는 존경심을 나타내면서 바닥에 넙죽 엎드리고는, 식탁으로 다가가 빵과 소금으로 식탁을 문지른다. 마치 왕이 그 자리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엄숙한 만찬 전의 행사가 끝났다. 이제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복도 저편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아련한 외침이 들려왔다.

"임금님이 계실 자리를 마련해라! 길을 비켜라!"

이 소리가 한동안 반복되면서 점점 가깝게 들리더니 얼마 뒤에는 씩씩한 나팔 소리가 관람석까지 들리게 되었고, 이런 고함은 귀청을 찢어 놓을 듯했다.

"길을 비켜라!"

바로 그 순간 화려한 행렬이 나타났다. 이들은 문 앞에서 열을 지어 보조를 맞추어 가며 행진을 시작했다. 당시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종, 남작, 백작, 가터 훈작사(영국 최고의 훈장인 가터 훈장을 받은 기사를 뜻함:옮긴이)가 요란스러운 복장으로 모자를 벗고 들어온다. 그 다음에는 대법관이 들어온다. 왕의 홀(왕이 의식을 치를 때,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드는 지팡이:옮긴이)을 든 사람과 순금 붓꽃 무늬가 새겨진 붉은 칼집에 들어 있는 국검을 위로 치켜든 사람이 대법관의 양 옆을 따른다. 그 다음에 왕이 모습을 드러낸다. 왕이 나타나면 열두 개의 트럼펫과 수많은 북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관람석에서도 일제히 일어나 '국왕 폐하 만세!'를 목청껏 외쳐 댄다. 그 뒤로 왕을 옆에서 모시는 귀족들이 따르고, 왕의 특별 경호대가 번쩍이는 도끼를 들고 좌우에서 따라온다."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톰의 맥박은 고동을 쳤고, 눈동자에서는 환희의 빛이 어른거렸다. 톰의 움직임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자기의 행동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자연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었다. 톰은 주위의 야단스러운 광경과 시끌시끌한 소리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것도 그렇지만 몸에 꼭 맞는 멋진 옷을 입고 그런 옷차림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위엄은 저절로 배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지금은 자기가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톰은 미리 배운 대로 깃털 달린 모자를 쓴 머리를 살짝 숙여 신하들의 인사에 답례를 하고는, "수고가 많군." 하고 한마디 던지는 것도 잊지 않았다.

톰은 모자도 벗지 않고 식탁 앞에 앉았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미안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자를 쓰고 밥을 먹는 것은 왕족과 캔티네 식구가 유일하게 닮은 행동이었다. 두 집 다 그런 면에서는 남다른 집안이었다. 행렬은 그림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무리를 이루었다. 그러고는 모자를 벗은 채 가만히 제자리를 지켰다.

그때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근위병들이 들어왔다. 근위병은 영국에서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으로만 골라 뽑았다. 이제 다시 옛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왕실 근위병들이 모자를 벗고 들어왔다. 근위병들의 옷은 진홍색이었고, 등에는 금빛 장미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근위병들은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요리가 담긴 접시를 하나씩 들고 왔다. 시종은 요리가 들어온 순서대로 식탁 위에 그것을 놓았

다. 근위병은 자기가 날라 온 음식을 한 입씩 먹어 보여야 했다. 왕이 먹는 음식에다 독약을 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톰은 배불리 잘 먹었다.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수백 개의 눈이 일제히 쏠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태연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톰이 입에 갖다 댄 것이 무서운 폭약이고 그것이 폭발하여 톰의 몸뚱어리가 가루가 되어 사방에 흩뿌려진다고 해도 그렇게 관심을 끌지는 못했을 것이다. 톰은 서두르지 않으려고 애썼다. 무슨 일이든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담당 시종이 무릎을 꿇고 대신해 줄 때까지 기다리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별다른 실수 없이 식사를 끝낼 수 있었다. 톰에게는 값진 승리였다.

마침내 만찬이 끝났다. 톰은 우렁찬 나팔 소리와 요란한 북소리, 우레와 같은 환호성과 함께 행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밥을 먹는 괴로움이 이 정도라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런 고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왕궁 안에는 그보다 끔찍한 일이 얼마든지 있었고, 적어도 밥을 먹는 동안만은 그런 일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17. 바보 나라 왕 푸푸 1세

마일스 헨든은 부랴부랴 다리 맞은편의 사우스워크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금세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기대를 잃지 않으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자기가 찾는 사람의 행방을 쫓았다. 하지만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저기 물어 본 끝에 존 캔티 일행이 사우스워크를 거쳐 갔다는 것은 알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발자취가 뚝 끊어지고 말았다. 헨든은 어디로 가면 좋을지 앞길이 막막했다. 그래도 그날 해가 저물 때까지 헨든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밤이 되자 다리는 욱신거렸고, 배도 고픈데다 도무지 캔티 일행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헨든은 할 수 없이 타바드 여관에서 저녁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 구석구석을 이

잡듯이 뒤지기로 마음먹었다. 누워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생각이 이런 데까지 미쳤다.

'그 아이는 아버지라고 우기는 그 불한당한테서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할 거다. 그렇지만 도망쳐서 런던으로 가면 다시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텐데. 아니야,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다시 붙잡히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할 게 분명해. 그럼, 그 애는 어디로 갈까? 마일스 헨든을 만나기 전까지 그 아이는 누구 하나 도와 주는 이 없이 외톨이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았어. 그러니까 다시 런던으로 가야 하는 위험만 없다면, 당연히 자기한테 잘 해 주었던 마일스 헨든을 찾아 나설 거야. 그래, 헨든 저택으로 향할지도 몰라. 이 헨든이 집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야. 그래, 이렇게 사우스워크에서 시간을 낭비할게 아니라 얼른 켄트를 거쳐, 몽크스 홀름으로 가서 숲을 샅샅이 뒤져야겠다.'

종적을 감춰 버린 어린 왕은, 마일스 헨든이 자신을 데려오라고 했다는 말만 믿고 그 말을 전하러 온 청년을 따라가고 있었다. 다리 위 여관집 종업원에 의해, 청년과 아이와 함께 합류하는 것으로 목격된 그 불한당은 사실은 그들과 합류하지 않고 뒤에서 바짝 쫓아갔다. 그는 왼쪽 팔에 붕대를 매고 있었고, 왼쪽 눈 위에는 커다란 녹색 안대를 붙이고 있었다. 약간 절룩거리면서 그는 참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했다. 청년은 사우스워크의 구불구불한 골목으로 어린 왕을 데리고 들어

갔다. 왕은 슬슬 화가 났다.

"헨든이 나를 데리러 와야지, 내가 헨든한테 갈 수는 없어!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왕은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버티고 섰다. 그러자 청년이 말했다.

"친구가 다쳐서 숲에 누워 있는데 여기서 미적거리겠다고? 좋을 대로 해!"

왕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다쳤다고?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했지? 그 문제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어서 가자! 어서 가, 더 빨리! 어서! 납이 든 총알을 맞았느냐? 그 짓을 한 놈이 대공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난 그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숲까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었지만 그 거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청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땅에서 삐죽 솟은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했다. 그 가지에는 작은 넝마 조각이 매여 있었다.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는, 말하자면 길 안내판 같은 것이었다. 청년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슷한 나뭇가지를 찾아 내면서 숲으로 접어들었다. 얼마를 더 가자 넓은 공터가 나오고, 불에 탄 농가의 잔해가 시커멓게 널려 있었다. 부근에는 허물어져 가는 헛간이 한 채 있었다. 살아 있는 것이라고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것 같았다. 쥐죽은 듯 침묵만이 감돌았다. 왕은 헛간으로 들어가는 청년의 꽁무니를 열심히 뒤쫓았다. 하지만 헛간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깜짝 놀란 왕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청년을 쏘아보았다.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청년은 비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왕은 순간적으로 발끈 화가 치밀어 장작개비 하나를 집어서 청년을 후려칠 기세였다. 그때 또다른 비웃음이 왕의 귓가를 때렸다. 멀리서 쫓아온 그 불한당이었다. 왕은 그쪽으로 돌아섰다.

"너는 누구냐? 여긴 무엇 하러 왔느냐?"

"바보 자식아, 입이나 다물어라. 아무리 내가 감쪽같이 변장을 했기로서니, 네놈 아비도 못 알아본단 말이냐?"

"그대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그대를 모른다. 나는 왕이란 말야. 그대가 나의 신하를 숨겨 두었거든 어서 데려오라. 그러지 않았다가는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야."

존 캔티는 잔뜩 인상을 쓰며 힘주어 말했다.

"어쨌든 네놈은 단단히 미쳤어. 더 이상 혼내기도 역겹지만, 아버지를 약올렸으니 네놈은 단단히 혼구멍이 나야 해. 여기서는 네놈이 아무리 떠들어 봐야 그 말에 넘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안심이 된다만, 그래도 네놈 말버릇을 이 참에 고쳐 놓아야겠다! 그러지 않았다가는 자리가 달라졌을 때 네놈한테 뒤통수 얻어맞기 십상이거든. 이 몸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고, 그건 네놈도 마찬가지야. 나는 네놈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 이 아비는 궁리 끝에 이름도 바꾸었다. 홉스, 존 홉스. 네 이름은 잭이니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 두어라.

자, 이제 물어 보자. 네 어미는 어디 있어? 누이들은 어디 있지? 약속한 곳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 어디로 갔는지 알아?"

왕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수수께끼 놀음으로 나를 괴롭힐 생각은 말라.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누이들은 궁전에 있다."

옆에 있던 청년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왕은 그 청년에게 덤벼들려고 했지만 존 캔티, 아니 이제부터는 홉스로 불러 달라는 불한당이 앞을 가로막았다.

"가만, 휴고! 약올리지 말아라. 저 놈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악에 받쳐 있다고. 너도 앉아라, 잭. 진정해! 앉아서 밥이나 한 술 떠."

홉스와 휴고는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왕은 구역질나는 그 패거리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멀어지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다. 어둑어둑한 헛간의 한 구석으로 가자 맨땅에 발하나 정도의 깊이로 마른 풀이 쌓여 있었다. 왕은 거기에 누워 마른 풀을 주섬주섬 모아 이불처럼 몸 위에 덮은 다음, 이내 생각에 빠져들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웬만한 일은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여읜 슬픔만은 달랐다. 갈수록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졌다. 세상 사람들은 헨리 8세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그들에겐 헨리 8세가 콧구멍으로 숨을 한 번 내쉴 때마다 세상을 무

너뜨리고, 재앙과 죽음을 불러오는 도깨비로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들에게 그 이름은 오직 즐거운 기억만을 주었고, 거기서 떠오르는 얼굴에는 더없는 자애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린 왕은 아버지 헨리 8세와 나누었던 수없이 많은 대화를 잇따라 떠올리면서 추억에 잠겼다.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이었다.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다. 고통에 시달리느라 파김치가 된 어린 왕은 어느 새 근심 걱정을 잊을 수 있는 고요한 꿈나라로 서서히 빠져들었다.

제법 시간이 지났다. 왕은 정신을 차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가만히 누운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분히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러자 주위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후두둑 지붕을 두드리는 울적한 빗소리가 들려왔다. 아늑하고 편안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오래 가지 못했다. 악쓰는 소리와 야비한 웃음 소리가 시끄럽게 귀를 파고들었던 것이다. 순간적으로 불쾌감에 사로잡힌 왕은, 마른 풀을 머리에서 털어 내면서 이 훼방꾼들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알아보았다. 꼴사납고 역겨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헛간 맞은편 한복판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여태껏 그가 책으로만 읽거나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거지, 깡패, 부랑자 같은 잡다한 족속들이 그 주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넝마를 걸치고 엉금엉금 기어다니거나 양팔을 쫙 벌리고 누워 있었다. 시뻘건 불꽃 때문에 그들의 몸은 기

기묘묘한 빛깔로 빛났다. 몸집이 좋은 우람한 남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몸은 구릿빛으로 잘 그을려 있었고 텁수룩한 머리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넝마를 걸치고 있었다. 성질이 난폭해 보이는 중간 정도 체구의 젊은이들도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 동냥으로 살아가는 장님 수사도 보였다. 그들은 눈에 붕대를 감거나 안대를 하고 있었다. 목발 또는 지팡이에 의지하는 불구자도 눈에 띄었다. 악당처럼 보이는, 등짐을 진 도붓장수도 있었다. 칼 가는 사람, 땜장이, 이발까지 하는 떠돌이 돌팔이 의사는 작업 도구를 옆에 모셔 두고 있었다. 여자들도 많았다. 아직 어린 여자 아이, 한창 물이 오른 아가씨, 아주머니와 할머니도 있었다. 모두가 시끄럽고 뻔뻔스러웠고, 입에서는 상소리만 튀어나왔다. 하나같이 행실이 추잡하고 가벼워 보였다. 맨발로 다니는 아기도 셋 있었고, 똥개도 두어 마리 보였다. 목에 줄을 단 그 똥개의 임무는 장님의 길 안내를 하는 것이었다.

어느 새 밤이었다. 그 어중이떠중이들은 방금 잔치판을 끝냈고, 슬슬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입에서 입으로 술잔이 돌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입을 모아 소리를 질렀다.

"노래! 눈먼 박쥐와 절름발이가 한 곡 뽑아라!"

장님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멀쩡한 두 눈을 가리고 있던 안대를 떼어내고는, 눈이 멀게 된 애달픈 사연을 구구절절이 적은 팻말을 옆으로 밀쳤다. 그런 다음 그는 노래 부를 준비를 했다. 절름발이는 목발에서 해방되어 알토란 같은 튼튼한 두

발로 그 옆에 버티고 섰다. 그들은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고, 주위의 패거리들은 한 곡조가 끝날 때마다 일제히 후렴을 넣어 흥을 돋우었다. 마지막 곡조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너나없이 취흥이 고조되어 악을 써 가며 가사를 읊어 댔다. 고약한 소리가 어찌나 크게 울렸던지, 서까래가 들썩들썩할 정도였다.

밤 깊었네, 마셔라 계집아 두목아,
죄없는 우리 친구들 골로 갔구나,
못된 로마 놈들에게 목매달려
긴긴 잠에 빠졌다.
나왔구나, 어여쁜 계집들아, 잘 봐 둬라, 잘 봐 둬.
더러운 로마에서 빠져 나와,
네 물건 훔쳐 간 놈 잘 봐 뒀다가,
목매달아 죽여야지.

노래가 끝나자 잡담이 이어졌다. 노래 가사는 도둑들끼리 쓰는 속된 말로 읊었지만 잡담은 보통 말로 했다. 낯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자기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껄였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왕은 그들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 보았다. 톰의 아버지인 '존 홉스'는 이 패거리들과 전에 한솥밥을 먹으며 어울려 지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요즘은 어떻게 지냈느냐고 옆에서들 물어 보자, 톰의 아버지는 엉겁결에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들 흐뭇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래, 누굴 죽였는데?"

옆에서 묻자 톰의 아버지는 조금도 죄책감이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신부."

그러자 사람들은 아예 환호성을 질렀다. 다들 흥에 겨워 한 잔씩 쭉 들이켰다. 존 캔티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다시 만나 반갑다고 너도나도 아우성이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존 캔티와 악수를 하지 못해 안달이었다.

"그런데 왜 몇 달째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

누군가 존 캔티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런던이 시골보다는 여러 모로 낫다네. 법이 매우 엄격해져서, 조금만 잘못해도 인정사정 보지 않고 잡아들이는 요즘에는 런던이 더더욱 안전하단 말씀이야. 그 사건만 없었더라면

나는 런던에 계속 있었을 거라고. 이제는 시골로 나돌아 다니는 대신 런던에 눌러붙어 있기로 굳게 마음먹었거든. 그런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지 뭐야."

이번에는 존 캔티가 지금은 패거리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거지 왕초로 보이는 남자가 답변에 나섰다.

"술주정뱅이, 꺽다리, 뺀질이, 수다쟁이, 넝마주이에다 얼간이, 뜨내기를 합쳐서 모두 스물다섯이야. 대부분은 여기 있고 나머지는 겨울 둥지를 따라 동쪽으로 떠돌아다니지. 우리도 내일 아침에는 여기를 뜰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정직한 동료분 중에 웬이 보이지 않는군. 지금 어디 계신가?"

"말도 마. 지금은 유황불이나 먹고 있을 테지. 너무 뜨거워서 맛대가리는 없겠지만 말야. 지난 여름 어디선가 패싸움에 끼었다가 맞아 죽었다네."

"저런! 수완 좋고 용감한 친구였는데."

"누가 아니래! 그 친구 계집인 깜씨 베스가 아직도 우리 패에 있긴 한데, 지금은 동쪽으로 떠난 패거리를 따라갔지. 되바라지지도 않고 미친 년처럼 날뛰지도 않고, 아주 괜찮은 계집이야. 일 주일에 나흘 이상은 술을 퍼먹는 일이 없었으니까 말이야."

"나도 기억나는구먼. 정말 야무진 계집이었다니까. 아무리 칭찬을 퍼부어도 아깝지 않지. 그 계집의 어미도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노파였지. 툭하면 말썽을 부리

고 고집도 은근히 센 편이긴 했지만……."

"그 좋은 머리 때문에 저 세상 사람이 됐다니까! 손금에서 별의별 점까지 다 잘 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에는 마녀로 낙인찍혔다 이 말씀이야. 약한 불에 구워서 죽이라는 언도를 받았다네. 자기 불행을 아주 당당하게 받아들이던 그 할망구의 장한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찡하구먼. 주위에 몰려들어 넋을 잃고 바라보는 구경꾼들한테 그 할망구는 신나게 욕을 퍼붓더라고. 불길이 날름거리며 위로 치솟아 올라서 자기 얼굴을 핥고, 몇 오라기 안 되는 머리카락을 삼키고 잿빛 머리통을 바짝바짝 굽고 있는데도 말이야. 욕을 퍼부었어, 알아? 욕을 퍼부었다고! 천 년을 살아도 그렇게 가슴 후련한 욕지거리는 못 들을 걸세. 아, 그런 욕쟁이도 없었는데! 지금도 깝죽거리면서 흉내를 내는 것들이 몇 있지만, 그 할망구에 비하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지. 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냐."

거지 왕초는 한숨을 내쉬었다. 듣고 있던 패거리들도 덩달아 한숨을 쉬었다. 잠시 동안 분위기가 침울하게 가라앉았다. 아무리 막돼먹은 부랑자들이라고 해도 감정이 아주 메마른 것은 아니었다. 가끔씩은 그들도 상실감에서 오는 고통을 언뜻언뜻 느끼면서 살았다. 이를테면 지금 같은 경우는 대를 이을 후계자 한 사람 남겨 놓지 않고 천재가 훌쩍 떠나가 버렸을 때, 남은 사람들이 느끼는 허전한 감정을 함께 주고받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한 잔씩 술을 걸지게 마신 다음부터는 다시

분위기가 살아났다.

"그밖에 고생한 친구는 또 없나?"

톰의 아버지가 물었다.

"웬걸, 있지. 특히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심하게 당했어. 자투리만한 땅을 부쳐 먹고 살던 농부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는, 주린 배를 움켜쥐고 구걸을 다니는 백수 건달 신세가 되었지. 그 땅은 양을 치는 목장으로 바뀌었다나? 구걸하러 다니다가 걸리면 웃통을 드러낸 채 마차 꽁무니에 묶여 채찍질을 당했지. 피가 나올 때까지 말이야. 그러고는 족쇄에 끼워져 내동댕이쳐졌지. 다시 구걸을 하다가 걸리면 또 채찍질을 당하고, 한쪽 귀까지 잘리는 신세가 되는 거야. 오죽하면 구걸하러 나섰겠냐고! 구걸을 하다 세 번째로 걸리면, 시뻘겋게 달군 쇠로 뺨에 낙인이 찍히고 노예로 팔려 가지. 그래서 도망이라도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도망치기도 어렵지만, 만약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악착같이 쫓아와서 목을 매다는 거야. 너무 적나라해질 것 같아서 줄여서 얘기했네만, 우리 중에도 이런 고생을 겪은 사람이 많아. 어이, 요켈, 번스, 호지! 이리 나와서 좀 보여 줘!"

지목을 당한 사람들은 일어서더니 몸에 걸치고 있던 넝마를 일부 벗었다. 등판이 드러나자 보기 흉한 채찍 자국이 엇갈린 방향으로 패어 있었다. 한 사람이 머리털을 들추어 왼쪽 귀가 잘려 나간 자국을 보여 주었다. 또 한 사람은 어깨에 난 V(브

이)자 낙인을 보여 주고, 역시 귀가 떨어져 나간 자국을 보여 주었다. 그 다음 사람이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요켈이야. 전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제법 잘 살았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도 있었고. 지금은 사는 곳도 직업도 달라졌지만 말씀이야. 아내와 자식들은 먼저 세상을 떴어. 지금은 천국에 있거나, 아니면 그 반대쪽에 있을 테지. 하지만 내 가족들이 영국을 뜰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 나는 하느님께 무조건 감사를 드린다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평생을 사신 우리 어머니는 아픈 사람들을 간호하면서 번 푼돈을 살림에 보태셨지. 그런데 어느 날 병자 하나가 죽었어. 의사들은 원인을 알아 내지 못했고, 졸지에 우리 어머니는 마녀로 몰렸지. 손자들이 흐느끼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머니는 불에 타 죽었어. 그게 영국의 법이야! 자, 한 잔씩 들자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축배를 들자! 우리 어머니를 지옥 같은 영국에서 건져 준 자비로운 영국 법을 위하여 건배! 고마워, 고맙다고. 아내와 나는 굶주린 자식들을 데리고 이 집 저 집 구걸하러 다녔지. 하지만 영국에서는 배고픈 것도 죄야. 그놈들은 우리 식구를 홀딱 벗기고는 매질을 했어. 동네 세 곳에서 내리 그렇게 당했지. 자비로운 영국 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축배를 들자!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아내는 얼마 못 가서 죽었어. 지옥에서 빨리 벗어난 거지. 지금 가마터 자리에 묻혀 있는데, 괜한 고생 안 하고 잘 죽었지 뭐. 우리 아이들은 내가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매질을 당하며 쫓겨 다니는 동안 굶어 죽었어. 얘들아 마셔라, 한 방울만 마셔! 파리, 새 한 마리 죽이지 못했던 불쌍한 내 어린 것들을 위해서 한 방울만……. 나는 다시 구걸을 다녔지. 빵 한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말이야. 그러다가 족쇄에 묶여 귀까지 잘렸어. 봐, 여기 귓불이 조금 남아 있지? 난 다시 구걸하러 다녔어. 급기야는 노예로 팔렸지. 여기 뺨 아래에 지진 자국이 있다고. 지금은 더러워서 잘 안 보이지만 깨끗이 씻으면 '노' 라는 붉은 글씨가 똑똑히 보이지. 이건 노예란 뜻이야! 알겠어? 영국 노예! 이 몸이 왕년에 노예였다, 이 말씀이야. 얼마 후에 나는 주인집에서 도망쳤지. 만약 붙잡히는 날에는, 난 교수대에 오르게 되지! 이런 걸 명령하는 이 나라의 법에 하늘의 저주가 내릴지어다!"[12]

그때, 또랑또랑한 남자 아이의 음성이 자욱한 어둠을 갈라놓았다.

"그렇지 않아! 오늘로서 그 법은 무효다!"

모두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남자 아이가 당당한 몸짓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의 모습이 불빛을 받아 똑똑히 드러나자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저마다 한 마디씩 해 댔다.

"이게 누구야? 이게 뭐야? 넌 누구지?"

남자 아이는 놀라움과 궁금증이 가득 담긴 시선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위엄을 갖추어 대답했다.

"나는 이 나라 왕, 에드워드다."

폭소가 터졌다. 모두들 너무나 기가 막힌 농담을 들은 듯 큰 소리로 웃어 댔지만, 그 속에는 빈정거림도 섞여 있었다. 어린 왕은 발끈 화를 내며 쏘아붙였다.

"버릇없는 무뢰배 같으니라고. 왕이 은혜를 베푼 데 대한 보답이 겨우 그 정도냐?"

왕은 분을 못 이겨 삿대질까지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떠나갈 듯한 웃음 소리와 야유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톰의 아버지 '존 홉스'는 몇 번씩 고함을 지른 끝에 간신히 자기 말을 전달할 수 있었다.

"여보게들! 얘는 내 아들인데, 미쳐도 단단히 미친 녀석이야. 자기를 왕으로 알고 있다니까! 하지만 신경쓸 것 없어."

보잘것 없는 아이에 불과한 왕이 말했다.

"나는 왕이다. 머지않아 너희들은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 존 홉스, 너는 사람을 죽였다고 했으니 교수형에 처하겠다."

왕은 존 홉스에게 겁을 주었다.

"네놈이 나를 배신해, 네놈이? 이 녀석 모가지를 당장!"

존 홉스가 흥분하여 소리치자 우람한 체구의 거지 왕초가 끼어들었다.

"아서!"

거지 왕초는 주먹을 날려 홉스를 고꾸라뜨렸다. 결과적으로 왕에게 더없는 충성심을 발휘한 셈이었다.

"네놈 눈에는 왕도, 이 거지 왕초도 보이지 않는 거냐? 다시 한 번 내 눈앞에서 그 따위로 날뛰었다간, 그날이 네놈 제삿날인 줄 알아라!"

거지 왕초는 다시 왕에게 말했다.

"친구들을 그렇게 윽박지르면 못쓴다, 얘야. 그리고 입조심을 해야지. 다른 데 가서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머리가 살짝 돌아서 왕 노릇을 하는 건 네 마음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 방금 네 입으로 뱉은 말은 거두어들여라. 그건 반역 행위야. 우리가 비록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다니긴 하지만, 나랏님한테 감히 반기를 드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 어찌 보면 우린 나라를 아끼는 충성스러운 백성이야. 내 말이 과히 틀리지 않았다면, 똑똑히 머리에 넣어 두라고. 자, 큰 소리로 다들 따라해라! '영국 왕 에드워드 폐하 만세!'"

"영국 왕 에드워드 폐하 만세!"

어중이떠중이들이 우레와 같은 함성을 한꺼번에 내지르자, 그렇지 않아도 무너질 것 같았던 헛간이 곧 무너질 듯 흔들거렸다. 어린 왕은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머리를 살짝 숙이며 점잖게 한 마디 했다.

"갸륵한지고……."

이 예기치 않던 반응에 사람들은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다. 한바탕 웃음이 가라앉자, 거지 왕초가 엄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그만두라니까. 그건 현명하지 못한 짓이야. 네 심정은 이해한다만, 그래도 네가 유명해지고 싶다면 다른 직위를 골라라."

땜장이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바보 나라 왕 푸푸 1세가 어떨까?"

그 직위는 당장에 받아들여졌다. 다들 환호성을 터뜨렸다.

"바보 나라 왕 푸푸 1세 만세!"

그러자 휘파람 소리, 박수 소리, 웃음 소리가 뒤따랐다.

"앞으로 모셔라!"

"왕좌에 앉혀라!"

"왕관을 얹어라!"

스무 명도 넘는 사람들이 저마다 악을 써 댔다. 어린 왕은 졸지에 양은 대야를 왕관으로 쓰고, 너덜너덜한 담요를 왕의 옷처럼 입게 되었다. 그런 다음 드럼통으로 된 왕좌에 올라 땜장이의 납땜 인두를 왕의 홀 삼아 들고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주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짐짓 흐느끼는 척하면서 장난 삼아 탄원을 올렸다. 때에 절은 소매와 치맛자락으로 연방 눈물을 훔쳐 대기도 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절히 애원하노니, 제발 짓밟지 마소서!"

"당신의 노예를 불쌍히 여기시어 발로 뻥 차 주시면 고맙겠나이다!"

"오, 빛나는 태양 같은 우리의 왕이시여! 거룩한 햇살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즐겁고 훈훈하게 해 주소서!"

"당신께서 발을 내디디시어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오면, 저희는 풀썩이는 먼지를 먹고 감지덕지하겠나이다!"

"저희에게 침을 뱉어 주시면 자손 대대로 그 은혜를 전하여, 영원토록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기겠나이다!"

하지만 그날 저녁의 주인공은 단연코 땜장이였다. 크나큰 영광을 한몸에 안았기 때문이었다. 땜장이는 무릎을 꿇고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척하다가 그만 발길질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자 땜장이는 왕의 발에 걷어차인 얼굴 부위에 갖다 댈 헝겊을 구하러 다니느라 부산을 떨었다. 더러운 공기가 거기에 닿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길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번 보여 줄 때마다 백 푼씩 받으면 떼돈을 벌 수 있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어찌나 능청을 떠는지 모두들 땜장이를 부러워하고 우러러볼 정도였다.

어린 왕은 창피하고 분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만일 내가 저들한테 강하게 나갔더라면 저토록 야비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야. 내가 물렁물렁하게 보이니까 저렇게 나를 골탕먹이는 거야!'

18. 거지 패에 섞인 왕자

부랑자 패거리는 꼭두새벽에 길을 떠났다. 하늘은 잔뜩 찌푸리고 있었고, 발밑의 땅은 질퍽거리기만 했다. 겨울의 냉기가 피부로 느껴졌다. 어제의 흥겨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뾰로통하게 말이 없는 사람, 안달복달 조바심을 내는 사람……. 모두들 즐거운 기분이 아니었다.

거지 왕초는 어린 왕을 휴고의 손에 맡기면서 간단한 주의사항을 말했다. 톰의 아버지에게는 아이 옆에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윽박질렀다. 그런 다음 휴고에게, 아이를 너무 거칠게 다루지 말라고 당부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날씨는 한결 포근해지고 구름도 약간 걷혔다. 추위에 오그라들었던 몸이 녹자 모두들 조금씩 생기가 되살아났다. 분위기가 차츰 밝아지니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장

난을 치거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집적거리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이들 무리와 마주치면 무서워하거나 피했다. 그래서 다들 두말 않고 길을 비켜 주었고, 상스러운 욕지거리로 시비를 걸어 와도 말없이 받아들일 뿐 감히 대꾸를 하는 법은 없었다. 거지 패는 남의 집 울타리에 널린 옷가지를 기분 내키는 대로 슬쩍 집어 갔다. 주인이 빤히 보고 있었지만, 주인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울타리를 빼 가지 않은 것만도 다행스럽게 여기는 눈치였다.

차츰 기세가 오른 거지 패거리는 작은 농가로 몰려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하기에 이르렀다. 겁에 질린 농부와 가족들은 집에 있는 양식을 모조리 꺼내 와서 거지들한테 바칠 아침상을

준비했다. 농부와 아내와 딸들이 음식을 날라 오면 패거리들은 그들의 턱을 어루만지며 희롱했다. 여자들에게 무례한 농담, 망측스러운 음담패설을 던지며 너털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또 농부와 아들들에게는 잘 피해 보라면서 뼈다귀와 야채 조각을 던졌다. 그러다가 몸에 정통으로 맞으면 신나게 박수를 쳐 댔다. 참다못해 농부의 딸 한 명이 화를 내자, 거지들은 결국 손찌검까지 하고 말았다. 거지 패는 농가를 떠나면서, 만일 자기들이 한 짓을 관가에 밀고하면 다시 돌아와서 집 안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고달픈 방랑길에 지친 일행은 제법 규모가 커 보이는 마을 입구의 울타리 뒤편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한 시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그동안 패거리들은 뿔뿔이 흩어져 마을 여기저기로 비집고 들어가서는, 수단껏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야만 했다. 어린 왕은 휴고와 함께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여기저기를 헤매고 돌아다녔다. 휴고는 뭘 좀 건질 게 없나,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소득이 없었다.

"젠장, 훔칠 것도 없네. 뭐 이런 궁상맞은 동네가 다 있어? 결국 우리는 동냥이나 해야겠군."

"우리라고? 너나 해라. 그런 데 제격이니까. 하지만 난 동냥 못 해."

"동냥을 못 한다고! 너, 이 바닥에서 얼마나 굴러먹었지?"

휴고는 기가 막힌 듯 왕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 여태까지 런던 바닥에서 동냥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내가? 미친 놈!"

"입조심하는 게 좋을걸. 안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족쇄를 차게 될 테니까. 네 아버지 말로는, 넌 허구한 날 동냥 그릇만 차고 다닌 놈이래. 그 양반이 거짓말한 모양이군. 너는 네 아버지가 거짓말했다고 말하고도 남을 놈이야!"

휴고가 빈정거렸다.

"그놈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나? 맞아,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이봐, 미친 놈 흉내는 이제 그만두라니까! 재미 삼아 봐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다간 너 큰코 다친다! 네놈 아버지한테 방금 네가 한 말을 일러바치면 그 양반이 가만있을 것 같으냐?"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내 입으로 말할 작정이니까."

"네 용기는 마음에 들어. 정말이야. 하지만 옳고 그른 건 가릴 줄 알아야지. 그러지 않아도 코피 터지게 얻어맞을 일이 널린 게 인생살인데, 일부러 얻어맞을 짓만 골라서 하니, 원! 좋아, 그 문제는 접어 두기로 하자. 어쨌든 난 네 아버지를 믿어. 그 양반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물론 거짓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지. 우리 중에서 제아무리 잘난 척하는 놈도 그럴 땐 다 거짓말을 한다, 이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야. 똑똑한 놈이라면 그런 쓸데없는 일로 거짓말을 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지. 원래 거짓말이라는 건 아끼고 아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는 법이야. 그건 그렇고, 네가 정 동냥을 못 하겠다면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지? 부엌에서 먹을 거나 훔칠까?"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하고,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왕이 참다못해 쏘아붙였다.

"흠, 동냥도 못 하겠고 도둑질도 못 하겠다 이거지? 좋아, 그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마. 내가 동냥을 할 동안 너는 바람잡이 노릇만 해라. 그것까지 못 하겠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왕이 단박에 그 말을 뭉개 버리려는데 휴고가 끼어들었다.

"쉿, 조용! 마음씨 좋아 보이는 사람이 저기 온다. 내가 푹 고꾸라질 테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달려오면 너는 울 준비를 하고 있다가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척해. 마치 네 뱃속에 온갖 궁상이 다 들어 있는 것처럼 쥐어짜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해. '나으리, 저희 형제는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입니다. 하느님을 생각하시어, 그 자애로운 눈길로 병들고 버림받은 이 불쌍한 것들을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받는 하느님의 어린 양한테 나으리의 넉넉한 호주머니에

서 한 푼만 적선해 줍쇼!' 하고 말야. 절대로 울음을 멈추어서는 안 돼. 한 푼 뜯어내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 알았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급히 말을 마친 휴고는 끙끙 앓으며 죽어 가는 소리를 내더니 눈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몸을 비비꼬다가 행인이 다가오자 그 앞에 벌렁 나자빠졌다. 휴고는 곧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행인의 코앞에서 흙먼지를 풀풀 날리며 몸을 비틀고 뒹굴었다.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이걸 어째! 아, 불쌍도 해라. 얼마나 아프면 이럴까? 자, 내가 일으켜 주지."

마음씨 좋은 행인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하느님의 보답이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발작이 시작되었을 때 제 몸에 손이 닿으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발작이 시작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기 있는 제 동생이 나으리께 말씀드릴 겁니다. 한 푼만 적선해 줍쇼, 나으리. 한 푼만요!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놔 두셔도 좋습니다."

"한 푼을? 아무렴, 줘야지. 참으로 사정이 딱하군."

행인은 부리나케 주머니를 뒤져 동전들을 꺼냈다.

"옛네, 이걸로 뭘 좀 먹고 기운을 차려 봐. 거기, 너는 이리로 오렴. 네 형이 아프니까 나하고 집까지 함께 부축해서 가자. 집이 어디……?"

"내 형이 아니야."

왕이 상대의 말을 잘랐다.

"뭐? 형이 아니라고?"

"저 녀석 말하는 것 좀 보게. 자기 형을 보고 형이 아니래. 너 지금 제정신이야?"

휴고는 펄쩍 뛰면서도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네 형이 틀림없다면, 넌 정말 인정머리 없는 아이로구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봐라, 손발을 전혀 못 놀리잖니. 이 사람이 네 형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동냥질과 도둑질을 하는 놈이지! 그대 주머니에 들어 있던 돈도 벌써 훔쳤을 게다. 그 지팡이로 저놈 어깨를 후려갈기면 기적처럼 병이 나을 거고.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지."

휴고는 왕이 말한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는 후닥닥 일어나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총알처럼 내뺐다. 행인은 고함을 지르면서 죽을 힘을 다해 휴고를 쫓아갔다. 왕은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반대편으로 방향을 잡아 부지런히 달렸다. 잠시 후 왕은 거지패의 추격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맨 처음 나타난 길로 접어들자 마을을 뒤로 하고 갈 수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왕은 누가 쫓아오지나 않는지 계속 뒤돌아보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이 가라앉고, 그들 패거리로

부터 도망쳐 나왔다는 안도감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배가 고팠다.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왕은 한 농가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그런데 말도 미처 꺼내기 전에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다. 왕의 꼴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왕은 분하고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났다. 앞으로는 상대가 절대로 자기를 만만히 보지 못하도록 행동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다. 하지만 배가 고픈데 자존심만 지키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날이 저물어 오자 왕은 결국 또다른 농가를 기웃거리게 되었다. 이번에는 더 심한 봉변을 당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듣고, 냉큼 물러가지 않으면 부랑자로 잡아들이겠다는 위협까지 받았다.

밤이 되어 차가운 냉기가 몸 속으로 스며들자 왕은 마음까지 울적해졌다. 그래도 왕은 맨발로 어기적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잠시도 쉴 수가 없었다. 숨을 돌리려고 조금만 앉아 있으면 금세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어두컴컴한 밤에 음산한 그늘과 황량한 들판을 가로질러 가자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모두가 낯설기만 했다. 가끔씩 이상한 목소리들이 점점 다가오다가 옆을 스치더니, 어느 새 침묵으로 사라져 갔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하려고 해도 형체 없는 허공의 뿌연 자취일 뿐이어서 어딘지 소름끼치고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다. 이따금 불빛이 아주 멀리서 보였는데, 마치 딴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양의 목에 매단

방울이 딸랑거리는 소리도 언뜻 귀에 들어왔다.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아련하고 희미한 소리였다. 꺼질 듯 꺼질 듯한 슬픈 음조로, 소들의 나지막한 '음매' 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들려오기도 했다. 간혹 개가 끝없이 펼쳐진 숲과 벌판을 향해 투덜거리듯 짖어 대는 소리도 들렸다. 모두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린 왕은 모든 삶과 모든 활동이 자기한테서 아주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막막한 고독의 한복판에서 홀로 쓸쓸히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섬뜩한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왕은 비틀거리면서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간혹 머리 위에서 마른 잎새가 살랑살랑 가볍게 흔들리는 소리가 꼭 사람이 소곤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렇게 걷고 있자니 어느 새 양철 호롱의 가물거리는 불빛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다. 왕은 그늘로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호롱은 헛간의 열린 문 옆에 놓여 있었다. 왕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고, 누가 움직이는 기척도 없었다. 밖에 가만히 서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왕에게는 헛간 안이 너무나 아늑하고 훈훈해 보였다. 참다못한 왕은 봉변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일단 들어가 보기로 했다. 기민한 몸놀림으로 살그머니 헛간으로 막 들어서려던 찰나,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왕은 헛간 안에 놓인 통 뒤편으로 몸을 숨긴 채 웅크리고 앉았다. 농부 두 사람이 호롱불을 들고 들어오더니 두런두

런 이야기를 나누며 일을 했다. 그들이 호롱불 옆에서 움직이는 동안, 왕은 눈을 치켜뜨고 주위를 살폈다. 헛간 끝에 외양간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었다. 왕은 농부들이 나가고 나면 어둠 속을 더듬어 그쪽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외양간 쪽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 거적때기 두 장이 놓여 있는 것도 확인해 두었다. 하룻밤 그 거적때기에 신세를 질 요량이었다.

농부들은 일을 끝마쳤는지 밖으로 나갔다. 나가면서 그들은 문을 닫고 호롱불까지 가져갔다. 왕은 오들오들 떨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최대한으로 몸을 빠르게 움직여 거적때기를 집어 들고 다시 살금살금 외양간 쪽으로 향했다. 거적때기 한 장은 요로 깔고, 나머지 한 장은 이불로 덮었다. 다 떨어진 얇은 거적이어서 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코를 찌르는 말똥 냄새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 왕은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

왕은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있었고, 몸도 너무 피곤하고 졸렸다. 배고픔은 졸음을 당해 낼 수가 없었다. 얼마 뒤 왕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아주 깊은 잠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가 분명히 자기 몸을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잠이 확 달아나면서 왕은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던 그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손길에 머리털이 곤두서면서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왕은 꼼짝 않고 누워서 숨을 죽인 채 귀만 곤두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인기척이라곤 없었고,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왕은 한참 동안 신경을 곤두세우고 가만히 기다렸다. 그래도 자신의 잠자리 주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왕은 다시 잠을 청하기로 했다. 바로 그때, 그 알 수 없는 감촉이 다시 느껴졌다. 왕은 소름이 쫙 끼쳤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엇이 아무 소리도 없이 자기를 슬쩍 만지는 것이었다. 어린 왕은 그것이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도무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이 무서운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여기서 빨리 나가야만 해. 그런데 어디로 가지?'

잠자리를 겨우 마련해 놓은 헛간에서 나갈 생각을 하자, 왕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유령에게 허겁지겁 쫓기면서, 고개를 돌릴 때마다 기분 나쁜 손길에 뺨과 어깨를 내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더욱 못 견딜 노릇이었다.

'미친 척하고 남아서 오늘 밤만 어떻게 버텨 볼까?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유령인지 귀신인지 모를 무언가가 분명히 이 안에 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그래, 손을 뻗어 유령의 정체를 확인해야 해!'

왕은 이런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러나 막상 행동에 옮기려고 하자 몸이 따라 주지 않았다. 세 번씩이나 손을 어둠 속으로 조심스럽게 뻗어 보려고 시도했지만, 번번

이 기겁을 하며 움츠러들어야만 했다. 어둠 속의 물체가 대항을 할 거라고 지레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네 번째에는 손이 약간 더 멀리 나아가 부드럽고 따뜻한 물체를 가볍게 스쳤다. 공포에 질린 왕은 돌처럼 몸이 굳어 버렸다. 마음을 얼마나 졸였던지, 왕은 그것이 분명 시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라 아직 온기가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왕은 그것을 다시 만지느니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나자 왕은 한편으로 호기심이 생겨났다. 얼마 안 가서 왕은 손을 덜덜 떨면서도 다시 그 물체를 더듬기 시작했다. 만지고 싶지 않았고, 결코 만지지 않겠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면서도 왕은 계속 그것을 더듬었다. 길다란 머리카락 같은 것이 만져졌다. 왕은 소스라쳤지만 그래도 살살 더듬어 올라갔다. 따뜻한 올가미 같은 것이 손 끝에 닿았다. 그 올가미를 따라가자 송아지 한 마리가 세상 모르고 잠자고 있었다. 왕이 올가미라고 느꼈던 것은 사실 올가미가 아니라 송아지 꼬리였다.

왕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혼자 온갖 상상을 다 했던 자기의 모습이 스스로 부끄러웠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굳이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왕이 무서워했던 것은 송아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끔찍한 유령 같은 존재였다.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던 그 시절에는 어떤 아이라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두려워했던 것이 겨우 송아지였다는 사실도 왕을 기쁘게 했지만, 송아지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왕을 더없이 흐뭇하게 했다. 친구 하나 없이 외톨이로 떠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보잘것 없는 짐승이 곁에 있어 주는 것도 한없이 고맙게 느껴지는 법이었다. 별볼일없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혼쭐이 나고 시달렸는지, 비록 사람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지는 않지만 적어도 착한 심성을 가진 짐승과 함께 있다는 것이 왕에겐 오히려 다행스러웠다. 왕은 이제 자신의 높은 지위도 포기한 채 송아지와 어울리기로 마음먹었다.

왕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송아지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문득 이 송아지한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다. 왕은 거적때기를 주섬주섬 집어서 송아지 옆에다 바짝 붙인 다음 자리를 깔았다. 그리고는 송아지 등에 몸을 붙이고 거적때기를 자기 몸과 송아지 몸에 함께 덮었다. 그렇게 하고 몇 분이 지나자 어찌나 따뜻하고 아늑한지,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푹신푹신한 침대도 부럽지가 않았다.

몸이 편해지자 마음도 즐거워졌다. 갑자기 세상이 전보다 밝아 보였다. 자기를 귀찮게 하던 시종도 도둑들도 이제는 옆에 없었다. 야비하고 흉폭한 깡패들의 손아귀에서도 벗어났고, 따뜻하고 아늑한 잠자리까지 마련했다. 왕은 짧은 순간의 행복을 맛보았다. 밤바람이 차츰 거세지고 있었다. 별안간 몰아치는 강풍 때문에 낡은 헛간이 덜컹덜컹 흔들렸다. 그러다

가 조금 시간이 지나자 바람이 잠시 잦아들면서 모퉁이와 튀어나온 모서리를 굽이돌며 "위잉윙" 울부짖었다. 따스하고 아늑한 잠자리에 누운 왕의 귀에는 그것이 모두 음악처럼 들렸다. 바람이 대지를 뒤흔들거나 때리거나, 울부짖거나 흐느끼거나 간에, 오직 그것을 즐길 따름이었다. 왕은 송아지에게 몸을 바짝 붙였다. 그 따사로운 만족감과 더없는 행복감에 젖어 왕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멀리서 개가 짖었고, 소들은 서글피 울며 신세 한탄을 했다. 세찬 바람은 여전히 그칠 줄을 몰랐고, 거센 빗줄기가 지붕을 때리고 있었다. 하지만 왕은 깊은 잠에서 깨어날 줄을 몰랐다. 송아지 역시 폭풍우가 몰아치든 말든, 왕이 바로 옆에서 잠을 자든 말든,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다.

19. 농민과 어울린 왕

아침 일찍 눈을 떠 보니 비에 젖은 영리한 쥐 한 마리가 왕의 가슴에 파고들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인기척에 깜짝 놀란 쥐는 쪼르르 달아났다. 왕은 빙그레 웃으며 혼잣말을 했다.

"뭘 그리 무서워하니? 우리는 똑같이 버림받은 신세야. 너처럼 의지할 데 없는 짐승한테 해를 입힐 정도로 내가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란다. 사실은 너한테 고마워해야지. 네가 나한테 왔다는 건 괜찮은 조짐이거든. 쥐들의 보금자리나 될 정도로 왕의 신세가 형편없어졌다는 건, 바꿔 말해서 더 이상 사정이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다는 소리야. 이제는 형편이 나아지겠지."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였다. 아이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헛간 문이 열리면서 여자 아

이 둘이 들어왔다. 낯선 남자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두 여자 아이의 조잘거림이 뚝 그쳤다. 더 이상 웃지도 않았다. 두 아이는 호기심이 생기는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남자 아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여자 애들은 얼마 뒤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더니, 조금 가까이 다가섰다가 다시 멈추어 서서 말똥말똥 쳐다보고는 자기들끼리 속닥거렸다. 그러더니 서서히 용기가 생기는지 드디어 한 아이가 입을 열었다.

"예쁘게 생겼다."

그러자 다른 아이가 맞장구를 쳤다.

"머리카락도 곱네."

"옷은 너무 지저분해."

"쫄쫄 굶은 얼굴이야."

여자 아이들은 조금 더 다가와서 수줍은 듯 왕의 주위를 가만히 돌면서 구석구석 자세히 뜯어보았다. 마치 희한하게 생긴 낯선 동물이라도 보는 듯했다. 그렇지만 그 동물이 자기네 한테 덤벼들어 물어뜯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조심하는 눈치였다. 결국 여자 아이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려는 듯 서로 손을 꼭 잡고 왕 앞에 섰다.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의 눈에는 어느 정도의 만족감이 나타나 있었다. 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곧바로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물어 보았다.

"너, 뭐 하는 애니?"

"난 왕이다."

무게가 실린 대답이었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다.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이 없는 가운데 삼십 초 가량이 흘러갔다. 하지만 호기심은 침묵을 견딜 수가 없는 법이었다.

"왕이라고? 어디 왕?"

"영국 왕."

여자 아이들은 물끄러미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왕한테 눈길을 돌렸다가 다시 자기들끼리 쳐다보았다. 어리벙벙한 표정이었다. 한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도 들었지, 마조리? 왕이라고 말했어. 정말일까?"

"정말이지 그럼 뭐겠니, 프리시?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할까? 내 말 잘 들어, 프리시. 그 말이 정말이 아닐 때만 거짓말인 거야.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잘 생각해 봐. 정말이 아닌 것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야말로 도저히 반박할 길이 없는, 한치의 빈틈도 없는 논리였다. 반신반의하던 프리시도 더 이상 의심을 할 수가 없었다. 프리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진난만한 말로 왕을 기쁘게 해 주었다.

"네가 정말 왕이라면, 네 말을 믿을게."

"나는 진짜 왕이야."

이렇게 해서 문제는 해결되었다. 두 여자 아이는 더 이상 질문을 하거나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았고, 자기들의 눈

앞에 있는 사람이 왕이라는 사실을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서로 뒤질세라 질문을 퍼부어 댔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왕이면 왕답게 화려한 옷을 입어야 할 텐데, 이유가 뭐지?"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갈 거야?"

놀림받거나 의심받는 일 없이 자기의 고생담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된 왕은 마음이 아주 후련했다. 그래서 배고픔도 잠시 잊어버리고 여자 아이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들려 주었다. 두 여자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하는 듯,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그런데 왕이 최근에 겪은 일을 얘기하는 동안, 아이들은 왕이 며칠 동안 음식다운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아침을 먹이기 위해 왕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왕은 이제 신바람이 났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이런 결심을 했다.

'궁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나깨나 어린아이들을 잘 보살펴야겠어. 내가 어려울 때 이 아이들은 나를 철석같이 믿어 주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자. 그런가 하면 나이 든 사람들,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거짓말쟁이 취급을 했어.'

여자 아이들의 어머니는 가슴아파하면서 왕을 따뜻하게 맞

아 주었다. 오갈 데 없는 신세도 딱했지만, 정신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 보였으므로 왠지 불쌍하게 느껴진 것이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과부였으므로 살림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고생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못 본 척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그녀는 이 미친 아이가 가족과 보호자의 품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잠깐 동안 궁리했다.

"넌 어디서 살다 왔니?"

아이들의 어머니가 물었다. 하지만 부근의 읍과 마을 이름을 아무리 대 보아도, 이 아이가 알 만한 동네를 아무리 물어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남자 아이의 표정이나 말투에는 생전 처음 그런 이름들을 듣는다는 눈치가 강하게 배어 있었다. 아이는 정색을 하면서 줄기차게 궁전 이야기만 했다. 그리고 돌아가신 선왕 이야기를 할 때는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요리를 준비하면서 이 아이가 무심결에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다. 먼저 소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남자 아이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에는 양 이야기를 꺼냈다. 역시 무덤덤했다. 그래서 예전에 양치기였을 거라는 짐작은 빗나가고 말았다. 이번에는 방앗간 이야기로 시작해서 천 짜는 사람, 땜장이, 대장장이, 장사꾼

들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정신병원, 감옥, 수용소까지 들먹여 보았지만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아주 소득이 없다고 볼 수는 없었다. 최소한 집안에서 하는 일로 범위를 차츰 좁힐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이번만큼은 확실해. 이 아이는 틀림없이 집안일을 거들던 머슴이었을 거야."

여자 아이들의 어머니는 마음 속으로 자신의 생각이 맞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머슴 생활을 슬쩍 얘기해 보았지만 이번에도 아니었다. 집안 청소를 화제로 삼자 따분해하는 눈치였고, 비질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모두 자기하고는 상관없

는 일이라는 표정이었다. 마음씨 고운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요리를 화제로 떠올려 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남자 아이의 얼굴에 당장 화색이 돌았다.

"아, 드디어 정체를 알아 냈어."

아주머니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이의 장기를 알아 낸 자기의 솜씨가 스스로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왕의 뻣뻣해진 혀도 이제는 좀 쉴 수 있게 되었다. 지글지글 끓는 냄비에서 풍겨 오는 구수한 음식 냄새를 맡으며 식욕이 생겨난 왕은, 다른 어떤 얘기보다 음식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왕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았다. 삼 분도 못 되어 아주머니는 감탄을 하고 말았다.

"내 짐작이 맞았어. 이 아이는 부엌일을 도왔던 거야!"

왕의 입에서 나오는 차림표는 늘어만 갔다. 너무나 열심히 설명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쩜! 저렇게 많은 요리를 어떻게 다 알까? 그것도 다 부잣집 식탁에나 오를 고급 요리들만 말이야. 이제 알겠어! 지금은 저렇게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지만 정신이 이상해지기 전에는 궁전에서 일을 했던 거야. 그래, 임금님의 수라상을 차리는 주방에서 직접 일을 했던 게 틀림없어! 어디 한번 시험해 봐야지.'

자기의 뛰어난 판단력을 어서 빨리 증명하고 싶어서 마음이 들뜬 아주머니는 왕에게 요리를 잠깐 봐 달라고 부탁하고는,

원한다면 한두 가지 요리를 직접 만들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면서 딸들에게도 따라 나오라고 손짓을 했다. 왕은 혼잣말을 했다.

"나처럼 이런 부탁을 받은 영국 왕이 과거에도 한 분 계셨지. 위대한 알프레드 왕께서도 몸소 하신 일을 내가 한다고 해서 체통을 잃을 건 없어. 기왕 하기로 한 것, 그분보다는 잘해야지. 그분은 케이크를 다 태워 먹었거든."

의도는 좋았지만 왕의 요리 실력은 형편 없었다. 게다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곱씹다 보니 어느 새 요리 같은 것은 까맣게 잊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에 음식이 타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음식이 완전히 재로 변하기 일보 직전에 들어왔다. 아주머니가 호통을 치는 바람에 왕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주머니는 요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자신을 크게 실망시킨 것 때문에 왕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내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 주었다.

왕은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배가 든든해지자 마음도 한결 가뿐하고 개운해졌다. 여자 아이들의 집에서 함께한 그 식사의 특징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양쪽 모두가 개의치 않았다는 데 있었다. 하지만 서로에게 베푼 그런 은혜를 양쪽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는 처음에 이 어린 부랑아에게 부엌 한 구석에서 남는 음식이나 먹일 작정이었다. 보통 거지나 강아지한테 음식을 줄 때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아까 큰 소리로 혼낸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어린 부랑아를 식구들이 앉는 식탁에 앉히고 함께 식사를 했다. 그리고 적어도 겉으로는 이래라 저래라 하며 왕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다. 왕은 또 왕대로, 자기를 그토록 따뜻하게 맞아 준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이 너무나 미안했다.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어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기로 했다. 자기의 집안이나 지위로 보아서는 식탁을 독차지하고 혼자 식사를 하는 동안 부인과 딸들은 옆에 서서 자기를 기다려야 마땅했다.

'사람은 때로는 굽힐 줄도 알아야 하는 법…….'

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는 부랑아한테 자기가 베푼 관대함이 스스로도 너무 대견스러워서 온종일 싱글벙글했다. 왕은 왕대로 보잘것 없는 시골 여인 앞에서 보인 자기의 겸손함이 너무도 가슴 뿌듯했다.

식사가 끝나자 아주머니는 왕에게 설거지를 시켰다. 기절초풍한 왕은 하마터면 거절할 뻔했지만, 결국은 자신을 다독거렸다.

"알프레드 대왕께서는 케이크 익는 것도 지켜보셨다. 아마 그릇도 씻으라고 했다면 틀림없이 씻으셨을 거야. 나라고 못할 것 있나."

왕은 묵묵히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보기에는

눈뜨고 봐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솜씨가 형편 없었다. 왕 스스로도 놀랐다. 나무 숟가락이나 나무 접시 정도를 닦는 일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에게는 설거지가 너무나 지겹고 성가신 일이었다. 그래도 설거지를 끝내기는 했다. 왕은 이제 다시 길을 떠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귀여운 여자 아이들과 알뜰한 아주머니의 친절을 뿌리치고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주머니는 왕에게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일을 시켰다. 왕은 눈치껏 적당히 그 일을 해 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딸과 함께 겨울 사과를 깎으라고 했다. 사과 깎는 솜씨가 너무 형편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아주머니는 왕에게 그 대신 식칼을 갈아 달라고 했다. 그 일이 끝나자 아주머니는 양털 빗기는 일을 시켰다.

"이건 너무 심하군."

왕은 혼자 중얼거렸다. 알프레드 대왕을 떠올리면서 꾹꾹 참았지만 참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왕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망설였다. 점심을 먹고 난 직후, 아주머니는 새끼 고양이들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주면서 물에 빠뜨리라고 명령했다. 왕은 거절했다. 어딘가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던 참이었으므로, 고양이를 죽이는 일을 거절하는 것이 그럴 듯한 구실처럼 보였다. 왕이 이것을 분명히 하려고 막 이야기를 꺼낼 때였다. 어디선가 불청객이 나타났

다. 그 불청객은 도붓장수처럼 어깨에 짐을 멘, 톰의 아버지와 휴고였다!

왕은 이 불한당들이 대문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다행히 그들은 왕을 보지 못했다. 왕은 아주머니에게 더 이상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말없이 바구니를 들고는 뒷문으로 몰래 빠져 나갔다. 그러고는 고양이를 집 밖에 내려놓고 뒤쪽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20. 왕자와 은자

높다란 울타리에 가려 이제 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왕은 젖 먹던 힘까지 짜 내어 멀리 숲을 향해 달려갔다. 숲 속으로 몸을 숨기기 전까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숲에 닿은 뒤에야 비로소 고개를 돌리자 어렴풋이 두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렇게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두 사람을 자세히 뜯어볼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왕은 길을 재촉했다.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걷는 동안 왕은 황혼이 짙게 깔린 숲 한가운데에 이르게 되었다. 그제야 왕은 걸음을 멈추었다.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확신하면서, 왕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고요한 침묵만이 무겁게 깔려 있었다. 무섭고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잔뜩 긴장한 귀를 통해 이따금씩 무슨 소리가 들려오기는 했지만, 아주 먼 곳의 알 듯 모를 듯

한 내용 없는 소리였다. 아니, 소리라기보다는 죽은 혼령의 흐느낌이나 넋두리에 가까웠다. 그것은 간간이 찾아드는 침묵보다 더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다.

처음에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예정이었다. 그런데 땀에 젖은 몸에 냉기가 스며들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왕은 얼마 안 가서 길이 나타나리라는 희망을 품고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길은 나오지 않았다. 왕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나무는 점점 빽빽해지기만 했다. 어둠도 더욱 짙어만 갔다. 왕은 밤이 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기분 나쁜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몸이 으스스 떨렸다. 그래서 발걸음을 더욱 재게 놀리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걸음이 점점 느려지기만 했다. 어둠이 내려서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은 자꾸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덩굴과 덤불에 휘감겨 휘청거렸다.

그러던 중 한 줄기 불빛이 눈에 띄었다. 왕은 너무나 반가워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왕은 조심스럽게 불빛으로 다가갔다. 가끔씩 멈춰 서서 주위를 돌아보며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불빛은 작은 오두막의 유리가 안 달린 창문에서 나오고 있었다. 어느 새 그 오두막에서 새어 나오는 목소리도 귀에 들어왔다. 왕은 얼른 달아나서 숨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분명히

기도하는 목소리로 들렸기 때문이다. 왕은 오두막의 창문 하나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안을 몰래 들여다 보았다. 작은 방이었다. 바닥은 맨땅이었지만 사람 발에 잘 다져져 있었다. 한 구석에는 골풀로 만든 침대가 놓여 있고 낡은 담요도 한두 장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들통, 컵, 대야와 냄비, 항아리 같은 것들이 눈에 띄었다. 키가 낮은 긴 의자도 보였고 세 발 탁자도 있었다. 난로에는 타다 남은 장작이 모락모락 연기를 피우고 있었다. 제단에는 촛불이 하나 켜져 있고, 그 앞에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노인 옆의 나무 상자 위에는 펼쳐진 책 한 권과 사람의 두개골이 놓여 있었다. 목에서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양가죽 옷을 입고 있는 노인은, 체구는 컸지만 뼈만 앙상하게 마른 사람이었다. 머리와 수염은 아주 길었고, 눈처럼 하얗게 세어 있었다.

"숨어서 도를 닦는 은자로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다행이야."

왕은 혼잣말을 하다가, 무릎을 꿇고 있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문을 두드렸다. 굵직한 목소리가 대답을 했다.

"들어오게! 죄는 남겨 두고.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야."

왕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멈춰 섰다. 노인은 눈동자를 반짝거리며 불안스럽게 왕을 바라보았다.

"너는 누구냐?"

"나는 왕이다."

왕은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왕이라면, 잘 오셨소!"

노인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잘 왔소, 잘 왔어!"

노인은 법석을 떨면서 긴 의자를 화롯가로 가져가 왕을 거기에 앉혔다. 그러고는 장작 몇 개를 난로 안에 던져 넣은 다음, 불안한 몸짓으로 방 안을 오가기 시작했다.

"잘 오셨소! 이곳에 몸을 숨기러 온 사람은 많았지만, 자격이 없어서 돌려보냈지요. 하지만 왕관을 벗어 던지고, 왕위라는 헛된 영예를 경멸하며 누더기를 걸치고, 평생을 성령과 육체적 고행에 바치려는 분…… 그런 소중한 분은 환영합니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도 괜찮소."

왕은 중간에 끼어들어 해명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노인은 아예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듯 들뜬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여기서는 마음 편히 지내도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당신이 벗어난 그 공허하고 어리석은 생활로 돌아와 달라고 성가시게 구는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여기서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며 속세의 어리석음과 망상을 되돌아보게 되지요. 또 하늘 나라의 거룩함을 되새기면서 빵 조각과 약초로 살아가고, 매일 몸을 채찍으로 다스려 마음을 깨끗이 하지요. 입는 옷은 털옷 하나만 걸치면 되

고, 마시는 것은 오로지 물입니다. 평화를,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누군가 찾아온다고 해도 그 사람은 실망만 하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 그들은 왕을 못 찾으니 당신을 괴롭힐 리도 없지요."

노인은 여전히 왔다갔다하면서 언성을 낮추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왕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그 틈에 술술 자기 이야기를 쏟아 놓았다. 노인 앞에서 말없이 쳐다보기만 하는 것도 불편하고 불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 혼자 중얼거릴 뿐, 왕의 이야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노인은 여전히 중얼거리면서 왕에게 다가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쉿! 내가 비밀을 한 가지 알려 드리지."

노인은 비밀을 말하려다가 가만히 밖을 살피는 눈치를 보였다. 발끝으로 창문 쪽을 향해 살금살금 걸어가더니, 고개를 쑥 내밀고 땅거미가 짙게 깔린 숲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발끝으로 걸어와 왕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는 이렇게 소곤거렸다.

"나는 천사장이오!"

기겁을 한 왕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다가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만 자꾸 걸려드는 걸까. 꼼짝없이 정신병자한테 붙들린 신세가 되었구나!'

왕의 불안은 커져만 갔고,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노인은 들뜬 목소리로 나직이 말을 이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는 모양이군! 너무 이 사람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소. 나 같은 사람 앞에 있으면 누구나 어려워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이래 봬도 난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오. 마음만 먹으면 훌쩍 하늘나라로 갔다가 훌쩍 되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나는 오 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천사장이 되었소. 그 고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늘에서 천사들이 직접 왔었소. 천사들이 온 날은 방 안이 얼마나 눈부셨는지 모르오. 천사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내가 자기들보다 높았으니까! 나는 하늘의 궁전을 거닐며 먼 조상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소. 내 손을 만져 보시오. 어려워 말고 만지라니까! 이래 봬도 이 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악수를 했던 손이오! 그뿐인가요? 황금 궁전을 거닐다가 하느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오!"

노인은 자기 말을 믿어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러다 갑자기 얼굴빛이 바뀌면서 안절부절못하더니,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는 천사장이야! 겨우 천사장이나 해먹는다! 사실은 교황이 되었어야 할 사람인데 말이야. 사실이야. 이십 년 전에 하늘나라에서 꿈을 꾸다가 내 귀로 들었다니까. 아무렴, 교황이 되어야 했고말고! 그것이 하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런데 왕이 나의 교회를 폐쇄시키고 말았어. 앞길이 창창했던 이

불쌍한 하느님의 종은 오갈 데 없이 세상을 떠돌게 되었단 말이야!"

노인은 다시 웅얼거리면서 주먹으로 헛되이 자기 머리를 치곤 했다. 그러면서 원한에 찬 저주의 말과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교황이 되고도 남았을 내가 겨우 천사장에 그치고 만 것도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었어."

한 시간도 넘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앉아서 듣고 있으려니까 왕은 너무 괴로웠다. 그때 돌연 노인의 정신이 되돌아오면서 목소리가 더없이 사근사근해졌다. 마음 속의 구름이 모두 걷힌 듯, 나긋나긋하면서도 진실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늘어놓는 통에 왕은 솔깃해지고 말았다. 노인은 왕을 화로 가까이로 데리고 가서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그런 다음 왕의 몸 여기저기에 생긴 작은 상처들과 멍을 날렵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보살펴 주고는 저녁 준비를 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듣기 좋은 말을 던지며, 가끔씩 왕의 뺨을 어루만지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까지 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사롭게 느껴졌던지, 왕은 얼마 안 가서 천사장이라는 말 때문에 느꼈던 노인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존경심과 연민의 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다. 저녁을 다 먹고 제단 앞에서 기도를 마친 노인은 옆에

딸린 작은 방에 왕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고는 마치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게 이불을 덮어 준 후에 잘 자라는 입맞춤까지 해 주었다. 노인은 다시 큰 방으로 돌아가서, 화롯가에 앉아 무심한 표정으로 불이 잘 붙도록 장작을 이리저리 옮겼다. 그러더니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몇 번 톡톡 두드렸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하는데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는 듯한 행동이었다. 노인은 재빨

리 일어서서, 왕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왕이라고 했나?"

"그렇다."

졸음에 취해 왕이 대답했다.

"영국."

"영국? 그럼, 헨리가 죽었겠네!"

"그래. 내가 그 아들이지."

그 순간, 노인이 잔뜩 우거지상을 짓더니 뼈만 앙상한 손으로 주먹을 부르쥐었다. 노인은 잠시 그렇게 서 있더니 숨을 훅 내뿜다가 도로 빨아들이기를 반복하면서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를 속세로 내몬 장본인이 헨리 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나?"

왕은 아무 말이 없었다. 노인은 허리를 숙여 곤히 잠든 왕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평온한 숨소리가 들려 왔다.

"잠이 들었군. 아주 곤히 잠들었어."

노인의 얼굴에 음흉한 만족감이 떠올랐다. 꿈을 꾸는지 왕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기분이 좋은 모양이로군."

노인은 혼자 중얼거린 후, 살금살금 방 안을 거닐면서 무언가를 찾았다. 이따금 잠든 왕이 깰까 봐 신경쓰면서, 고개를 왕 쪽으로 홱 돌려 침대 쪽을 살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잠시

후, 마침내 노인은 찾던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녹슨 식칼과 숫돌이었다. 노인은 화로 옆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아서 숫돌에다 식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주절주절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도 계속되었다. 바람은 이 외로운 오두막을 휘돌며 한숨을 토했고, 멀리서 밤의 신비로운 소리들이 떠돌고 있었다. 호기심 많은 쥐들이 오두막 여기저기의 틈바구니에서 삐죽 고개를 내밀고 노인을 지켜보았다. 그래도 노인은 열심히 칼만 갈 뿐, 바람이 부는지 쥐가 옆에 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아주 가끔씩 노인은 엄지손가락으로 칼날을 문질러 보고는 만족스러운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점점 날카로워지는구나, 점점……."

노인은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묵묵히 칼을 가는 일에만 열중해 있었다. 가끔씩은 무료함을 달래듯, 자기도 모르게 마음 속의 생각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했다.

"저 놈 애비가 우리한테 몹쓸 짓을 했어. 신세를 모두 망쳐 놓았단 말이야. 덕분에 지금은 영원히 불구덩이에 빠져 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잘 된 일이야! 절대로 못 빠져 나오지! 피도 눈물도 없고, 인정사정 없이 몽땅 태워 버리는 그 불구덩이는 영원히 타오른다 이 말씀이야!"

노인은 계속 칼을 갈고 또 갈았다. 주절거리다가, 어떤 때는 당장 숨이라도 넘어갈 듯이 키득키득 낮은 웃음을 토하다가

다시 지껄였다.

"문제는 저놈 애비 때문이야. 지금은 기껏 천사장 신세를 못 면하고 있지만, 헨리 그놈만 아니었으면 난 벌써 교황이 되고도 남았을 거다!"

그때 잠들어 있던 왕이 잠시 꿈틀거렸다. 노인은 소리 없이 침대 옆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식칼을 쳐들고는, 낮은 포복 자세로 엎드렸다. 왕이 다시 꿈틀거렸다. 그러다가 잠깐 눈을 떴지만, 의식이 없었으므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왕은 다시 고른 숨소리를 내뱉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고, 숨 한 번 크게 내쉬지 못하면서 왕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노인은 칼을 쳐들었던 손을 천천히 내리고 다시 바닥을 기어가면서 혼잣말을 했다.

"자정도 훨씬 지났으니, 녀석이 소리를 지른다 해도 걱정할 것 없지. 이런 밤늦은 시간에 이 부근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을 리도 없고."

노인은 오두막 안을 누비면서 넝마 한 조각과 끈을 찾아냈다. 그런 다음 왕이 잠든 방으로 가서, 잠을 깨우지 않고 왕의 발목을 살그머니 묶는 데 성공했다. 노인은 곧 왕의 팔목을 묶으려고 했다. 그런데 손을 간신히 엇지르고 밧줄로 묶으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왕이 한쪽 손을 빼내곤 했으므로, 노인은 진땀을 뺐다. 노인이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쯤 되자 왕은 스스로 두 손을 엇지르고 가만히 있었다. 그것을

묶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왕의 턱 밑으로 붕대를 넣은 다음, 그것을 풀어내어 머리를 단단히 휘감았다. 아주 부드럽고 교묘한 솜씨로 매듭을 묶었기 때문에 왕은 그동안 몸 한 번 꿈틀거리지 않고 곤히 잠만 자고 있었다.

21. 헨든의 출현

노인은 고양이처럼 새우등을 하고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낮은 긴 의자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앉았다. 몸의 절반은 가물거리는 희미한 빛에 드러나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그렇게 탐욕스러운 눈길로 잠자는 왕을 내려다보면서 노인은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끈기 있게 불침번을 섰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칼을 갈면서 중얼거리거나 키득거렸다. 그의 모습은 영락없이 자기 거미줄에 꼼짝 못하고 걸려든 불운한 벌레를 보면서 흐뭇해하는 잿빛 거미를 닮아 있었다.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도 노인은 여전히 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딴 데서 맴돌고 있었다. 그때 문득 노인은 잠들었던 아이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포에 질린 아이의 눈은 식칼에 못 박혀 있었다. 악마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노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노인은 태연스럽게 칼을 갈면서 말했다.

"헨리 8세의 자제분께서는 기도를 올리셨나?"

온몸을 결박당한 상태에서 왕은 몸부림을 쳤지만 헛수고였다. 턱을 움직여 어떻게든 소리를 치려고 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답답한 숨소리뿐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그 숨소리를 자기 질문에 대한 긍정의 답변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럼, 다시 기도하게나. 죽기 전에 올리는 마지막 기도 말씀이야!"

왕이 전신을 부르르 떨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러고는 다시 빠져 나오려고 버둥거렸다.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리저리 몸을 비틀고, 비비꼬고, 미친 듯이 몸을 움직였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노인은 태연자약하게 칼을 갈고 빙글거리면서 왕을 내려다보았다. 불쑥불쑥 이런 말을 던지기도 했다.

"순간순간은 소중한 것! 얼마 안 되니 값지도다. 죽어 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를 올려라!"

왕은 절망에 찬 신음을 뱉더니 몸부림을 그만두고 가쁜 숨을 토했다. 어느 새 왕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금세 뺨을 타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이런 애처로운 모습도 포악한 노인의 눈에는 가소롭기만 할 뿐이었다.

동녘이 밝아 오고 있었다. 문득 그 사실을 깨달은 노인도 갑자기 예민해졌다. 목소리에 불안과 긴장이 섞여들었다.

"이 환희의 시간도 어느덧 막을 내릴 때가 되었구나! 밤은 이미 가 버렸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지 않는군. 이 시간이 일 년쯤 연장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를 망쳐 놓은 자의 아들아, 곧 사라질 테니 눈을 감아라. 눈을 감지 않으면 두려워서……."

그 다음은 알아듣기 어려운 웅얼거림으로 끝났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식칼을 손에 든 채, 꿍꿍거리는 왕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오두막 부근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노인의 손에서 식칼이 떨어졌다. 그는 왕을 양가죽으로 뒤집어씌우고는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바깥에선 사람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윽고 퉁명스럽고 거칠어졌다. 그러고는 주먹질이 시작되고, 사람 살리라는 비명이 터졌다. 곧이어 후닥닥 달아나는 발 소리가 들렸다. 그와 동시에 오두막 문을 세차게 두드리면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다.

"여보시오! 문 좀 여시오! 꾸물대지 말고 어서!"

그 고함 소리가 왕의 귀에는 얼마나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는지 모른다. 마일스 헨든의 목소리였다!

노인은 이를 부드득 갈았지만, 별수없이 재빨리 문을 닫고 침실에서 나갔다. 곧바로 두 사람 사이에 시작된 대화 내용이 왕의 귀에 들려왔다.

"댁의 호의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아이는 어디 있지요?"

"아이라니?"

"거짓말하지 말아요! 나한텐 통하지가 않으니까! 농담하고 싶은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어요. 이 집 부근에서 악당 두 녀석을 붙잡았는데, 그 녀석들이 바로 내 친구를 유괴해 간 놈들입니다. 놈들이 자백을 했어요. 다시 달아난 아이의 뒤를 밟아 여기까지 왔다고 말입니다. 아이의 발자국까지 보여 주었지요. 그러니 얼버무려도 소용없습니다. 아이를 정 내놓지

못하겠다면 그땐……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 어젯밤에 여기서 묵었던 그 누더기를 걸친 떠돌이 왕을 말하는 모양이로군. 그 아이를 말하는 것이라면, 알지. 알고말고! 그런데 내가 심부름을 보냈는걸. 금세 돌아올 거야."

"언제쯤 오죠?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할 게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언제쯤이면 돌아오는 겁니까?"

"너무 조바심낼 필요 없어. 곧 돌아온다니까."

"그런가요? 그럼 기다려 보지요. 잠깐! 심부름을 보내셨다고? 거짓말이야! 그 아이는 심부름을 할 리가 없어. 그런 무례한 부탁을 했다가는 당장에 수염이라도 잡아뜯었을 아이란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셨군.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 아이는 댁뿐 아니라 그 어떤 사람 명령도 듣지 않으니까!"

"난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어렵쇼! 그럼 댁은 뭐요?"

"비밀인데…… 나한테 들은 소리를 다른 데 가서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해. 나는 천사장이야!"

마일스 헨든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다는 듯 길게 탄식을 토하며 혼잣말을 했다.

"어쩐지 여유만만하더라니! 저렇게 천사장을 자처하고 있으니 우리네 하루살이 인생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손발을 까딱할 이유가 없겠지. 그건 그렇다 치고, 천사장 명령이면 왕도 고분고분 따르는 건가? 가만, 저게 무슨 소리지?"

그동안 왕은 건넌방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한 번은 두려움에 부르르 떨고 한 번은 가슴 벅찬 희망에 전율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고함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왕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목소리가 헨든의 귀에 가 닿기를 갈망하면서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헨든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헨든의 입에서 나온 이 마지막 말은, 죽어 가던 사람에게 시원한 들판에서 불어온 생명의 숨결이나 다를 바 없었다. 왕은 젖 먹던 힘까지 짜 내어 다시 한 번 소리를 냈고, 노인은 이렇게 대꾸했다.

"소리? 내 귀엔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그런가요? 음, 그랬던 모양이군. 아까부터 줄곧 가냘프게 들려오던 소리가 있었는데…… 또 들린다! 그런데 바람은 아니야. 참 희한한 소리로군! 저게 무슨 소린지 어디 한번 알아보기나 합시다!"

왕은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허파에 바람을 있는 대로 집어넣어 다시 한 번 소리를 지르려고 했다. 하지만 턱을 동여맨 붕대와 몸을 덮은 양가죽 때문에 아쉽게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그때 노인이 하는 말을 듣고 불쌍한 왕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옳거니! 저기 관목 숲에서 나는 소리로군. 저리로 가 봅시다."

왕은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며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발 소리가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자 왕은 다시 불길한 예감과 무서운 고독에 빠져들었다. 다시 목소리와 발 소리가 들리기까지 백 년은 더 기다린 듯한 심정이었다.

이번에는 아까 듣지 못했던 소리까지 났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말발굽 소리 같았다. 헨든의 목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요. 틀림없이 숲 속에서 길을 잃은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갔죠? 어서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잠깐. 나하고 같이 갑시다."

"이런 고마울 데가! 보기보다는 친절한 분이시로군요. 이렇게 마음씨가 비단결 같은 천사장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타고 가시겠습니까? 아이를 태우려고 준비한 작은 당나귀를 타시렵니까? 아니면 제가 타려고 했던 이 비루먹은 노새에 오르시렵니까?"

"됐어. 자네는 노새에 올라타고 그 나귀도 끌고 가라고. 나는 두 발로 걸어가도 충분하니까."

"그럼, 제가 목숨을 걸고 이 커다란 노새에 오르는 동안 당나귀 고삐 좀 잡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발길질과 주먹질과 뒷발질이 어지러이 난무하고, 중간중간 욕지거리가 섞여들다가 결국에는 노새가 수그러들었다. 적대 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보아서 어느 한쪽이 기가 꺾

인 듯했다.

결박당한 어린 왕은 목소리와 발 소리가 점점 희미해져서 아예 들리지 않게 되자 비통함에 휩싸였다.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무거운 절망감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농락당한 채 가 버렸군. 조금 있으면 그 노인네 혼자 돌아올……."

왕은 미처 말을 끝내지 못했다. 공포가 엄습해 왔기 때문이다. 왕은 다시 한 번 결박을 풀기 위해 미친 듯이 몸부림을 쳤고, 그래서 겨우 양가죽이 벗겨졌다.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왕은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벌써 식칼이 목에 와 닿은 기분이었다. 공포심 때문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공포심 때문에 눈을 떠 보니 눈앞에 존 캔티와 휴고가 서 있었다.

턱에 붕대가 감겨 있지만 않았어도 왕은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을 것이다.

잠시 후 왕은 결박에서 풀려났고, 두 사내는 왕의 팔을 하나씩 끼고 허둥지둥 숲 속으로 사라져 갔다.

22. 배신의 대가

왕은 '푸푸 1세'로 불리며 또다시 거지 패, 부랑자와 함께 유랑을 떠나게 되었고, 짓궂은 희롱과 수준 낮은 농담의 표적이 되었다. 거지 왕초가 한눈을 파는 동안에는 캔티와 휴고의 악의에 찬 장난질에도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캔티와 휴고를 제외하면 푸푸 1세를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러는 푸푸 1세를 좋아하고 그의 용기와 기백을 우러러보는 사람까지 있었다. 왕을 감시하던 이삼 일 동안 휴고는 어떻게든 남의 눈을 피해 왕을 골탕먹이려고 애썼다. 밤에는 으레 술판이 벌어졌는데, 그럴 때마다 휴고는 고의가 아닌 것처럼 꾸며서 슬쩍슬쩍 왕을 모욕하곤 했다. 두 번인가 휴고는 실수를 가장하여 왕의 발을 밟았고, 체면을 생각한 왕은 그것을 모르는 척 무관심하게 넘겼다. 하지만 휴고가 똑같은 짓을 세

번째 반복하면서 히죽거리자 왕은 곤봉을 휘둘러 휴고를 고꾸라뜨렸다. 패거리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분노와 수치심 때문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휴고는 벌떡 일어서서 곤봉을 잡고 왕에게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두 검투사 주위에 사람들이 둥근 원을 그리며 모여 섰다. 내기가 시작되고,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왕이 휴고를 이길 가능성은 적은 듯했다. 그러나 천방지축으로 날뛰기만 하는 휴고의 무술 실력은 왕에 비하면 형편 없는 것이었다. 반면에 왕은 목봉에서 육척봉까지 유럽에서 제일가는 검사들한테 배운 솜씨였으므로, 기본기가 탄탄했다. 어린 왕은 우뚝 서서 신중하면서도 우아한 손놀림으로, 거센 공격을 자르고 젖히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막아 냈다. 구경꾼들은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환호성과 웃음 소리로 그 일대가 시끌거렸다. 십오 분 뒤, 신나게 두들겨 맞아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휴고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꽁무니를 빼고 말았다. 거지들은 거짓말처럼 말짱한 승리의 영웅을 무동 태우고 가서 거지 왕초 옆자리에 앉힌 다음, 싸움의 왕으로서 새롭게 떠받들고 성대한 의식을 베풀었다. 그와 함께 푸푸 1세라는 듣기 민망한 이름은 엄숙하게 취소되었고, 앞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두 번 다시 그런 이름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포고령이 내려졌다.

패거리들은 왕에게 일을 시키려고 갖은 애를 써 보았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왕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

겠다고 끝끝내 버텼다. 게다가 틈만 나면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왕이 무리에 다시 끼게 된 날, 거지들은 어떻게 해서든 왕이 도둑질을 하게 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어떤 집 부엌에다 왕을 억지로 집어넣은 것이었다. 당연히 왕은 빈손으로 나왔다. 그것까지는 좋았다. 왕은 오히려 잠든 그 집 주인을 깨우려고까지 했다. 그래서 패거리들은 왕에게 땜장이 일이나 돕도록 했다. 왕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납땜을 하는 인두로 땜장이를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결국 땜장이와 휴고는 왕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느라고 다른 일은 엄두도 못 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왕을 부자유스럽게 만들거나 억지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대번에 거지 왕초의 날벼락이 떨어졌다. 휴고의 감시 아래 왕은 병든 아기를 품에 안은 여인과 동냥을 나갔지만, 결과는 모두에게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왕은 직접 구걸하는 것도 거부했고, 남이 구걸하는 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는 것도 거부했다.

이렇게 여러 날이 흘렀다. 하염없이 떠돌아 다니는 인생은 고달프기 짝이 없었다. 피곤하고, 더럽고, 구차하고, 야만스러운 생활의 반복이었다. 왕은 점점 그런 생활을 견딜 수가 없었다. 노인의 칼끝에서 도망쳐 나와 기뻤던 것도 잠시였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하루하루가 괴롭기만 했다.

'이건 도저히 살아 있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돼.'

왕은 괴로운 나날들을 견디며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밤에는 꿈 속에서 이 모든 괴로움을 잊고 다시 왕좌에 올라 나라를 다스렸다. 물론 잠에서 깨어나면 더욱 괴로웠다. 존 캔티에게 다시 붙들려서 휴고와 싸움을 벌이기까지의 그 치욕스러운 순간이 눈을 뜨면 또렷하게 살아나서 그것이 점점 괴롭고 힘들기만 했다.

그날 충돌이 있은 뒤로 휴고는,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다. 어린 꼬마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휴고는 구체적인 계획을 두 가지 세웠다. 하나는 그 아이를 직접 괴롭히는 방법이었다. 기고만장해서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녀석의 자존심을 뭉개 버리자는 생각이었다. 이 방법이 실패하면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 일종의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한 다음, 왕을 나라에 밀고하는 방법이었다.

휴고는 첫 번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까 궁리하다가 왕의 다리에 '가짜 종기'를 만들기로 했다. 왕에게 최대한의 수모를 안기려면 그것처럼 좋은 방법도 없겠다는 절묘한 판단이었다. 가짜 종기가 제대로 완성되면, 캔티의 도움을 얻어 우격다짐으로라도 왕이 길가에서 다리를 내뻗고 적선을 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가짜 종기를 만들려면 석회 가루와 비누, 녹슨 쇳가루를 잘 반죽해서 가죽 조각 위에 편 다음, 그것을 다리에 찰싹 붙여야만 했다. 그러면 살갗이 벗겨지고 아리

게 되면서 염증이 생긴 것처럼 벌겋게 부풀어오르는데, 거기에다 피를 문질러 대면 한참 뒤에 피가 완전히 마르면서 거무튀튀한 딱지가 앉은 것처럼 되었다. 그 위에 흙 묻은 더러운 천 조각으로 만든 붕대를 일부러 곪은 상처가 보이도록 아무렇게나 덮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었다.

휴고는 땜장이의 도움을 받아 땜질을 거들어야 한다는 구실로 왕을 꾀어 낸 다음,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서 꿇어앉혔다. 땜장이가 왕의 몸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동안 휴고는 미리 준비한 연고 조각을 왕의 다리에 붙였다.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왕좌로 돌아가게 되면 네놈들을 반드시 교수형에 처하겠다!"

휴고와 땜장이는 무기력하게 발버둥치는 왕을 더욱 단단히 붙든 채 오히려 비웃었다. 드디어 왕의 다리에 붙은 연고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중간에 방해를 놓는 사람만 없다면 머지않아 왕의 다리에 기가 막힌 가짜 종기가 생겨날 판이었다. 하지만 훼방꾼이 있었다.

"영국 법은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면서 새로 등극한 왕 앞에서 아부를 늘어놓던 '노예' 녀석이 나타나서, 작업을 중단시키고 왕의 다리에서 연고와 붕대를 떼어 낸 것이다.

왕은 자기를 살려 준 구세주한테 곤봉까지 빌려, 그 자리에

서 두 악당을 한바탕 두들겨 팰 생각이었다. 하지만 사내가 말렸다.

"괜히 말썽이라도 생기면 곤란하니,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에 거지들끼리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자는 소리였다. 사내는 휴고와 땜장이를 왕초에게 데리고 가서 자초지종을 보고했다. 말없이 보고를 들은 거지 왕초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왕을 구걸 패거리에 섞어 넣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었다. 왕에게 좀더 품위 있고 고상한 일을 주기로 마음먹은 거였다. 거지 왕초는 그 자리에서 왕을 구걸단 소속에서 도둑단 소속으로 승진시켰다.

휴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전에도 여러 번 왕에게 도둑질을 시키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럴 염려가 없었다. 아무리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지 왕초가 직접 내린 명령을 거역하면 몸이 성할 리 없었기 때문이다. 휴고는 그날 오후에 도둑질에 나선 다음, 당장 왕한테 쇠고랑을 채울 작정이었다. 그렇지만 아주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마치 왕이 우연히 잘못 걸려든 것처럼 꾸밀 필요가 있었다. 어린 왕은 이제 같은 패거리들한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해서 휴고의 농간으로 왕이 쇠고랑을 차게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휴고는 중대한 반역자로 몰려 몰매를 맞을 위험성이

있었다.

휴고는 작전을 세웠다. 그런 다음 자기의 밥이 될 왕을 앞세우고, 휘파람을 불면서 이웃 마을로 유유히 걸어갔다. 위로 솟았다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며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을 걸어가면서 휴고는 도둑질할 데가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사방을 살폈고, 왕은 이 지긋지긋한 패거리로부터 어떻게 하면 달아날 수 있을까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상당히 좋은 기회들이 몇 번씩 나타났지만 둘 다 통과시켜 버렸다. 왜냐하면 휴고나 왕이나 마음 속으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명한 기회를 노리겠다고 단단히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를 확실히 장담할 수 없는 일에 괜히 어설프게 손을 댔다가는 밑천도 못 찾는 일이 벌어질 게 뻔해서였다.

휴고한테 기회가 먼저 찾아왔다. 무언지는 몰라도 불룩한 꾸러미가 든 바구니를 들고 한 아낙네가 마침내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다. 휴고의 눈동자가 반짝거렸다.

"왔구나, 왔어! 저걸 낚아챈 다음 저놈이 훔친 것처럼 꾸미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살아 있거든 또 보자, 이 녀석아."

휴고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른다. 드디어 아낙네가 옆을 스쳐 지나갔다. 때가 온 것이었다. 휴고는 숨죽여 왕에게 말했다.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런 다음 휴고는 쏜살같이 먹이를 낚아채러 갔다.

왕은 뛸 듯이 기뻤다. 휴고가 조금만 멀리 가 준다면 그대로 내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행운은 와 주지 않았다. 휴고는 살금살금 아낙네 뒤로 다가가서 꾸러미를 낚아챈 다음, 원래 있던 자리로 달려오면서 팔에 감고 있던 낡은 담요로 꾸러미를 둘둘 말았다. 아낙네는 별안간 고함을 질렀다.

"도둑이야!"

소매치기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아낙네는 바구니가 갑자기 가벼워진 것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도둑맞았다는 것을 알았다. 휴고는 꾸러미를 왕의 손에 넘겨 주고는 한마디 툭 던지고 그대로 뛰어가 버렸다.

"너는 '도둑놈 잡아라!' 하고 소리치면서 내 뒤를 쫓아와라. 놈들의 주의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휴고는 모퉁이를 돌아서 구불구불한 길 아래로 쏜살같이 뛰어내려갔다. 그러고는 잠시 숨을 돌렸다가 천연덕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말뚝 뒤에 서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았다.

모욕을 당한 왕은 꾸러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담요도 패대기쳤다. 바로 그때 아낙네가 사람들을 벌 떼처럼 몰고 나타났다. 아낙네는 한 손으로 왕의 손목을 붙들고, 다른 손으로 꾸러미를 집어들더니 한바탕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왕은 버둥거리면서 여자의 손아귀에서 빠져 나가려고 했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휴고는 더 이상 지켜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원수 같은 놈이 붙잡혀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빠져 나와 가뿐한 마음으로 키득키득 웃기까지 하면서 본거지를 향해 걸어갔다. 그러면서 거지 왕초한테 어떻게 둘러댈까 속으로 궁리했다.

왕은 여전히 아낙네의 손아귀에서 빠져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악을 써 댔다.

"이 손 놓지 못할까! 망측한 것 같으니라고. 너의 그 하잘것 없는 물건은 내가 훔친 게 아니란 말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더니 왕을 위협하고 욕을 했다. 앞치마를 두른 기골이 장대한 대장장이가 사람들을 밀치며 앞으로 나와서는,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였다. 반짝거리는 길다란 칼이 대장장이의 팔뚝을 살며시 밀어내었다. 그 칼을 쥔 멋진 사내는 활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시오들, 점잖게 다루어야지 그렇게 상소리와 욕지거리를 하면 되겠소? 이건 사사로운 감정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할 일이오. 그 손 놓으시오, 부인."

대장장이는 건장한 병사를 슬쩍 훑어보고는 손을 툭툭 털면서 물러났다. 아낙네도 붙잡고 있던 손을 마지못해 놓았다. 낯선 병사를 대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달가운 눈초리가 아니었지만, 감히 입을 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왕은 상기된 뺨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면서, 자기를 살려 준 구세주 곁으로 뛰어가서는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꾸물거린 게 유감이긴 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나타나 주었군, 마일스 경. 이 어중이떠중이들을 빨리 몰아 내게나."

23. 죄인이 된 왕자

헨든은 억지로 웃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왕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서요, 아서! 제발 나불거리지 좀 말아요. 입 꼭 다물고 나만 믿으라니까. 막판엔 다 잘 됩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마일스 경이라니! 내가 기사였다는 사실을 나도 까맣게 잊고 있었군. 알다가도 모르겠어. 미친 아이가 기억력은 어쩜 저렇게 비상할까? 기사는 무슨 기사? 어리석은 짓거리인 줄은 나도 알지만, 그래도 아주 기분 나쁘지는 않단 말씀이야. 아닌게아니라 이 더러운 나라에서 백작이 되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것보다는, 비록 뜬구름 나라에서일망정 유령의 기사라도 되는 것이 백 번 영광스러운 일이겠지.'

군중들의 틈새를 뚫고 포졸이 나타났다. 포졸이 다가와서 왕의 어깨에 막 손을 얹어 놓으려는 찰나, 헨든이 끼어들었다.

"살살, 그 손은 치웁시다. 고분고분 따라갈 테니까. 내가 책임지겠소이다. 댁이 앞장서면 우리가 뒤따라 가겠소."

포졸이 앞장서자 아낙네가 꾸러미를 들고 나섰다. 헨든과 왕이 그 뒤를 따르고 군중들도 졸졸 쫓아갔다. 왕은 거부하고 싶었지만 헨든이 나직이 귀엣말을 했다.

"참으세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면 법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법을 만든 분이 법을 거역하면서, 백성들한테 그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누군가 법을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궁전으로 돌아가셨을 때라도, 폐하께서 일반 백성처럼 생활했을 무렵에 왕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법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셨다는 기억을 떠올리시면 얼마나 가슴 뿌듯하시겠어요?"

"그대의 말이 옳아. 더 이상 말은 필요 없다. 영국의 왕이 백성들에게 법의 심판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면, 왕 또한 백성들 틈에 섞여 있을 때는 말없이 법의 심판에 따라야 하니까."

재판관 앞으로 불려 나간 아낙네는 피고석에 앉아 있는 어린 왕이 바로 도둑질을 한 장본인이라고 증언했다. 그 말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왕은 혐의를 그냥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다. 아낙네가 잃어버렸던 꾸러미가 끌러졌다. 그 안에 든 것은 불에 굽기만 하면 되는 통통한 새

끼 돼지였다. 판사는 골치 아프다는 표정을 지었다. 헨든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실망이 너무 커서 몸이 다 부르르 떨릴 정도였다. 하지만 왕은 조금도 동요하는 빛이 없었다. 기분 나쁜 침묵이 흐르고, 판사는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판사는 아낙네에게 질문을 던졌다.

"저 돼지는 값이 얼마나 나가는가?"

여인은 공손히 절을 하고 나서 답변에 나섰다.

"44펜스는 주어야 삽니다. 한 푼도 덧보태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사는 불편하다는 듯이 군중을 한번 쳐다보고 나서 포졸에게 말했다.

"구경꾼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아라."

그 명령은 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두 관리와 고발한 사람, 고발당한 왕, 그리고 마일스 헨든, 이렇게 다섯 사람만 남게 되었다. 마일스 헨든의 창백한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솟고 있었다. 송글송글 맺힌 굵은 땀방울이 한데 뭉쳐서 주르르 흘러내렸다. 판사는 다시 아낙네를 향해 측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아이다. 굶주림을 참다 못해 일을 저지른 모양이야. 없는 사람들한테는 요즘이 가장 견디기 힘든 때이지. 심성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배고픔이 원수로군. 값이 13.5펜스 이상 나가는 물건을 훔친

사람은 무조건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법을 알고 있는가?"

어린 왕은 기절초풍하여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이내 침착을 되찾았다. 하지만 아낙네는 그렇지 못했다. 경악을 금치 못하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맙소사!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불쌍한 아이를 목매달아서는 안 돼요! 아, 어쩌면 좋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혜로운 판사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아직 기록에 남긴 건 아니니, 값을 고쳐서 말하면 되겠지."

"그럼 하느님 앞에 맹세합니다. 새끼 돼지는 8펜스입니다. 이 끔찍한 순간에서 어서 벗어나고 싶어요!"

마일스 헨든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절 따위는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다. 그래서 다짜고짜 왕을 부둥켜안은 바람에 왕은 기겁을 했고, 은근히 괘씸하다는 생각까지 했다. 아낙네는 판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에 돼지를 들고 돌아섰다. 기다리고 있던 포졸이 문을 열어 주면서 아낙네의 뒤를 따라 좁은 복도로 나갔다. 판사는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헨든은 포졸이 왜 아낙네 뒤를 따라 나갔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복도로 살짝 빠져 나가서 몰래 귀를 기울였다. 헨든의 귀에 들어온 대화는 다음과 같다.

"살이 통통히 오른 돼지로군. 그 녀석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걸! 내가 그걸 사겠소. 자, 8펜스!"

"8펜스라뇨?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 새끼 돼지는 44펜스가 들어간 놈이라고요. 44펜스는 죽은 남편 해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돈이에요. 어림없는 소리 말아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렇다면 하느님 앞에서 새끼 돼지 값이 8펜스라고 한 맹세는 모두 거짓말이었군! 당장 나하고 판사님한테 가서 이실직고하렷다! 그 거지 녀석을 목매달아야겠어."

"잠깐, 잠깐! 아무 소리 말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으니, 8펜스를 내시구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쇼!"

아낙네는 울면서 가 버렸다. 헨든은 슬쩍 재판정으로 돌아왔다. 포졸도 횡재한 물건을 안전한 곳에 숨기고 나서 뒤따라 들어왔다. 판사는 얼마 동안 더 끄적거리더니 왕에게 일장 훈시를 늘어놓고, 사람들 앞에서 곤장을 맞은 뒤 잡범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 있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왕은 기가 막혀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너그러운 판사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 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고만 싶었다. 하지만 헨든이 눈짓을 보낸 덕분에 왕은 입을 다물고 말았다.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했다. 헨든은 왕의 소매를 부여잡고 판사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두 사람은 곧 포졸의 꽁무니를 쫓아 감옥으로 향했다. 거리로 나서자마자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왕은 헨든에게 잡혀 있던 손을 뿌리치고 우뚝 서서 호통을 쳤다.

"고얀지고! 내 목숨이 살아 있는 한 잡범들이 있는 감옥에는 못 들어가겠으니 그리 알아라!"

헨든은 머리를 조아린 후 약간 언성을 높였다.

"저를 믿으시지요? 고정하세요! 말씀을 조심하지 않으시면 저희 입장만 불리해집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늘의 뜻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꾹 참고 기다리세요. 일단 결과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욕을 하시든지 즐거워하시든지 해도 늦지 않습니다."[13]

24. 도망

짧은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다. 드문드문 부랑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 부랑자들도 어디론가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었다. 마치 일을 빨리 해치우고 집으로 가면 매서워지는 바람과 짙어 가는 어둠을 피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다들 마음이 급했다. 부랑자들은 좌우는 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걸었다. 자기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였다. 어린 왕은 감옥에 끌려가는 왕을 이렇게 무심하게 대할 수가 있을까 하고 속으로 은근히 섭섭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어느덧 일행은 썰렁한 시장터에 이르렀다. 포졸은 여전히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시장터를 가로질러 갔다. 시장터를 절반쯤 지났을 무렵, 헨든은 포

졸의 어깨에 지그시 손을 얹은 후 나직이 말을 걸었다.

"잠깐!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 우리 얘기나 좀 합시다."

"우린 죄인과 이야기를 나누면 안 돼.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곧 날이 저문단 말이야."

"가만 계시래도! 댁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잠시 등을 돌리고 서서 못 본 척 눈을 감고 계세요. 이 가엾은 아이가 달아날 수 있도록."

"이 사람, 정신 나갔구먼! 공무방해죄로 당신을 체포……."

"아하, 왜 이리 성질이 급하실까? 댁도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날 잡아들였다가는 큰코 다칠 테니까."

그러더니 헨든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포졸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돼지를 8펜스에 사들인 사실이 윗사람 귀에 들어가면 당신 모가지도 성치 못할 텐데!"

포졸은 처음에는 너무 놀라 말도 못 하다가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세차게 몰아붙이며 으름장을 놓았다. 헨든은 포졸이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질 때까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한 마디 했다.

"난 댁이 마음에 들어요. 일부러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문제는 내가 다 들었다는 데 있으니까. 단어 하나 빠뜨리지 않고 죄다 들었다, 이 말씀이야. 한번 증명해 드릴까요?"

그러더니 재판정 복도에서 포졸과 아낙네 사이에 오갔던 이

야기를 한 마디도 빼놓지 않고 줄줄 읊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자, 내가 제대로 옮겼나? 여차하면 판사 앞에 나서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빠진 내용은 없소이까?"

겁에 질린 포졸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잠시 고민하던 포졸은 이내 기운을 되찾으며, 억지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다.

"장난도 함부로 못 치겠군! 난 그저 재미 삼아서 그 여편네를 골탕먹인 건데."

"재미 삼아서 돼지를 슬쩍 하셨다?"

그러자 포졸이 신경질적으로 되받았다.

"허, 답답한 양반 같으니라고! 장난으로 그런 거라니까."

"듣고 보니 그 말에도 일리가 있구먼."

비아냥이 섞인 듯하면서도 상대의 말을 어느 정도 믿어 주는 듯 헨든은 알쏭달쏭한 답변을 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여기 꼼짝 말고 계시오. 내가 가서 판사님을 모시고 올 테니까. 그 양반은 노련한 법관이니까 아마 무엇이 농담이고 무엇이 진담인지 잘 가려……."

헨든은 말도 채 맺기 전에 막 출발할 기세였다. 포졸은 머뭇머뭇, 안절부절못하다가 기어이 무릎을 꿇고야 말았다.

"자, 잠깐. 그, 그건 안 돼요! 판사님은 농담을 죽기보다 싫어

하는 분이니까요! 자, 하던 이야기나 마저 합시다. 제기랄, 잘못 걸려들었구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재미로 한 일인데. 나한테는 가정이 있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오. 그러니 우리, 서로 좋게 해결합시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요?"

"눈 감고, 입을 꼭 다물고, 돌부처처럼 그대로 서서 1부터 10만까지 헤아리면 됩니다. 아주 천천히 세어야 돼요."

아주 약소한 부탁이라는 듯이 헨든이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랬다간 난 끝장이야!"

포졸은 울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러지 마세요, 나으리. 내가 한 짓은 어떻게 놓고 봐도 장난에 지나지 않는 일이오. 그럼, 누가 봐도 장난이지. 백 번 양보해서 설사 그것이 장난이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그건 아주 작은 잘못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벌을 받는다고 해도 고작해야 판사님한테 꾸중을 듣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경고를 받는 선에서 그칠 겁니다."

헨든은 옆에서 찬바람이 쌩쌩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댁은 장난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범죄 행위요. 알고 있었소?"

"몰랐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던 모양이오. 그런 것까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만의 독창적인 발상인 줄 알았는데……."

"틀림없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니까. 법관들은 이런 범죄를 사기성 공갈 갈취죄라고 부르지."

"사람살려!"

"그리고 사형에 처하지."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그뿐인가? 당신한테 더욱 불리한 사항이 또 한 가지 있다고. 13.5펜스가 넘게 나가는 물건을 헐값에 강탈한 죄가 추가로 붙는단 말씀이야. 전문 법률 용어로 말하면 이것은 추정수회죄, 반역범죄은닉죄, 직무유기죄, 공직자 명예훼손죄에 해

당하지. 처벌은 교수형이야. 사면이나 감형도 절대로 못 받게 되어 있고, 죽기 전에도 목사가 옆에 못 가도록 되어 있어."

"으, 으, 나 죽는다! 봐 주십쇼, 제발 그것만은 피하게 해 주세요. 등을 돌리고, 아무것도 못 본 척하겠소."

"좋았어! 이제야 머리가 좀 돌아가는 모양이군. 돼지도 돌려주실 건가?"

"물론, 그렇게 하고말고요. 하늘이 내려 주시고 천사가 들고 온 것이라 해도, 앞으로는 돼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세요! 나으리를 위해서라면 장님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나으리께서 우격다짐으로 죄인을 데리고 갔다고 보고하겠습니다. 감옥 문이 아주 낡은 것이니까,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제가 직접 부수어 놓겠어요."

"얼마든지! 그런다고 피해 볼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판사도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았으니, 달아나는 죄수를 못 잡았다고 원통해하면서 간수의 뼈를 바스러뜨리는 그런 몹쓸 짓은 저지르지 않을 거요."

25. 헨든의 집

포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까지 온 뒤, 헨든은 왕에게 마을 밖 어느 곳까지 부지런히 가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그 사이에 헨든은 여관에 가서 계산을 하고 오겠다는 것이다. 삼십 분 뒤, 두 사람은 헨든의 비루먹은 말을 타고 신나게 동쪽으로 나아갔다. 왕은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그 대신 헨든이 런던교에서 구입한 헌 옷을 입었다. 이제 추위에 떨지도 않았고, 기분도 좋았다.

헨든은 왕이 피로해할까 봐 무척이나 신경을 썼다. 그동안 고생스럽게 객지를 떠돌면서 밥도 제때 못 먹고 잠자리까지 불편했을 것이니, 그러한 경험은 어린아이의 병세를 낫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좀 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하면, 아이가 빠른 속도

로 건강을 되찾게 되리라는 것이 헨든의 생각이었다. 헨든은 아이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작은 머릿속의 불건전한 생각들이 모조리 빠져나가는 날이 어서 오기를 빌었다. 마음 같아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서 하루빨리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제정신이 아닌 아이한테 혹시라도 무리가 갈까 봐 헨든은 꾹 참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느긋한 걸음걸이로 60리쯤 가자 제법 큰 마을이 나타났다. 두 나그네는 좋은 여관을 잡아 거기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둘 사이의 관계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왕이 식사를 하는 동안 헨든은 왕의 의자 뒤에 서서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옷도 벗겨 주었다. 그런 다음 헨든은 마룻바닥을 잠자리로 정하여, 문가에 비스듬히 누워 담요로 몸을 둘둘 말고 잠을 청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나아갔다. 그러면서 서로 헤어진 뒤에 겪었던 모험을 열심히 이야기했고, 또 서로 열심히 들었다. 헨든은 자기가 왕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을 헤매고 돌아다녔는지 자세히 들려 주었다. 천사장이라고 자처한 노인은 숲 여기저기 엉뚱한 곳으로만 헨든을 데리고 다니다가, 헨든이 다른 데로 갈 생각을 안 하자 할 수 없이 다시 오두막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것이다. 집으로 들어선 노인은 침실로 가더니 주먹으로 한 방 얻어맞은 사람처럼 넋이 나간 얼굴로 비실거리며 다시 나와서

는,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갔다고 둘러댔다는 것이다. 헨든은 하루 종일 오두막 주위에서 기다렸고,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다시 찾으러 나섰다는 거였다.

"폐하가 안 나타나니까 그 늙은이가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울상이 다 되었더라고요."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해."

왕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왕의 이야기를 듣고 난 헨든은 그 노인을 흠씬 두들겨 패 주지 못한 것을 원통해했다.

마지막 날 헨든은 아주 들떠 있었다. 잠시도 쉬지 않고 혀를 놀렸다. 아버지와 형의 관대하고 너그러운 성품이 잘 드러나는 일화를 수없이 늘어놓았다. 사랑하는 여인 에디스에게 품었던 불 같은 정열도 물론 빠뜨리지 않았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평소에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동생 휴에 대해서도 형답게 감싸는 말을 했다. 헨든은 잠시 후 집에서 벌어질 만남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았다.

"다들 까무러칠 거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거야."

헨든의 고향은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점점이 농가와 과수원이 박혀 있고, 드넓은 목초지 사이로 길이 나 있었다. 아득히 뻗은 목초지는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가라앉은 것이 마치 파도

가 넘실거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오후가 되자 헨든은 멀리서라도 혹시 자기 집이 보이지 않을까 하고, 자주 길을 벗어나 낮은 언덕으로 올라가곤 했다. 결국 헨든은 멀리서 집을 찾아내는 일에 성공했다. 흥분한 헨든이 고함을 질렀다.

"저기 마을이 보입니다! 바로 저쪽에 우리 집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탑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숲, 저게 바로 우리 집 정원이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집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저택인지 알게 될 겁니다. 방이 자그마치 칠십 개나 되고, 하인들도 스물일곱 명이나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묵기에는 딱 좋은 집 아닙니까? 자, 어서 서두릅시다. 마음이 급해서 안 되겠어요."

두 사람은 부지런히 갔지만 마을에 닿았을 때는 벌써 세 시가 넘어 있었다. 두 나그네는 허겁지겁 마을로 들어갔다.

"여기가 교회…… 담쟁이덩굴은 여전하구나. 더도 덜도 아니고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저기가 붉은 사자 여관, 저기는 장터…… 여긴 오월 축제 기둥, 여기는 펌프…… 지나가는 사람들만 빼놓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람들만 달라졌군. 나는 몇 사람 알아보겠는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헨든이 쉴새없이 혼자 중얼거리는 동안 두 사람은 어느 새 마을 끝에 다다랐다. 두 사람은 높은 울타리를 따라서 난 구불구불한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800미터 가량 걸어가자 집안의 문장을 새긴 거대한 돌기둥이 받치고 있는 위풍당당한 대문이 나오고, 그 문 안쪽으로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었다. 그 뒤에는 으리으리한 저택이 서 있었다.

"헨든 저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폐하!"

헨든은 감격했다.

"오늘처럼 기분 좋은 날이 또 있을까? 아버지와 형과 에디스는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저만 바라보고 저한테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섭섭한 느낌이 들겠지만 신경쓰지 마세요. 오래 가지는 않을 테니까. 저와 아주 절친한 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곧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마일스 헨든을 위해서라면, 처음 보는 사람도 친형제처럼 끌어안을 겁니다. 폐하의 집처럼 마음 편하게, 얼마든지 오래 있어도 괜찮습니다."

헨든은 커다란 문 앞에서 말을 세우고 먼저 내렸다. 그런 다음 왕이 말에서 내리는 것을 옆에서 도왔다. 두 사람은 문 안으로 들어갔다. 몇 발짝 들어서자 널찍한 방이 나왔다. 헨든은 예의를 지킬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만, 서둘러 왕을 의자에 앉힌 다음 훈훈한 벽난로 앞의 책상에 앉아 있는 청년에게 달려갔다. 헨든의 동생 휴였다.

"네 형이 왔다. 그래, 얼마나 반갑니! 어서 아버지를 모셔 오너라. 아버지 손을 만져 보고,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들어 보아야 비로소 집에 왔다는 실감이 날 것 같구나."

하지만 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불청객이라도 대하는 듯이 금세 뚱한 얼굴로 헨든을 바라보았다. 그 눈초리는 처음에는 약간의 불쾌감을 내보였다가,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나 의도가 차차 자리잡힘에 따라서 변화를 했다. 야릇한 호기심과 함께, 진짜 헨든인지 아닌지 종잡을 수 없는 동정심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 휴는 상냥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보아하니 정상이 아니신 것 같군요. 세파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몸을 돌보지 못한 것 같은데…… 행색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느냐고? 네가 너지, 누구긴 누구란 말이냐! 너는

내 동생 휴 헨든 아니냐."

헨든이 언성을 높였다.

상대방은 여전히 부드럽게 되받았다.

"그럼, 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형 마일스 헨든을 모른 척하겠다는 거냐?"

휴는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뭐요? 어디서 농담을 하고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요? 하긴,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소? 우리 곁을 떠났던 형이 그 모진 풍파를 견디고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말이오. 아, 그게 사실이라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소. 그렇지만 아무래도 당신은 날 골탕먹이려는 것 같구려. 어서 불 쪽으로 와 봐요. 자세히 좀 뜯어보게!"

휴는 마일스 헨든의 팔을 붙든 다음 창 쪽으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이렇게 돌려 세우고 저렇게 돌려 세우며, 가급적 모든 각도에서 확실한 증거 자료를 모으기 위해 마일스 헨든의 주위를 뻔질나게 돌면서 눈에 불을 켜고 샅샅이 뜯어보았다. 그러는 동안 돌아온 탕아는 기쁨에 겨워 미소짓고 껄껄 웃으며 자꾸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든지 보거라. 너무 겁먹지 말고 말이야. 팔다리든 이목구비든, 너의 시험에 모두 거뜬히 통과할 자신이 있다. 성에 찰 때까지 뜯어보아라. 나 마일스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니까. 안 그러냐? 아, 오늘처럼 좋은 날이 또 있을까! 네 손 좀 잡아 보자꾸나. 뺨도 만져 보자꾸나. 아, 너무 기쁘구나!"

마일스는 동생에게 몸을 날리려고 했다. 하지만 휴는 손을 들어 거부의 뜻을 나타내고는, 애처롭다는 듯이 턱을 바짝 당겨 가슴에 묻고 탄식을 토했다.

"아, 하늘이시여! 이 무거운 실망감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마일스는 놀라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동생에게 따져 물었다.

"실망감? 그럼, 내가 네 형이 아니란 말이냐?"

휴는 서글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은 내 눈에 띄지 않았던 증거를 찾아 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 그 편지가 사실이었구나."

"무슨 편지?"

"육칠 년 전에 외국에서 날아온 편지가 있었소. 거기엔 형이 전사했다고 적혀 있었지요."

"거짓말이야! 아버지를 모셔 와라.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실 거야."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모셔 옵니까."

"뭐? 돌아가셨어?"

마일스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 나갔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 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구나. 내 기쁨의 절반은 이제 사라졌어. 그럼, 형을 데려와라. 형은 나를 알아볼 거야."

"형도 죽었습니다."

"하늘도 야속하시지! 모두 다 죽었어? 나의 소중한 부분은 모두 앗아가 버리고 가치 없는 부분만 남겨 놓았군! 아, 이럴 수가! 설마 에디스마저도……?"

"죽었냐고요? 아니, 살아 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쁨을 되찾았어! 어서 가서 에디스를 데려오려무나! 만일 나를 못 알아본다면……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래, 에디스만은 나를 알아볼 거야. 틀림없어. 어서 데려와, 늙은 하인들도 데려오고. 하인들도 나를 알아볼 거야."

"하인은 다섯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피터, 핼시, 데이비드, 버나드, 마거릿."

그렇게 말하고 휴는 방을 나갔다. 마일스는 그대로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혼잣말을 하며 방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스물일곱 명의 충직하고 성실한 하인 중에서 가장 못된 녀석들만 남았구나. 아무래도 불길한 예감이 드는군."

마일스는 왕이 옆에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방

안을 계속 오갔다.

이윽고 왕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진짜 안됐다는 느낌이 역력히 배어 있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자기의 처지를 묘하게 빗대어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대의 불운을 너무 서글피 여기지 말게. 이 세상에는 자기의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사람이 자네말고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자네만 그런 게 아니라고."

"아, 폐하."

마일스는 약간 얼굴을 붉혔다.

"저를 나무라지 말아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랍니다. 에디스가 증명해 줄 거예요. 영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 저를 알아볼 겁니다. 제가 사기꾼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집 구석구석을, 조상 어른들의 초상화를, 주위에 널려 있는 이 모든 것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두 다 저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진짜라고요. 누구를 속일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폐하만큼은 저를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폐하마저 의심하면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넬 의심하지 않아."

왕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헨든은 감격에 겨워 말했다. 왕은 여전히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뒷말을 이었다.

"그대는 나를 의심하는가?"

마일스는 죄의식에 젖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고맙게도 문이 열리고 휴가 들어오는 바람에, 다행이 마일스는 곤란한 대답을 피할 수가 있었다.

잘 차려 입은 아리따운 부인이 휴의 뒤를 따라 들어왔고, 그 뒤로 제복을 입은 하인의 모습도 여럿 눈에 띄었다. 부인은 고개를 푹 숙여 방바닥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천천히 걸어왔다. 몹시 슬픈 얼굴이었다. 마일스 헨든이 앞으로 달려나가 반갑게 불렀다.

"아, 에디스! 내 사랑……."

마일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여인은 잠시 놀라는 것 같았다. 뺨에 붉은빛이 감돌더니, 이제는 떨기까지 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마일스 헨든의 눈을 쳐다보았다. 여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 나가더니 곧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하지만 휴는 근엄한 얼굴로 마일스를 밀어내더니 여인에게 물었다.

"잘 보시오. 이 사람을 알아보겠소?"

여인은 힘없이 입을 열었다. 그것은 도저히 산 사람의 목소리 같지가 않았다.

"모르겠어요."

여인은 울음을 삼키듯 돌아서서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다.

마일스 헨든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얼마 뒤 동생 휴가 하인들에게 말했다.

"충분히 봤겠지? 이 사람을 알아보겠는가?"

그들이 머리를 가로젓자 휴가 말했다.

"하인들도 당신을 모른다는군요. 무언가 착각을 하셨나 봅니다. 방금 보셨겠지만, 제 아내도 당신을 모른다고 했어요."

"아내라고?"

마일스는 후닥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동생의 멱살을 잡고 벽에다 밀어붙였다.

"이 여우 같은 놈! 이제야 알겠다! 네놈이 가짜 편지를 써서 내 신부감과 재산을 도둑질한 거야! 야비한 놈 같으니라고. 너 같이 더러운 놈을 죽여 보았자 나만 창피해지지!"

얼굴이 시뻘개진 휴는 캑캑거리며 옆의 의자로 몸을 피했다. 그러고는 하인들에게 불한당을 당장 잡아 묶으라고 명령했다. 하인들은 주저했다. 하인 가운데 하나가 입을 열었다.

"놈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라고? 숫자가 훨씬 많은데 무슨 상관이야! 어서 잡으라니까!"

휴가 냉정하게 소리쳤다.

"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마일스는 하인들을 위협하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너희들은 나를 알고 있어. 난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 너희들도 예전 모습 그대로이군."

이렇게 기억을 일깨워 주어도 하인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감히 마일스 헨든에게 덤빌 생각은 하지 못했다.

"어서 가라, 이 머저리들아! 가서 무기를 갖고 와서 이 문을 지켜. 나는 관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낼 테니까."

휴는 하인들에게 호통을 친 다음, 문을 막 나서려다가 돌아서서 마일스에게 말했다.

"도망치려 해 봐야 소용없을 테니, 쓸데없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걸."

"도망을 쳐? 네놈 걱정이나 해라! 네놈도 이제부터 고생문이 열린 거야. 이 집과 여기 딸린 모든 재산의 주인은 나 마일스 헨든이고, 나는 악착같이 여기에 남아 있을 거다."

26. 버림받은 사람

왕은 잠시 생각에 잠긴 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녀석을 잘 알아요. 저 녀석으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렇게 교활했어요."

"그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야, 마일스 경."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왕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야."

"뭐가 어떻다고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요."

"답답해서 그러네. 온 나라가 나를 찾는 밀사와 나의 생김새를 적어 놓은 방으로 뒤덮여 있지 않은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단 말인가? 왕이 모습을 감추었는데 아무런 소동도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태평세월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종적을 감추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도?"

"아 참, 그렇지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헨든은 한숨을 쉬고 나서 혼잣말을 했다.

"가엾게도 완전히 돌아 버렸군. 아직도 꿈 속을 헤매고 있어."

"하지만 나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 라틴어, 그리스어, 영어로 각각 편지를 써서 줄 테니 자네는 내일 아침에 그것을 런던으로 가져가게. 나의 외삼촌인 허트포드 경에게 그 편지를 전하라고. 허트포드 경은 내가 쓴 편지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릴 거야. 그럼 나한테 당장 사람을 보낼 걸세."

"여기서 저의 신원을 증명하고 저의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편지를 보내면 안 될까요? 지금 같아서는 도무지 그럴 만한 여유가……."

그러자 왕은 불호령을 내렸다.

"무슨 소리! 자네의 쥐꼬리만한 재산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는가?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법통이 바람 앞의 등잔불처럼 위태로운데 말이야!"

왕은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무 걱정 말고 내 말대로 하게. 자네의 억울한 사연은 내가 풀어 줄 테니까. 자네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겠어. 신세

진 것은 잊지 않고 반드시 갚겠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왕은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헨든은 애처로운 눈길로 어린 왕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 들었다면 틀림없이 왕의 목소리로 착각할 정도야. 멀쩡할 때는 진짜 왕처럼 서릿발 같은 위엄을 보이니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 그런데 저런 솜씨는 어디서 배웠을까? 알아보지도 못할 글자를 라틴어, 그리스어라고 잘도 휘갈기는군. 저 아이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내일 아침에 저 아이가 쓴 편지를 서둘러 보내는 척해야만 되겠군.'

그러나 마일스 헨든의 생각은 곧바로 방금 겪었던 사건으로 되돌아갔다. 너무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왕이 편지를 다 써서 건네 주었을 때는 건성으로 받아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헨든의 마음 속 고민은 계속되었다.

'에디스가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나를 알아본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본 것 같기도 한데. 아무리 냉정히 따져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갈피를 못 잡겠어. 간단히 문제를 정리해 보자. 에디스는 내 얼굴, 내 목소리를 분명히 알아보았어.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겠어? 그런데도 나를 모른다고 했지. 거짓말을 할 여자가 아닌데…… 가만, 무언가 짚이는 데가 있어. 그래, 압력을 받은 거야. 그놈이 에디스에게 거짓말하라고 공갈, 협박을 한

거야. 바로 그거야! 수수께끼가 풀리는군. 어쩐지 에디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니. 놈한테 시달렸으니 당연하지. 그래, 에디스를 찾아가자. 놈이 없는 자리에서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거야. 어렸을 때 같이 뛰놀던 이야기를 들려 주면 마음의 빗장을 풀고 더 이상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곧 내 편이 되어 줄 거야. 본래 누구를 배신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니까. 언제나 바르고 곧았었지. 나를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그래, 그걸 믿는 거다. 사랑하는 남자를 배신할 리는 없어.'

마일스는 허겁지겁 문으로 달려갔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면서 에디스가 들어왔다. 에디스의 낯빛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 걸음을 내디뎠다. 여전히 슬픈 얼굴이었지만,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몸가짐이었다.

마일스는 자신 있게 에디스를 맞이하러 나갔지만 에디스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몸짓으로 마일스의 행동을 막았다. 마일스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에디스는 자리에 앉더니 마일스에게도 앉기를 권했다. 오랜 친구를 만난 반가움을 그런 식으로 눅여 버리고, 마치 낯선 손님을 대하듯이 했다. 너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에디스의 행동에 마일스는 다시금 마음이 어지러워졌다. 순간적으로나마 자기가 정말 마일스 헨든인지 스스로도 의심이 갈 정도였다. 에디스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당부할 게 있어서 왔어요. 미친 사람더러 망상에서

벗어나라고 해 보았자 먹혀들 리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설득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당신의 꿈이 당신에게는 현실이겠지요. 그러니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꾸물거리지 마세요. 여긴 위험한 곳이랍니다."

에디스는 마일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서글픈 목소리로 덧붙였다.

"돌아가신 그분을 꼭 빼닮았다는 사실이 당신한테는 정말로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일스 헨든이라니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당신의 정직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고는 귀담아들으셔야 합니다. 남편은 지금 이 고장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어요. 남편 말이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남편의 말 한 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당신이 '나'라고 주장하는 그분과 닮지만 않았다면, 남편은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든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믿어 주세요. 저는 남편을 잘 압니다. 무슨 짓을 할지 잘 안다고요! 그 사람은 당신이 미치광이라고 선전할 테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을 거예요."

에디스는 마일스를 다시 한 번 바라보고 나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설령 마일스 헨든이고,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이 고장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 말을 잘 새겨들으세요. 당신은 지금보다 더 심한 봉변을 당하면 당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남편이 당신을 모른다고 잡아떼면 아무도 감히 그 말을 거역하지 못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마일스는 원통한 듯이 말했다.

"평생의 벗을 배반하고 부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군소리 없이 그 명령에 따르도록 만들 수 있는 권력이라면, 이 고장 사람들을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겠지. 그들에게는 빵과 목숨만이 눈앞의 관심사일 뿐 충성이나 명예로 이어진 끈끈한 의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니 말이야."

에디스의 뺨에 언뜻 붉은빛이 스쳤다. 그러고는 눈을 내리깔았다. 하지만 이어지는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미 경고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어서 여길 떠나세요. 안 그러면 남편이 당신을 해치울 겁니다. 남편은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에요. 저는 그 사람에게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 노예라서 잘 알아요. 불쌍한 마일스와 아더, 그리고 저의 후견인이었던 리처드 경은 이제 남편의 사슬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악당 같은 남편의 손아귀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분들 곁으로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당신이 여기서 자꾸 시비를 걸면, 남편은 자기의 직위와 재산이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당

신은 그 사람 집에서 그 사람을 모욕했어요. 여기 머물러 있다가는 봉변을 당하고 맙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가세요. 돈이 없다면 이 지갑을 받아 두세요. 부탁입니다. 하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라도 여길 빠져 나가시라고요. 아, 도망갈 수 있을 때 얼른 도망가셔야 해요."

마일스는 점잖게 지갑을 뿌리치고는 의자에서 일어나 에디스 앞에 섰다.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내 눈을 똑바로 봐요. 당신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나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대답해 봐요. 내가 마일스 헨든이지요?"

"아뇨,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맹세합니까?"

대답은 느렸지만 분명했다.

"맹세해요."

"믿을 수가 없군!"

"달아나세요! 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합니까? 달아나야 목숨을 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와 동시에 관리들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하지만 마일스 헨든은 얼마 못 버티고 질질 끌려 나갔다. 왕도 마찬가지 신세였다. 두 사람은 꽁꽁 묶인 채 감옥으로 끌려갔다.

27. 감옥에서

감옥은 북적거렸다. 어린 왕과 마일스 헨든은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커다란 방에 던져진 채 쇠사슬에 묶여 있게 되었다. 그 방에는 두 사람말고도 수갑에 묶여 있거나 족쇄에 채워진 스무 명 가량의 죄수들이 있었다. 여자와 남자, 아이와 노인까지 두루 섞여 있었다. 음란하고 시끄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왕은 임금으로서 받게 된 이 엄청난 수모 때문에 잔뜩 약이 올라 있었고, 헨든은 헨든대로 어이가 없을 뿐이었다. 꿈에도 그리워하던 고향 집에 돌아오면 다들 자기를 반가워할 것으로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오히려 냉대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너무나 어긋나 버린 꿈과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무지개를 보기 위해 춤추며

신나게 밖으로 나갔다가 벼락을 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어지럽고 괴로웠던 생각들도 차츰 정리가 되어 갔다. 헨든의 마음은 이제 에디스한테로 모아졌다. 에디스가 보였던 행동을 곰곰이 되씹으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지만, 도저히 만족스러운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에디스가 정말 나를 못 알아보았을까?'

마일스 헨든에게는 이 점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그렇게 속으로 끙끙 앓기를 몇 시간, 마침내 그는 마음 속으로 한 가지 매듭을 지었다.

'에디스는 내가 마일스 헨든이라는 걸 알면서도, 날 모른다고 부인한 거야.'

헨든은 이제 에디스라는 이름에 저주를 퍼붓고 싶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너무도 오랫동안 그의 마음 속에 성스러움으로 남아 있었으므로, 차마 저주와 욕설로 더럽힐 수가 없었다.

헨든과 왕은 때에 절은 감옥 안의 누더기 담요를 둘둘 말고 심란한 밤을 보냈다. 뇌물을 받은 옥리가 죄수 몇 사람한테 몰래 술을 들여보냈다. 결과는 뻔했다. 그 죄수들은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상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싸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결국 한밤중에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덮쳐서 자기 수갑으로 여자의 머리를 갈겨 대기에 이르렀다. 옥리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 여자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 옥리는 그 남자의 머리와 어깻죽지를 곤봉으로 사정없이 내리쳤

고, 그래서 술판도 겨우 끝났다. 그제야 사람들은 잠을 좀 청할 수 있었다. 다친 두 남녀의 신음 소리에 귀가 예민해진 사람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 다음에 이어진 한 주일은 밤낮없이 비슷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낮에는 헨든이 어느 정도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아는 체하면 그들은 헨든을 보며 "모르는 놈"이라면서 모욕을 주었다. 밤에는 술판과 싸움판이 박자를 맞추듯 번갈아 가며 벌어졌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태를 뒤바꾸어 놓는 일이 벌어졌다. 옥리가 어떤 노인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에게 말했다.

"문제의 악당은 이 방에 있다. 영감태기가 한번 보고 알 만한 사람인지 말해 봐."

마일스 헨든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뒤 처음으로 반가운 느낌이 들었다. 헨든은 속으로 생각했다.

'블레이크 앤드류스로구나. 우리 집안에서 평생을 살아온 하인이지. 정직하고 심성이 곧은 사람이야. 물론 전에 그랬다는 얘기지만. 지금은 아무도 바른 말을 안 해. 모두 다 거짓말쟁이야. 이 사람도 분명히 나를 알아보겠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모른다고 말하겠지.'

노인은 방 안을 휘젓고 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얼굴을 들여다보고 나서 말했다.

"시시껄렁한 잡범, 인간 쓰레기뿐이구먼요. 그 사람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옥리가 껄껄 웃었다.

"바로 이놈이다! 이 짐승 같은 놈을 자세히 뜯어보고 소감을 말해 보시지."

노인은 다가와서 헨든을 다시 들여다 보았다. 그러고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천만에요! 이건 헨든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요!"

"좋았어! 눈이 성한 걸 보니 아직 죽을 때는 아닌가 보군. 내가 휴 경이었다면 저 너저분한 시골뜨기 녀석을 그냥……!"

옥리는 교수대에 목이 매달린 사람처럼 발끝을 들고, 숨을 못 쉬는 사람처럼 캑캑거리는 시늉을 하면서 뒷말을 대신했다. 노인이 맞장구를 쳤다.

"그저 눈물이 줄줄 나오도록 해 줘야 합지요. 저런 악당놈은 제가 다루는 법을 좀 압니다요. 나 같으면 저런 놈을 당장 화형에 처할……!"

옥리는 껄껄 웃었다. 하이에나처럼 기분 나쁜 웃음이었다.

"그럼, 영감태기가 한 수 지도해 주라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기분 전환에 좋을 게야."

말을 마친 옥리는 거들먹거리면서 감방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노인은 헨든 앞에 무릎을 꿇고 귀엣말을 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돌아오셨군요, 주인님! 지난 칠 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 계시다니!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대번에 주인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치미 뚝 떼고 시시한 잡범들과 인간 쓰레기들밖에는 안 보이는 것처럼 꾸미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늙고 가난한 몸입니다. 하지만 저한테 말씀만 하시면, 제가 목매달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게. 자네만 피해를 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돕는다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걸세. 자네의 뜻은 고맙네. 난 이제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는데, 자네 덕분에 다시 믿게 되었어."

늙은 하인 앤드류스는 헨든과 왕에게 더없는 보배가 되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감옥으로 찾아와서 마일스 헨든에게 욕지거리를 퍼붓고는, 시원치 않은 감옥 식사 대신 맛있는 음식을 몰래 넣어 주었다. 헨든은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왕에게 주었다. 아마 그 음식이 아니었다면 왕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왕은 옥리가 가져오는 형편 없는 음식을 도저히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앤드류스는 헨든을 만나러 올 때마다 잠깐 동안만 있다가 가곤 했다.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올 때마다 헨든을 위해 아주 값진 정보를 가지고 와서 살그머니 귀띔해 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중간중간 욕지거리를 퍼붓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마일스 헨든은 집안 사정을 조금씩 알

게 되었다. 형 아더는 육 년 전에 죽었고, 맏아들이 죽은데다 둘째 아들한테서도 아무 소식이 없자 리처드 경은 앓아 누웠다. 리처드 경은 얼마 못 가서 자기가 눈을 감게 될 거라는 예감에 휩싸여, 죽기 전에 휴와 에디스를 결혼시키고 싶어했다. 하지만 에디스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했다. 마일스가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뒤 마일스가 죽었다는 내용이 적힌 편지가 왔다. 그 충격으로 리처드 경은 쓰러지고 말았다. 죽을 날이 가까워졌음을 안 리처드 경은 다시 에디스와 휴와의 결혼을 앞당기려 했고, 휴도 졸라 댔다. 에디스는 사정사정해서 한 달의 시간을 얻었다. 그리고 또 한 달, 다시 또 한 달이 지났다. 결국 죽어 가는 리처드 경 옆에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려야만 했다. 그것은 행복한 결혼이 못 되었다. 그 고장 사람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으로는, 결혼한 지 얼마 뒤 에디스가 남편의 서류 틈에서 마일스의 사망 소식이 일부 담겨 있는 연습지를 몇 장 발견했다는 것이다. 에디스는 남편이 가짜 편지를 써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방해하고, 결국 아버지의 죽음을 앞당긴 장본인이라고 남편을 몰아세웠다. 에디스와 하인들이 구박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리처드 경이 죽은 뒤로 휴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으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먹고 살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이곳

사람들은, 그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앤드류스가 전한 이야기 중에는 왕이 기절초풍할 만한 내용도 있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왕이 미쳤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왔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발설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답니다."

왕은 노인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왕은 미치지 않았다. 이런 선동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네 일이나 부지런히 하는 게 좋을 거다."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앤드류스는 난데없는 불청객이 끼어들어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어이가 없었다. 헨든이 눈짓을 보내자 앤드류스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하던 얘기를 계속했다.

"돌아가신 선왕은 이달 16일에 윈저 성에 묻히게 되고, 새 왕은 이달 20일에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즉위식을 올린답니다."

"그 전에 왕을 찾는 게 순서일 텐데."

왕이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자신 있게 덧붙였다.

"찾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모양이지? 나 역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하지만 앤드류스는 더 이상 따져 묻지는 않았다. 헨든이 다

시 눈짓을 보냈기 때문이다. 앤드류스는 소문 보따리나 계속 펼치기로 했다.

"왕의 즉위식에 휴 경도 간다는군요. 원대한 희망을 안고서 말입니다. 의원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큰소리치는가 봐요. 섭정한테 아주 잘 보였다나 어쨌다나?"

"섭정이라니?"

왕이 캐물었다.

"서머셋 공작님 말이다."

"서머셋 공작이라니?"

"나 원! 누구긴 누구야? 세이모어 허트포드 백작이지."

왕은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공작이 되고 섭정이 되었는가?"

"1월 말일부터."

"누구 맘대로?"

"본인하고 추밀원 맘대로겠지. 왕도 반대하지 않았고."

왕은 놀라서 펄쩍 뛰었다.

"왕이라고? 어떤 왕?"

"어떤 왕이라니? 이 아이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 나라에 왕이 두 명이라도 된다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대답해 주지. 영국의 왕은 우리의 위대하신 에드워드 6세이시다. 만수무강하소서, 폐하! 그분은 정겹고 자상하신 어린 개구쟁이기도 하지. 미쳤든 안 미쳤든, 너도나도 입술이 닳도록 폐하를 칭송하지.

사람들 말로는 나날이 좋아지신다고 하는데……. 모두들 폐하가 만수무강하셔서 오래오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두 손 모아 빈다고. 폐하께서는 노포크 공작의 목숨을 살려 주시어 당신의 너그러움을 나타내시더니, 이제는 백성을 괴롭히고 억누르던 잔인무도한 법을 없애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다, 이 말씀이야."

이 소리에 놀란 왕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쓰라린 몽상에 빠져들면서 앤드류스의 말 소리는 이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앤드류스가 말하는 '어린 개구쟁이'는 궁전에서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아무리 그 아이가 왕자처럼 행동했다 하더라도, 몸짓이나 말씨에서 금세 탄로가 날 텐데! 그 바람에 그 거지 아이는 쫓겨나고 진짜 왕자를 찾아 나서야 마땅한 노릇인데 말이야. 조정에서 어떤 왕족의 피를 받은 꼬맹이를 자기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일까? 아니, 삼촌이 그런 일을 나 몰라라 하고 방관했을 리가 없어. 삼촌은 막강한 권세로 그런 음모를 요절내고 말았을 테니까.'

어린 왕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지만 뾰족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의문점은 늘어만 갔고, 머리가 지끈거려 잠도 제대로 못 잘 지경이었다. 런던으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다. 그러면 그럴수록 왕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를 견딜 수가 없었다.

헨든은 어떻게든 왕을 달래 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었다. 하지만 왕 옆에 묶여 있던 두 여자가 설득을 하자 왕은 약간 솔깃해하는 것 같았다. 두 여자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왕은 마음의 평온을 얻고 어느 정도 가슴이 진정되는 느낌을 받았다. 왕은 두 여자가 너무나도 고마웠다.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에게서 풍기는 따뜻한 인간애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다. 어쩌다가 여기 갇히게 되었느냐는 왕의 물음에, 두 여자는 침례교도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왕은 웃으면서 다

시 한 번 물었다.

"그게 감옥에 갇혀야 할 정도록 심각한 죄인가요? 나로선 아쉽구려. 그대들이 머지않아 풀려나면 난 그대들을 못 보게 될 테니까.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사람을 오래 가둬 둘 리는 없거든."

여자들은 잠자코 있었다. 하지만 표정을 보니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았다. 왕은 다그쳤다.

"대답을 하지 않는구려. 그러지 말고 말해 보시오. 또 다른 처벌이 있는 건가?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털어놓으라니까."

두 여자는 말꼬리를 돌리려고 했지만, 무서운 예감에 휩싸인 왕은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매질을 하는 건가? 설마하니 그렇게까지야 잔인하려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시오. 매질은 없는 거지? 아니오?"

여자들은 당황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빛이 역력했다. 하지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결국 한 여자가 울먹이면서 입을 열었다.

"우리를 그토록 걱정해 주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구나! 하느님, 저희에게 견딜 수 있는……."

"이제야 털어놓는군!"

왕이 끼어들었다.

"매질을 한다는 소린데! 피도 눈물도 없는 뻔뻔스러운 놈들

같으니라고! 아, 제발 울음을 그치시오. 내가 못 견디겠어! 기운을 내시오. 이 괴로움에서 그대들을 건져 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반드시 올거라고!"

아침에 왕이 눈을 떠 보니 여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살아났구나!"

왕은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금세 풀이 죽어 이렇게 중얼거렸다.

"슬프도다! 나의 말동무였는데!"

두 여자는 이별의 정표로 리본 한 조각씩을 왕의 옷에다 꽂아 두었다. 왕은 언제까지나 그것을 간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 고마운 친구들을 하루빨리 구해서 보호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옥리가 졸개들 몇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죄수들에게 감옥 안마당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다. 왕은 뛸 듯이 기뻤다. 파란 하늘을 쳐다보고 푸른 공기를 마셔 본 게 얼마 만인가. 왕은 관리들이 꾸물거리는 바람에 애가 탈 정도였다. 드디어 왕의 차례가 왔다. 족쇄에서 풀려난 왕은 헨든과 함께 다른 죄수들 뒤를 따라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안마당은 바닥이 돌이었는데, 위가 툭 트여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아치 모양의 거대한 벽돌 문을 통해 안마당으로 들어간 죄수들은 등을 벽에 대고 줄지어 섰다. 그들 앞에는 긴 밧줄이 놓여 있었다. 죄수들은 간수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구

름이 낮게 깔린 싸늘한 아침이었다. 밤 사이에 내린 싸락눈이 텅 빈 공간을 하얗게 덮어 음산한 분위기를 더해 주었다. 이따금 겨울 바람이 휘몰아칠 때마다 눈이 이리저리 소용돌이를 쳤다.

안마당 한가운데에 두 여자가 기둥에 묶인 채 서 있었다. 첫눈에 왕은 그들이 자기 친구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왕은 몸서리를 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맙소사! 그들이 풀려났다고 생각한 건 나의 착각이었어. 이런 사람들이 매를 맞아야 하다니, 영국에서 말이야! 아,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이교도의 땅이 아닌 이 그리스도의 땅 영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담? 저 사람들이 매를 맞다니! 저들한테 위로를 받고 따뜻한 대접을 받았던 내가 저런 몹쓸 짓이 행해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만 하다니! 이 드넓은 왕국을 다스리는 유일한 권력자인 내가 저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력한 처지에 있구나. 이 악당들아, 몸조심하고 잘 있거라! 언젠가는 네놈들을 불러다가 이 흉악한 짓을 저지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 줄 것이다. 네놈들이 오늘 하는 매질을 그때 가서 백 배로 갚아 주마.'

커다란 문이 활짝 열리면서 백성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두 여자 주위로 바글바글 몰려들었고, 그 바람에 왕의 시야가 가려졌다. 목사가 나타나서 군중 속으로 들어갔지만, 목사의 모습도 볼 수가 없었다. 왕은 이제 무슨 소리가 오가

는 것만 들을 뿐이었다. 누가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누가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더니 무슨 준비를 하는지 갑자기 주위가 어수선해졌다. 여자들 뒤쪽에 모여 서 있던 군중 사이로 관리들이 부지런히 들락거렸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점점 깊은 침묵으로 빠져들었다.

누군가의 명령이 떨어지자 군중들은 일제히 옆으로 물러서서 길을 터 주었다. 모골이 송연해지는 광경이 왕의 눈앞에 펼쳐졌다. 두 여자 주위에 장작 더미가 쌓여 있고, 쭈그리고 앉은 사내가 거기에다 불을 붙이고 있었다.

여자들은 머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우지직, 우지직, 탁탁!"

장작에 불이 붙는 소리와 함께 노란 불꽃이 똬리를 틀며 올라갔다. 파란 연기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목사는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여자 아이 둘이 쏜살같이 문으로 들어와서, 기둥에 묶인 두 여자를 향해 달려갔다. 간수들은 재빨리 아이들을 낚아챘다. 한 아이는 억센 손아귀에 단단히 붙잡혀 있었지만, 또 한 아이는 필사적으로 뿌리치고 나오면서 엄마와 같이 죽겠다고 소리쳤다. 간수들이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그 아이는 엄마의 목을 두 팔로 부둥켜안았다. 그 아이의 옷에 불이 붙고, 간수들은 불붙은 그 아이의 옷을 찢어내어 멀찍이 던져

버렸다. 아이는 여전히 빠져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제 세상에 자기 혼자 남게 되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엄마와 같이 죽게 해 달라고 애걸복걸했다. 두 여자 아이는 계속 소리 지르면서 버둥거렸다. 하지만 그런 소동은 가슴을 찢으며 연거푸 들려오는 단말마의 비명에 이내 묻히고 말았다. 왕은 미쳐 날뛰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기둥을 보았다가, 그만 고개를 돌린 채 잿빛이 된 얼굴을 담벼락에 문질렀다.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왕은 이렇게 뇌까렸다.

"짧은 순간이긴 했지만, 오늘 본 장면은 내 기억에서 평생토록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낮에는 두 눈에 보이고 밤에는 꿈으로 떠오르겠지. 내가 죽는 날까지 말이야. 내가 장님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헨든은 왕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고 있는 것 같군. 확실히 변했어. 전보다 많이 얌전해졌거든. 평소 같았으면 이 악당 녀석들한테 날벼락을 내렸겠지. 왕을 자처하면서, 해를 입히지 말고 여자들을 당장 풀어 주라고 호통을 쳤을 거야. 이제 착각에서 깨어나고 헛된 망상을 버리기만 하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겠지.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으련만!'

그날 여러 명의 죄수가 하룻밤만 묵기 위해 감방으로 왔다. 그들은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엄중한 감시 아래 나라의 이곳저곳으로 호송되고 있었다. 왕은 그 죄수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나중에 왕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어린 왕은 틈나는 대로 죄수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들의 불행한 이야기는 왕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다. 그 중 한 사람은 어리벙벙한 여자였다. 그 여자는 직조공한테서 옷감 한두 필을 훔쳤는데, 그 벌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자도 있었다. 그는 증

거가 없기 때문에 교수대에 오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왕은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왕의 사유림에서 사슴 한 마리를 죽였다고 고발당했고, 그 증거가 드러났으므로 그는 단두대로 향하는 길이었다. 상인 밑에서 일하던 견습생의 경우는 특히 왕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 견습생의 말로는, 어느 날 저녁 주인한테서 도망친 매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는 매를 집으로 가져갔다.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관은 그것을 훔쳤다고 주장하며 젊은이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왕은 이런 비인간적인 처사들에 분개하면서, 헨든에게 감옥을 부수고 나가 웨스트민스터로 가자고 요구했다. 그래야만 왕좌에 다시 올라 이 불행한 사람들을 자비로운 품 안에 거두어들이고 그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불쌍한 녀석! 이 끔찍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다시 병이 도졌군. 이런 불행한 사건만 아니었다면 상당히 좋아졌을 텐데.'

죄수 중에는 늙은 법관도 있었다. 그는 다부진 얼굴이었고, 하는 행동도 퍽이나 대범했다. 삼 년 전에 그는 대법관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다고 비난하는 글을 썼다가 대법관에게 밉보여 형틀에 두 귀를 잃고 관직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8천 파운드의 벌금형과 종신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얼마 전에 이 늙은 법관은 비슷한 공격을 또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나마 남아 있던 귀 밑동을 잘리고 벌금 5천 파운드를

물었으며, 두 뺨에 인두로 낙인이 찍힌 채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건 명예의 상처지."

하얗게 센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자 한때 귀가 붙어 있었던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왕은 분노하여 치를 떨면서 말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 그대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무래도 좋아. 앞으로 한 달 안에 나는 그대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대에게 불명예를 안겨 주고 이 나라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그 모든 법들도 이 나라의 법률집에서 싹 쓸어 낼 것이다. 세상은 지금 잘못되어 있다. 왕들도 가끔씩 자기 법으로 만들어진 학교에 가서 왜 자비심이 필요한지를 배워야만 해."[14]

28. 희생

마일스 헨든은 무기력하게 갇혀 지내는 신세가 너무나도 지긋지긋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일스 헨든의 재판 순서가 돌아왔다. 헨든은 만일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것만 아니라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졸지에 '날건달'로 낙인찍힌 마일스 헨든에게는, 남의 저택을 침입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두 시간 동안 형틀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언도가 내려졌다. 그 순간 헨든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우리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물려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마일스 헨든이오!"

이러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속임수로 몰려 비웃음과 함께 보기 좋게 묵살당하고 말았다.

헨든은 형틀로 끌려가면서 악에 받쳐 갖은 위협을 다 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법정모독죄를 저질렀다고 간수들에게 밉보여 주먹 세례까지 받았다.

왕은 뒤에서 벌어지는 시끌벅적한 소동을 엿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의 친구며 시종인 헨든을 남겨 놓은 채 앞 사람 뒤를 좇아갈 수밖에 없었다. 왕도 그런 못된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죄로 하마터면 형틀에 묶일 뻔했다. 하지만 어린 나이가 감안되어,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풀려나게 되었다. 군중이 행진을 멈추었다. 왕은 자신이 빠져 나갈 구멍이 없는지 눈을 부라리며 사람들 틈새를 휘휘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천신만고 끝에 구멍을 발견했다. 불쌍한 헨든은 야비한 무리의 조롱과 놀림을 받으면서 창피하게도 형틀에 묶여 있었다. 왕은 앞서 판결을 듣기는 했지만 그 벌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해진 이 새로운 모욕이 가슴을 후비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왕은 서서히 분노에 휩싸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달걀 하나가 허공을 날아와 헨든의 뺨을 정통으로 맞혔을 때는 참을 수 없는 치욕감에 몸을 떨었다. 군중들은 좋아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왕은 사람들 틈새로 비집고 나간 다음 책임을 맡은 관리에게 호통을 쳤다.

"무엄하다! 이 사람은 나의 시종이야! 어서 풀어 주어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아서요! 그러다가 몸만 상합니다. 간수, 저 아이는 미쳤으니 신경쓸 것 없소."

헨든이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간수가 빈정거리며 나섰다.

"내가 저 녀석한테 신경쓰든 안 쓰든, 그건 네놈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나는 속이 좁은 사람이라서 신경을 써야겠어. 저녀석 버릇을 이 참에 단단히 고쳐 주지."

"저 꼬맹이 녀석을 매로 한두 대 다스려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어라."

"정신을 차리려면 대여섯 대는 맞아야지!"

재판을 지켜보려고 방금 전에 말을 타고 나타난 휴는 한 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다.

왕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빠져 나오려고 버둥거려야겠다는 생각도 나지 않았다. 영국의 왕에게 그런 무도한 행위가 가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굳어 버렸다. 과거에도 채찍을 맞았던 왕이 한 사람 있기는 했다. 그 일 때문에 영국의 역사가 더럽혀졌다고 어린 왕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왕은 궁지에 빠져 있었다. 아무도 도와 줄 사람이 없었다. 그 벌을 감수하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빌어야 할 판이었다. 왕은 결국 매를 맞기로 결심했다. 맞을 수는 있어도, 빈다는 것은 왕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는 동안 마일스 헨든은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을 풀어 가고 있었다.

"그 아이를 풀어 줘라. 이 양심도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저렇게 약해 빠진 어린아이를 두고 무슨 수작들이냐! 그 아이를 당장 풀어줘라. 매는 내가 대신 맞겠다."

"저런, 기특한 생각을 하셨군! 고맙기도 하셔라."

휴는 비꼬는 투로 말하면서도 반색을 했다.

"저 거지 녀석을 풀어 주고, 대신 이 친구한테 그 두 배를 안겨 주어라. 봐줄 것 없이 열두 대를 있는 힘껏 갈겨야 한다."

왕은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휴의 으름장 앞에서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래, 얼마든지 떠들어라. 그래야만 네놈의 정신이 돌아올 수 있다면……. 단, 이것 한 가지만 알아 두라고. 네놈이 한마디 지껄일 때마다 저놈이 여섯 대씩 더 맞게 된다는 것을 말이야."

헨든은 곧 형틀에서 풀려나 등판을 훤히 드러내야 했다. 채찍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왕은 자신이 맞는 것보다 더 아파하며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왕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 마일스 헨든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가. 이 충성스러운 행동은 영원히 나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

코 잊지 않겠어! 네놈들도 절대로 잊지 않겠다!'

왕은 격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헨든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평가는 왕의 마음 속에서 시시각각 높아져만 갔고, 그럴수록 헨든에 대한 고마움도 커져만 갔다. 왕의 상념은 계속되었다.

'왕이 다쳤을 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 주는 것은 그 자체로 고결한 행동이지. 헨든은 이미 나에게 그것을 해 주었다. 하지만 왕을 치욕의 늪에서 건져 주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 아니, 누워서 떡 먹기 아니, 누워서 잠자기보다 쉬운 행동이다!'

헨든은 그 모진 매를 신음 소리 한번 내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 냈다. 아이 대신 매를 맞아 주는 용기도 용기려니와, 이런 꿋꿋함에 감동을 받았는지 주위에 몰려 있던 타락하고 야비한 무리들도 갑자기 숙연해졌다. 매를 다 맞은 헨든이 다시 형틀에 묶였을 때 장내에 감돈 숙연한 침묵은 방금 전의 야비한 환호성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왕은 조용히 헨든의 옆으로 다가가서 귓속말을 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그대의 위대한 정신을 감히 치하하지는 못할 것이네. 그대는 왕들의 위에 계신 하느님의 칭송을 이미 받았으니까."

왕은 땅바닥에서 채찍을 들더니 피범벅이 된 헨든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면서 소곤거렸다.

"나 에드워드 왕은 그대를 백작에 봉하노라!"

헨든은 가슴이 찡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주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진지해질 수가 없었다. 헨든은 자기 내면의 환희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알몸으로 형틀에 묶여 있다가 갑자기 아득히 높은 곳으로 번쩍 들어올려져서 백작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난 이제 번지르르한 옷을 걸쳤다. 꿈과 그림자 왕국의 유령 기사가 유령 백작이 되었으니 말이야! 아직 날개도 채 안 자란 애송이가 이런 꼭대기까지 날아올라 가려니까 머리가 빙빙 도는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싸구려 장식품과 가짜 훈장이 주렁주렁 매달린 오월 기둥 꼴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괜찮아. 가치 없는 것은 가치 없는 대로, 거기에 담긴 사랑의 숨결만을 느끼면 되니까. 자기 잇속만 따져서 마지못해 작위를 내리는 더러운 권력에 빌붙는 것보다는, 사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한테서 아무리 별볼일없는 가짜 작위일망정 차라리 그걸 받는 게 속 편하지.'

휴가 말에 올라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다가 박차를 가하며 사라질 때, 빙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질려 길을 터주었다. 그러고는 다시 모여들었다. 다들 조용히 있었다. 감히 죄수를 편드는 말을 하거나 죄수의 용기를 칭찬하는 사람

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죄수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헨든을 우러러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뒤늦게야 나타나서 조금 전의 장면을 지켜보지 못한 구경꾼 하나가 헨든에게 야유를 던지고 욕지거리를 퍼부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주먹으로 그를 치거나 발로 걷어찼다. 그리고 장내는 다시 깊은 침묵에 빠져들어 갔다.

29. 다시 런던으로

형틀에 묶여 있어야 하는 시간을 모두 채운 뒤에 헨든은 풀려났다. 그러고는 이 고장을 떠나되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칼도 노새도 당나귀도 모두 돌려받았다. 헨든이 먼저 나귀에 올랐고, 왕이 그 뒤를 따랐다. 사람들은 존경 어린 눈길로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말없이 길을 터 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헨든은 곧 생각에 빠져들었다. 시급히 답을 내려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믿고 기댈 만한 든든한 언덕을 어딘가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헨든은 자기의 유산을 포기하고 평생 사기꾼이라는 누명

을 벗어 던지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헨든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골치 아픈 문제였다. 이윽고 한 가지 가능성 있는 생각이 떠올랐다. 물론 아주 실낱 같은 가능성이기는 했지만,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그것에라도 매달려 보는 수밖에 없었다. 전에 앤드류스 영감이 했던 말 가운데 새로 등극한 왕이 짓눌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연민의 정을 느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기억난 것이다.

'어떻게든 그분을 찾아 뵙고 통사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그건 좋아. 하지만 이런 거지 같은 몰골로 왕을 찾아 뵈러 왔다고 하면 누가 들여보내 주기나 할까? 걱정할 것 없다. 어떻게 되겠지.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할 문제이고, 지금은 무조건 가 보는 거야.'

헨든은 전쟁터에서 온갖 일을 다 겪은 노련한 군인이었으므로, 임기응변에 능했다. 어떤 문제이든 일단 그것이 코앞에 닥치면 너끈히 해결할 자신이 있었다.

'그래, 일단 런던으로 가는 거다. 어쩌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분이신 험프리 말로 경이 도와 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야.'

헨든은 마음씨 좋은 험프리 경을 떠올렸다.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험프리 경은 돌아가신 왕의 주방인지 마구간인지 어쨌든 그런 곳을 책임맡은 시종이었다. 열의를 쏟아 부

을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지자, 헨든은 조금 전까지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굴욕감과 무기력증을 훌훌 털어 버릴 수 있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헨든은 벌써 이렇게까지 왔나 하고 깜짝 놀랐다. 두고 온 고향 마을이 아득히 멀어져 있었다. 왕은 고개를 숙인 채 뒤따라오고 있었다. 왕도 나름대로 앞으로의 일을 헤쳐 나갈 궁리를 하느라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이다. 모처럼 기운을 되찾은 헨든의 마음에 다시 불안의 먹구름이 끼었다.

'저 아이가 런던으로 다시 가려고 할까? 죽도록 얻어맞고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린 기억밖에 없는 그 런던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어쨌든 물어 보기는 해야지.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할 일은 아니야.'

헨든은 나귀를 멈춰 세우고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쭤 본다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런던으로!"

헨든은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그 대답에 만족했지만,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했다.

두 사람이 런던까지 가는 동안 이렇다 할 사건은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막판에 가서 결국 기억될 만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2월 19일 밤 열 시경, 두 사람은 런던교로 들어섰다. 고함을 지르거나 함성을 터뜨리는 사람들로 다리는 북새통을

이루었다. 갖가지 모양의 횃불 아래 드러난, 술이 거나하게 오른 사람들의 얼굴이 강한 인상을 주었다. 바로 그때, 고관대작을 지낸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썩어 문드러진 머리가 위에서 떨어져 헨든의 팔꿈치를 치고는 땅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 머리는 곧 사람들의 어지러운 발길에 휩쓸려 이리저리 채였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란 참으로 덧없고 헛된 것이었다. 왕이 살아 있을 때 사람들을 겁 주기 위해서, 한 고위층 관리에게 역모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걸어 그의 머리를 런던교 위에 매달아 두었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은 지 불과

삼 주, 땅에 묻힌 지는 겨우 사흘밖에 되지 않은 지금, 그 머리가 떨어진 것이다.

행인 한 사람이 땅에 뒹구는 머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앞서 걸어가던 사람의 등에 머리를 찧었다. 앞서 가던 사람은 홱 돌아서서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다. 그러자 얻어맞은 사람의 친구가 주먹질한 사람을 당장 덮쳤다. 바야흐로 난투극이 벌어질 판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 있게 될 왕의 즉위식을 축하하는 행사가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술판이 벌어져서 술기운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으니 다들 애국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오 분도 채 안 지나서 그 일대에서는 한바탕 난투극이 벌어졌다. 십여 분 뒤에는 그 규모가 훨씬 확대되어 폭동에 가까워졌다. 그때쯤 헨든과 왕은 시끄럽게 몰려다니며 난리를 피워 대는 무리에 휩쓸리는 바람에, 또다시 기약 없는 작별의 길로 들어섰다.

30. 달라진 톰

진짜 왕이 못 입고 못 먹으며 부랑자 패거리에게 희롱과 놀림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로부터 바보, 사기꾼 취급을 당하면서 방방곡곡을 떠도는 동안, 가짜 왕 톰 캔티는 아주 다른 경험을 즐기고 있었다.

톰은 왕이라는 자리가 가져다 주는 밝은 빛이 조금씩 눈앞에 나타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환해졌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것은 찬란한 햇살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 톰은 이제 무섭지가 않았다. 불안은 어느 새 꼬리를 감추었다. 당혹스러움도 이제는 가시고, 대신 느긋하고 당당한 행동거지가 몸에 배었다. 톰은 매맞는 아이의 머리에 들어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점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톰은 마음이 내키면 엘리자베스 공주와 제인 그레이를 불러 함께 놀거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싫증이 나면 그만 가 보라고 말했다. 마치 예전부터 자연스럽게 지내 왔던 사람처럼 되었다. 이제는 이렇게 신분이 높은 아가씨들이 방을 나갈 때 자기 손에다 입맞춤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다.

밤에 시종들이 온갖 격식을 차려 가면서 잠자리 시중을 들어 주는 것도, 아침에 복잡하고 엄숙한 의식을 통해 옷을 입혀 주는 것도 이제는 즐거울 따름이었다. 고관대작과 의장병을 잔뜩 거느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 행차하는 것도 뿌듯했다.

그래서 의장병 수를 과거의 두 배인 100명으로 늘렸다. 톰은 긴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그에 대한 응답으로 멀리서 들려오는 "폐하께서 납신다!"는 시종의 목소리가 듣기 좋았다.

톰은 추밀원 회의에도 즐겨 참석했고, 일단 옥좌에 오른 이상 섭정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 외국 사절단과 그들의 화려한 수행단을 맞이하기를 좋아했고, 자기를 '형제'라고 부르는 그 나라의 이름 높은 군주가 보낸 애정 어린 안부의 편지를 흐뭇한 마음으로 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펄 코트에서 뒹굴던 톰 캔티가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될 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화려한 옷을 좋아하는 톰의 욕심에는 한이 없었다. 왕으로서의 위신을 세우기에는 400명의 시종이 너무 적다면서 그 수를 세 배로 늘렸다. 앞에서 알랑거리는 신하들의 아첨이 톰의 귀에는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다. 물론 따뜻하고 너그러운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억눌리는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부당한 법을 없애기 위한 싸움 또한 집요하게 벌였다. 간혹 누구한테 공격을 받기라도 하면 상대가 백작이든 공작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매몰차게 몰아붙이는 면도 있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독한 성격이라서 다들 무서워하는 누이 메리 공주가, 옥에 가두거나 교수형에 처하거나 화형

에 처해야 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풀어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선왕이 살아 계셨을 때에는 감옥에 최대 6만 명의 죄인이 갇혀 있었던 적도 있고, 선왕이 재위하시는 동안 모두 7만2천 명의 도둑과 강도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분개한 톰은 당장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고는 하느님에게 기도했다.

"이 여자의 가슴에 박혀 있는 돌을 빼 내고 그 대신 사람의 심장을 넣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톰 캔티는 그동안 진짜 왕자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자기한테 그토록 친절을 베풀었고, 궁전 대문을 지키고 서 있던 병사의 건방진 행동을 꾸짖기 위해 바람처럼 달려나왔던 진짜 왕자 생각을 하면서 한 번도 가슴아파하지 않았을까? 물론 가슴아파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낮이고 밤이고 길 잃은 왕자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왕자가 하루빨리 돌아와서 타고난 권리와 영광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왕자가 나타나지 않자 톰의 마음은 새로 맛보게 된 근사한 체험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다. 그리고 길 잃은 왕자에 대한 기억도 머릿속에서 점점 지워져 갔다. 그러다가 아주 가끔 왕자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면, 톰은 왕자가 반갑지 않은 귀신처럼 여겨졌다. 왕자의 모습은 톰을 죄의식과 부끄러움으로 몰아넣었다.

불쌍한 엄마와 누이에 대해서도 톰은 비슷한 감정의 변화를

겪었다. 처음에는 식구들을 애타게 그리워했다. 무척이나 보고 싶었고,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식구들이 누더기 차림으로 나타나서 자기한테 입이라도 맞추면 졸지에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지긋지긋한 가난만이 기다리고 있는 빈민굴로 쫓겨 가는 신세가 될 터였다. 톰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고, 그래서 그런 골치아픈 생각은 안 하기로 했다. 톰은 스스로 그것이 만족스러웠다. 심지어는 기쁘기까지 했다. 가난과 슬픔에 찌든 가족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면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이었다.

2월 19일 자정, 톰 캔티는 궁전 안에서 몸종의 시중을 받으며 으리으리한 침대에 누웠다. 침대는 화려한 장식에 둘러싸여 눈이 다 어지러울 정도였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날이 밝으면 영국 왕의 즉위식이 성대하고 엄숙하게 거행될 예정이었다.

같은 시각, 진짜 왕 에드워드는 엉망이 된 옷자락을 질질 끌면서 허기와 갈증과 여독에 지쳐 군중들 틈새에 끼여 있었다. 그날 밤 난투극의 한복판에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차림새가 그렇게 되어 버렸고, 몸도 제법 지쳐 있었던 것이다. 군중들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을 개미처럼 부지런히 들락거리는 일꾼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일꾼들은 왕의 대관식을 위한 마지막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31. 축하 행진

다음 날 아침, 톰 캔티가 눈을 뜨자 우레와 같은 소음이 온 누리를 진동하고 있었다. 사방팔방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온 나라가 새로운 왕을 맞이하기 위해 힘찬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뜻이었다.

얼마 안 가서 톰은 또 한 번 템스강 위에서 펼쳐지는 눈부신 행렬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예로부터 즉위하는 왕을 축하하기 위해 벌이는 행진은 런던탑에서부터 시작했다. 톰은 지금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런던탑에 도착하자 그 유서 깊은 요새의 양쪽 벽이 하루아침에 천 군데로 갈라진 것처럼 보였다. 참으로 장관이었다. 그 갈라진 틈새 하나하나에서 시뻘건 불꽃과 하얀 연기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어 고막을 찢는 듯한 폭발음이 군중

들의 함성을 묻어 버리며 대지를 뒤흔들었다. 불꽃과 연기와 폭발의 삼중주가 놀랄 만큼 기민한 속도로 잇따라 되풀이되면서 유서 깊은 탑은 자기가 뿜어낸 연기 속에 묻혀 모습을 감추었고 하얀 탑으로 불리는 높다란 깃대의 꼭대기만 간신히 눈에 보였다. 그 깃대는 깃발을 펄럭거리면서, 마치 산봉우리가 조각구름 위로 삐죽 솟아 있듯이 두터운 연기층을 뚫고 고고한 자태를 자랑했다.

화려한 옷을 입은 톰 캔티는 늠름한 군마에 올라탔다. 얼마나 호화롭게 장식을 했는지 마구가 땅에 거의 닿을 지경이었다. 삼촌인 섭정 서머셋 공작도 역시 늠름한 말을 타고 왕의 뒤를 따랐다. 왕실 수비대는 번쩍거리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양 옆에 일렬 종대로 늘어섰다. 섭정 뒤에는 저마다 부하를 거느린 귀족들의 화려한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 뒤로는 런던 시장과 부시장이 진홍색 우단 예복을 입고, 금사슬을 가슴에 두르고 뒤따랐다. 그리고 런던에 있는 각종 조합의 간부와 회원이 잔뜩 멋을 부리며, 자기 조합을 상징하는 화려한 깃발을 들고 그 뒤에 나타났다. 런던을 통과하는 왕을 특별히 경호하기 위한 '역사와 명예를 자랑하는 포병대'도 행렬에 끼여 있었다. 그 당시 벌써 3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이 조직은 영국에서 의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그 특권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을 가진 유일한 군사기구였다. 참으로 볼 만했다. 행렬이 빽빽이

운집한 군중들 속으로 들어서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펜처치 거리에서는 값비싼 옷을 입은 금발 아이가 무대에 올라 런던으로 들어오는 왕을 환영했다.

폐하를 환영합니다! 가슴에 담기 벅찬 무한한 애정으로,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입술에 담기 벅찬 무한한 애정으로,
폐하의 정겨운 말씀과 움츠러들지 않는 가슴을 환영합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폐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그 아이가 환영사를 낭송하자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러댔다. 그뿐 아니라 아이가 한 대목씩 읽어 나갈 때마다 모두들 일제히 따라했다. 톰 캔티는 저마다 간절한 희망을 품고 모여든 얼굴들로 물결치는 군중들을 멀리멀리 바라보았다. 가슴이 벅차 올랐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으로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왕이 되는 것, 한 나라의 우상이 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그때처럼 실감나게 와 닿은 적은 없었다. 얼마 뒤 톰은 오펄 코트 시절의 친구 두 명이 아득히 멀리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친구에게는 그때 가짜로 해군 총사령관이라는 벼슬을 내렸고, 또 한 친구에게는 침실 제일 비서관으로 임명했었다. 톰의 자부심은 이제 하늘을 찌를 듯했다.

'저 애들이 내가 톰이란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랄까! 저 애들이 나를 알아보면, 빈민굴과 뒷골목에서 놀림만 받던 가짜 왕이 이름 높은 귀족들을 머슴처럼 부리고 영국 전체를 자기 발 아래 두는 진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아마 까무러칠 거야!'

하지만 톰은 감정을 자제해야만 했다. 친구들이 자기를 알아보면 톰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았다. 그래서 고개를 돌렸다. 때에 절은 두 아이는 자기들이 열렬히 떠받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까맣게 모른 채 고함을 지르고 아첨을 떨면서 톰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따금씩 "자비를! 자비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톰은 반짝거리는 외국 동전을 한 움큼 집어서 사람들에게 뿌렸고, 그러면 너도나도 동전을 줍느라 야단이었다.

이 진기하고 화려한 구경거리는 사람들의 넋을 빼놓다시피 했고, 왕을 찬양하는 시를 읊은 아이의 작은 목소리는 그들이 내지르는 함성에 완전히 파묻혀 버렸다. 하지만 톰 캔티는 불만스럽지 않았다. 수준을 따지기에 앞서, 톰의 귀에는 충성을 다짐하는 이 함성이 그 어떤 시보다도 달콤한 음악으로 들렸던 것이다. 톰이 환희에 찬 얼굴을 이리저리 돌릴 때마다 백성들은 그레이스처치 거리에 있는 에드워드 6세의 모형물과 똑같은 왕의 모습을 알아보았고, 그때마다 새로운 박수 갈채가 터졌다.

거대한 행렬은 그레이스처치 거리에 있는 장중한 아치를 잇따라 통과하고, 어린 왕의 덕성이나 재주, 공훈 등을 상징적으로 웅장하게 나타낸 그림 앞을 지나갔다. 행렬은 쉬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했다. 칩사이드 거리를 지날 때에는 왕의 행렬을 환영하는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엿보였다. 칩사이드 거리를 따라서 죽 늘어선 집들은 옥상마다 창문마다 깃발과 장식 리본을 내걸어 놓았다. 또 화려한 카페트와 옷감, 금실을 짜 넣은 천들이 거리를 수놓았다. 그것들은 물건이 가득 쌓인 점포에서 내건 견본이었다. 칩사이드 거리의 화려함은 어느 거리와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 모두를 능가하는 면도 있었다.

"이 모든 장관과 이 모든 경이가 오로지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니!"

톰 캔티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가짜 왕의 뺨은 상기되었고, 눈에서는 광채가 났다. 온몸의 감각이 말할 수 없는 환희로 부풀어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동전을 뿌리기 위해 또다시 한 손을 쳐드는 순간, 길가에 늘어선 군중들의 두 번째 줄에서 놀라움에 질린 파리한 얼굴 하나가 목을 길게 빼고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톰의 엄마였다. 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얼른 손을 들어 두 눈을 가렸다. 손바닥이 바깥으로 와 있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사람들 틈에서 빠져 나오더니 수비병까지 밀어 내고 톰의 옆으로 왔다. 그녀는

톰의 다리를 부둥켜안더니 다리에다 연방 입맞춤을 하면서 울부짖었다.

"아, 내 새끼. 내 아기!"

톰의 엄마는 기쁨과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찬 얼굴을 들어 톰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수비대의 한 장교가 욕설을 퍼부으며 그녀의 몸을 와락 붙잡더니 완강한 팔 힘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밀어넣었다.

"나는 부인을 모르오!"

이 서글픈 장면을 보면서 톰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구박당하는 엄마의 모습이 비수처럼 톰의 가슴을 찔렀다. 톰은 마지막으로 이쪽을 돌아보는 엄마의 얼굴에서 쓰라린 아픔을 언뜻 본 것 같았다. 갑자기 부끄러움 때움에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톰의 자부심은 잿더미로 변했다. 훔쳐서 얻은 왕좌는 그 빛을 잃어버렸다. 부질없는 영광이었다. 썩은 넝마 조각처럼 그 영광은 톰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행렬은 아직도 끝날 줄을 몰랐다. 화려함은 그 도를 더해 갔고, 환영의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졌다. 하지만 톰 캔티의 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톰의 눈과 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이 방금 전처럼 자랑스럽지도 않고 뿌듯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허영이 치욕스럽기만 했다. 자책감이 톰의 마음을 도려냈다.

"아, 다시 자유의 몸이 되고 싶다!"

톰은 원치 않는 왕자가 되었을 때 자기가 했던 말을 무의식중에 다시 내뱉었다.

눈부신 행렬은 런던 시민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유서 깊은 런던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비늘을 반짝이며 끝없이 기어가는 뱀처럼 그렇게 하염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지만 왕은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말이 가는 대로 갈 뿐이었다. 눈동자에는 이미 초점이 없었다. 엄마의 얼굴과 그 고통스러워하던 표정만이 눈앞에 어른거릴 뿐이었다.

"자비를! 자비를!"

누군가 고함을 질렀지만 톰의 정신은 다른 데에 가 있었다.

"에드워드 왕 만세!"

지축을 뒤흔들 듯 요란한 함성이 터졌지만 가짜 왕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톰의 귀에는 지금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아련히 들릴 뿐이었다. 그보다 훨씬 가까이, 자기의 가슴 속에서 양심을 질타하는 소리만이 귓전을 때리고 있었으므로 그런 함성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나는 부인을 모르오!"

톰의 귓전에는 이 소리만이 맴돌고 있었다.

그 말은 장례 미사에 참석한 친구가 종 소리를 들으면서, 죽은 친구를 남몰래 배신하여 고통을 안겨 주었던 기억을 떠올릴 때의 괴로운 심정처럼 톰의 마음을 후비고 들었다.

행렬이 모퉁이를 돌아갈 때마다 새로운 장관이 펼쳐졌다. 새로운 경이, 새로운 기적이 속속 튀어나왔다.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축포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그때마다 기다리던 군중의 입에서 새로운 환희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왕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가슴을 후비고 드는 양심의 목소리가 톰이 듣는 소리의 전부였다.

한없이 밝았던 군중의 얼굴에도 드디어 변화가 나타났다. 염려와 불안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환영의 함성도 눈에 띄게 그 소리가 약해졌다. 서머셋 공작은 재빨리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다. 그리고 금세 원인도 알아차렸다. 그는 왕 옆으로 말을 몰고 가서, 말에 오른 자세에서 모자를 벗은 뒤 허리를 숙이고 넌지시 말했다.

"폐하, 지금은 공상의 나래를 펼치실 때가 아닙니다. 폐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기운 없는 모습을 보이시면 백성들은 불길한 예감에 젖습니다. 부디 통촉하소서. 태양 같은 왕의 기개를 펼쳐 보이시어, 그 찬란한 햇살로 불길함의 안개를 흩어 놓으소서. 고개를 들고 백성들에게 웃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공작은 한 움큼의 동전을 좌우로 흩뿌린 다음,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가짜 왕은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섭정이 시킨대로 했다. 웃음에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가까이에서 왕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또 가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

까지 알아차릴 만큼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백성들의 환호에 답하는 왕의 모습은 위엄과 자비가 넘쳐흘렀다. 왕은 아낌없이 동전을 듬뿍듬뿍 집어 뿌렸다. 그러자 백성들의 불안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다시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렬이 종착지에 도달하기 조금 전에 공작은 다시 한 번 왕의 곁으로 달려와서 충고를 해야만 했다.

"폐하, 제발 얼굴을 좀 펴세요! 온 세상 사람의 눈이 폐하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러고는 괘씸하다는 듯이 언성을 높이며 덧붙였다.

"그 미친 거지를 잡아들이겠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폐하의

마음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가짜 왕은 생기 잃은 눈으로 공작을 바라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는 나의 엄마였네!"

"맙소사!"

말을 몰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서 섭정은 탄식을 토했다.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구나. 폐하께서 또다시 미치셨어!"

32. 대관식 날

칠흑 같은 밤인데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성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대관식이 시작되려면 일고여덟 시간은 기다려야 했지만, 평생에 한 번 볼까말까 한 왕의 대관식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은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모여 앉아 있었다. 새벽 세 시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축포가 울려 퍼진 이후로 확실히 런던과 웨스트민스터는 들썩거리고 있었다. 귀족은 아니었지만 돈을 주고 싸구려 관람석에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산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마련된 입구로 꾸역꾸역 몰려들고 있었다.

시간은 한없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이제는 소란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앉을 사람은 벌써 다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대성당의 내부는 어슴푸레했다. 수많은 일반석과

특별석이 있었지만 기둥과 실내 구조물이 시야를 막아 정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어쨌든 거기에는 빈 자리가 하나도 없었다. 높은 사람들이 앉게 되는 북쪽 공간은 아직 텅 비어 있었다. 널찍한 단상에는 값비싼 양탄자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옥좌가 마련되어 있었다. 단상 한복판에 놓은 옥좌는 다시 네 개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옥좌에는 납작하고 거친 돌이 방석처럼 놓여 있었는데, 이것을 '스쿤 돌'이라고 불렀다. 스쿤 돌은 역대 스코틀랜드 왕들이 대관식 때 걸터앉았던 돌이었는데, 나중에 영국 왕들도 비슷한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만큼 성스러운 돌이었고, 옥좌와 발판은 모두 금실 천으로 덮여 있었다.

횃불은 나른하게 깜빡거리고, 사위는 쥐죽은 듯 고요했다. 얼마 후, 드디어 느림보 햇살이 기지개를 켰다. 횃불이 꺼졌다. 부드러운 햇발이 드넓은 공간을 뒤덮었다. 거대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구석구석이 이제 또렷하게 보였지만 어딘가 꿈결처럼 몽롱했다. 구름이 약간 끼어 해를 가리고 있었다.

이런 나른하고 단조로운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침 일곱 시였다. 일곱 시를 알리는 종 소리가 들리자 있는 대로 멋을 부린 귀부인 한 사람이 맨 먼저 북쪽 공간에 들어섰다. 공단과 우단으로 된 제복 차림의 관리가 부인을 안내하고, 또 다른 관리가 그 부인의 길다란 옷자락을 들고 뒤

를 따라갔다. 부인이 자리에 앉자 관리는 옷자락을 부인의 무릎 위에 얹어 주었다. 그런 다음 나중에 귀부인들이 장식용 머리관을 한꺼번에 얹어야 할 시간이 왔을 때 편히 얹을 수 있도록, 가까운 자리에 장식용 머리관을 두었다.

서서히 귀부인들이 화려한 옷맵시를 자랑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우단 옷을 입은 관리들은 사방을 휘젓고 다니면서 부인들을 자리로 안내하고, 뒷시중을 들었다. 이제 성당에는 활기가 감돌았다. 무언가 살아 꿈틀대는 것 같았다. 이 빛깔에서 저 빛깔로, 끝없이 바뀌는 색채의 향연이 펼쳐진 것이다. 어느덧 침묵이 다시 감돌았다. 귀부인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알록달록한 사람의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들판,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은하수를 연상시켰다. 나이들도 천차만별이었다.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이 쭈글쭈글한 노부인은 시간을 한참 거꾸로 올라가서 리처드 3세가 왕위에 오르던 날과 지금은 잊혀진 그 힘겨웠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풍채가 좋은 중년 부인도, 기품과 매력을 두루 갖춘 젊은 부인도 있었다. 그리고 얌전하고 어여쁜 아가씨들도 있었다. 또랑또랑한 눈망울을 굴리는 앳된 아가씨들이 나중에 엄숙한 시간이 왔을 때 보석이 박힌 장식관을 제대로 쓰기나 할지,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생각도 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신호가 떨어지면 곧바로 관을 머리에 잘 얹어 놓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정성들여 머리를 매만져

놓았으므로 안심할 수 있었다.

귀부인들이 이렇게 줄지어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좍 뿌려 놓은 것처럼 아름다웠다. 참으로 볼 만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정작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은 그 다음에 펼쳐졌다. 아홉 시가 되자, 돌연 구름이 걷히고 한 줄기 햇살이 나른한 분위기를 깨뜨리며 부인들의 줄을 따라 서서히 움직였다. 한 줄, 또 한 줄, 햇살은 불꽃을 건드려서 현란한 빛깔로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다. 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손끝이 지릿지릿한 전율감을 맛보았다. 이윽고 동방의 먼 나라에서 온 특별 사절이 한 무리의 외국 대사들과 함께 걸어 나와 햇빛의 긴 막대를 가로질러 갔다. 그 외국 사절 주변으로 감도는 영광된 분위기는 보는 이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렁주렁 보석을 매달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사방팔방으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우렁찬 축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것은 왕의 장대한 행렬이 마침내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었다.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엄숙한 의식을 거행하려면 다시 왕이 옷을 입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들 좀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화려한 복장을 한 의원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정도의 지루함은 얼마든지 달랠 수 있었다. 의원들은 자기 자리로 안내를 받았고, 장식

관도 알맞은 위치에 놓여졌다. 일반석을 메운 군중들은 부쩍 호기심이 생기는 모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500년 전부터 말로만 전해져 오던 공작, 백작, 남작의 실물을 대부분 처음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귀족들이 모두 자리에 앉음으로써 이제 볼 만한 그림은 완성되었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뇌리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이제 길다란 예복을 입고 주교관을 쓴 교회의 높은 성직자들과 그들의 수행원이 줄지어 단상 위로 올라가서,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그 뒤로 갑옷으로 무장한 수비대의 엄중한 경호를 받으면서, 서머셋 공작을 비롯하여 다른 고위 관리들이 나타났다.

잠시 기다림의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우렁찬 나팔 소리를 신호로, 금실 천으로 만든 길다란 예복을 입은 톰 캔티가 문에 나타나서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왕에게 경의를 표했다.

거룩한 송가가 풍성한 가락을 펼치면서 성당 안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톰 캔티는 왕좌로 안내되었다. 유서 깊은 의식들이 아주 엄숙하게 거행되는 것을 방청객들은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의식들이 막바지를 향해 치달을수록 톰 캔티의 얼굴은 점점 파리해졌다. 깊어 가는 비애와 무력감이 그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고, 후회로 얼룩진 가슴을 조여들게 만들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인 캔터베리 대주교가 방석 위에 놓여 있던 영국 왕의 관을 집어 들었다. 그런 다음 덜덜 떨고 있는 가짜 왕의 머리 위로 관을 들어올렸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무지갯빛 광채가 북쪽 공간을 휘황찬란하게 물들였다. 귀족들이 일제히 관을 머리 위로 올리고 그런 자세로 가만히 있었다.

성당 안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런 감동적인 순간에 난데없는 불청객이 나타났다. 대관식 장면에 넋을 빼앗기고 있던 군중들은 다들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커다란 중앙 복도를 따라 누군가 불쑥 튀어나왔을 때에야 불청객을 알아보았다. 모자를 쓰지 않고, 구멍이 숭숭 뚫린 신발을 신고, 넝마가 되기 일보 직전의 조잡한 평민복을 입은 남자 아이였다. 그 아이는 땟국에 절은 초라한 몰골과는 어울리지 않게, 엄숙하게 한 손을 들면서 경고의 말을 던졌다.

"왕의 자격이 없는 그 자의 머리에 왕관을 얹는 것을 금지한다! 왕은 바로 나다!"

분개한 여러 개의 손이 아이를 잡았다. 그 순간 왕복을 입은 톰 캔티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서 고함을 질렀다.

"그 손 놓아라! 그분이 왕이시다!"

일종의 경악이 장내를 휩쓸었다. 군데군데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거나 단상의 인물들을 쳐다보았다. 자기들의 정신이 말짱하게 깨어 있는지

아니면 꿈결을 헤매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다. 섭정도 놀라기는 미찬가지였다. 하지만 재빨리 냉정을 되찾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폐하께서 하신 말을 귀담아듣지 말거라. 다시 병이 도지셨으니까. 저 부랑아를 빨리 붙잡아라!"

수비병들이 그의 말을 실행에 옮기려는 순간, 가짜 왕이 발을 쿵 구르면서 언성을 높였다.

"목숨이 아깝지 않거든 마음대로 해라! 저분을 건드리면 안 돼! 저분은 왕이시다!"

수비병들의 손이 멈칫했다. 성당 전체가 마비된 것 같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게 어처구니없고 기막힌 상황에서는 무슨 행동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얼른 판단이 안 서는 것도 당연했다. 모두들 어지러운 머리를 바로잡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초라해 보이는 남자 아이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당당한 태도로 자신 있게 앞으로 걸어 나갔다. 처음부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이다. 아직도 혼란에 휩싸여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본체만체하면서 남자 아이는 단상으로 올라섰다. 가짜 왕은 얼른 달려가 반색을 하며 왕을 맞이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서 말했다.

"폐하, 황공하오나 이 미천한 톰 캔티는 가장 먼저 폐하께 충성을 맹세하고, 왕관을 쓰신 다음 옥좌에 오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섭정의 험악한 눈초리가 불청객의 얼굴에 가서 꽂혔다. 하지만 험악한 빛은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아니, 이럴 수가!"

섭정은 놀라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다른 관리들도 비슷한 감정의 변화를 겪었다. 그들은 서로 멀뚱멀뚱 얼굴만 바라보다가 약속이나 한 듯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쳤다. 그들의 마음 속에 떠오른 생각은 오직 하나,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것이었다.

섭정은 난감한 얼굴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윽고 공손하게 입을 열었다.

"괜찮다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시오! 대답할 테니."

섭정은 남자 아이에게 궁정과 돌아가신 왕, 공주들에 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남자 아이는 망설임 없이 정확한 답변을 했다. 의식을 치르는 커다란 홀, 돌아가신 왕이 쓰던 방들, 왕자 자신이 쓰던 방들을 정확히 묘사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야. 살다살다 별일을 다 보네! 이건 말이 안 돼."

소년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뇌까렸다. 형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톰 캔티의 희망도 점점 커져만 갔다. 그때 섭정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희한한 사실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폐하께서도 그 정도

는 알고 계신다."

이 말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아직도 폐하라고 부른다는 사실 때문에 톰 캔티는 우울해졌다. 희망이 발밑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소."

섭정이 덧붙였다.

형세는 아주 빠르게 뒤바뀌고 있었다. 톰을 다시 옥좌에 걸터앉히고, 불청객으로 나타난 아이를 멀찍이 몰아 내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섭정은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래도 떨쳐 내기 어려운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중요한 수수께끼를 이대로 풀지 않고 놓아 둔다는 것은 나라와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두 동강나고 왕조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일이야.'

섭정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토머스 경, 이 아이를 체포하게. 아니, 잠깐!"

섭정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누더기를 걸친 아이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큰 옥새가 어디 있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수수께끼는 풀린다. 왜냐하면 왕자님만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거든. 자그마한 물건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왕위와 왕조의 운명이 걸려 있다!"

그것은 참으로 기발한 생각이었다. 다른 관리들도 그런 생

각을 하고 있었음을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만족스러운 눈짓에서 보여 주고 있었다.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다들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었다.

'그렇지, 진짜 왕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비밀, 사라진 옥새의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어. 저 꼬마 사기꾼 녀석이 누구한테 주워들은 지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왕실에 대해 다 아는 척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어려울 거다. 저 녀석에게 정보를 준 친구가 아무리 왕실 내부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알고 있을 수는 없지. 기발해, 아주 기발해! 이제 이 골치 아프고 위험한 문제를 거뜬히 해결할 수 있겠군!'

다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에 안 보이게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 맹랑한 거지 녀석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모두들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지 아이는 조금도 당황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곧바로 대꾸했다.

"수수께끼치고는 너무 쉬운걸."

그러고는 휙 돌아서서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세인트 존 경, 궁전 안에 있는 내 작은 방으로 가서 바닥을 잘 살펴보시오. 그곳은 당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말이오.

곁방으로 통하는 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모퉁이를 보면 놋쇠 못대가리가 하나 있을 거요. 그걸 누르면 당신도 모르는 작은 보석장이 휙 하고 열릴 것이오. 그 보석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위해 특별히 그것을 만들어 준 가구공과 나, 단 둘뿐이지. 그 장 안을 보면 옥새가 있을 테니 그걸 가져오시오."

모두들 어안이벙벙했다. 어디서 무얼 하다 왔는지 모를 거지 아이가 전혀 망설이는 빛 없이 확신에 찬 어조로 한 귀족을 지목하여, 아주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던 것처럼 차분한 음성으로 이름을 부르는 데는 말문이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 세인트 존 경은 하마터면 그 명령에 따를 뻔했다. 그는 가려고 막 나서려다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되찾았지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는 얼굴이 벌개졌다. 발끈한 톰 캔티가 호통을 쳤다.

"왜 꾸물거리는 거요? 폐하의 분부가 들리지 않소? 어서 가시오!"

세인트 존 경은 절을 깊숙이 했지만 그 동작은 신중하고도 아주 모호했다. 두 왕 가운데 어느 한쪽에다 못박고서 한 절이 아니라 두 사람의 중간쯤에다 어중간하게 한 절이었다. 세인트 존 경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금 전까지 화려한 옷차림의 귀족들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며 모여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서서히, 그렇지만 고집스럽게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

주 느릿느릿 돌아가는 요술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의 그런 움직임이라고나 할까. 덩어리를 이루었던 하나하나의 입자가 떨어져 나오면서 또 하나의 덩어리로 모여들고 있었던 것이다. 톰 캔티 주변에 모여 섰던 사람들은 어느 새 낯선 불청객 주위로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었다. 톰 캔티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 불과 몇 명밖에 안 되었다. 조바심과 긴장감이 잠시 사람들을 휘감았다. 그 바람에, 그나마 톰 캔티 옆에 붙어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서 다수가 있는 쪽으로 옮겨 가기 시작했다. 결국 왕의 옷을 입고 주렁주렁 보석을 매단 톰 캔티는 동그마니 혼자 서 있게 되었다.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 버린 셈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롭게 서 있다니, 확실히 이채로운 모습이었다.

얼마 뒤 세인트 존 경이 돌아왔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온통 그에게만 쏠려 있었다. 커다란 강당 안에 떠돌던 웅성거림도 완전히 잦아들고, 깊은 정적이 감돌았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 속에 세인트 존 경의 발자국 소리만 단조롭고 지루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선이란 시선은 온통 그의 움직임에 가서 박혀 있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잠시 머뭇거리더니, 톰 캔티에게 가서 꾸벅 절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폐하, 옥새는 그곳에 없습니다!"

귀족들은 자기들 앞에 왕을 자처하고 나선 꾀죄죄한 옷차림의 남자 아이로부터 기겁을 하고 흩어졌다. 얼마 뒤 거지 아

이는 외톨이가 되었다. 친구는커녕 동조해 주는 사람 하나 없었고, 다만 견디기 힘든 멸시와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 섭정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저 거지 녀석을 당장 거리로 내쫓아 혼구멍을 내 주어라! 저런 잡놈은 인정사정 봐 줄 필요가 없어!"

수비병들이 그 명령에 따르기 위해 앞으로 달려나왔다. 하지만 톰 캔티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물러서라! 저분을 건드렸다가는 네놈들 목숨이 성치 않으리라!"

섭정은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다. 그래서 세인트 존 경에게 물었다.

"잘 찾아보았나? 하긴 물어 보나마나 한 질문이지만,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눈에 잘 안 띄는 작고 사소한 물건이라면 그것이 없어졌다고해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옥쇄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아무도 찾지를 못 하고 있으니 순금으로 된 그 커다란 원반을……."

"잠깐! 이제 알겠어. 그게 두껍고 둥근 거였나? 그 위에 글씨와 무슨 무늬가 새겨져 있고? 맞아! 아, 그렇게들 없어졌다고 수군거리고 호들갑을 떨어 대던 물건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진작에 나한테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설명해 주었더라면 삼 주 전에 찾았겠지. 그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하지만 그걸 처음에 그 자리에 둔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럼 누굽니까, 폐하?"

섭정이 물었다.

"저기 계신 저분…… 영국의 어엿한 왕이신 분, 저분께서 그 물건이 있는 곳을 말씀하시면, 그대들은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저분 스스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납득하게 될 거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폐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폐하께서 저의 누더기 옷을 걸치신 채 저를 모욕한 병사를 혼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지셨던 그 물건이옵니다."

침묵이 감돌았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들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불청객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이마를 찡그리며, 머릿속을 떠도는 그 무수히 많은 자질구레한 기억 중에서 잡힐 듯 말 듯한 기억 하나를 끄집어 내느라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 왕좌에 오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평생을 거지로, 부랑아로 떠돌아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한 순간, 또 한 순간, 시간은 흘러갔다. 불청객은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며, 떨리는 입술로 잔뜩 풀이 죽어 말했다.

"그때 그 장면을 아무리 떠올려 봐도, 옥새는 생각나지 않는구나."

거지 아이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고개를 들고 다시 위엄 있게 말했다.

"내가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정 나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가겠다면 이대로 초라하게 머물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아, 말도 안 됩니다, 폐하!"

톰 캔티가 다급하게 말했다.

"기다리세요! 생각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서도 안 되고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한 마디도 흘려 듣지 마시라고요. 그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화를 나누었지요. 제 누이 낸과 벳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기억하시나 보군요. 그리고 제 할머니 이야기도 했고요. 저희 동네 아이들이 하는 놀이도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 생각나실 겁니다. 폐하께서는 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시종들에게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제가 혹시 주눅이라도 들까 봐 배려하신 거지요…… 기억하시겠지요?"

톰이 미주알고주알 주워 대고 낯선 아이가 연방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청중과 귀족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진짜처럼 들렸다. 하지만 왕자와 거지 소년이 그런 식으로 인연을 맺는다는 게 도대체 있을 법이나 한 일인가? 그렇게 당혹스러우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람을 얼빠지게 만드는 장면은 또 없었을 것이다.

"장난 삼아서 우리는 옷을 바꿔 입었지요. 그러고는 거울 앞에 섰어요. 생김새가 너무나 비슷해서 마치 옷을 바꿔 입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지요? 그러다가 왕자님께서는 병사가 제 손에 입힌 상처를 보셨습니다. 보세요! 여기 있지요? 아직도 저는 이 손으로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손가락이 당겨서 영 말을 듣지 않아요. 그걸 보신 왕자님께서는 노발대발하시며 그 병사를 당장 요절내야겠다고 궁전 문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때 탁자를 지나치셨는데, 그 탁자 위에 왕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옥새라는 물건이 있었어요. 왕자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뚫어지게 바라보셨어요. 마치 어디다 숨겨

야 할지 고민하는 분처럼요…… 그러다가 어디를 보셨는가 하면……."

"그래, 됐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왕을 자처한 아이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세인트 존, 어서 가 보게. 벽에 걸려 있는 밀라노 갑옷의 팔 부분에 옥새가 들어 있다!"

"맞습니다, 폐하! 맞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폐하의 것입니다. 모두가 폐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입니다. 가시오, 세인트 존 경. 꽁무니가 닳도록 어서 가요!"

사람들이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불안과 두려움과 조바심 때문에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사람들이 저마다 지껄이기 시작하는 바람에 단상 위에도 단상 밑에서도 너무나 시끄러워서 귀가 다 멍멍할 정도였다.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은 또 자기 옆 사람한테, 열심히들 목청을 돋워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또 사실 아무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다.

어느 새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돌연 장내가 조용해졌다. 때를 같이하여 세인트 존 경이 옥새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 순간 일제히 터지는 함성으로 장내가 떠나갈 듯했다.

"진짜 왕 만세!"

청중들의 함성과 요란한 악기 소리가 무려 오 분 가까이 이어졌다. 저마다 손수건을 흔들어 대는 바람에 장내는 온통 하얗게 뒤덮였다. 그 사이로, 이제 영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된 남루한 옷차림의 남자 아이가 긍지와 행복감에 젖어 상기된 얼굴로 널찍한 단상 한복판에 서 있었다. 내로라 하는 왕국의 거물들이 모두 그 밑에 엎드려 있었다.

모두들 다시 일어섰고, 톰 캔티가 큰 소리로 말했다.

"폐하, 이제 이 옷을 받으소서. 그리고 소인이 입어야 할 넝마 조각을 돌려 주십시오."

그때 섭정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저 맹랑한 녀석의 옷을 벗겨서 탑에 가두어라."

그러자 새 왕, 그러니까 진짜 왕이 끼어들었다.

"안 됩니다. 저 친구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왕위를 되찾지 못했을 것이오. 아무도 저 아이를 건드려서는 안 되오. 그리고 섭정인 나의 삼촌, 지금 당신이 이 불쌍한 아이에게 하는 행동은 과히 보기가 좋지 않구려. 내가 듣기로는, 이 아이가 그대에게 공작 자리를 주었다던데, 어찌 그리 배은망덕하시오?"

섭정의 얼굴이 벌개졌다.

"이 아이는 왕이 아니었으니까, 당신의 알량한 공작 작위도 도로아미타불이지. 내일 이 아이를 거쳐서 나에게 정식으로 승인 요청을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공작이 아니라 백작으로 남아야 할 거요."

핀잔을 들은 서머셋 공작은 뒤로 주춤 물러섰다. 왕은 톰에게로 돌아서서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얘야, 나도 기억 못 하는 일인데 내가 옥새를 둔 곳을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그야, 어려울 것 없지요. 제가 여러 날 그걸 썼거든요."

"썼다고? 그런데도 신하들에게 그게 있는 곳을 알려 주지 않았단 말이냐?"

"사람들이 찾는 게 그 물건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러저러하게 생겼다고 저한테 말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걸 어디다 썼지?"

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이 없었다.

"어서 말해 보아라. 두려워할 것 없다. 영국 왕의 옥새를 무슨 일에 사용했지?"

왕이 다시 캐물었다.

톰은 죽을 상을 지으며 더듬거리다가 기어이 토해 내고 말았다.

"호두 까는 데 썼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바람에, 톰은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톰 캔티가 영국 왕이 아니고 왕실에 있는 물건의 쓰임새에 어둡다는 사실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톰의 이 대답으로 그런 의심을

말끔히 씻어 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호화스러운 왕의 옷은 톰의 어깨로부터 왕의 어깨로 넘겨졌다. 왕이 걸치고 있던 누더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대관식은 계속되었다. 진짜 왕은 신성한 의식을 치르고 머리 위에 왕관을 썼다. 축포는 그 소식을 온 런던에 알렸고, 모든 런던 시민들은 세상이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33. 에드워드 왕

런던교의 아수라장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마일스 헨든은 딱할 대로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서 빠져 나왔을 때는 형편이 더욱 말이 아니었다. 들어갈 때는 그나마 쥐꼬리만큼이라도 돈이 있었지만, 나왔을 때는 빈털터리 신세였다. 소매치기한테 마지막 한 푼까지 몽땅 털린 탓이었다.

그래도 아이를 찾아 나섰다.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마일스 헨든은 무슨 일이든 엄벙덤벙 처리하지 않고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움직이는 버릇이 몸에 익어 있었다.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먼저 어디로 가려고 할까? 아마…… 전에 자주 드나들던 곳으로 발길이 옮겨질 거야. 정신이 온전한 사람도 집을 잃거나 의지할

데가 없어지면 그렇게 하게 마련인데, 하물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나. 전에 그 아이가 자주 드나들던 곳이 어디일까?'

아이의 남루한 옷차림과 심지어는 아버지라고까지 우기면서 그 아이 뒤를 쫓아다니던 그 악당 녀석의 무식한 행동거지로 보아 런던에서도 최고로 가난하고 못사는 동네에 그 아이 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아이를 찾는 일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골치 아픈 일이 되지는 않을까? 아니지, 금세 끝나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야. 그 아이를 찾는 게 아니라 우글우글 몰려 있는 패거리만 찾아 나서면 되니까."

마일스 헨든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크건 작건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선 한복판에서 그 아이를 찾아 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또다시 왕을 자처하고 나선 그 아이를 지저분한 어중이떠중이 녀석들이 가만히 놓아 둘 리가 없었다. 좋아라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 것이었다. 마일스 헨든은 그때 쓱 나타나서 몇 녀석을 요절내고 아이를 구출할 작정이었다. 애정이 담긴 말로 아이를 위로하며 기운을 북돋워 주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을 참이었다.

그렇게 마일스 헨든의 사람 찾기가 시작되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마일스 헨든은 군중과 패거리를 찾아 뒷골

목과 지저분한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거리는 사람들로 미어터지고 있었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마일스 헨든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가 꺾이지는 않았다. 자기가 애당초 세운 행동 계획에는 잘못이 전혀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유일하게 빗나간 계산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번 작전이 금세 끝나리라고 예상한 점이었다.

마일스 헨든은 날이 완전히 밝은 뒤에도 한참을 더 쏘다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패거리를 지나쳤는지 모른다. 그래 보아야 남은 것은 피로와 허기와 졸음뿐이었다. 피로는 그런 대로 참을 만했다. 허기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자고 싶다는 생각만큼은 너무도 간절했다. 아침을 먹고 싶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밥을 달라고 사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칼을 전당포에 맡긴다는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명예심과는 조만간 영영 이별을 해야 했다. 남는 옷이 몇 벌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런 옷을 팔겠다고 나섰다가는 정신병자 취급을 당할 게 뻔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마일스 헨든은 여전히 길을 헤매고 다녔다. 이제 마일스 헨든은 왕의 행렬 꽁무니를 쫓아가는 패거리 틈에 섞여 있었다. 그 미친 아이는 틀림없이 이 행사를 쫓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마일스 헨든은 생각했다. 그래서 꼬불꼬불한 런던의 길을 하염없이 돌아가는 행렬의 뒤를 따라 웨

스트민스터 대성당 방향으로 오게 되었다. 성당 부근으로 몰려가던 군중들에 섞여서 이리저리 한참을 떠밀려 다니다 보니 몸도 피곤하고 앞일이 막막했다. 그러다가 자꾸만 흩어지는 생각을 모아, 빗나가 버린 자신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묘안이 없는지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새 날은 어두워져 있었고, 런던에서도 한참을 벗어나 있었다. 강 부근이었고 시골이었다. 으리으리한 별장들이 늘어선 그 동네에서 이런 누추한 모습의 나그네를 반겨 줄 리가 없었다. 날은 그렇게 춥지 않았다. 마일스 헨든은 울타리 그늘에 몸을 쭉 뻗고 쉬면서 생각에 잠겼다. 곧 졸음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축포 소리가 귓전에 맴돌았다. 헨든은 속으로 생각했다.

'새 왕이 즉위하셨구나.'

그리고 곧바로 잠에 곯아떨어졌다. 서른 시간이 넘도록 잠시도 쉬거나 눈을 붙이지 못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헨든은 계속 잠만 잤다.

눈을 떠 보니 사지가 욱신거리고 뻣뻣했다. 배도 고팠다. 강물로 얼굴을 대충 씻은 후 물 한두 모금으로 배를 채웠다.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한 것이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웨스트민스터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배가 고프니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험프리 말로 경을 찾아가서 돈을 조금 빌려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일단은 그 정도로만 생각해 두기로

했다. 아직도 그를 만나려면 멀었으니까 자세한 계획은 시간을 두고 찬찬히 세우기로 했다.

열한 시경 마일스 헨든은 마침내 목적지에 닿았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워낙 행색이 초라한 헨든은 사실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다. 혹시 마음씨 좋은 사람이 있어서, 자기 윗사람을 통해서 험프리 경에게 말을 전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헨든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지 않고 궁전에 직접 들어간다는 생각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얼마 뒤 매맞는 아이가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아이는 그대로 지나치려다가 빙글 몸을 돌려 낯선 사내를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저 뜨내기처럼 보이는 남자가 폐하께서 걱정하시던 그 사람이 아니라면 내 손으로 장을 지지겠다. 물론 전에도 한번 실수한 적이 있긴 하지만. 폐하께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주시니 도리 없는 일이지 뭐. 쓸데없이 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면 기적이 안 일어날지 모른다나? 그건 그렇고, 어디 한번 말을 붙여 봐야지.'

마일스 헨든이 그런 수고를 덜어 주었다. 아까부터 누가 자기를 뒤에서 뚫어져라 쳐다보는지 뒤통수가 따가웠다. 그래서 헨든도 돌아선 것이다. 소년이 자기에게 부쩍 관심을 갖고 있

다는 사실을 표정에서 읽어 낸 헨든은 앞으로 나아가서 먼저 말을 걸었다.

"방금 궁전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사시오?"

"그런데요."

"험프리 말로 경을 아시오?"

소년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맙소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잖아!'

그러고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잘 아는데요."

"이제 살았다! 안에 계시오?"

"네."

소년은 대꾸하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다.

"땅 밑에요."

"미안하지만 내 이름을 그분께 알리고,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전해 줄 수 있겠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리처드 경의 아들 마일스 헨든이 밖에 와 있다고 전해 주시구려. 이 은혜는 꼭 잊지 않으리다."

소년의 얼굴에 실망스러운 빛이 역력히 떠올랐다.

"폐하께서 말씀하신 이름과는 다른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지. 쌍둥이일지도 모르거든. 폐하께 자기 형제 소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야."

소년은 헨든에게 말했다.

"잠시 들어오시지요. 제가 말씀을 전해 드리고 올 테니 저기서 조금 기다리세요."

헨든은 소년이 가리킨 곳으로 갔다. 궁궐 담벽이 움푹하게 파인 곳이었는데, 그 안에 돌의자가 놓여 있었다. 날씨가 궂을 때 보초를 서는 병사들이 몸을 피하는 곳이었다. 막 의자에 앉으려는데 장교 한 사람이 창을 든 병사 몇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장교는 헨든을 발견하자 병사들을 멈춰 세우고는, 헨든에게 오라고 명령했다. 헨든은 명령에 따랐다. 그리고 궁전 안을 수상쩍게 기웃거리는 인물로 의심받아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일이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헨든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장교는 입을 다물라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면서, 부하들에게 헨든의 무기를 압수하고 몸을 철저히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당신들만이라도 뭘 찾아 주구려. 나는 지겹도록 찾았지만 실패한 몸! 그래도 내 사정이 당신들 사정보다 훨씬 딱하다오."

헨든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헨든의 몸에선 다른 이상한 것은 없고 쪽지 하나가 달랑 나왔다. 장교는 그것을 폈다. 헨든은 자기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던 날, 어린 왕이 자기에게 적어 주었던 그 꼬부랑 글씨를 알아보고 피식 웃었다. 하지만 영어로 된 부분을 읽어 나가는 장교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고, 장교의 이야기를 듣는 헨든의 얼굴은 정반대로 하얗게 질렸다.

"왕이라고 우기는 놈이 여기 또 있었구나! 요즘에는 그런 놈들로 미어터진다니까. 이 귀중한 정보를 폐하께 보고드리고 올 테니 저놈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

장교는 헨든을 부하들 손에 맡겨 두고 총총히 사라졌다.

"드디어 나의 불행이 막을 내리는구나. 그깟 쪽지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줄이야! 아, 불쌍한 그 아이는 어떻

게 될까? 하느님만 아시겠지."

허둥지둥 장교가 돌아왔다. 헨든은 사나이답게 자기의 운명을 당당히 맞이하기 위해서 배에다 힘을 꽉 주었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였다. 장교는 부하들에게 헨든을 풀어 주라고 이르고는 빼앗았던 칼도 돌려주었다. 그러더니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헨든은 따라가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내가 죽음의 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면, 나를 농락한 네놈을 목졸라 죽이겠다.'

두 남자는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궁궐 뜰을 지나 궁전의 거대한 입구에 닿았다. 거기서 장교는 또 한 번 절을 하며 헨든을 화려한 제복의 장교에게 인계했다. 그 장교는 헨든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커다란 홀로 안내해 들어갔다. 홀 양 옆에는 화려한 제복을 차려 입은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다(두 사람이 지나가면 허리를 180도 숙이며 절을 했다가 헨든의 초라한 등판이 드러나는 순간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고 저마다 킥킥댔다). 한참을 걸어가니 널찍한 계단이 나왔고, 양 옆에 늘어선 귀족들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자 마침내 커다란 방이 나왔다. 장교는 그 방에 모여 있던 영국에서 내로라 하는 인물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더니, 절을 꾸벅 하면서 헨든에게 모자를 벗으라고 귀띔했다. 헨든은 그렇게 방 한복판에 우

두커니 서 있어야 했다. 모든 사람의 눈이 헨든에게로 쏠렸다. 그 중에는 아주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고, 비웃음을 흘리면서 재미있어하는 사람도 있었다.

마일스 헨든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섯 걸음 앞에 차양이 덮인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어린 왕이 앉아 있었던 것이다. 왕은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리고, 모르긴 몰라도 공작 정도는 되어 보이는 높은 양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직도 앞길이 창창한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는 것도 견디기 힘든 노릇인데, 이렇게 공개적인 모욕까지 받고 보니 헨든의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헨든은 왕이 어서 빨리 일을 처리해 주기만을 기다렸다. 주위에 있는 화려한 옷차림의 관리들은 점점 노골적으로 자기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왕이 고개를 약간 들었고, 그래서 헨든은 그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헨든은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넋이 나간 채 어린 왕의 얼굴만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한참 만에 헨든의 입에서는 겨우 이런 말이 새어 나왔다.

"꿈과 그림자 나라의 임금이 왕위에 올랐다!"

헨든은 여전히 왕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두서 없는 말을 몇 마디 더 내뱉었다. 헨든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화려한 귀족들과 으리으리한 실내 장식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건 진짜다! 참말이지 진짜야. 꿈이 아니라고."

헨든은 다시 왕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꿈이 아닐까? …… 저분이 내가 보살피던 그 거지 아이가 아니라 진짜 영국 왕이란 말인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구나.'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른 헨든은 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의자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마루 위에 놓고 거기에 앉았다.

벌집을 쑤셔 놓은 듯 귀족들이 웅성거렸다. 우락부락한 손 하나가 헨든의 몸에 닿았고, 누군가가 호통을 쳤다.

"일어서지 못할까! 이 버르장머리 없는 광대 같으니라고! 감히 어느 분 앞이라고 의자에 앉아, 앉기를!"

장내가 술렁이는 것을 눈치챈 왕은 손을 뻗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아라. 그건 그 사람의 특권이니까!"

사람들은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며 수그러들었다. 왕의 말이 이어졌다.

"모두들 듣거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가장 믿고 아끼는 마일스 헨든이다. 나를 신체적 위협과 죽음의 위기에서 칼로 구해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왕의 권한으로 이 사람을 기사에 임명했다. 다시 듣거라. 이 사람은 매질당하는 수모로부터 나를 구하기 위해 그 매를 자기가 대신 맞아 주는 크나큰 충성심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켄트 백작에 봉하고, 그 지위에 어울리는 금과 토지를 내리겠다. 또

한 가지, 방금 이 사람이 보여 주었던 행동은 나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앞으로 그의 후손 가운데 장손들은 영국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는 한, 왕 앞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특권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 순간, 오늘 아침 시골에서 달려왔지만 걸음이 늦어지는 바람에 오분 전에야 겨우 이 방에 도착한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지금 방 안에서 오가고 있는 말을 우두커니 서서 들으면서, 왕을 보았다가 헨든을 보았다가, 다시 왕을 보았다가,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휴와 에디스였다. 하지만 새로 백작이 된 헨든은 두 사람을 보지 못했다. 헨든은 아직도 망연자실한 눈초리로 왕을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아, 이럴 수가 있나! 이분이 그 거지 아이라니! 이분이 그 미친 소년이라니! 고작해야 방 일흔 개에 하인 스물일곱 명이 딸렸던 우리 집을 보여 주면서 잘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기를 죽여 놓으려고 했었는데, 그 아이가 이분이라니! 누더기만 걸치고 죽도록 얻어맞기만 하고, 변변한 음식 한번 못 먹고 지냈던 그 아이가 이분이라니! 내가 한번 제대로 잘 키워 보려고 했던 아이가 이분이라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구나!"

마일스 헨든은 그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왕의 손 사이에 묻고는, 충성을 맹세하며 토지와 작위를 내려 주신 데 대해 감사드렸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공손히 옆으로 물러났다. 사람들은 부러운 눈초리로 하나같이

이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때 왕은 문득 휴의 모습을 발견했다. 왕은 벼락같이 호통을 쳤다. 목소리는 노여움에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이 도둑놈의 가면을 벗기고 모든 재산을 몰수해라! 그리고 내가 따로 부를 때까지 옥에 단단히 가두어라."

졸지에 재산을 잃은 휴는 맥없이 끌려 나갔다.

방 한쪽이 술렁거렸다.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옷을 입고, 톰 캔티가 안내인을 따라 사람들의 벽 사이로 걸어오고 있었다. 톰은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왕이 입을 열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난 일은 나도 익히 알고 있고, 그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그대는 진짜 왕다운 너그러움과 관용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다. 어머니와 누이는 찾았는가? 좋아, 앞으로 그들이 편히 살도록 해 주겠다. 네 아버지는 교수형에 처하겠다. 네가 원하고 법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오늘부터 그리스도 자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몸과 마음 모두 부족함이 없는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다.[15] 그리고 여기 이 아이가 평생토록 그 학교의 관리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 아이는 잠시나마 왕으로 있었으니 그에 걸맞는 특권을 누려야 한다. 앞으로 이 아이는 지금 입고 있는 예복을 입게 될 것이고, 이 옷은 이 아이만 입어야 한다. 아무도 흉내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 아

이가 어디를 가든 백성들은 옷을 보고 이 아이가 한때 왕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고 절을 해야 한다. 이 아이는 왕의 보호와 지지를 받고 있으니, 앞으로는 '왕이 보살피는 분'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라."

자부심과 행복감에 젖은 톰 캔티는 일어나서 왕의 손에 입을 맞추고 물러갔다. 그 길로 당장 엄마한테 달려가서 두 누이와 엄마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빠짐없이 들려 주고, 새로 얻은 영광된 자리를 함께 기뻐했다.

34. 정의와 응징

휴 헨든의 자백으로 수수께끼는 모두 풀리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이랬다. 휴의 아내 에디스가 그날 헨든 저택에서 마일스를 모른다고 말한 것은 남편의 우격다짐 때문이었다. 처음에 휴는 마일스 헨든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끝끝내 안다고 고집할 경우, 에디스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에디스는 구차한 목숨 때문에 꺾일 여자가 아니었다. 마일스에게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우겼다. 그러자 휴는 에디스의 목숨이 아니라 마일스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위협했다. 그래서 에디스는 눈물을 삼키며 마일스를 모른 체했던 것이다.

아내를 위협하고 형의 재산과 작위를 도둑질했지만, 휴는 결국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에디스도 마일스도 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려 했다. 에디스가 하려고 했어도 마일

스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휴는 아내를 버리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다가 얼마 뒤에 거기서 죽었다. 켄트 백작이 된 마일스 헨든은 에디스와 결혼을 했다. 백작 부부가 헨든 저택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자 그곳에서는 떠들썩한 잔치판이 벌어졌다.

톰 캔티의 아버지는 영영 소식이 없었다.

왕은 인두질을 당하여 노예로 팔린 농부를 수소문 끝에 찾아낸 다음, 그를 도둑 패거리에서 빼 내어 잘 타이른 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

감옥에 갇혀 있던 그 늙은 법관도 풀어 주었고, 벌금도 없애 주었다. 화형을 당한 침례교도 여인들의 딸에게도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마일스 헨든의 등에 용서 없이 채찍을 후려갈겼던 관리는 엄벌에 처했다.

왕은 또 길 잃은 매를 붙잡았던 청년의 목숨도 살려 주었고, 직조공한테서 옷감을 훔쳤던 여인의 죄도 용서해 주었다. 하지만 왕실의 숲에서 사슴을 잡았던 죄로 갇혀 있던 사내는 한 발 늦어 결국 살리지 못하고 말았다.

돼지를 훔쳤다는 혐의로 붙들린 왕에게 동정심을 나타냈던 판사는 크나큰 보답을 받았다. 그 판사는 나중에 더욱 훌륭한 일을 많이 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래서 왕은 더더욱 흐뭇했다.

왕은 살아 있는 동안 자기가 겪었던 모험담을 즐겨 이야기

했다. 궁전 문에서 병졸로부터 내동댕이쳐지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한밤중에 대성당을 뻔질나게 들락거리는 일꾼들 틈새에 몰래 섞여 들어갔던 이야기, 고백의 탑으로 기어올라가 거기서 다음 날 아침까지 쿨쿨 잠이 들었다가 하마터면 대관식을 그대로 지나쳐 버릴 뻔했던 일……. 그 소중한 교훈을 왕이 자꾸자꾸 이야기한 이유는, 그래야만 그때의 일을 밑거름 삼아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펴겠다던 당초의 결심을 늘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왕은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때마다 그 비참했던 순간은 왕의 기억에 생생히 떠올랐으며, 왕의 가슴은 새로운 연민으로 가득 차곤 했다.

살아 생전에 왕이 가장 아끼던 두 사람은 마일스 헨든과 톰 캔티였다. 두 사람은 왕이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한 사람이기도 했다. 선한 마음씨를 가진 켄트 백작은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앉아 있어도 되는 자기의 특권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전에 왕과 맞닥뜨렸을 때 진짜로 그가 자기와 함께 있던 거지 아이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 본 이후로는, 죽기 전까지 딱 두 번 자기의 특권을 행사했다. 한 번은 메리 여왕의 즉위식 때였고, 또 한 번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식 때였다. 켄트 백작의 후손은 제임스 1세의 즉위식 때 그 특권을 또 누려 보았다. 다시 이 후손의 후손이 그 특권을 행사하기까지는 그로부터 사반 세기가 흘렀고, 그래서 '켄

트 가문의 특권'은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하게 잊혀져 갔다. 그 당시의 켄트 가문 장손이 찰스 1세 앞에 앉아서 자기 집안의 특권을 과시하고 나서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켄트 가문의 마지막 장손은 청교도 혁명 때 왕의 편에서 싸우다가 싸움터에서 죽었고, 가문의 특권은 그의 대에서 끊기고 말았다.

톰 캔티는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오래오래 살았다. 점잖고 신중하면서도 너그러운 노인으로, 죽는 날까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거기에는 톰 캔티가 입고 다니던 옷도 한몫 거들었다. 사람들은 그 옷을 볼 때마다 한때는 그가 왕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기곤 했다. 톰 캔티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면서 끼리끼리 속삭였다.

"모자 벗어! '왕의 보살핌을 받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고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면 톰 캔티는 온화한 미소로 답하곤 했다. 사람들은 톰 캔티의 영광스러웠던 시절을 자랑스러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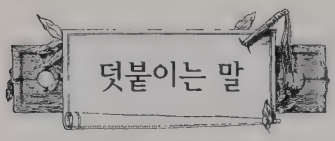
에드워드 6세는 얼마 못 살았다. 하지만 그는 짧은 일생을 값지게 살았다. 한번은 어떤 고위 관리가 왕의 관대한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지금 폐하께서 고치려고 하시는 법은 그다지 혹독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폐하께서 걱정하시듯 그 법 때문에 고통받고 억눌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측은한 눈길로 그 신하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고통받고 억눌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대가 어찌 아는가? 나는 알고, 백성도 알지만, 그대는 몰라."

그 잔인한 시대에도 에드워드 6세가 다스리던 시절만큼은 백성들이 기를 펴고 살았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는 마당에, 그를 위해서라도 백성들이 왜 기를 펴고 살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1)그리스도 자선학교 (38쪽)

그리스도 자선학교는 원래 학교로 세워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 자선학교의 설립 목적은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을 거두어들여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데 있었다. 팀스의《런던의 진기한 풍물》

2)그리스도 자선학교의 복장(38쪽)

이 옷은 런던 시민들의 복장을 흉내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당시 런던에 살던 하인이나 도제는 일반적으로 파란 빛깔의 긴 외투를 입었고, 양말은 대개 노란 것을 신었다. 외투는 몸에 딱 달라붙었지만 소매는 낙낙했다. 외투 밑에는 소매가 없는 속저고리를 입었다. 허리 둘레에는 빨간 가죽띠를 맸다. 목에는 성직자처럼 띠를 두르고, 찻잔만한 크기의 납작한 검은 모자를 머리에 썼다. -팀스의《런던의 진기한 풍물》

3)노포크 공작의 처형을 재촉한 사연(54쪽)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던 왕은 노포크 공작이 자기의 손아귀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하원에 자기의 뜻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에서 왕은 노포크 공작의 처형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문장원 총재를 맡고 있던 노포크 공작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으니 빨리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야 신임

문장원 총재가 곧 있을 왕세자의 책봉식을 주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이었다. -《흄의 영국사》 3권

4)채소 재배(74쪽)

상추, 당근, 무와 그 밖의 뿌리 채소가 영국에서 재배된 것은 헨리 8세의 재위 말년에 이르러서였다. 그 전에는 이런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였고, 그나마도 네덜란드와 플랑드르에서 수입해야 했다. 가령 캐서린 여왕은 상추를 먹고 싶을 경우, 그쪽 나라로 일부러 사람을 보내야만 했다. -《흄의 영국사》 3권

5)노포크 공작의 권리 박탈(81쪽)

상원은 죄인을 심문하지도 않고, 재판이나 증거도 없이 노포크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내려보냈다…… 고분고분한 하원은 왕의 명령을 받아들였고, 왕은 의원들의 결의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도장을 찍어 노포크를 1월 29일(다음 날) 아침에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흄의 영국사》 3권

6)정겨운 잔(100쪽)

정겨운 잔과 그것으로 술을 마시는 특이한 의식의 유래는 영국 역사보다 오래 되었다. 둘 다 덴마크에서 전해진 풍습으로 보인다. 아득한 옛날 옛적부터 영국 사람들은 잔치판에서 정겨운 잔으로 술을 마셨다. 전설에 따르면, 정겨운 잔으로 술을 마시는 의식은 모든 것이 살벌하기 그지없었던 그 옛날에 두 사람이 술을 마실 때 양 손을

모두 써서 술잔을 드는 것이 서로 안전하다고 생각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 손이 비면 축배를 드는 척하면서 그 손으로 칼을 쥐고 상대방을 찌르지나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7)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노포크 공작(109쪽)

헨리 8세가 몇 시간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노포크 공작을 처형하라는 그의 명령은 실행에 옮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왕이 그날 밤 눈을 감았다는 소식이 탑에 전해지자 간수는 명령의 이행을 늦추었다. 추밀원은 추밀원대로, 왕을 새로 추대하는 마당에 영국에서 가장 지위가 높았던 귀족을 죽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노포크 공작은 강권에 의해 아주 부당한 방식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흄의 영국사》 3권

8) 매맞는 아이(153쪽)

제임스 1세와 찰스 2세는 어렸을 때 매맞는 아이를 거느리고 있었다. 매맞는 아이는 왕자가 공부를 게을리하면 대신 매를 맞아야 했다. 여기서 어린 왕자가 매맞는 아이를 두고 있는 것은 순전히 작가가 지어 낸 이야기이다.

9) 허트포드의 됨됨이(161쪽)

어린 왕은 삼촌에게서 한시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허트포드는 대체로 온화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다.

만일 허트포드가 월권 행위를 했다면, 오히려 허트포드를 칭찬해

야 마땅하다. 이 시기에 통과된 법은 엄격하기만 하던 이전의 법들보다 많이 완화되었고 헌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치도 부분적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반역죄의 범위를 에드워드 3세의 법령 25조 이상까지 확대 적용한 모든 법률과 위클리프의 종교개혁 운동 등 종교적 이단을 처벌한 과거의 모든 법률을 비롯하여 법령 6개 조항까지 모두 폐기되었다. 그리고 문제되는 발언을 하더라도, 한 달 이내라면, 단순히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여태까지 영국에서 제정되었던 혹독한 법률 가운데 상당수가 폐기됨으로써, 시민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의 신새벽이 뿌옇게나마 국민들 앞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왕의 포고령이 법과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한 법은 모든 법의 파괴자로 지탄받을 만했는데, 이 법 역시 이 시기에 폐기되었다. -《흄의 영국사》 3권

10) 튀겨 죽이기(167쪽)

헨리 8세 시대의 죄수들은 의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튀겨 죽이는' 벌을 받았다. 이 법은 다음 시대에 폐기되었다. 독일에서는 16세기까지도 화폐 위조범에게 이 끔찍한 형벌을 내렸다. 눈물의 시인 테일러는 1616년 자신이 함부르크에서 눈으로 본 처형 장면을 그리고 있다. 가짜 돈을 만든 위조범에게 내려진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기름에 튀겨서 죽이되, 통 안에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도르레나 밧줄을 겨드랑이에 감아 조금씩 기름 안으로 집어넣는다. 먼저 발, 그 다음에 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산 채로 튀기는 것이다." -J.해먼드 트럼불 박사의《시퍼런 법과 그 진위》

11)유명한 양말 사건(177쪽)

한 여자와 아홉 살 난 그 여자의 딸 아이가 영혼을 악마에게 팔고 양말을 벗어서 폭풍우를 일으켰다는 죄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J.해먼드 트럼불 박사의《시퍼런 법과 그 진위》

12)노예만들기(196쪽)

왕이 너무 어린데다 농부도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자칫하면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좋은 예이다. 이 농부는 이런 법이 있을 거라는 짐작만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리고 왕은 있지도 않은 법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렸다.

이 끔찍한 법은 사실 나중에 이 어린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생겨난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들자고 처음 주장한 사람은 이 어린 왕이 아니었을 것으로 믿는다.

13)절도죄에 대한 형벌(261쪽)

영국의 식민지였던 코네티컷과 뉴헤이븐에서 자기들만의 법률을 만들고 있을 무렵, 12펜스 이상을 훔치는 행위는 영국에서 중벌로 다스렸다. 헨리 1세 이후로 죽 그렇게 해 온 것이다. -J. 해먼드 트럼불 박사의《시퍼런 법과 그 진위》

그렇지만《영국의 부랑자》라고 하는 희한한 고서에는 그 상한선이 13.5펜스로 되어 있다. 즉, 그 가치가 13.5펜스가 넘는 물건을 훔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면하지 못했다.

14) 가혹하고 불합리한 법(307쪽)

절도죄를 소개한 수많은 글을 보면, 이전 같으면 교회에서 다루었을 죄를 법에서 단호히 빼앗아 갔음을 알 수 있다. 말을 훔치거나 매를 훔치거나 직조공으로부터 모직을 훔치는 것은 사형감이었다. 왕의 숲에서 사슴을 훔치거나 나라 밖으로 양을 빼돌리는 짓도 사형에 처해졌다.

에드워드 6세 시대보다 훨씬 뒤에, 노련한 법정변호사 윌리엄 프린은 칼을 쓴 상태에서 두 귀를 잃고 변호사직에서 쫓겨났으며, 3천 파운드의 벌금을 물고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삼 년 뒤 윌리엄 프린은 성직 체계를 비난하는 책자를 간행하여 다시 로드 대주교를 공격했다. 프린은 또 처벌을 받아야 했다. 이번에는 5천 파운드의 벌금을 물리고, 남아 있는 귀를 모조리 자르고 양 볼에 인두로 'S.L.'('선동 비방자'라는 말의 약자)이라는 낙인을 찍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가혹한 판결은 어김없이 실행에 옮겨졌다. -J. 해먼드 트럼불 박사의《시퍼런 법과 그 진위》

15) 그리스도 자선학교의 설립 목적(367쪽)

그리스도 자선학교, 일명 '파란 외투 학교'는 '세계 최고의 자선기관'이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수도원 건물이 들어서 있는 자리를 접수한 헨리 8세는 그것을 런던시 자치체에 넘겨 주었다(런던시 자치체는 여기에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양육원을 세울 작정이었다). 뒤에 에드워드 6세는 낡은 수도원 건물을 잘 수리하여 그 안에 파란 외투 학교, 또

는 그리스도 자선학교라고 불리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 고아나 가난한 집 아이를 보살피고 가르치자는 생각을 가졌다. …… 에드워드는 런던 시장에게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 리들리 주교를 붙들어 놓았다. 그런 다음 왕은 리들리 주교에게 건의나 공사 과정 보고 따위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별한 요구 사항이나 권한이 필요하면 주저 없이 말하라고 했다. 리들리 주교의 주도 아래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그리스도 자선학교가 세워졌다(왕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자선 시설도 여러 개 만들었다). 리들리 주교는 말했다.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 작업을 끝마칠 수 있도록, 이 나이까지 오래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만인의 귀감이 되었던 고결한 리들리 주교의 목숨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이 나라를 천주교 세력으로부터 지켜 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창조주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겼다. -J. 헤니지 제시의《런던의 명사와 명소》

그리스도 자선학교의 대강당에는 진홍빛 모피 예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있는 에드워드 6세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에드워드 6세는 한 손에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꿇어앉은 런던 시장에게 성경 구절이 적힌 종이를 내밀고 있었다. 왕 옆에는 대법관이 옥새를 들고 있었으며, 대법관 옆에는 다른 고위 관리들이 있었다. 리들리 주교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축원을 올리듯이 두 손을 든 자세였다. 한편 런던 부시장은 시장과 함께 양 옆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 그림의 중간 부분을 차지했다. 마

지막으로 그 앞에는, 양 옆으로 한 줄은 남자 아이들, 한 줄은 여자 아이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남자 사감에서 남자 아이까지, 여자 사감에서 여자 아이까지, 모두 자기 위치에서 한 발을 내뻗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왕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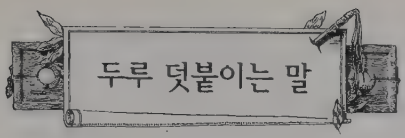
유서 깊은 관습에 따라 그리스도 자선학교는 군주가 런던시 자치체의 환대를 받으며 런던시로 들어올 때 군주를 부르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휴게실과 오르간대가 있는 식당은 한 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로 56미터, 세로 15미터, 높이가 14미터에 이른다. 아홉 개의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고 남쪽 벽은 채색 유리로 덮여 있다. 이 방은 웨스트민스터 강당 다음으로 이 학교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방이다. 여기서 800명의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 공식 만찬 때는 재무상과 그리스도 자선학교 관리 위원들이 발행한 입장권이 있으며 일반인도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 식탁에는 치즈가 든 나무 사발이 놓인다. 가죽으로 된 큰 잔에서 나무 잔으로 맥주가 부어지고, 빵은 커다란 바구니로 날라 온다. 공식 초대 손님이 들어온다. 런던 시장이나 추밀원 의장이 런던탑 옆의 세인트 캐서린 교회에서 자라는 참나무로 만든, 고급 의자에 앉는다. 축가가 울려 퍼지고 오르간 반주가 이어진다. 최상급생 한 명이 연단에 서서 기도문을 읽을 즈음이면 나무 방망이가 세 번 울리고, 장내는 정숙해진다. 기도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된다. 방문객들은 식탁 사이를 오간다. 식사가 끝나면 '마무리 담당'들이 바구니, 사발, 잔, 양초를 챙겨서 질서정연하게 옆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관리위원들에게 이상하리만큼 예의를 갖

추어 절을 한다. 1845년에 빅토리아 여왕과 알버트 왕자도 이 모습을 지켜 보았다.

파란 외투 학교 출신 가운데에서 유명한 사람으로는 《아나크레온 에우리피데스》의 편집자로 알려진 조슈아 반스, 저명한 비평가로 특히 그리스 문학에 조예가 깊은 제레미어 마크랜드, 골동품 수집가 캄든, 스틸링플릿 주교, 소설가 새뮤얼 리처드슨, 아리스토파네스의 번역가로 알려진 토머스 미첼, 런던에서 발행되는 《타임스》지에서 다년간 편집인으로 활약한 토머스 반스, 콜리지, 찰스 램, 리 헌트 등이 있다.

일곱 살 이상, 아홉 살 미만이라야 이 파란 외투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열다섯 살이 넘으면 무조건 학교를 떠나야 하지만 왕이 선발한 장학생과 최상급생은 예외이다. 이 학교의 관리 위원은 약 500명이며, 그 우두머리는 왕과 왕세자이다. 관리 위원이 되려면 500파운드를 기증해야 한다. -팀스의 《런던의 진기한 풍물》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무서운 '코네티컷의 시퍼런 법'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그 법이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짐짓 몸을 부르르 떨곤 한다. 미국에는-그리고 심지어는 영국에도!-이 법을 악의와 무자비함과 비인도의 상징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사실 그 법은 문명 세계에서는 최초로, 잔학한 판결과 깨끗이 등진 법이었다. 250년 전에 제정된 이 시퍼런 법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 대륙의 피로 얼룩진 법이나 시퍼런 법이 마련되기 전 미국에서 170년이 넘도록 시행되던 영국 법에 견주어 볼 때, 인도주의나 관용성에서 그야말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 서 있다.

코네티컷에서는 시퍼런 법이든 그 어떤 법이든 간에 사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의 가지수가 열네 종류를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몸과 마음이 아직 녹슬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기억하겠지만 무려 223가지의 범죄를 사형으로 다스렸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반드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옮긴이의 말

여러분들 중에는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왕자와 거지》는 그런 신나고 감동적인 모험 이야기를 쓴 마크 트웨인의 작품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1835년에 태어나 1910년에 죽은 미국의 대문호입니다. 학교 교육을 그리 많이 받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신문에 글을 발표하면서 뛰어난 글솜씨를 인정 받아 작가가 되었지요. 《왕자와 거지》는 마크 트웨인이 마흔세 살 때 처음 구상하여 2년의 세월을 쏟아 부어 완성한 작품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 소설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이 한 권도 팔리지 않는다고 해도 이 책을 쓰는 동안에 맛본 예술적 행복감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네."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이 한 구절만 보아도 마크 트웨인이 이 작품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작품을 서둘러 완성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천천히 즐기면서 쓰고 있다네. 줄거리를 자네에게 말해 준 적이 있던가? 이 이야기는 1547년 1월 27일 오전 아홉 시부터 시작된다네……." 이 구절에서는 작품에 완전히 몰입되어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에 젖어 있는 작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크 트웨인은 왕자와 거지의 처지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두 사람이 그때까지 누려 온 생활의 무게를 서로가 이해하고 동

정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 트웨인은 주인공을 선택하느라 상당히 고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열다섯 살 난 영국의 에드워드 7세를 주인공으로 생각했지만 곧 그 생각을 포기하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이런저런 사람과 시대를 찾아보던 끝에 드디어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6세를 주인공으로 골랐다고 합니다. 16세기 영국이라는 먼 과거가 배경인 이 책은 영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그날 그날 쓴 원고를 매일 밤 부인에게 들려 주었는데, 부인은 왕자와 거지의 기구한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늘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두 딸 수지와 클라라도 어머니 못지 않은 《왕자와 거지》의 열성적인 독자였습니다. 마침내 《왕자와 거지》가 완성되자 마크 트웨인은 책머리에 '예의 바르고 상냥한 두 어린이 수지와 클라라에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책을 바친다'라고 적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책을 받은 수지와 클라라의 기분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크 트웨인은 예수의 전기를 쓰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글투가 종교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너무 익살스러운 구석이 많다는 점을 깨닫고 쓰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갖은 핍박과 오해를 한 몸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아는 사람이라면, 고귀한 왕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참된 벗을 찾다가 말 못할 고생을 하게 되는 왕자의 모습에서 어떤 거룩함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단히 뿌리를 박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사실 한 알의 씨앗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개골창에 떨

어질지 으리으리한 궁궐에 떨어질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정해진 운명이라고 애써 설명합니다. 특히 남보다 가진 것이 많고 그 가진 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나 민족은 원래 게을러터져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마크 트웨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사람의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과,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만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남의 아픔이 남만의 아픔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 남이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가난한 이웃을, 몸이 불편한 친구를, 못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가 따뜻하게 보살펴야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백여 년 전에 씌어진 이 책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그 감동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도 재수만 좋으면 왕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나도 운이 나빴으면 거지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만이 지혜는 아닙니다. 왜 남이 자기를 앞서지 못하는지 돌아볼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희재

2444906137730693
사공주니아(20%IX)행사_1000
9
8,000 ₩99990
사공사_아리아(내비핸드)
2005.04.06